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수협의회

##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 3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 대

한국학센터

**2018**

“이 학술지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  
사업단)을 통해 해외 한국학중핵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AKS-2015-OLU-2250007)”

###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3**

#### **편집대표**

백태현 (비슈케크 인문대)

#### **책임편집**

장호종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 **편집위원**

박 넬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 넬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손영훈 (한국외국어대)

#### **편집간사**

김 울리아나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보란타예바 파리자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Korean Studies in Central Asia: Research and Education vol. 3***  
**Almaty: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KazUIR&WL, 2018, 262 p.**

**ISSN 2522-1434**

---

발 행 일: 2018년 6월 20일

발행기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발 행 처: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주 소: Tole bi str. 84,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Almaty, Kazakhstan

---

## 목차

(R 은 러시아어. 논문은 학술대회 발표순. 편람은 러시아어 알파벳순.)  
\* 이하 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b>1. 백태현.</b> 키르기스스탄 한국학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 .....	1
<b>2. 장호종.</b>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현황과 전망 .....	26
<b>3. 이근중.</b> 카자흐스탄 경제시스템과 국가/기업 문화 차이 분석의 국제 경영 .....	42
<b>4. 김이연.</b> 해외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통합 피드백의 활용에 대한 논의 .....	52
<b>5. 박 넬리, 마黠소바 심바트.</b>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R) .....	72
<b>6. 명 드미트리.</b> 한반도의 위기와 기회 (R) .....	82
<b>7. 오르모노바 아이자르킨.</b> 한국 외교정책의 목표와 목적 (R) .....	92
<b>8. 젯피소프 사켄.</b> 한국의 인구 변동 (E) .....	97
<b>9. 한 벨리.</b> 한국어 담화에서의 사회적 상하관계 (R) .....	121
<b>10. 정 이리나.</b> 한국인의 민족성 기반으로서의 '떡' 문화 (R) .....	134
<b>11. 명 스베틀라나.</b> 한국어 교육에서 '동물원'이라는 화제의 시각화 교수법 (R) .....	142
<b>12. 신데츠카야 예브게니야.</b> 학습자의 개별적인 이해도 특성에 따른 교수법 (R) .....	153
<b>13. 김 아나스타샤, 사케노바 아이누르.</b> 러시아어와 카자흐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간접 현상 (R) .....	158

<한국학편람>

비슈케크 인문대.....	184
카자흐 국립대.....	191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194
크질오르다 국립대.....	203
키르기스-러시아 슬라브대 .....	206
키르기스-한국대학 .....	208
타지크 국립외대.....	215
투르크멘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 .....	219
타슈켄트 국립동방대 (R) .....	222
타슈켄트 국립니자미사범대 (R) .....	227
사마르칸트 국립외대 (R) .....	236
<참고> 한국어-러시아어 인명 지명의 상호표기 .....	241
집필진 (R) .....	251
집필진.....	253
목차 (R) .....	255

## 키르기스스탄 한국학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

백태현  
비슈케크 인문대

**개요:** 한국학 초보단계지역에 해당하는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한국학교육 및 연구 분야 모두 그렇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지역 실정에 맞는 대학의 발전적인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체계를 갖추어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의 정착이라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기되는 제반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이다. 이런 점에서 현 키르기스스탄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 지역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의 목표는 양적인 발전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에 있다. 이제는 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플랜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신진한국학 전문가, 교육 네트워크의 구축

**Abstract:** Korean Studies in Kyrgyzstan, which is in the beginning stage of Korean Studies, is very poor. It is all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and education. Therefore, it is not easy to develop a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education system suitable for Kyrgyzstan. Especially, all of the problems raised for establishing the education system as 'settlement of Korean studies as regional studies' are quite complex.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examine the problems of current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in Kyrgyzstan. The goal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education in Kyrgyzstan is not quantitative development but qualitative development. Now, we must continue to apply and implement future-oriented plans for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various educational fields including universities

**Keywords:** Korean Language and Korean Studies Education, Korean Studies as Area Studies, Next-Generation Korean Studies Professionals, Building Education Network

### 1. 머리말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한국어 및 한국학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때는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부터이다. 한국학교육의 후발주자이며 열세지역이었던 이 지역의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은 그동안 양적, 질적으

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sup>1</sup> 이것은 근래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한류 열풍(Korean wave fever)의 영향도 있었지만,<sup>2</sup> 이 지역의 다양한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기관이 열악한 교육 여건 가운데에서도 부단히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기도 하다.

소련 해체 이후 초창기 키르기스스탄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그 발전적 토양을 마련한 주된 교육기관은 역시 키르기스스탄 현지의 대학이었다. 키르기스스탄은 독립 이후 한국,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같은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1990년대 초반 이후 여러 대학에서 동양학, 혹은 국제관계학 학부에 소속된 한국어(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는 대학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대학에서 배출된 우수한 한국어 인력들은 이후 키르기스스탄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현지 대학의 한국어교육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활성화되면서, 한국 정부도 한국어 보급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보다는 늦었지만 2001년에 ‘비쉬켁한국교육원’이 개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13년에는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2개의 세종학당이 개원하여 역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 분야에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비쉬켁한국교육원은 현재 키르기스스탄 한국어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개원한 세종학당도 비쉬켁한국교육원과 비슷한 성격의 교육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향후 현지의 한국학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과 비쉬켁한국교육원, 세종학당이 상호 긴밀한 보완관계를 이를 때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그런데 그동안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던 여러 대학의 한국학교육 여건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자생력’이 취약한 현 키르기스스탄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현실 내에서 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근래 한국 정부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학의 보급 및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up>1</sup> Baek Tae-hyeon(2010),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Asia Its Future Prospects”, KOREAN STUDIES ABROA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논문 참조

<sup>2</sup> 중앙아시아 지역에 강하게 불고 있는 한류 열풍과 한국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백태현(2016), “중앙아시아 한류와 한국학교육의 다양화 방안”,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 카자흐스탄.

본 글은 키르기스스탄의 대학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 대학 한국학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그 발전 방안 마련이 일차적 목표이다.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 키르기스스탄 대학교육현장에 반듯하게 자리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같은 궁극적 과제는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상호 협력하며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2.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교육 현황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키르기스스탄 지역에서 전개된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현황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문 교육 기관인 대학의 한국어(학)과와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통해 행해지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이다. 다른 하나는 대학이 아닌 일반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이다.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의 목표는 지역학으로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및 연구 시스템의 확립에 있다. 이에 비해 일반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의 목표는 초급한국어 과정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의 보급과 확산, 그리고 다양한 한국문화교육을 통한 한국문화의 대중화에 있다. 대학 한국학교육의 주체는 현지의 해당 대학이며, 그 중에서도 한국어(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한국어교육기관의 교육주체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일반 한국어 교육기관은 한국정부에서 설립한 한국교육원과 세종학당이 있고<sup>3</sup>, 그리고 현지의 쇠풀라(초중고등학교)와 사설 한국어교육센터 등이 있다.

우선 키르기스스탄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의 양 축을 이루고 있는 대학과 비쉬켁한국교육원 및 세종학당의 교육현황을 고찰하되, 키르기스스탄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의 발전적 토대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그 역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 2.1.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현황

아래 <표 1>과 <표 2>는 최근 2016년~2018 학년도에 이르는 키르기스스탄 주요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현황을 도표화 한 것이다. 대학은 크게 한국어(학) 전공 대학과 비전공 대학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한국어 및 한국학이 개설된 대학으로는 학제에 따라 종합대학교(University),

---

<sup>3</sup> 2015년 후반기에 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과 비쉬켁한국교육원이 협력하여 키르기즈 국립대학교 내에 ‘한국센터’를 개원하였는데, 기존의 한국교육원 및 세종학당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일반 한국어교육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카데미(Academy: 특성화 대학), 단과대학(Institute), 칼리지(College, 한국의 전문대학에 비견)로 구분이 된다.<sup>4</sup>

표 1. 키르기스스탄 대학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현황(2017년 6월)

번 호	전공 구분	대학명	개설 년도	학생수(명)			교원수(명)		
				전공	비전공	소계	한국 인	현지 인	소 계
1	(학)과	비슈캐크 인문대	1991	93	29 <sup>5</sup>	122	3	4	7
2		키르기즈국립대	1996	49	30 <sup>6</sup>	79	3	1 <sup>7</sup>	4
3		한국어 오쉬 국립대	1999	70	- <sup>8</sup>	24	1	1 <sup>9</sup>	2
4		아라바 동양대	1999	84	-	84	6	1	7
5		예바대 언어문화	2010	20	23 <sup>10</sup>	43	2	0	2
6		나른주립대	2006	7	27	34	1	1	2
7		키르기즈-한국대 (College)	2012	176	240	416	7	5	12
8	비 전공 (제2외)	아라바예바 경제경영대	1999	-	28	28	2	1 <sup>11</sup>	3

<sup>4</sup> 아카데미(Academy)로는 법률대와 체육대가 있고, 단과대학(Institute)으로는 아라바예바대 소속의 언어문화대과 경제경영대, 오쉬 기술대, 중앙아시아-한국대학(2017년 개교), Keiin International Institute(2017년 개교)가 있고, 칼리지(College)로는 키르기즈-한국대(Kyrgyz Korean College), Kyrgyz International Universal College가 있다.

<sup>5</sup> 비슈캐크 인문대의 경우 일본학과 2~4학년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한국학과 학생들은 일본어를 제외국어로 선택을 하지만 교육 효과는 별로 없는 편이다.

<sup>6</sup> 키르기즈 국립대는 국제관계학 전공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주당 한국어 수업 시간이 10시간이다.

<sup>7</sup> 키르기즈 국립대의 현지인 교수(TOPIK 3급)는 전공 학과가 아닌 제2외어로서의 한국어 강좌만 담당을 하였다

<sup>8</sup> 오쉬 국립대는 국제교류학과는 2학년까지, 지역학과는 3학년까지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이수하고 있다.

<sup>9</sup> 오쉬 국립대의 현지인 교수도 TOPIK 3급이어서 학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국인 동료교수는 그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sup>10</sup> 언어문화대는 영어전공 학생들이 2학년까지 2외국어로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다.

<sup>11</sup> 경제경영대는 2017~2018학년도부터 현지인 교수(고려인)가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향후 한국어 수업의 변화, 대학 행정 및 현지 교직원과의 언어소통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한국인 동료 교수는 예상한 바 있다.

9	국어)	슬라비안스키대	1999	-	37	37	-	2	2
10		법률아카데미	2006	-	25	25	2	-	2
11		오쉬 기술대	2008	-	100 <sup>12</sup>	100	3	1	3
12		국제 슬라비안스키 대	2012	-	13 <sup>13</sup>	13	1	1	2
13		키르기즈 공대	2014	-	50	50	1	-	1
14		체육대	2011	-	28	28	1	-	1
15		이스쿨 국립대	2016	-	20	20	2 <sup>14</sup>	-	2
합 계			<b>499</b>	<b>650</b>	<b>1,149</b>	<b>34</b>	<b>18</b>	<b>52</b>	

표 2. 키르기스스탄 대학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현황(2018년 6월)

번호	전공 구분	대학명	개설 년도	학생수(명)			교원수(명)		
				전공	비전공	소계	한국인	현지인	계
1	한국어 (학)과	비슈케크인문대	1991	93	30	123	3	4	7
2		키르기즈국립대	1996	69	-	69	2	2	4
3		오쉬 국립대 <sup>15</sup>	1999	70	-	24	1	1	2
4		아라바 동양대	1999	119	-	84	6	3 <sup>16</sup>	7
5		예바대 언어문화	2010	30	18	38	2	-	2

<sup>12</sup> 오쉬 기술대는 2008년 9월에 국제관계학과의 부전공 과목으로 한국어를 개설하여 주 2회씩 가르쳐 오다가 2014년 키르기스스탄 교육부의 구조조정으로 국제관계학과가 오쉬 국립대의 국제관계학과로 통합되었다. 그 후 2015년부터 건축학과, 디자인학과, 컴퓨터 언어학과 1학년 학생들 중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 40여명이 교양과목으로 주 2회씩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sup>13</sup> 국제 슬라비안스키대는 러시아 대학의 분교이다. 개교 초기 대학 당국은 한국어 강좌 개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대학 당국의 무관심으로 2년 전부터 한국어 수강생을 선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제 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수는 3학년 12명, 4학년 8명이다. 한국어 전용 강의실 부재와 수강생의 출석률 저조로 인해 사실상 수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sup>14</sup> 이스쿨 국립대는 가장 최근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지방 소재 대학이다.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교수 요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국어 강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2016년 2월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단원이 1명 파견되어 일주일에 4일 하루 2시간(120분)씩 초급과 1급반을 편성하여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년 2회 개설되는 강좌 시작 초기에는 한 반에 약 20명의 수강생으로 시작을 하지만 수료생은 보통 7~8명 정도이다. 2016년 9월에는 한 명의 교수(선교사)가 추가되어 일주일에 3일 90분씩 초급반을 추가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sup>15</sup> 오쉬국립대 현황은 2017년 자료임.

<sup>16</sup> 2017년도에 비해 현지인 교수가 2명 더 늘었다.

6	비전공 (제2외 국어)	나른주립대 <sup>17</sup>	2006	7	27	34	1	1	2
7		중앙아시아 -한국대	2017	8	-	8	1	1	2
8		키르기즈-한국대 (College)	2012	190	250	440	7	5	12
9		아라바예바 경제경 영대	1999	-	28	28	2	1	3
10		슬라비안스카대	1999	-	35	35	1	1	2
11		법률아카데미	2006	-	28	25	2	-	2
12		오쉬 기술대	2008	-	61 <sup>18</sup>	100	3	1	3
13		이스킬국립대 <sup>19</sup>	2016	-	20	29	1	-	2
14		농업대	2017	-	24	50	2	-	2
15		Keiin International Institute	2017	-	60	60	3	-	3
16		Kyrgyz International Universal College	2016	-	98	20	3	1	4
합 계			586	679	1,265	35	21	56	

위 두 표를 통해 나타나는 키르기스스탄 주요 대학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현황의 변화상과 그 문제점을 한국어(학)과 개설된 대학과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가 개설된 대학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대학으로는 비슈케크 인문대학교, 키르기즈 국립대학교, 아라바예바대학교 3개 대학이 있고, 최근에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앙아시아-한국대학(Korean Institute of Central Asia)이 2017년에 개교를 하였다. 이 주요 대학의 한국어(학) 전공 전체 학생수는 큰 변동이 없는 편이다. 사실 대학 한국어(학) 전공학과의 신입생 정원은 키르기스스탄 교육부의 규제를 받는다. 전체적인 한국어(학) 전공 학생수 증감의 주요 원인은 키르기스스탄 교육부의 정원 규제, 대학 학과 자체의 경쟁력에 따른 증감 현상, 대학 입학 후의 탈락율 등이다. 한국어(학) 전공 학생수는 상기 원인에 따라 변동을 보일 수 있지만, 주요 대학의 경우 학과의 학생수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근래 주요 대학의 한국어(학)과 신입생수는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6~2017학년도의 경우, 아라바예바대 한국어과 신입생은 42명, 비슈케크 인문대 29명, 키르기즈 국

<sup>17</sup> 나른 주립대 현황은 2017년도 자료임.

<sup>18</sup> 오쉬기술대의 지역사회학과, 컴퓨터언어학과, 비즈니스학과, 구조학과 학생들이 한국어를 교양과목으로 배우고 있음.

<sup>19</sup> 이스킬국립대 정보는 2107년도 자료임

립대 26명이었는데, 아라바예바대와 키르기즈 국립대의 경우 신입생이 이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경우이다. 그리고 2017~2018년도에는 비쉬很差 인문대 한국학과가 48명, 키르기즈 국립대가 30명, 아라바예바대가 43명으로 신입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한국(어)학과의 입학 정원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걱정거리도 늘어난다. 가장 큰 문제는 신입 교수요원을 추가로 선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둘째, 한국어(학) 전공학과가 개설된 대학 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실 키르기스스탄의 현실적 여건에 비해 대학의 한국어(학)과 개설은 다소 많은 실정이었다. 물론 대학 자체의 현실적 필요성 및 ‘한류 열풍’에 따른 효과, 한국 측의 요구<sup>20</sup>에 의해 경쟁적으로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어(학)과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한국인 교수와 현지인 교수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그리고 대학 자체에서 학과를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 학과 시스템 구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개인적 학습능력도 중요하지만 학과의 전문적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결국 학과 유지 자체가 힘들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21</sup> 2007년 한국인 선교사가 주도적으로 학과를 개설한 오쉬 사회대는 지방 도시인 오쉬에서 비교적 학과 운영이 잘 된 경우에 해당되었지만, 그 선교사가 오쉬를 떠난 이후 결국 학과가 폐지되고 말았다. 그 외 2010년에 개설된 아라바예바대학교 언어문화대의 경우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이다.<sup>22</sup>

한편,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소재 대학에 설립된 한국어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제2의 도시인 오쉬에 1999년에 설립된 오쉬 국립대 한국어과는 지방 소재 학과로서 한 때 재학생 수가 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학과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었다. 그러나 2014년에 학과 재학생 수가 24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2017년에는 학과 재학생 수가 70명으로 늘어났지만 한국인 교수 1명과 현지인 교수 1명이 학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역부족이

<sup>20</sup> 키르기스스탄에 파견된 한국인 선교사들이 개별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어과를 개설하거나 제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

<sup>21</sup> 백태현(2014), “키르기즈공화국의 한국학 교육 현황과 그 과제”, <2014년 해외 한국학 파견교수 초청 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120쪽.

<sup>22</sup> 아라바예바 대학교에는 1999년 본교 동양대학 내에 개설된 한국어과가 있다. 그런데 ‘언어문화대학’의 경우는 아라바예바대 소속이지만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언어문화대학’(대학 소속의 학부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 Institute로 칭함) 내에 본교 소속의 한국어과와는 다른 형태의 한국어과가 개설된 경우이다. 그리고 아라바예바대 내에는 또 다른 Institute로서 제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경제경영대학’도 있었지만, 최근에 한국어 강조가 폐지되었다.

다. 그리고 2006년에 설립된 나른 주립대학교 한국어과의 경우는 그 상황이 더 열악하다. 한국어과 자체가 지니는 어려움도 있지만 실크로드 상에 위치한 소규모 산악도시(해발 2,500m에 위치)라는 지리적 한계는 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편이다. 2017년 당시 한국어과 전체 학생수는 1학년과 2학년을 합쳐 7명이었다.<sup>23</sup>

셋째, 한국어를 전공으로 개설한 대학 중에는 키르기즈-한국대(Kyrgyz Korean College)가 있다. 2012년에 개교한 키르기즈-한국대학은 중학교(9학년)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고등-전문대 통합과정’과 고등학교(11학년)을 졸업하고 입학하는 ‘전문대 과정’ 2 트렉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2 트렉 모두 한국어과와 한국어통역과가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어과와 한국어통역과를 제외한 타과의 모든 학생들도 부전공으로 한국어를 이수하고 있다. 근래 ‘고등-전문대 통합과정’의 한국어과와 한국어통번역과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같은 현상은 ‘고등-전문대 통합과정’이 일종의 한국의 ‘외국어고등학교’와 비견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좀 더 이른 시기에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일면 커리지의 ‘고등-전문대 통합과정’은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 발전을 위한 고등학교와 대학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2018년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8개 대학에 제2외국어나 부전공, 기타 교양과목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1999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수도권과 지방에 이르는 적정 수준의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 물론 각 대학별로 대학 당국의 의지나 기타 제반 교육여건에 따라 한국어 교육 수준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sup>24</sup> 또한 소수의 교수 요원으로 한국어 강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교육성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제2외국어나 부전공, 혹은 교양과목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경우 학점 취득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구분이 가능하다. 하나는 한국어 강좌가 대학의 정규 교과목으로 편제되어 반드시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학점 취득과는 관계가 없는 한국어 수강 희망자를 모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과후 수업’에

<sup>23</sup> 2017년 현재 나른주립대 한국어과 학생 현황은 1학년 30명, 2학년 30명, 3학년 10명, 4학년 0명(정책 변경으로 한국어교육 배제)이다.

<sup>24</sup> 한국학 강좌가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으로는 오쉬 기술대가 있다. 이 대학의 경우 2013년 대학 내에 개원된 ‘오쉬세종학당’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이에 비하여 2010년 한 명의 한국인 교수(선교사)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던 탈라스 주 소재 탈라스대의 경우는 지속적인 한국어 교수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강좌가 없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근래에는 국제슬라비안스끼 대, 체육대, 키르기즈 공대, 아라바바예바대의 경제경영대 등에서 한국어 강좌가 폐지되었다.

해당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개강 초기 수강생들의 열의와는 달리 시간이 흘러갈수록 출석률이 떨어져 강좌를 끝마칠 시점에는 그 수료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사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지속적으로 개설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그럴 필요성도 없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수도권 3~4개 대학과 지방 거점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학)과를 전문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비록 전공학과는 아닐지라도 대학 당국의 의지나 현실적 필요성이 없다면 대학 내에 한국어 강좌 개설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단순 한국어 강좌의 보급 및 확대라는 차원을 넘어 향후 키르기스스탄 각 대학 내에 동아시아학의 중요 구성요소로서의 한국학이 자리 잡아 가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이다.

다섯째, 키르기스스탄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전문적 교수요원의 부족현상이다. 이 문제는 한국인 교수와 현지인 교수 모두가 해당된다. 특히 상기 <표 1>과 <표 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키르기즈 현지인 교수의 충원은 계속 담보상태에 놓여 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은 현지인 교수의 수가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수의 질적인 하향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능하고 경험이 있는 현지인 교수는 많지가 않다. 자생력이 허약한 키르기스스탄 현지 대학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우수한 키르기즈 현지인 교수인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시스템을 전문화할 방안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sup>25</sup>

---

<sup>25</sup>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 교육기관 교수요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백태현, 미나라 쉐리쿨로바(2013),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발전 방안”, <203년도 한국-중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한국-중앙아시아 경제, 문화교류 협력방안” 발표논문집>, 비슈케크 인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비슈케크, 키르기즈공화국, 131~132쪽.

## 2.2. 주요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현황

### (1) 비슈케크 인문대학교 한국학과 현황<sup>26</sup>

비슈케크 인문대학교 한국학과는 1992년에 ‘동양학 및 국제관계학부’ 소속의 한국어 전공으로 개설 되었고, 2004년 9월에는 동양학 및 국제관계학부 내의 정식 한국학과로 승격이 되었다. 키르기스스탄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개설된 한국학과는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을 선도해 온 대표적인 학과이다. 그동안 상당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우수한 학과의 졸업생 중에 한국정부초청장학생(대학원 과정)에 선발되어 한국의 유수 대학 석·박사과정을 마친 이들도 80여 명에 이른다. 현재 상당수의 졸업생들이 한국대사관, 한국교육원, KOICA사무소 등의 국가기관과 한국 기업체, 그리고 현지의 외교부 등 주요 기관, 기업체 등에 진출해 있다. 또한 이들은 키르기스스탄의 다양한 교육기관에 한국어 및 한국학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학과는 한국어를 포함한 한국학을 가르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학과 중의 하나이다. 한국학과는 학부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지만 키르기스스탄의 교육제도에 따른 교육시스템은 한국학과와 학부가 상호 유기적 보완관계를 이루며 운영이 된다. 따라서 한국학과는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만 세부 전공에 따라 여타 한국학 과목도 이수해야 하는, 마치 한국의 학부와도 같은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같은 키르기스스탄의 교육 시스템은 구소련 교육제도를 아직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형태이다. 한국학과 내에는 다시 세부 전공으로 동양 및 아프리카학, 언어학, 국제관계학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한국학과 학생들은 각기 그 세부전공에 따라 한국학과 자체 강좌 및 동양학 및 국제학부 소속의 타과(역사학과, 국제관계학과) 지원 강좌를 이수하여야 한다.

---

<sup>26</sup> 백태현(2108), “키르기스스탄의 한국문화 교육 현황과 과제”, <제 27 회 한국어문국제학술회의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문화 교육 및 연구의 재검토” 발표논문집>,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 한국학센터·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한국어문화 미래인재육성사업단·한국어문화국제학술포럼, 카자흐스탄, 참조.

아래 <표 3>은 2017~2018년도 한국학과 세부전공별 학생 현황이다.

표 3. 2017~2018학년도 한국학과 세부전공별 학생 현황

세부 전공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명)
동양 및 아프리카학	11	13	-	-	24
언어학	12	-	11	9	32
국제관계학	17	12	8	5	42
합 계	40	25	19	14	98

한국학과의 학생들은 세부전공별로 소속 학부에서 정한 소정의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한국과 같이 다양한 전공 학과목과 교양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수강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량권도 없다. 한국학과의 모든 학생은 기본적 수강해야 하는 공통 과목은 한국어이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주일에 5빠라(1빠라는 80분 연강 수업)의 한국어강좌를 수강한다. 한국학과의 한국어강좌는 통상 한국인 교수와 현지인 교수가 분담하여 진행을 한다. 1~3학년의 경우 현지인 교수가 3빠라, 한국인 교수가 2빠라를 맡는다. 그리고 4학년의 경우는 학과의 여건상 한국인 교수가 10빠라 전체 수업 맡아서 진행한다. 현지인 교수가 4학년 한국어 과목을 담당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 외 한국학과 교수가 담당해야 할 강좌로는 학과 내 ‘언어학’ 세부전공에 해당하는 모든 강좌와 ‘동양 및 아프리카학’ 세부전공의 한국 관련 일부의 강좌를 전담한다. 언어학 관련 강좌는 3~4학년 때 집중적으로 배정이 된다. 그리고 학부 내 역사학과의 강좌 중 한국 관련 강좌를 한국학과가 맡는 경우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양학 및 국제학부 소속 대학원(한국언어전공, 한국역사전공)의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강좌도 한국학과가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학과 교수가 담당해야 할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강좌는 꽤 많은 편이다.

아래 <표 4>와 <표 5>는 2017~2018학년도 1~2학기 한국학과의 ‘한국문화’ 관련 개설 강좌 현황이다.

표 4. 2017~2018학년도 1학기 한국학과 ‘한국문화’ 관련 개설 강좌 현황

강좌명	담당 교수	주당 수업 시간	세부전공 (대상 학생)	학점	필수 /선택
한국 역사	한국인	2	동양 및 아프리카학 (2,3학년)	1	필수
필수선택과목	현지인	4	언어학(3,4학년)	2	필수
문화관계기초 이론	현지인	2	언어학(3학년)	1	필수
고어 및 고문화	현지인	2	언어학(3학년)	1	필수
필수선택과목 (한국현대사)	한국인	4	언어학(4학년)	2	필수
한국현대문화	한국인	4	언어학(4학년)	2	필수
비교언어학	현지인	2	언어학(4학년)	1	필수

표 5. 2017~2018학년도 2학기 한국학과 ‘한국문화’ 관련 개설 강좌 현황

강좌명	담당 교수	주당 수업 시간	세부전공 (대상 학생)	학점	필수 /선택
한국 역사	한국인	2	동양 및 아프리카학(2,3학년)	1	필수
필수선택과목	현지인	4	언어학(3,4학년)	2	필수
문화관계기초 이론	현지인	2	언어학(3학년)	1	필수
고어 및 고문화	현지인	2	언어학(3학년)	1	필수
필수선택과목 (한국현대사)	한국인	4	언어학(4학년)	2	필수
한국현대문화	한국인	4	언어학(4학년)	2	필수
비교언어학	현지인	2	언어학(4학년)	1	필수

## (2) 키르기즈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현황<sup>27</sup>

1996년에 개설된 키르기즈 국립대 한국어과는 비쉬켁 인문대 한국학과와 더불어 한 때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의 중심축이었다. 한 때 학과 학생이 70~80명에 이르기도 했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 별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어과에 대한 학교 당국의 관심 저하도 문제로 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부족한 교수진 등 학과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어과는 학과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한국인 교수가 충원되면서 향후 학과의 교육 여건은 더 좋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표 6>은 최근 키르기즈 국립대 한국어과의 학생 현황이다.

표 6. 키르기즈 국립대 한국어과 학생수(2013~2018학년도)

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계(명)	비고
2013	14	9	5	4	4	34	
2014	13	13	10	5	-	41	
2017	26	8	7	8	-	49	4년제
2018	30	26	6	7	-	69	

현재 학국어과의 교수진은 총 4명이며, 그 중에 2명은 현지인 교수이다. 전년도의 교수진은 역시 4명이었지만 그 중 현지인 교수는 1명이었다. 이전보다 현지인 교수가 1명 늘어나기는 했지만, 한편 한국인 교수가 1명 줄어든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 <표 7>과 <표 8>은 2016~2018학년도 한국어과 개설 강좌 현황이다.

표 7. 2016~2017학년도 키르기즈 국립대 한국어과 개설 강좌 현황

교과목	담당 교수	주당 수업시간	수강생수	학점	필수 /선택
한국어 1-1	한국인	10	10	2	필수
한국어 1-2	현지인	10	16	2	필수
한국어 2	한국인	10	8	2	필수
한국어 3	한국인	10	7	2	필수
한국어 4	한국인	10	8	2	필수

<sup>27</sup> 백태현(2018) 위의 글, 참조.

한국어 어휘론, 방언론, 교수법	한국인	6	8	2	필수
한국어 1(부전공)	현지인	10	15	2	필수
한국어 1(부전공)	현지인	10	15	2	필수

표 8. 2017~2018학년도 한국어과 개설 강좌 현황

학년/교과목	담당 교수	주당 수업시간	수강생수	학점	필수 /선택
1학년 A반 (한국어)	한국인	10	30	2	필수
1학년 B반 (한국어)	현지인	10		2	필수
2학년 A반 (한국어)	한국인	10	20	2	필수
2학년 B반 (한국어)	현지인	10		2	필수
3학년 한국어	한국인	10	6	2	필수
4학년 한국어	한국인	10	7	2	필수

(3) 아라바예바대학교 동양어학부 한국어과 현황<sup>28</sup>

아라바예바대학교 동양어학부 한국어과는 1999년에 개설이 되어, 지속적으로 학과시스템 구축을 이루어 온 경우에 해당한다. 아라바예바대학은 대학 당국의 한국어과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에 속한다. 2013년에는 대학 내에 ‘비쉬켁세종학당’이 개원되어 학과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되었다.

다음 <표 9>는 최근 아라바예바대학교 한국어과의 학생 현황이다.

표 9. 아라바예바대 한국어과 학생 현황(2014, 2017, 2018학년도)

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계	비고
2014	17	7	16	21	16	77	5년제
2017	42	22	13	4	-	84	4년제
2018	43	47	16	13		119	

<sup>28</sup> 백태현(2018) 위의 글, 참조.

한국어과 전체 학생 수는 119명이며, 교수진은 한국인 6명과 현지인 3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년도 한국어과의 교수현황은 한국인 교수 6명과 현지인 교수 1명이 재직하고 있었는데, 올해 현지인 교수가 2명 더 충원되어 학과의 교육 여건이 더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라바예바대학교 동양어학부 내에는 지역학과, 언어학과, 국제관계학과, 통번역학과, 신방과가 있다. 그 학과 소속 학생들 중에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1~4학년 모두 주당 8시간의 한국어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 다만 언어학과와 통번역학과 소속의 한국어 전공 학생들은 3~4학년 때 추가로 주당 5시간의 한국어 강좌를 더 이수해야 한다. 한국어과의 교육시스템이 동양어학부의 내의 전체적인 교육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며 편제되어 있지만 다른 대학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학과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바람직한 학과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독립된 학과 운영시스템이 요구되는 편이다. 현재 동양어학부나 한국어과 내에서 진행되는 별도의 ‘한국문화’ 및 ‘한국학’ 관련 강좌는 없고, 기준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강좌 내에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한문 등의 내용을 보충하여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 2.3. 비쉬켁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교육 현황<sup>29</sup>

2011년부터 2017년에 이르는 비쉬켁한국교육원의 한국어교육 종합현황은 다음 <표 10>을 통해 알 수 있다.

---

<sup>29</sup> 백태현(2017), “키르기스스탄 한국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2017년도 한국학 국제학술회의-중·동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학 교육·연구 동향- 발표논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참조.

표 10. 2011~2017년 비쉬켁한국교육원 한국어교육 종합 현황

구분	2011년 <sup>30</sup>	2013년 <sup>31</sup>	2014년 <sup>32</sup>	2017년 <sup>33</sup>	비고
교육원	학교수	1개	1개	1개	직접 교육
	학생수	1,430명	1,144명	1,203명	
	강좌수	53	42	42	
	교사수	20명	21명	20명	
쉬콜라	학교수	23개	28개	28개	간접 교육
	학생수	1,935명	2,210명	2,586명	
	강좌수	110개	115개	113개	
	교사수	13명	35명	18명	

키르기스스탄의 비쉬켁한국교육원은 2001년 개원한 이래 괄목한 만한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다. 비쉬켁한국교육원의 한국어교육 종합현황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교육원에서 직접 관장하는 한국어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타 교육기관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진행하는 한국어교육 형태이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 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한 팽창을 이루어 2017년에는 1,5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사를 직접 파견하여 간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쉬콜라(초중고등학교)의 한국어 수강생도 2017년에 4,000명을 넘고 있다. 2010년 이전 비쉬켁한국교육원의 한국어 수강생은 약 300~400명 정도였다. 비쉬켁한국교육원이 이같은 직 한국어 교육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직접, 간접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양질의 현지고용 한국어 교사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2017년 현재 교육원 소속의 한국어 교육과 쉬콜라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전체 교사수는 38명이다.

2017년 비쉬켁한국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 직접 교육현황은 초급 33개 반 1160명, 중급 2개 반 80명, 고급 2개 반 50명, 토픽반 2개 반 80명이었고, 전체 교수사는 15명이었다. 2017년 교육원 전체 한국어 수강생 중 초급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85%였다. 이전 한국어 수강생 중 초급반이 차

<sup>30</sup> 백태현(2011), 앞의 논문, 218쪽.

<sup>31</sup> 이용훈(2013), “키르기즈스탄의 한국어교육의 전망과 방향”, <2013년도 한국-중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한국-중앙아시아 경제, 문화교류 협력방안” 발표논문집>, 비슈케크 인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비슈케크, 키르기스스탄, 논문 참조.

<sup>32</sup> 이용훈(2014), “비쉬켁한국교육원 현황”,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미래” 발표논문집>, 비슈케크 인문대학교 한국학과, 키르기스스탄, 46쪽.

<sup>33</sup> 2017년 비쉬켁한국교육원 현황은 비쉬켁한국교육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거하였다.

지하는 비율은 2011년에 95%, 2013년에 92.4%였다. 이전 보다 그 비율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쉬켁한국교육원의 주된 역할은 초급 한국어교육 분야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중급과 고급 한국어반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쉬켁한국교육원에서 간접지원하는 쉬콜라 한국어강좌의 형태는 정규교과로 편성된 경우와 방과후 강좌로 나뉜다. 2013년의 비쉬켁한국교육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강좌가 개설된 쉬콜라는 수도인 비쉬켁을 포함한 오쉬, 토크막, 카라발타 등 지방 소재 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2017년 교육원이 지원하는 쉬풀라는 46개교였고, 전체 수강생은 4,200명, 전체 교사는 23명이었다.

### 3.4. 세종학당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현황<sup>34</sup>

2013년 9월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2개의 세종학당이 설립되었다. 수도인 비쉬켁 소재 아라바예바대학 내에 ‘비쉬켁세종학당’이 개원되었고, 키르기스스탄 남부 주요 도시인 오쉬 소재 오쉬공대 내에 ‘오쉬세종학당’이 개원되었다.

#### (1) 비쉬켁세종학당

2013년 개원 초기 비쉬켁세종학당의 교원은 한국인 1명, 현지인 1명이었다. 당시 수강생 현황은 일반한국어 과정 32명, 결혼이민자반 9명, 한국의 ‘고용허가제’ 근로자 취업 준비반 20명이었다. 비쉬켁세종학당은 개원 초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여 개설된 학당으로써 한국의 ‘고용허가제’ 근로자 취업준비를 위한 EPS-TOPIK(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준비반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한국어반으로 운영이 되었다. 결혼이민자반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한국어반에 편입시켜 운영을 하였다. 초창기 비쉬켁세종학당의 한국어교육 내용은 한국어 입문 혹은 초급 정도의 수준이 주를 이루었다.

---

<sup>34</sup> 백태현(2017) 앞의 글, 참조.

아래 <표 11>은 2017년도 비쉬켁 세종학당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좌 현황이다.

표 11. 2017년도 비쉬켁 세종학당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좌 현황

한국어반					한국문화반		누계
초급	중급	고급	회화반	소계	전통춤 판소리 단소 창작반 음악 기타 영화 음식	소계	
5개반	2개반	1개반	2개반	180명		50명	230명

비쉬켁세종학당은 2016년 세종학당재단의 지원을 받아 강의실 및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여 그 교육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현재 세종학당은 학당장 1명, 운영요원 2명, 교원 12명(현지 교원 2명)으로 한국어반과 한국문화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수강생은 230명이다. 한국어반은 주당 6시간, 학기당 16주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문화반은 주당 1~2회 2시간씩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비쉬켁세종학당의 수강생 비율은 대략 대학생 70%, 쉬콜라 학생 10%, 일반인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생 중에는 대학생의 비율이 꽤 높은 편인데 비쉬켁세종학당이 개설된 아라바예바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오쉬세종학당

오쉬세종학당은 2013년 9월 오쉬기술대학 내에 비쉬켁한국교육원과 연계형으로 운영하기 시작였다. 당시 오쉬세종학당은 교수요원 2명(한국인 1명, 현지인 1명)이 초급한국어교육을 주로 하여 운영을 하였고, 전체 수강생은 100여 명이었다.

아래 <표 12>는 2017년도 오쉬세종학당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좌 현황이다.

표 12. 2017년도 오쉬세종학당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좌 현황

한국어반				한국문화반		누계
초급 (9개반)	중급 (2개반)	토Pic (2개반)	소계	전통춤 판소리 단소 창작반 음악 기타 영화 음식	소계	
152명	17명	30명	199명		8명	207명

오쉬세종학당은 오쉬 기술대학 교실 5개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2015년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7만 달러를 지원을 받아 강의실 및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오쉬세종학당은 2017년 7월 현재 교수요원 5명(학당장 1명, 현지 교원 1명 포함)과 운영요원 2명으로 한국어반과 토Pic반, 그리고 한국문화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수강생은 207명이다. 한국어반은 주당 4시간, 토Pic반은 주당 3시간, 장구반은 주당 1시간씩, 학기당 16주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육원이 없는 오쉬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은 많으나 교원 및 교실수가 부족하여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키르기스스탄 한국학교육의 발전 방안<sup>35</sup>

근래 한국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 한국학의 목표는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의 정착에 있다. 한국학은 포괄적인 한국에 대한 연구이다. 최근에는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의 여러 영역도 한국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국학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대학에서 한국학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수요원이나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한국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한국어이다. 제대로 된 한국어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학교육의 발전을 논하는 것은 다소 역설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어’와 ‘한국학’은 상호 상생의 관계로서 각자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 초등 단계에서부터 상호 유

<sup>35</sup> 키르기스스탄 한국학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백태현(2015),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성과와 그 전망”, <광복 70년 기념 세계한국학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 93~95쪽.

기적 관계를 이루어 가야만 한다.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현실은 열악하지만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금 미래지향적인 한국학교육의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야 할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 할 수 있다. 하나는 자체 자생력은 매우 허약하지만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그 발전 방안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가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 3.1. 한국학교육 및 연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키르기스스탄 대학의 한국학교육 정착에 있어, 한국어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의 한국어교육은 한국학 정착을 위한 필수요소이지만, 대학 4년의 전 교육기간을 한국어 교육에만 소진한다면 이것은 극히 비교육적이고, 비생산적이다.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한국학을 확대 재생산해 갈 수 있는 차세대의 신진 한국학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지 않는 교육 구조라면 향후 키르기스스탄의 온전한 한국학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은 계속 담보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대학 내 한국학 강좌를 확대해 갈 수 있는 방안의 강구, 현지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활성화 방안, 대학 내 한국학연구소의 활성화 방안, 전문 교수인력의 확충을 위한 지원책의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편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독립 이후 한국어 및 한국학 분야에 대한 상당한 한국의 지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현지 대학의 한국학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단순한 수치로 대변되는 화려한 한국어교육 현황은 한국학 정착이라는 궁극적 목표의식을 흐리게 할 뿐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기초 한국어교육 중심의 지원책은 이제 현지 대학 중심의 전문적 한국학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책으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의 유능한 한국학 교수요원이 충원 될 때, 강의 전문성 및 다양성은 확보될 것이며 전반적인 연구 역량 또한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 3.2. 한국학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방안<sup>36</sup>

현재 중앙아시아 각국의 한국학 교수요원 및 전공자는 전반적으로 그 체질이 허약하고, 그 폭도 좁은 편이다. 그나마도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 간의 통로는 거의 막혀 있었다. 그 동안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 이 같은 교육시스템의 부재, 대학 교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한국학 발전을 위한 교육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었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자들의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2013년 6월에 중앙아시아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중앙아시아 한국학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및 연구 분야의 총체적 취약성이 논의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 발족의 필요성이 개진되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2014년 6월에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제2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가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미래: 한국학 교육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이 기간 동안에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 창립총회도 열려 공식적인 모임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2015년 6월에는 제3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가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 주관 하에 “공존의 역사, 상생의 문화-21세기 실크로드의 과제”라는 주제로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개최되었다. 2016년 6월에는 제4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가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 주관 하에 “중앙아시아 한류와 한국학”이라는 주제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개최되었다. 2017년에 6월에는 제5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가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공동 주관 하에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동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중앙아시아 한국어교육학워크숍”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향후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는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소위 학회로서의 성격도 강화하여 한국의 다양한 학회와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해 갈 예정이다. 그 동안 한국외국어대 중앙아시아연구소와는 세 번의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고, 2017년 학술대회

<sup>36</sup>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백태현(2014),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미래” 발표논문집>, 비슈케크 인문대학교 한국학과, 키르기즈공화국.

및 한국어교육 워크숍은 ‘국제한국어교육학회’와 협력하여 진행을 하였다. 이같은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협의체 구성원들은 학문적 역량을 높여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한편 이 협의체는 중앙아시아 각국 한국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3.3. 한국학교육 발전을 위한 효과적 지원 방안의 마련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여러 통로를 통해 키르기스스탄 지역의 한국어 및 한국학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대표적 사례가 ‘비쉬켁한국교육원’과 ‘비쉬켁세종학당’ 및 ‘오쉬세종학당’의 개원 그리고 KOICA(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의 파견 등이다. 비쉬켁한국교육원은 2001년 5월에 개원이 된 이래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 보급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에 개원이 된 두 곳의 세종학당도 최근 한국어교육분야에서 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2015년 2월부터 파견되기 시작한 KOICA 봉사단원도 대학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의 전문성 제고에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상기의 교육기관 중에서도 특히 비쉬켁한국교육원이 거둔 한국어교육 분야의 성과는 매우 놀라울 정도이다. 그런데 이같은 한국어교육 효과를 바탕으로 이어져야 할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현황은 오히려 그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듯하다.

키르기스스탄 지역 대학의 한국학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은 대학 자체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의 다양한 지원이 한국학 교육현장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한국 정부의 해외한국학지원 사업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등 외교부 산하단체와 교육부 산하단체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글로벌 한국학 진흥 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의 해외한국학 지원사업과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 등이 있다. 이상의 여러 사업 중에서도 키르기스스탄 지역 대학들이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한국학 초보단계 지역에 한국학을 도입하거나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적 환경 구축과 관련된 일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한국학교육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sup>37</sup>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지역 대학 대부분은 이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 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우선 대학 내 교수인적자원과 교육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특히 그 사업 지원금을 중앙관리 시스템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전무한 편이다.

따라서 해외한국학 진흥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키르기스스탄 대학 한국학 현장에서 접목시키기에는 아직도 시기 상조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키르기스스탄 지역 중심의 맞춤형 지원책이 새롭게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특별히 열악한 현지 대학의 교수 요원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한국 정부에서 현지 대학에 교수요원을 파견하는 직접 지원의 형태도 중요 하지만, 현지 대학의 자생력을 높이고 현지 한국학 교수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지원책도 계속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 4. 맷음말

최근 키르기스스탄 지역도 다양한 분야의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 및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현지의 쉬콜라와 대학,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건립한 한국교육원과 세종학당 등에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로 넘쳐나고 있다. 외형상 키르기스스탄 지역은 한국어 교육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키르기스스탄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에 대한 얕은 이해도는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이어지기 쉽상이다. 이같은 현상은 키르기스스탄의 각 교육기관에서 한국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키르기스스탄 한국학교육의 현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학 후발지역, 한국학 초보단계지역에 해당하는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 현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열악하다. 한국학교육 및 연구 분야 모두 그렇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구소련이라는 사회주의체제를 거쳐 온 키르기스스탄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현실 그 자체이다. 아직도 키르기스스탄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나타나고 있고, 각 교육기관의 사정도 이와 동일한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적인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체계를 갖추어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의 정착이라

<sup>37</sup>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은 3년에 걸친 “씨앗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16년부터는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을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기되는 제반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이어서 그 해법 마련을 위한 맞춤형 인력과 자금이 확보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 형성 과정에서 한국 측의 다양한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한편 현지의 열악한 여건 가운데에서 이루어 온 자생적 역할도 커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한국학의 세계화를 전제로 한 한국어 및 한국학의 보급을 한국 측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 측면도 있다. 이제는 이와 같은 키르기스스탄 지역의 한국학 현실을 십분 이해하고 인정해 가는 '상생'의 이념에 바탕을 둔 조화로운 한국학교육 방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 키르기스스탄 지역의 한국어 및 한국학교육 분야가 지향해야 할 당면 과제는 양적인 발전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한국어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개발도 중요 하지만 동시에 요청되는 것은 한국학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플랜을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래 키르기스스탄 대학 한국학교육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장단기 과제를 예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각각의 단일 과제이기도 하지만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포괄적 과제이기도 하다.

- ① 현지 차세대 신진 한국학 전문가의 육성
- ② 대학 내 한국학 강좌의 확대 개설
- ③ 현지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활성화 방안
- ④ 대학 내 한국학연구소의 활성화: 학계와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
- ⑤ 유능한 해외 한국학 교수의 장기 지원 책 마련
- ⑥ 한국 기업과 연계한 해외한국학 석좌교수제의 도입
- ⑦ 다양한 사이버 한국학 강좌의 활용 방안 마련
- ⑧ 한국어(학)과 졸업생들의 취업 확대 방안 마련
- ⑨ 키르기스스탄의 맞춤형 한국학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과 자금의 확보 문제
- ⑩ 현지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자의 재교육 방안 마련
- ⑪ 중앙아시아 지역 한국학학술대회 및 교육네트워크 구축의 활성화 방안

#### 참고문헌

1. 백태현(2108), “키르기스스탄의 한국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27회 한국어문국제학술회의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문학 교육 및 연구의 재검토” 발표논문집>,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 한국학센터·고려대학교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카자흐스탄,

2. 백태현(2017), “키르기스스탄 한국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2017년도 한국 학국제학술회의-중·동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학 교육·연구 동향 - 발표논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참조.
3. 백태현(2016), “중앙아시아 한류와 한국학교육의 다양화 방안”,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2>,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스탄.
4. 백태현(2015),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성과와 그 전망”, <광복70년 기념 세계 한국학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
5. 백태현(2014),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미래” 발표논문집>, 비슈케크 인문대학교 한국학과, 키르기즈공화국.
6. 백태현(2014), “키르기즈공화국의 한국학 교육 현황과 그 과제”, <2014년 해외 한국학 파견교수 초청 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7. 이용훈(2014), “비쉬켁한국교육원 현황”,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미래” 발표논문집>, 비슈케크 인문대학교 한국학과, 키르기스스탄.
8. 백태현, 미나라 셰리콜로바(2013),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발전 방안”, <2103년도 한국-중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한국-중앙아시아 경제, 문화교류 협력방안” 발표논문집>, 비슈케크 인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비슈케크, 키르기즈스탄.
9. 이용훈(2013), “키르기즈스탄의 한국어교육의 전망과 방향”, <2103년도 한국-중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한국-중앙아시아 경제, 문화교류 협력방안” 발표논문집>, 비슈케크 인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비슈케크, 키르기즈스탄.
10. 백태현(2011), “키르기스스탄 한국학 교육의 현황과 그 전망”, <2011년 한국 학국제학술회의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 교육” 발표논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11. Baek Tae-hyeon(2010),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Asia Its Future Prospects”, *KOREAN STUDIES ABROAD*,

##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현황과 전망

장호종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 1. 머리말

중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5개국을 일컫는다. 면적이 한반도의 약 18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약 6,600만 명에 불과해 인구밀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으며, 타슈켄트와 알마티, 비슈케크 등 인구밀집도시는 남동부에 몰려 있다.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의 독립 후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과 목표가 달라 단일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얹혀 국가별 협력과 공존에서도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언어와 민족 측면에서 우즈베크, 카자흐, 키르기스, 투르크멘은 알타이어 계통의 투르크계인 데 반해, 타지크는 페르시아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란계에 속한다. 경제력과 국토면적에서는 카자흐스탄이 월등하며, 인구수와 농업생산력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압도적이다. 정치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민주적인 체제를 정립해 장기집권이 지속되고 있는 4개국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반세기 넘게 지속된 사회주의 체계와 관습이 일정 정도 남아 있고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슬람교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화적 단일체로 접근할 수 있다.<sup>1</sup>

이 지역의 한국학 역사는 소련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소련의 한국학은 1970년대에 이미 양적, 질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며, 중앙아시아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속, 문화, 언어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냉전 시기 정치적인 목적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구가 진행된 측면이 강하여 관련 기관과 학자들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에 집중되었고,<sup>2</sup> 중앙아시아에는 전문적인 연구기관 없이 개별적인 연구자들이 존재할 뿐이었다. 연방이 해체되기 직전인 1980년대 중반부터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과 한국의 지원에 힘입어 중앙아시아의 일부 대학에서

<sup>1</sup> “중앙아시아 한류: 문화-경제 한류의 선순환”, <2015 대한민국 한류백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pp.381-383 참조.

<sup>2</sup> 소련 한국학의 특징과 성과는 “러시아 한국학의 역사와 현황”(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 pp.438-465), “러시아 한국학의 전개 및 발전 양상”(장호종, <민족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의 이중성>, 박문사, 2009, pp.227-29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 강좌를 시작하면서 디아스포라로서의 고려인의 역사, 문화, 언어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한국학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방이 해체된 1990년대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외형적인 측면에서 한국학이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을 목적으로 수강생이 크게 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한류로 대변되는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한국어교육이 양적인 면에서 급속히 성장한 것이다.<sup>3</sup>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교원의 양성, 교재 및 교수법의 개발, 강좌의 다양화 등 내적인 기반을 다지기보다는 한국의 일방적인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기에 한국어교육의 양적인 성장이 한국학의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 (1) 한국학의 동기와 목적, 주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체계와 방법의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2) 현지 대학의 처우가 다른 직업에 비해 열악하여 전문성을 갖춘 젊고 우수한 교원의 양성에 어려움이 많다.
- (3) 중앙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체계적인 수준 향상을 꾀하기 위한 단계별 교재 또한 전무하다.
- (4) 한국학 대학의 재정이 빈약하고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 간의 교류와 협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외부적인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해결하기 힘들며, 내적인 기반을 충실히 다지는 과정에서 차차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 지역의 한국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내부 활동들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2. 중앙아시아 대학의 한국학

### 2.1. 비슈케크 인문대

카라사예프 비슈케크 인문대(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named after K. Karasaev. 이하 비슈케크 인문대)의 한국학 강좌는 1991년 동양학과에 과목이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 1993년 동양학 및 국제관계학부 내 한국학과가 개설되면서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의 중심대학으로 자리잡았다.

---

<sup>3</sup> 독립 후 15년 간의 중앙아시아 한국학 흐름은 “중앙아시아의 한국학”(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 pp.466-48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종교적인 목적에서 정착한 한국인들이 여러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강의를 개설하다 보니, 대학과 수강생이 현지의 한국학 수요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이다.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학과장 백태현)는 “키르기스스탄 한국어 교수협의회”의 창립(2001)을 주도하여 한국어 교육기관 간의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키르기스스탄 내 유일한 독립학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각종 경시대회와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10명 내외의 교수진은 백태현, 문상웅(이상 역사전공) 등 현지에 정착한 한국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로 인해 교원의 양성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학과는 아시아·아프리카학, 언어, 국제관계, 경제의 4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 역사, 문화, 통번역 등과 관련한 강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교과과정상 지역학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전공별로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한국 대학들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도 거의 중단되었다. 2016년 8월 현재 1학년부터 5학년까지 10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2016-2017학년도부터 4년제로 학제 변경이 완료된다. 대학원에는 석사 2명, 박사 3명이 재학 중이다.

<표1>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 수강생(2015-2016학년도)<sup>4</sup>

	세부전공				계
	아시아, 아프리카학	언어	국제관계	경제	
1학년	-	10	11	9	30
2학년	7	7	6	5	25
3학년	9	7	7	-	23
4학년	2	9	3	4	18
5학년	-	2	-	7	9
합	18 명	35 명	27 명	25 명	105 명

현지에서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한국국제협력단, 국립국제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과연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교재 개발이나 논문 발표 등 학술적인 활동도 일부 교원에 집중되어 있다. 교원

<sup>4</sup>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편람”(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알마티, 2016, pp.211-217) 참조.

들은 교재 개발이나 논문 발표 등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할 여력 없이 주당 40시간 내외의 강의를 소화하기에 급급하다. 과도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100달러 남짓에 불과해, 국립국제교육원이나 재외동포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한 우수한 재원들이 학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 30대 전후의 현지인 교원들도 자주 교체되다 보니 한국학의 진흥을 위해 교원 양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2.2. 타슈켄트 동방대

타슈켄트 국립동방대(Tashkent Stat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이하 타슈켄트 동방대)의 한국학 강좌는 1991년에 시작되었으며, 1993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학부(학장 김문옥)로 존재하다가 2004년에 극동 및 남아시아 언어학부 내에 한국학과(학과장 김 빅토리야)로 편입되었다. 2015년부터는 동양어학부 내 한국학과(우미다 사이다지모바 우미다)로 변경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타슈켄트가 중앙아시아의 중심도시였기 때문에 타슈켄트 동방대의 한국학은 한국 유관기관들의 지원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니자미 사범대, 카자흐 국립대, 비슈케크 인문대 등 초기 중앙아시아 한국학을 주도하던 대학들이 최근 정체되어 활로를 찾지 못하는 중에도 타슈켄트 동방대는 꾸준히 교육과 연구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표2> 타슈켄트 동방대 한국학 수강생(2015-2016학년도)<sup>5</sup>

	세부전공					제 2 외국어	계
	어문학	경제	국제 관계	역사	통번역		
학생수	110	72	30	32	30	60	334 명

한국학과는 어문학, 경제, 국제관계, 역사, 통번역의 5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8월 현재 학부전공생이 274명, 석사과정생이 15명(언어학 6명, 문학 4명, 통번역 1명, 경제 4명)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이다. 교수진은 한국국제

<sup>5</sup> “타슈켄트 동방대 한국학편람”(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 편,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알마티, 2016, pp.24 9-253)와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학 연구 현황 및 발전 전망”(<한국학진흥사업단 온라인소식지> 55, [http://ksps.aks.ac.kr:18080/news\\_view.jsp?ncd=72](http://ksps.aks.ac.kr:18080/news_view.jsp?ncd=72)) 참조.

교류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의 파견교원 2명을 포함해도 13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어, 문학, 통번역, 역사, 경제, 정치 등의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교원이 되기를 기피하는 현상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동일한 문제이므로, 유능하고 젊은 교원을 양성할 방안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교원 양성의 문제와는 별개로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문학과 통번역 분야에서 꾸준히 결과물을 양산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문학 대표선 번역 및 ‘한국문학의 이해’ 출판”(연구책임자 사이다지모바 우미다)을 연구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진행하여 고대부터 현대까지 대표적인 한국 문학작품들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시: 고대에서 근대까지>, <한국의 소설: 고대에서 근대까지>, <한국의 현대시: 1950년대까지>, <한국의 현대소설: 1950년대까지>, <한국문학의 이해> 등 결과물들의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부에서 의혹의 시선이 거두지 않고 있으며, 성과들이 중앙아시아는커녕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공유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15년부터는 “우즈베키스탄 한국학 진흥사업”을 주제로 사이다지모바 우미다, 김 빅토리야, 알리모프 아바즈, 카리모바 나탈리야, 한 류드밀라, 김 옐레나, 김 발레리 등이 씨앗형사업에 참여하여 온라인강의환경 구축, 교재 개발,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의 한국학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한국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 교재 개발, 한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인터넷 강좌 개설,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을 통한 한국학 연구 역량 강화, 현지 한국학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연구성과의 공유를 목표로 한다.

### 2.3. 카자흐 국립대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이하 카자흐 국립대)는 1988년 언론학부에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면서 한국학 강좌가 시작되어, 1994년 한국학과 설립 후 카자흐스탄을 넘어서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 및 연구의 중심지로 크게 부상하였다. 카자흐스탄 최고 대학이라는 상징성을 기반으로 초기부터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편찬, 온라인강의실 설치 등 꾸준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국내외의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3,000권 이상의 한국 관련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중앙아시아 타 대학에 비해 멀티미디어 교육설비도 제법 갖출 수 있었다.

교수진은 20명 내외로 카자흐인, 고려인, 한국인이 분야별로 균형있게 구성되어 있다. 독립 후 중앙아시아 최고의 고려인 디아스포라 전문가로 자리잡은 김 게르만을 비롯하여 엠 나탈리야, 이병조, 타시켄바예바 바티

굴, 아임베토프 바흐트잔(이상 역사전공), 쇠 미옥, 정 윤리야, 쿠다이베르 게노바 레나타, 말가지다로바 아이누르, 샤태코바 굴누르(이상 언어전공), 사프로노바 류드밀라, 아미르베크바 우미타이(이상 문학전공), 명 드 미트리, 전병순(이상 정치전공) 명순옥(인류학전공) 등이 재직 중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원 급여가 대부분 100-200달러 수준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카자흐스탄은 최근 현지화 폭락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500-600달러에 달하여 교원을 확보하는 데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학 강좌는 동양학, 어문학, 통번역의 3개 전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양학전공은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어문학전공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통번역전공은 한국어-러시아어와 한국어-카자흐어 통번역을 중심으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2016년 8월 현재 학부 전공생이 105명에 달하며, 대학원에도 석사 5명, 박사 2명이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다. 산학협동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지원으로 장학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해마다 20-30명의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다.

<표3>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 수강생(2015-2016학년도)<sup>6</sup>

	세부전공			계
	동양학	어문학	통번역	
1 학년	14	6	6	26
2 학년	14	9	10	33
3 학년	9	6	8	23
4 학년	12	10	1	23
석사	2	2	1	5
박사	2	0	0	2
합	53 명	33 명	26 명	112 명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들과 카자흐스탄 최고 수준의 우수한 학생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편찬이나 교수법 개발 등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편이다. 학과의 교원(쇠 미옥)이 개발에 참여한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한국어>(전6권. 한국국제교류재단, 2012)를

<sup>6</sup>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편람”(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알마티, 2016, pp.218-220) 참조.

한국어표준교재로 활용하는 외에 두드러진 성과가 없다. 초기부터 국내 외 유관기관들로부터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다양한 연구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이 특정 교원에게 집중된 결과, 학과의 학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개최한 학술대회나 포럼도 일회적인 전시성 행사에 그쳐서 교원들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는 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인 이주의 역사>(박영사, 2005), <해외한인사>(한국학술정보, 2010), <CIS 고려인 문학사와 론>(한국문화사, 2016) 등의 단행본을 발간하고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교원의 개인적인 성취에 그칠 뿐 학과의 연구 성과는 지난 역량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또한 대학 내 학과조정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일본학과와 통합되어 극동학과(학과장 염 나탈리야) 내 한국학전공(전공주임 이병조)으로 축소되는 등 최근에는 대내외적인 위상 면에서 부침을 겪고 있다.

#### 2.4.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과(쿠톨루코프 시르자트)는 어문학, 동양학, 통번역의 3개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와 문학 중심의 과목이 집중된 어문학전공에는 99명의 학부생이 재학 중이며, 한국어-러시아어 통번역과 한국어-카자흐어 통번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통번역전공에는 73명의 학부생이 재학 중이다. 지역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역사, 정치, 경제 등의 과목을 강의하는 동양학전공은 65명의 학부생이 재학 중이다. 한국의 대학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여 해마다 40-50명의 학생들이 교환학생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수학 중이다. 한국어 강의의 표준교재로는 학과의 교원(박 넬리)이 개발에 참여한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한국어>(전6권. 한국국제교류재단, 2012)를 활용하고 있다. 대학원에는 석사 6명, 박사 5명이 재학 중인데,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한국학중앙연구원(Academy of Korean Studies)의 장학사업을 통해 박사과정의 인원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lt;표4&gt;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 수강생(2017-2018학년도)

	세부전공			제 2 외국어	계
	어문학	동양학	통번역		
1 학년	27	28	17	0	72
2 학년	32	17	24	35	108
3 학년	19	12	18	7	56
4 학년	21	8	14	15	58
석사	1	3	2	7	13
박사	1	3	1	0	5
합	101 명	71 명	76 명	64 명	312 명

카자흐 세계언어대는 1993년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 개설을 시작으로 1998년 동양어학과(학과장 박 넬리) 내 한국어 전공 설치 이후 서서히 한국학의 기반을 닦아 왔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학생이나 교원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한 타슈켄트 동방대, 니자미 사범대, 사마르칸트 국립 외대(이상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국립대, 알마티 사범대(이상 카자흐스탄), 비슈케크 인문대(키르기스스탄) 등에 비해 국내외 한국학계에서 인지도가 떨어졌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한국학과 개편 이후 학생과 교원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경시대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와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주요 한국학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lt;표5&gt; 카자흐 세계언어대 전공생 변천(최근 9년)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학부	79	93	122	146	182	209	203	227	237
석사	0	1	2	2	4	9	12	10	6
박사	0	0	0	1	1	1	0	1	5
합	79 명	94 명	124 명	149 명	187 명	219 명	215 명	238 명	248 명

&lt;표6&gt;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 교원 변천(최근 9년)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교원 수	12 명	13 명	12 명	12 명	15 명	15 명	18 명	18 명	18 명

한국학과로 재편되기 전인 2011년까지 100명도 안 되던 학부전공생의 수가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기존의 어문학전공, 동양학 전공 외에 통번역전공이 신설된 2013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18년 현재 237명에 달하며, 1-2명에 불과하던 대학원생도 10명 내외로 증가하였다.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도 해마다 60-70명에 달한다. 교원은 2012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 3명을 포함해도 12명에 불과했으나, 현지에서 꾸준히 교원을 확보하여 18명까지 증원하였다. 2012년 한국국제협력단이 철수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각 대학들이 한국학 교원을 수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카자흐 세계언어대는 비교적 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언어, 역사, 문학, 정치 등을 전공한 교원이 고루 분포한 카자흐 국립대와 달리 카자흐 세계언어대는 언어전공자를 중심으로 교수진이 구성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박 넬리, 한 넬리, 김 아나스타샤, 김 울리아나, 전 엘레나, 김 스베틀라나, 젯피소프 사켄, 황 인나, 마륵소바 심바트, 김영경, 이성숙, 장호종(한국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 등 대부분의 교원이 언어와 문학 전공이고, 타 분야의 전공자는 쿠툴루코프 시르자트, 방정식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스비리도바 발렌티나, 보란타예바 파리자, 두미셰바 알루아, 사케노바 아이누르, 박티 베코바 베크자트 등 역사와 문화를 전공한 교원이 충원되고 있으나, 전공분야를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 2.5. 기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해 교육원, 문화원, 세종학당을 찾거나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현지에서 양성되는 교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4개 도시(타슈켄트, 알마티, 아스타나, 비슈케크)에 교육원과 문화원이 주재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5개 도시(타슈켄트, 알마티, 아스타나, 비슈케크, 오슈, 두샨베)에 세종학당 7개소가 설치되어 연간 한국어 수강생이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좋은 재원들이 교원이 되기를 기피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현지 교원을 양성하는 일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이다.

대학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현지 공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이 허술하고 교육환경이 낙후되어 있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희망하게 된다. 2016년 대한민국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만 53명(우즈베키스탄 16명, 카자흐스탄 14명, 키르기스스탄 12명, 타지키스탄 5명, 투르크메니스탄 6명)에 달하며, 학부 장학생이나 고려인 장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인원도 상당하다. 더욱이 국내 대학들이 좋은 조건으로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어 한국에서 수학하는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의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와 한국학 교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lt;표7&gt; 기타 대학 한국어 수강생(2016-2017학년도)

국가명	대학명	학생수
우즈베키스탄	니자미 사범대	60 명
	우즈베크 세계언어대	213 명
	세계경제외교대	129 명
	사마르칸트 국립외대	200 명
	부하라 국립대	40 명
카자흐스탄	유라시아 국립대	31 명
	크질오르다 국립대	45 명
	제티수 국립대	40 명
	타라즈 사범대	75 명
	동카자흐 국립대	27 명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 국립대	50 명
	아라바예프대	110 명
	키르기스 법률대	28 명
	오슈 국립대	24 명
	키르기스-러시아 슬라브대	26 명
타지키스탄	타지크 국립외대	60 명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 세계언어대	50 명

앞서 소개한 4개 대학과 사마르칸트 국립외대는 비교적 한국학 교과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0-200명에 달하는 학생 수나 10-20명으로 구성된 교수진 등 학과로서의 면모를 갖춘 편이지만, 그 외의 대학에서는 한국학 강좌가 동양학과 내 전공이나 제2외국어로 운영되어 한국학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한국학 강좌를 개설했던 알마티 사범대는 교원 충원과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2012년에 한국학 강좌를 폐쇄하였으며, 다양한 교수법과 교재 개발을 선도하던 우즈베키스탄의 니자미 사범대 한국어교육과는 당국의 정책에 따라 2016-2017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제 교원 확보나 교과과정 정비와 같은 교육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졸업생의 진로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한국에서 무한한 인적, 물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한국학 강좌를 개설한 대학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라시아 국립대, 크질오르다 국립대, 키르기스 국립대, 타지크 국립외대, 투르크멘 세계언어대 등을 동양학과 내 한국학전공이 개설되어 2-4명의 교원이 30-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세계경제외교대, 동카자흐 국립대, 아라바예프대, 키르기스 법률대 등을 1-2명의 교원에 의존하여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진행되기에 교과과정 정비, 교재 발간, 교수법 개발 등 한국학의 기반을 마련할 여력이 없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 3.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학회 및 연구소

#### 3.1. 한국학 학회

2000년대 중반까지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은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지 사정에 맞게 개발된 교재가 거의 없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교육원, 문화원, 대사관 등 유관기관의 인적, 물적 지원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형적 성장이 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 대학들은 학술적인 교류와 협력에 매우 취약하다. 정치적 관계가 복잡하거나와, 무엇보다 지역 간의 거리가 멀고 대부분 재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도시별, 대학별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가 공유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학술 교류가 적다 보니 기존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제약이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지역의 한국학은 대외적인 기여도가 낮고 교육 성과로의 과급력 또한 미약한 편이다. 연구 및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할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해

한국학의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

또한 한국학 교원의 수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젊은 교원들이 양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40여 대학에서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어나 한국학을 수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교원은 약 150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한국에서 파견된 교원이나 현지에 정착한 한국인을 제외하면 현지인 교원의 수는 더욱 적어진다.

이와 같은 한국학 교육 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타슈켄트 동방대, 니자미 사범대, 사마르칸트 국립 외대(이상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대, 유라시아 국립대(이상 카자흐스탄), 비슈케크 인문대, 키르기스 국립대, 오슈 공대(이상 키르기스스탄), 타지크 국립외대(타지키스탄), 투르크멘 세계언어대(투르크메니스탄) 등의 교원들이 뜻을 모아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이하 중앙아 한교협)를 결성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한 제1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비슈케크, 2013)에서 중앙아시아 한국학계의 내적인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동체를 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중앙아 한교협(회장 백태현)은 1년간의 준비를 통해 2014년 6월 비슈케크 인문대에서 학술대회와 창립총회를 가졌다. 2015년 타슈켄트에서 “공존의 역사, 상생의 문화: 21세기 실크로드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에는 알마티에서 “중앙아시아 한류와 한국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학술대회는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비슈케크에서 개최되었고, 2018년 학술대회는 알마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와 공동으로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 발간,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 네트워크>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http://canks.asia>) 개설 등 한국학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2013.06. 제1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 개최(비슈케크)
- 2014.04.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 네트워크> 발행
- 2014.06. 제2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비슈케크)
- 2015.06.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 창간호 발간
- 2015.06.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 네트워크> 발행
- 2015.06. 제3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타슈켄트)
- 2016.01.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 네트워크> 발행
- 2016.06.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 2호 발간
- 2016.06.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 네트워크> 발행

- 2016.06. 제4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알마티)
- 2017.01.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7.06.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7.06. 제5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비슈케크)
- 2018.01.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8.06.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3호 발간
- 2018.06.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8.06. 제6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알마티)

### 3.2. 연구소

중앙아시아 한국학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수가 부족하여 개별적이고 일회적인 연구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고 내부적인 재정 지원이 열악해 장기적인 연구는 계획하기 어렵다. 그러나 외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는 장기적으로 계획된 체계적인 연구보다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일회성 교재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연구 분야나 주제가 더 이상 다양해지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적인 교류협력 체제를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이끌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은 한국학 자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학의 체질을 개선하여 연구 및 교육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설립된 곳은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센터(2003년 설립. 소장 김 게르만)이다. 한국학 연구에 관심 있는 학자와 대학원생을 모아 학술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전임인력 없이 운영되다 보니 명목상의 기관에 머문 한계가 있다. 2017년 현재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 뉴스레터>(Journal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Asia)를 25호까지 발행하였다. 2015년에는 타슈켄트 동방대에 한국학센터가 설립되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학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연구구성과의 공유 등을 목표로 설립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2012년에 설립된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소장 한 넬리)는 형식적인 기관에 머물지 않고 전임인력을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중앙아시아 한국학이 지닌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체계 확립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확산”(연구책임자 박 넬리)을 주제로 씨앗형사업을 수행하였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중앙아시아 최초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중핵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되었다. 박 넬리를 사업단장으로 하여 장호종, 한 넬리, 김 울리아나, 김 아나스타샤, 전 엘레나, 스비리도바 발렌티나, 보란타예바 파리자, 두미세바 알루아 등이 참여하여 “공존과 소통의 한국학: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음은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진행한 주요 사업이다.

### 1. 한국학 기반 및 역량 강화

- (1) 한국학센터 공간 확장 및 정비
- (2) 한국학센터 전임인력 확보
  - 소장 1명, 전임연구원 4명, 일반연구원 3명, 조교 1명
- (3) 한국학과 교원 충원
  - 카자흐인 7명, 고려인 7명, 한국인 4명
- (4) 대학원 및 학부 장학금 지원
  - KF, AKS, 센터: 연간 석사과정 5명, 박사과정 6명, 학부R/A 5명, 한글 날기념 6명
  - 기타 장학사업 유치: 신한은행 희망재단, 고려인의 꿈 재단, 카자흐스탄 중기연 등
- (5) 한국학 강의 및 특강 확대
  - 정규 강의: 학기당 50개内外의 한국어 및 한국학 강좌 개설
  - 특강: 대사/총영사 초청강연, (예비)대학생을 위한 한국학강좌(국민 대와 공동 개최), GTE 특강(부산외대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와 공동 개최), 해외다문화교육 현장실습(부산외대 한국어문화학부와 공동 개최) 등
- (6) 한국학 세미나 개최
  - 교내 연 8회, 연계 2회

### 2. 한국학 교류 협력 확대

- (1)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개최
  - 2016년 제2회 대회 4개국 6개 도시 10개 대학 학생 44명 발표
  - 2017년 제3회 대회 4개국 5개 도시 7개 대학 학생 55명 참석
- (2)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개최
  - 2016년 제4회 대회 5개국 21개 대학/기관 한국학 관계자 60명 참석
  - 2018년 제6회 대회 개최 예정
- (3) 공공외교 세미나 개최

-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주관
- (4) 중앙아시아 한국학 올림피아드 개최
  - 2017년 제7회 대회 4개국 10개 도시 20개 대학 학생 67명 참가
  - 2018년 제8회 대회 4개국 10개 도시 20개 대학 학생 70명 참가
- (5)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 개최
  - 2016년 제8회 대회 4개국 8개 도시 24개 대학 학생 38명 참가
- (6) 한국학 소식지 발간
  -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연 2회 발간)
  -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연 1회 발간)
- (7)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http://canks.asia>)
  -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http://kaznks.kz>)

### 3. 한국학 가치 창출 및 재생산

- (1) 학술지 <카자흐스탄 한국학> 발행
  - 2016년 4호 4개국 8개 도시 9개 대학 한국학자 48명 논문 44편 수록
  - 2017년 5호, 6호 발행
  - 2018년 7호, 8호 발행
- (2) 학술지 < CIS 대학생 한국학논문집 > 발행
  - 2016년 3호 4개국 7개 도시 9개 대학 학생 56명 논문 43편 수록
  - 2017년 4호 발행
  - 2018년 5호 발행
- (3)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발행
  - 2016년 2호 4개국 6개 도시 10개 대학 한국학자 23명 논문 22편 수록
  - 2018년 3호 발행
- (4) 한국학총서 발행
- (5) 사전 <한국어-러시아어-카자흐어 엑스포사전> 발행
- (6) 한국학 교재 시리즈 발행

### 4. 결론

199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의 한국어교육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성과가 학문적인 차원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한국학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한국어교육의 수요 증가도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성장의 동력을 찾지 못해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되었다. 결국 한국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적으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차원의 협력과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학계의 내적 기반과 체질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할 것이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한국학은 내부적으로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아 한교 협이나 카자흐 국립대, 타슈켄트 동방대, 카자흐 세계언어대의 한국학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및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관련 기관들의 외적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현지의 내적 활동이 어우러진다면 중앙아시아 한국학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다만, 중앙아시아 한국학이 기여하고 지향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립할 시기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향후 중앙아시아 한국학이 긍정적인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1) 한국학의 주체, 대상, 방법 등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아시아 한국학은 학문적인 기초 작업 없이 발생하여 그 대상이 남한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세계 한국학에서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남북한을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2) 내적인 기반을 충실히 다지기 위하여 재정적인 자립 방안이나 신진 교원의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젊은 인재들이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거나 학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나 장기적인 연구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인 열정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우수한 인재들을 대학으로 끌어들이려는 내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3) 내부적인 교류 및 학술적 공유를 추진하고, 해외 한국학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단순히 결과물을 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전파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해외 한국학, 특히 한국의 한국학계와의 교류를 통하여 연구방법론이나 교수법 등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김 게르만.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 pp.466-483.
2. 장호종. <민족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의 이중성: 러시아의 한국어교육>. 박문사. 2009. 385p.
3. 장호종.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18. pp.173-192.
4. 콘체비치(L. Kontsevich). “러시아 한국학의 역사와 현황”.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 pp.438-465.

## 카자흐스탄 경제시스템과 국가/기업 문화 차이 분석의 국제 경영

이근중  
KIMEP 대

### 1. 서론

카자흐스탄은 지형적으로 45 억 인구를 가진 유라시아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대륙국이다. 2013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주석과의 만남에서 중국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아시아·유럽·중동을 하나의 철도로 연결하는 뉴실크로드를 제안했다고 한다. 뉴실크로드가 완성되면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의 모든 물류가 통과하는 물류중심국이 된다.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어 양국간의 경제와 정치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도 하고 있다. 한 예로 러시아의 석유를 중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13 배에 달하는 영토에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구리, 희토류, 우라늄 등 천연 자원도 풍부하다.

하지만 뉴실크로드계획을 보면 동쪽의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빠져있다. 즉 한국은 서해를 통해 중국 동쪽 항구에서부터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이 유라시아아 시대와 뉴실크로드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통해 뉴실크로드를 연결할 수밖에 없다. 한국 입장에서는 유라시아의 완성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이다. 카자흐스탄과 한국간의 상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나라다. 첫째는 옛소련 시절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으로 많은 고려인이 카자흐스탄에 이주하게 되었고, 현재 약 10 만명의 고려인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 고려인들은 부지런함과 끈기로 카자흐스탄 경제를 주도하는 많은 기업을 만들었다.

둘째는 1992년 옛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전략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확약받았다. 96년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개방화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고 경제부국이 되었다. 이는 성공적인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북한의 경제시스템 발전의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독립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카자흐스탄문화나 교육과정엔 옛소련 연방시스템의 정서가 많이 남아 있다. 이를 이해하고 카자흐스탄의 도움을 받으면 남북한 경제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는 카자흐스탄 정부나 국민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중앙 아시아 최대경제도시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 있는 한국교육원에는 2000여명의 카자흐스탄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6개

월 이상을 기다려야한다. 또한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수는 8092명으로 국가별 순위 6위이며 평균지출액은 약 450만원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2위 국가다.

상호간의 특별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많은 교류가 더 이루어지져야 한다.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동기는 성장 잠재력과 중앙아시아의 진출 교두보로 보고 있었으며 자원 및 식품 분야 등에 진출한 기업들이 만족도가 높았으며 카자흐에 없는 상품의 시장개척을 추진한 기업들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업들의 70%는 양국간 가장 큰 차이점으로 현지인의 정서와 기업 문화를 꼽았으며 투자위험요인으로는 현지 당국 및 기업의 불투명성과 잦은 행정절차 변화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86.6%의 기업들은 카자흐의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패요인으로도 기업정서와 문화를 꼽았다.[부록 1] 참조

현재까지 한국과 카흐스탄의 경제협력의 큰 성과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유가 기업정서와 문화를의 차이로 인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협상이나 진행을 못했던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국가/기업 문화를 검증하고 이를 비즈니스나 교육에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 2. 카자흐스탄 경제 시스템과 기업구조

카자흐스탄의 경제시스템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8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2000년에 설립한 국가석유자금(The National Oil Fund)을 이용한 노르웨이와 싱가포르와 비슷한 경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요 수출 품목인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부를 삼룩 카즈나(Sa라는 국부펀드회사를 설립하여 약 500개 이상의 기업을 직간접으로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구소련에서 독립한 CIS 국가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시스템(Transition Economy)과 함께 국가가 주요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Sovereign Wealth Fund)을 도입하였다. 이는 자본주의를 선도하는 영미식 모델(Market system), 은행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한 일본-독일식 모델(Bank system), 정부가 직접 대기업을 통제하는 프랑스식 경제 시스템(SOE system), 그리고 한국을 비롯하여 같이 많은 아시아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기업들의 소유가 가족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한 가족중심형 기업 경제시스템(Family Owned Enterprise)과도 차별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석유와 가스로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부펀드를 이용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경제시스템과 소련식 교육은 국가/기업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카자흐스탄 문화

앞서 말한 한국기업의 투자위험으로 뽑은 현지인의 정서와 기업문화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카자스탄 기업문화를 Greet Hofstede 의 설문내용인 (1) 권력 거리 지수(Power Distance), (2)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Individualism), (3) 남성성 대 여성성(Masculinity), (4)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5) 장기 오리엔테이션(Long Term Orientation)을 이해하고 카자흐스탄의 보편적 국민 문화 이해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기준 논문과 비교 분석하려 한다.

(1) 권력 거리 지수(Power Distance Index, PDI): 사회 내의 기관 및 단체의 강력한 구성원들이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산되어 있는 점을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 거리지수가 작은 문화권에서는 상사가 독재적이지 않고 부하들과 상사는 평등하다고 생각하며 부하들은 상사에게 쉽게 접근하고 협의를 선호한다. 조직은 분권화될 수 있지만 급여 격차는 낮을 수 있다. Power Distance 가 큰 문화에서는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상당한 의존성이 있다. 조직은 권력을 중앙 집중화하고 부하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이 나오기를 예상한다. 상급자에게는 특권이 있고 급여에도 큰 격차가 있다.

(2)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Individualism, IDV): 개인의 이익이 그룹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는 직원이 충분한 개인 시간을 남겨두고 직장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성취감을 얻는다. 인센티브와 보너스는 개인의 성과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직원의 성과가 좋지 않으면 해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부유한 국가는 개인주의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지만 가난한 국가는 일반적으로 집단주의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개인주의가 덜한 문화에서 사람들은 강한 단결된 집단으로 통합되고 경제적 생활은 집단 주의적 이익에 의해 조직된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훈련, 신체 조건 및 기술 사용이 중요하다. 고용주는 그룹에 속한 사람을 고용 할 수 있다. 개인보다 인센티브와 보너스가 그룹에 제공됩니다.

(3) 남성성 대 여성성(Masculinity, MAS): Masculinity 문화 가치는 남성성의 고정 관념(예 : 공격성과 지배력)과 여성성(예 : 동정심, 공감, 정서적 개방성)과 관련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남성적 문화의 가치관은 경쟁력, 자기주장, 유물론, 야망, 권력과 같은 것을 중시한다. 반면에 여성적 문화에서는 대인관계나 삶의 질 같은 것을 보다 높게 평가한다. 남성적인 문화에서는 성역할의 차이가 크고 유동성이 작다. 이에 비해 여성적인 문화에서는 정숙이나 헌신 같은 개념을 남녀 양성이 똑같이 강조받는다. 여성 문화권에서는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협력과 고용 안

정이 매우 중요하다.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된다. 여성 또한 관리자이다. 직원들은 자신과 가족에게 바람직한 지역에 살고 싶어한다. 여성 문화는 서비스, 컨설팅 및 운송에 이점이 있다.

(4)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UAI): 불확실성 회피는 불확실하고 알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사회의 기관 및 조직 구성원이 위협을 느끼는 범위로 정의된다. 고도의 불확실성 회피 사회에서 사람들은 종종 직장에서 긴장을 느끼고 회사 규칙이 깨져서는 안되며 안정된 직업과 회사에서의 장기간의 경력을 선호한다. 사람들은 규칙을 고수하고, 공식적인 삶의 구조를 선호하며,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운영된다. 불확실성 회피 사회에는 보다 공식적인 법률, 내부 규정 및 작업, 권리 및 의무를 통제하는 비공식적인 규칙이 있다. 이 사회의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과 정보에 주저하며 의사소통 도구 도입이 더디게 진행된다. 약한 불확실성 회피 문화에서는 엄격하게 필요한 규칙 만 허용된. 사람들은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경향이 있다.

(5) 장기 오리엔테이션(Long Term Orientation, LTO): 미래의 보상, 지속성, 절약 및 저축에 대한 방향을 육성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넓은 경제적 차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장기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국가에서는 기획이 더 길다. 회사는 직원 교육 및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기꺼이 투자한다. 전형적인 서구의 문화적 특징인 단기 오리엔테이션은 현재의 즉각적인 단기 성과를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한다.

카자흐스탄은 1992년에 독립한 지 25년 된 젊은 나라다.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이며 많은 소수 민족과 함께 다문화를 가지고 있다. 언어는 러시아어를 공통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만 국가언어인 카작(Kazakh)어를 정부가 국가공식어로 사용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가족관계를 중시하며 친구, 이웃 그리고 동료들과의 신의를 중요시하며 나이든 분을 우대하는 집단주의(Collectivistic) 국가로 알려져 있다. “Adamga adamsyz kyun zhok”, 또는 “Kozysyz alomyr syurup, adamarsyz omyr syurmeisin”라는 말로 인생은 너의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말로 단체를 중시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의미할 수 있다.

권력거리(Power Distance) 문화 지표를 보면 카자흐스탄 사회는 수직적 권력 구조(hierarchical)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화가치는 교육에 있어서도 젊은 세대에게 강조되고 있다. 이는 유럽국가들의 교육방식인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것 보다 서로 의사소통을 통한 컨설팅방식과 차이가 있다.

카자흐스탄 사회는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ne) 문화가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적 문화는 복종형 문화이므로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한쪽 의사를 따르기 때문에 반대쪽 의견

은 무시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여성적 문화는 반대로 상호간 원-원전략이라고 본다. 카자흐스탄 문화는 여성에게 사회, 경제 관료사회에서 여성에게 책임지는 높은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며 여성은 가족을 돌보는 것 역시 충실히 해야 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경향과 함께 정치, 사회 그리고 교육에 있어 장기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여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권력지향적인 사회이므로 암묵적으로 상사의 의사를 따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4. 카자흐스탄 문화 지표 비교 연구

Hofstede (1997, 2001)는 국가간의 기업문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국에서 근무하는 IBM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기업문화를 Greet Hofstede 의 설문내용인(1) 권력 거리 지수(Power Distance), (2)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Individualism), (3) 남성성 대 여성성(Masculinity), (4)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5) 장기오리엔테이션(Long Term Orientation)이 주요 내용이며 이는 많은 학자들이 인용하여 각국별 문화 차이를 이용한 국제 경영, 인사 조직, 관광, 교육 연구에 쓰이고 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의 문화 지표는 빠져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와 영어로 설문조사를 작성하여 알마티 시내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직원 50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래 도표[1]와 같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문화 분석차이를 살펴보았다.

카자흐스탄의 권력거리(Power Distance) 문화지수는 한국과 비슷한 6 점이다. 이는 러시아, 루마니아, 중국, 베트남보다 높고 인도보다는 낮은 점수이나 자본주의제도와 경제 개방화를 먼저 실행한 체코와 헝가리보다는 높은 점수이다.

개인주의(Individualism, IDV) 문화지수는 비슷한 권력거리 지표를 가진 나라와 달리 높은 점수 71 점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18 점 일본 54 점 그리고 러시아 39 점, 중국 20 점인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지만 헝가리 80 점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설문연도(2017)와 Hofstede(1997, 2001)가 조사한 년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많은 국가들이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경제적으로 경쟁이 심화하면서 성과를 중시하고 이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를 원하기 때문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의 경우 중앙아시아 제 1의 경제 도시이기에 직장인들이 조직의 충성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직장을 이직하고 다시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남성적(Masculinity, MAS) 문화지수의 경우 68 점을 보였다. 본문 2.2 카자흐스탄 문화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남성중심적 사회이지만 여성성(feminine) 문화도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여성성 문화를 가진 일본과 유럽에서의 스웨덴을 빼면 형가리와 함께 높은 여성성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 문화권에서는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협력과 고용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여성 또한 관리자로 일한다. 여성 문화는 서비스, 컨설팅 및 운송에 이점이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이나 알마티 도시가 제조업보다는 금융, 운송과 서비스업이 주산업임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는 한국과 일본보다는 낮으나 중국, 베트남 그리고 인도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 오리엔테이션(Long Term Orientation)은 한국 100 점, 일본 88 점, 중국 87 점보다는 낮은 63 점으로 나타났다. 장기오리엔테이션은 미래의 보상, 지속성, 절약 및 저축에 대한 방향을 육성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복지와 삶의 질과 안전성에서 아직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실크로드 주변국가들의 문화 차이 분석표

	권력거리	개인주의	남성 /여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	조사년도
Korea	60	18	39	85	100	2001
Japan	54	46	95	92	88	2001
China	80	20	66	30	87	2001
Russia	93	39	36	95	81	2001
Kazakhsatn	64	71	68	73	63	2017
Turkey	66	37	45	85	46	2001
Iran	58	41	43	59	14	2001
Romania	90	30	42	90	52	2001
Czech Rep	57	58	57	74	70	2001
Hungary	46	80	88	82	58	2001
Slovenia	71	27	19	88	49	2001
Vietnam	70	20	40	30	57	2001
India	77	48	56	40	51	2001
Indonesia	78	14	46	48	62	2001
Malaysia	104	26	50	36	41	2001

## 5. 결론

카자흐스탄은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대 실크로드를 현대화하는 작업에 지정학적으로 중심에 있는 국가라 말 할 수 있다. 고대 실크로드의 현대화는 아시아와 유럽을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연결하는데 막대한 자금 투자와 각국간의 협력이 필요 하다. 국가간의 이해관계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협의를 위해서는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각국의 문화지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면서 가장 큰 차이점과 실패 요인의 하나로 문화의 차이점을 들었다. 이는 과거의 단순히 경쟁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교역하는 시대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협력 해야 할 것인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은 세밀한 연구가 실행되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각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변화하는 문화를 기록하고 문화를 서로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국가간 또는 민관차원의 협력이며 이는 국가간의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Bradley L. Kirkman, Kevin B. Lowe, and Cristina B. Gibson, "A quarter century of *Culture's Consequences*: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incorporating Hofstede's cultural values framework,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36 (3). 285-320.
2. Bradley L. Kirkman, Kevin B. Lowe, and Cristina B. Gibson, "A quarter century of *Culture's Consequences*: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incorporating Hofstede's cultural values framework,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36 (3).285-320.
3. Raj Aggarwal, Colm Kearney, and Brian Lucey, "Gravity as a cultural artefact: Culture and distance in foreign portfolioinvestment," January 2009.
4. Chakrabarty, S. 2009. The Influence of National Culture and Institutional Voids on Family Ownership of Large Firms: A Country Level Empirical Study.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ol. 15 (1): 1-31.
5. Connel V. O. & N. Cramer,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board characteristics in Ireland", *European Management Journal* (2010) 28, 387-399.
6. Gray, S. J. 1988. Towards a Theory of Cultural Influence on Development of Accounting Systems Internationally. *Abacus* 24 (1): 1-15.
7. Guan, L., H. Pourjalali, P. Sengupta, and J. Teruya. 2005. Effect of Cultural Environment on Earnings Manipulation: A five Asia-Pacicid Country Analysis. *The Multinational Business Review*, Vol. 13 (2): 23-41.
8. Hofstede, G. 1997.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 McGraw-Hill.

9. Geert Hofstede,2001, “The Cultural Context of Accounting,” in Accounting and Culture: Plenary Session Papers and Discussants’ .
10. Jackling B. and Johl S., 2009. “Board Structure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India’s Top Companies”, Journal: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2009, 17 (4), pp. 492-509.
11. Ward A. J, Brown J. L. & D. Rodriguez, 2009. “Governance Bundles, Firm Performance, and the Substitutability and Complementarity of Governance Mechanisms, Journal: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2009, Volume 17, Issue 5, pp. 646-660.
12. Wasserman, N., Nohria, N., &Anand, N. B. (2001). When Does Leadership Matter? The Contingent Opportunities View of CEO Leadership. Strategy unit working paper No. 02-04;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No. 01-063
13. Karen L. Newman and Stanley D. Nollen, “Culture and Congruence: The Fit Between Management Practices and National Cultur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7, No. 4 1996), pp. 753-779. )
14. Geert Hofstede,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Intellectual Cooperation and its Importance for Survival*.Harper Collins, 1991, pp. 79.
15. Geert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1980, p. 25, Beverly Hills, CA:Sage.
16. Schwartz, *Cultural Value Orientations: Nature & Implications of NationalDifferences*, 2008, Moscow: Publ. House of SU HSE.
17. Simcha Ronen and OdedShenkar, “Clustering countries on attitudinal dimensions: A review and synthesi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Jul 1985; Vol. 10, No. 3, p. 435-454
18. Gert-Jan M Linders, et al., “Cultural and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Bilateral Trade Flows,” Tim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TI 2005-074/3.
19. Nigel Finch, “Towards an Understanding of Cultural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Practice of Accounting,”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Cultural Studies*, 2009.

[부록 1]

카자흐스탄-대한민국 경제 협력  
<한국 기업의 투자 만족도 조사>

설문대상: 투자설립연도 : 2000-2014, 평균 6년

1. 귀사가 카자흐스탄에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 2)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진출하기 위해 (45%)
  - 3) 카자흐스탄시장을 보고 (36%)
  - 1), 2), 3)을 위해 (4.18%)
2. 귀사가 카자흐스탄에 투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 1)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18%)
  - 2) 노동력의 효율성 (0%)
  - 3) 잠재적 성장가능성 (72%)
  - 4) 정치 경제적 안정성 (5%)
  - 5) 기타 (설명: 회사 정책) (5%)
3. 현재까지 기업의 성과에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0%)
  - 2) 만족 (59%)
  - 3) 만족 못함 (31%)
  - 4) 매우 만족 못함 (5%)
4. 만족하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성장 기회, 시장 성장 잠재력, 노동력, 유통산업
5. 만족 못하시다면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 1) 5년 동안 성장 대비 수익 미달성
  - 2) 경제, 금융 법 제도 불안전성
  - 3) 시장의 한계
  - 4) 본사 또는 한국과의 정보 불일치

6. 카자흐스탄이 한국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          |       |
|----------|-------|
| 1) 국민 문화 | (73%) |
| 2) 회사 문화 | (68%) |
| 3) 법률    | (55%) |
| 4) 금융    | (23%) |

7. 카자흐스탄에서 사업 할 때 가장 고려 할 점은 무엇입니까?

- 1) 법률 / 세금/인허가
- 2) 리스크(금융, 수출입 절차, 환율, 부정부패)
- 3) 문화(현지인 네트워크)
- 4) 철저한 시장 조사

8. 향후 카자흐스탄 시장 잠재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 |            |         |
|------------|---------|
| 1) 매우 좋음   | (4.5%)  |
| 2) 좋음      | (81%)   |
| 3) 안 좋음    | (4.55%) |
| 4) 매우 안 좋음 |         |
| 5) 잘 모르겠음  | (5%)    |

9. 카자흐스탄에서 경영하는데 가장 큰 위협요소는 무엇입니까?

- 1) \*Transparency: unexpected changes of regulation, law and government policy
- 2) \*Instability of political and economic issue in international relation.
- 3) \*Stereo type in Cultural differences

10.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카자흐스탄에 관한 연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Law (Commercial and Government)
- 2) Culture and Social Network
- 3) Risk

## 해외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통합 피드백의 활용에 대한 논의 :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이연  
크질오르다 국립대

**개요:**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교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교원들의 노력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급증한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와 노동 시장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의 내실을 공고히 해야 할 때이다.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의 주요 문제는 현실적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 과정 문제, 전문성을 갖춘 교원 수급 문제, 다양한 교재 개발 문제이다. 이는 지금 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현 한국어 교원들은 현 체제 내에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이루기 위하여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해외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통합 피드백의 틀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한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쓰기 수업의 실제를 제시한다.

실제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 활용하여 제시하는 한국어 쓰기 수업의 모형, 쓰기 활동 자료의 예, 통합 피드백의 틀, 분석적 평가 기준표 등이 해외 한국어 쓰기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해외 한국어 교육, 한국어 쓰기 교육, 통합 피드백, 분석적 평가

**Title:** A Discussion on the Use of Integrated Feedback in Overseas Korean Writing Education: Focused on the Case of Kyzylorda State University

**Author:** Kim Yi Yeon, Korkyt Ata Kyzylorda State University, Kyzylorda, Kazakhstan

**Abstract:**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Kazakhstan has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thanks to the efforts of many teachers despite the difficult circumstances. It is time to consolidate internal stability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Kazakhstan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e rapidly increasing Korean language learners and the demands of the labor market.

The main problems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Kazakhstan are the problem of curriculum that does not meet realistic demands, the problem of supply and demand of teachers with expertise, and the problem of developing various textbooks. These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from a long-term and macro perspective, as discussed so far. At the same time, current Korean teachers are required to develop and share teaching methods that can be used in the actual classes in order to achiev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within the current system. As a part of this, a framework of integrated feedback applying criteria of analytic assessment that can be used in Korean writing education abroad is proposed, and an actual example of Korean writing class at Kyzylorda State University is presented.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writing class model, examples of writing activity materials, the framework of integrated feedback, and the criteria of analytic assessment which are utilized in the actual Korean writing class would be useful in the field of Korean writing education abroad.

**Keywords:**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Writing Education, Integrated Feedback, Analytic Assessment

## 1. 서론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에 힘입어 한국어 교육은 지난 20여 년 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학습자 수가 급증하였으며, 한국어 교육 연구는 독립적인 학문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해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현황 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 또한 1991년 아바이 국립사범대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로 크게 성장하였다.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은(한영균·김수경·김류보비 2009; 한넬리 2015; Nelly Park 2015) 주로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의 주요 문제는 교육과정, 교원, 교재의 문제이다.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주도하는 기관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노동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며, 강의 시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양성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춘 교원이 부족하며, 적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한국어 전공 졸업생들이 한국어 교원이 되는 것을 기피한다. 또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현 교원들이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현 체제 내에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에서 파견된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의 주요 과제는 최근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현지 한국어 교육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에서 활용한 다양한 교수법 가운데 최근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쓰기 피드백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해외 한국어 쓰기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 피드백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어 교육은 학습자가 목표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유창하게 의사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자의 목표어 숙달도를 측정하는 것은 평가가 담당한다. 과정 중심 외국어 교육에서 평가는 학습자의 교육 성과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한 피드백으로서 작용한다.

언어의 네 가지 기술 중 쓰기는 학습자의 문어 표현 능력을 결과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평가와 피드백이 비교적 수월하다. 이에 과정 중심 외국어 교육에서 쓰기 평가와 피드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한국어 교육에서 또한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핵심인 평가와 피드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평가와 관련한 연구(김정숙 2010; 김성숙 2011; 김성숙·이연희 2011)에 의하면 학습자의 쓰기를 여러 하위 범주로 나누어 각 범주별로 분리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는 평가 방법인 분석적 평가가 평가 대상을 전체적인 인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 종합적 평가에 비해 객관적이고 신뢰도 있으며 학습자의 쓰기 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평가 방법이다.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 또한 분석적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 범주는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으로 쓰기의 내용 영역과 형태 영역을 두루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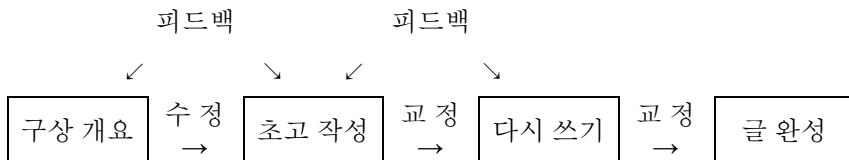
이와 같은 분석적 평가를 피드백으로서 활용하면 통합 피드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통합 피드백은 쓰기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 중심 피드백과 쓰기의 의미적인 측면에 제공되는 내용 중심 피드백을 모두 제공하는 피드백이다. 또한 학습자의 쓰기에 대해 각 세부 영역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구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인 역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분석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통합 피드백을 제안하고,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해외 한국어 쓰기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통합 피드백

한국어 쓰기 교육의 목표는 형식적으로 응집성 있고 의미적으로 일관성과 완결성을 갖춘 담화를 생성하는 것이며 담화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정숙 1999: 196).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은 쓰기를 완성된 결과물이 아닌 결과물을 산출해내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인지적 관점의 작문 이론에 근거한다.

정현경(1999)이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한국어 쓰기 교수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과정 중심 쓰기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강승혜 2014: 11-12), 쓰기 활동의 단계와 작문 과정 모형이 제시되어 왔다. 과정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의 대표적인 작문 과정 모형은 다음과 같다.

&lt;그림1&gt; 작문 과정(이미혜, 2000)



학습자들은 글을 쓰기 전 주제를 선택하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글의 개요를 작성한다. 피드백을 토대로 개요를 수정하고 초고를 작성한다. 또다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교정하는 다시 쓰기 단계를 거쳐 글을 완성한다. 이와 같은 작문 과정은 순환적이며, 지속적인 피드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쓰기 교육에서 피드백은 일반적으로 쓰기 오류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쓴 작문을 평가하고 고쳐야 할 점 등을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한국어 교육학 사전 2014: 1152). 쓰기 피드백은 누가 제공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지,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제공하는지, 무엇에 대해 제공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쓰기 피드백의 유형<sup>1</sup>

기준	유형	의미
주체	교사 피드백	교사가 학습자에게 주는 피드백
	동료 피드백	동료 학습자가 다른 동료 학습자에게 주는 피드백
	자기 피드백	스스로에게 주는 피드백
방법	직접 피드백	명시적으로 오류를 지적해 주는 피드백
	간접 피드백	암시적으로 오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피드백
수단	서면 피드백	쓰기 작문지에 직접 글이나 기호로 제공하는 피드백
	면담 피드백	면담을 통해 내용이나 정보를 전달하면서 오류를 수정하는 피드백
내용	형태 중심 피드백	기술적인 측면(문법·어휘의 사용, 맞춤법의 적용 등)에 대한 피드백
	내용 중심 피드백	의미적인 측면(주제의 적절성, 글의 전개 및 구성 등)에 대한 피드백

한국어 쓰기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피드백이 주로 이루어지며 연구 또

<sup>1</sup> 백재파(2016)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한 교사 피드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료 피드백과 자기 피드백의 효과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되고 있다. 김민정(2008)은 내용 영역에서 동료 피드백의 효과를, 나원주(2008)는 형태 영역에서 자기 피드백의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사 피드백과 더불어 내용 영역에서는 동료 피드백을, 형태 영역에서는 자기 피드백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면 통합 피드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동료 피드백과 자기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들은 능동적인 피드백의 주체로서 쓰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피드백의 유형 중에 직접 피드백과 간접 피드백의 효과에 대한 문제는 연구마다 다른 결과값이 도출되어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다. 단기적으로는 직접 피드백이, 장기적으로는 간접 피드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한국어 쓰기 피드백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백재파 2016)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를 갖는 다른 유형의 피드백과는 달리 간접 피드백만이 중간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접 피드백이 다른 유형의 피드백과 비교하여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면담 피드백은 보통 서면 피드백을 전제로 제공되기 때문에 서면 피드백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박영지 2013; 동동·김영주 2014; 동동·김영주 2015; 동동 2016).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서면 피드백이 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과정 중심 외국어 쓰기 교육에서 작문의 초기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의미, 중심 생각, 글의 구성에 중점을 두어 내용 중심 피드백을 제공하고, 작문의 후기 단계에서는 지엽적인 형태 오류를 다루는 형태 중심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장되어 왔다(Brown & Abeywickrama, 2010: 288-289). 이와 같은 통합 피드백은 쓰기의 내용 영역과 형태 영역 모두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쓰기의 내용 영역과 형태 영역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외국어 쓰기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내용 중심 피드백보다 형태 중심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소연 2007; 손태호 2007). 대학 글쓰기 교수자들의 쓰기 평가 경향 및 평가 인식을 분석한 연구인 주민재·김진웅(2014)에서도 작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에 피드백의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통합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형태 중심 피드백이 이루어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쓰기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쓰기 교수자들 또한 형태 중심 피드백 위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는 교수자와는 달리 대부분 쓰기에 필요한 지식 범주나 평가의 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 쓰기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알고 있는 학습자라도 자신의 쓰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이로 인해 교

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분석적 평가의 결과를 학습자에게 제시하여도 학습자는 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하지 못한다. 이는 분석적 평가의 긍정적인 역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쓰기에 필요한 지식 범주와 평가의 기준을 알고, 자신의 쓰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통합 피드백의 틀을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분석적 평가를 통합 피드백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이자 통합 피드백을 구조화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통합 피드백의 틀을 제안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두루 사용되는 김정숙(2010)의 분석적 평가의 평가 범주와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 작문 문항 평가 범주를 참고하였다. 김정숙(2010)의 분석적 평가의 평가 범주는 <표2>,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 작문 문항 평가 범주는 <표3>과 같다.

&lt;표2&gt; 분석적 평가의 평가 범주와 점수 분배(김정숙 2010)

평가 범주	내용		점수 분배
내용 및 과제 수행	요구된 내용을 적절하게 포괄하며, 과제를 적절히 수행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0점
글의 전개 구조	적절한 문단 구조를 이용하고 담화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응집성 있게 구성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0점
언어 사용	어휘	어휘를 적절하고 정확하며 유창하게 사용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5점
	문법	문법을 적절하고 정확하며 유창하게 사용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5점
	맞춤법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점
사회언어학적 격식	작문의 장르적 특성 등에 맞추어 격식(Register)의 사용이 적절한가를 평가한다.		10점

&lt;표3&gt; TOPIK II 쓰기영역 작문 문항 평가 범주

문항	평가 범주	평가 내용
51-52	내용 및 과제 수행	- 제시된 과제에 맞게 적절한 내용으로 썼는가?
	언어 사용	- 어휘와 문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
53-54	내용 및 과제 수행	-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글의 전개 구조	-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작적으로 연결하였는가?
언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며 적절한 문법과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는가</li> <li>- 문법, 어휘, 맞춤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li> <li>-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li> </ul>

이를 토대로 구성한 분석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통합 피드백의 틀은 다음 <표4>와 같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수학하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실력은 초급과 초·중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숙달도 수준을 고려하여 피드백 질문을 쉬운 문장으로 표현하였고, 내용 또한 해당 수준의 작문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lt;표4&gt; 분석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통합 피드백의 틀

쓰기 범주	김정숙(2010) 평가범주	피드백의 틀		
		피드백 질문	평가 척도	
내용	내용 및 과제 수행	1. 주제가 잘 나타납니까?	상	중 하
		2. 필요한 내용이 모두 있고 풍부합니까?	상	중 하
	글의 전개 구조	3. 처음-중간-끝이 있습니까?	상	중 하
		4.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습니까?	상	중 하
형태	어휘의 사용	5. 알맞은 단어를 틀리지 않고 잘 사용하였습니까?	상	중 하
		6. O급 수준에 맞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까?	상	중 하
	문법의 사용	7. 알맞은 문법을 틀리지 않고 잘 사용하였습니까?	상	중 하
		8. O급 수준에 맞는 문법을 많이 사용하였습니까?	상	중 하
	맞춤법의 적용	9. 글자를 틀리지 않고 잘 썼습니까?	상	중 하
사회언어학적 격식	10. 알맞은 표현을 틀리지 않고 잘 썼습니까?	상	중 하	

첫 번째 피드백 질문은 학습자의 쓰기가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를, 두 번째 피드백 질문은 학습자의 쓰기가 요구된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여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문항은 내용 및 과제 수행 평가 범주에 해당한다.

세 번째 피드백 질문은 글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단락 구성이 이루어졌는지,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지를 평가하고 이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번째 피드백 질문은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내용을 응집성 있게 구성하였는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문항은 글의 전개 구조 평가 범주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 피드백 질문과 일곱 번째 피드백 질문은 각각 어휘와 문법의 정확성에 관련된 문항이다. 쓰기 과제에 적절한 어휘와 문법을 선택하여 정확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여섯 번째 피드백 질문과 여덟 번째 피드백 질문은 각각 어휘와 문법의 유창성에 관련된 문항이다.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홉 번째 피드백 질문은 맞춤법의 적용과 관련된 문항이다.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마지막 피드백 질문은 사회언어학적 격식 영역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문항이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글의 장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격식에 따라 과제에서 요구하는 종결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에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은 이와 같은 통합 피드백의 틀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에서 수행된 통합 피드백의 틀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수업의 실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3.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현황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정식 명칭은 코르كت아타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로 1931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된 원동고려사범대학의 후신이다. 원동고려사범대학은 1937년 극동 지역 고려인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와 함께 크질오르다로 옮겨졌고, 1938년 크질오르다 사범대학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일반 소련식 사범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고려인 민족학교의 성격은 남아 있지 않게 되었으며, 1996년 크질오르다 인문대학교로, 1998년 현재의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로 변경되었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는 1991년 동양어학부에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갖은 명칭 변경<sup>2</sup>과 학교의 무관심으로 폐과되었다가 2013년 현재의 외국어 및 통·번역학과 내 영어-한국어 전공<sup>3</sup>으로 재개설되었다.

<sup>2</sup>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에서의 한국어관련학과의 명칭은 동양학과, 국제 경제 한국어과, 한국어 영어과, 한국어 통역과, 지역학과의 한국어 전공 분과로 거듭 변경되었다(조나야 2009: 59).

<sup>3</sup> 정식 소속 및 명칭은 ‘문헌, 역사, 법학부(Faculty of Philology, History and Law)’의 ‘외국어 및 통·번역 학과(Department of Foreign Languages and Translation)’ 내

학과 내 타 전공으로는 영어-아랍어 전공, 영어-중국어 전공이 있다. 영어-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의 전공은 제1 외국어인 영어이고, 한국어는 제2 외국어로 이중 전공에 해당한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영어, 교육학을 전공 수준으로 학습하고 있으며, 소속은 한국의 어문학부에 해당 하나 한국의 사범대학과 같이 교생 실습을 한다.

2013년 학과 재개설 이후 지금까지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학과는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인한 학습자들의 관심과 한국의 다양한 기관의 도움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제1 회 졸업생 8명을 배출하였으며, 1학년 20명, 2학년 19명, 3학년 7명, 4학년 11명, 총 57명이 수학 중이다. 2018년 9월 예상 신입생 수는 20명으로 총 66명이 수학할 예정이다. 다음 <표5>는 2013년 학과 재개설 이후 재학생 및 졸업생의 연도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lt;표5&gt; 크질오르다 국립대 한국어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 연도별 현황

연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재학생 총합	졸업생 총합
2013	8	-	-	-	8	-
2014	11	8	-	-	19	-
2015	7	11	8	-	26	-
2016	19	7	11	8	45	-
2017	20	19	7	11	57	8
2018	20(예정)	20	19	7	66(예정)	19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또한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의 주요 문제인 교육과정, 교원, 교재의 문제를 안고 있다.

&lt;표6&gt; 크질오르다 국립대 한국어전공 학년별 강의명 및 시수

학년	1학기			2학기		
	강의명	학점	시수	강의명	학점	시수
1학년	제2외국어(한국어)	3	60	실용제2외국어	2	40
				제2외국어(A2)	2	40
2학년	실용한국어	2	40	외국어(제2)	2	80
	실용한국어문법	3	60	한국어말하기	2	40
3학년	실용한국어	3	60	한국어말하기연습	4	80
4학년	학문목적 한국어	3	60	-	-	-

‘영어-한국어 전공(Specialty in Foreign Languages: Two Foreign Languages: Korea n)’이다.

위의 <표6>은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육 강의명과 시수를 정리한 것이다. 강의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학, 한국어문학과 관련된 강의는 전무하다.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학당이나 국외 세종학당과 같이 한국어만을 교수·학습한다. 강의 시수는 학년별·학기별 평균 70시간, 4년 총합 560시간으로 표준(200시간) 모형보다는 세종학당 모형에 가깝다.<sup>4</sup> 한국의 대학과는 달리 학습자들은 강의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은 위와 같은 강의를 필수로 수강한다. 4학년 2학기의 경우 교생 실습으로 인해 별도의 정규 한국어 강의는 없고, 10주 차부터 12주차까지 3주 동안 주당 4시간의 특별 강의가 있다.

파견 전 기준의 교육과정, 실라버스, 교재 사용 등 크질오르다 한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파견 초기 학습자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표준 모형과 세종학당 모형을 참고하여 교육과정을 정비하였다. 본교에 가장 많이 구비되어 있던 연세 한국어를 기준으로 1학년과 2학년 동안 연세 한국어 1권과 2권을 교수·학습하여 2급 수준을 갖추고, TOPIK I 기출 문제 학습을 통해 숙달도를 측정한다. 이후 3학년 2학기 동안 연세 한국어 3급을 공부하여 3급 수준을 갖추고, 4학년 1학기에는 TOPIK II 기출 문제를 학습하며 3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전공은 외국어 및 통·번역학과 내 소속되어 있고, 주 전공이 아닌 부전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어만을 교수·학습하는 위의 교육과정은 적합한 것으로 보이나 강의 시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고급 한국어 실력을 갖춘 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원 문제이다. 현지인 교원 없이 한국에서 파견되는 두 명의 한국인 교원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한영균·김수경·김류보비(2009)에서는 파견 교원의 경우 일정 임기를 마치면 귀국하게 되어 현지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며 현지에 정착해 살면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담당할 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논한 바 있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전공이 폐과된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현지 교원 충원이 가장 시급하다. 더불어 파견 교원 또한 최소한 임기 기간 동안의 교육과정, 실라버스, 교재 사용 등 한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후임 파견 교원에게 인수인계하여 지속성 있는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어 교수·학습의 중심이 되는 매체인 교재 또한 상당히 부족하다.

<sup>4</sup>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 단계(2011: 108)에 의하면 세종학당 정규과정은 표준(200 시간) 모형과는 달리 S1에서 S10 까지이며(표준 모형의 1급에서 4급), 각 단계는 60 시간을 기본 교육 시간 수로 상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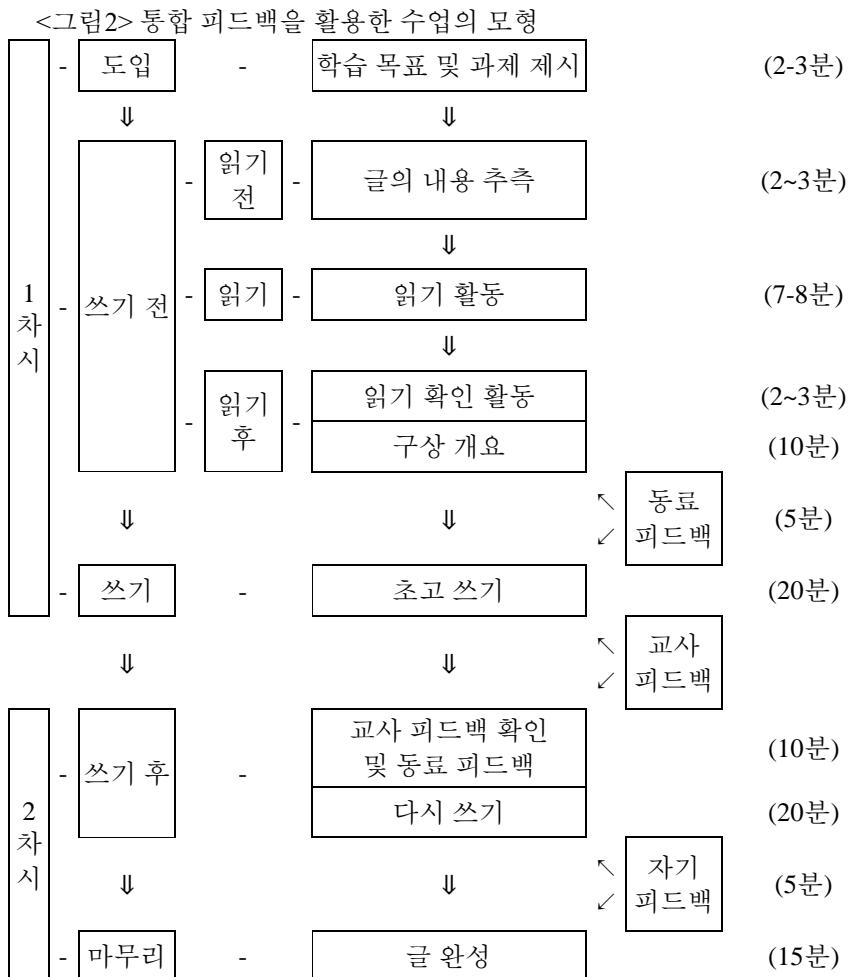
학년별 학생 수는 20명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연세 한국어 교재의 수량은 단계별 10권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파견 기관의 교수·학습 지원비로 교재를 구매하여 현재는 단계별 10권씩 구비해 두었으며, 활용연습 교재 또한 1권씩 구매한 후 복사·제본하여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 파견 기간 추가 지원비 또한 교재 구입에 사용할 예정이다. 연세 한국어 외에도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세종 한국어를 비롯한 다수의 한국어 교재가 1권씩 구비되어 있다. 수량이 적어 주 교재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경우 과제나 추가 활동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열정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도모하고 있다.

#### 4. 통합 피드백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수업의 실제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에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은 3장에서 제시한 통합 피드백의 틀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목표 한국어 학습 진도에 비해 강의 시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쓰기 수업이 자주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학습자의 요구나 교수자의 필요에 의해 특별 수업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비교적 출제 양식이 자유로운 모듈2 시험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 중 모듈2 시험에 활용한 쓰기 과제를 중심으로 통합 피드백을 활용한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쓰기 수업의 실체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 피드백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수업의 절차와 내용을 담은 수업의 모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2>와 같다.



쓰기 과제는 ‘생일 파티에 초대하는 이메일 쓰기’로, 학습 목표는 “반말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일 파티에 초대하는 이메일을 쓸 수 있다.”로 설정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 의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텍스트인 이메일은 초급인 2급부터 중급인 4급까지 학습하기에 적절한 텍스트이다. 연세 한국어를 비롯한 다수의 초급 교재에서도 이메일 쓰기를 쓰기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 2학년 학습자들은 연세 한국어 제4과에서 주제로서의 ‘초대’를 학습하였고 생일 파티와 관련한 다양한 어휘와 ‘반말’을 학습하였다. 제4과 제1항 쓰기 과제로 초대장을 반말로 바꿔 보는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으며, 제4과 학습을 모두

마친 후 특별 수업으로 쓰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쓰기 과제를 제시하며 학습 목표를 설명한 한 후 쓰기 전 단계로서 ‘반모임에 초대하는 친구의 이메일’ 읽기 활동을 수행하였다. 읽기 활동은 쓰기 활동과 같이 전, 중, 후 단계로 나뉜다. 읽기 전 단계에서는 반모임에 초대하는 이메일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질문하며 글의 내용을 추측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글의 내용을 추측하는 활동은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글의 이해를 돋는다. 이어 추측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며 본격적으로 글을 읽도록 하였고, 읽기 후 단계로 글의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를 풀었다. 실제 쓰기 전 읽기 활동 자료는 아래 <그림3>으로 제시한다.

<그림3> ‘생일 파티에 초대하는 이메일 쓰기’ 쓰기 전 읽기 활동

※ 다음은 반모임에 초대하는 친구의 이메일입니다. 잘 읽어 보세요.

- 반모임에 초대하는 이메일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 보세요.

받는 사람: 리옌<liyen@gamail.com>

보낸 사람: 스텔라<stella@gamail.com>

제목: 리옌, 우리 반모임을 할 거야.

리옌, 안녕? 나 스텔라야.

오늘 왜 학교에 안 왔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오늘 수업 시간에 반모임 장소와 시간을 정했어. 네가 오늘 학교에 안 와서 지금 메일로 알려 줄게.

우리 반모임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할 거야. 하나 식당 알지? 전에 너하고 같이 가서 비빔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기억해? 학교 정문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하나 커피숍이 보일 거야. 하나 식당은 하나 커피숍 2층에 있어. 거기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 하나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할 거야.

올 수 있지? 네가 꼭 와서 우리 같이 맛있는 점심도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면 좋겠어.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하나 식당에서 만나자. 안녕.

스텔라

※ 글을 읽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 |                                |         |
|--------------------------------|---------|
| 1) 리옌은 아파서 학교에 안 왔습니다.         | [O] [X] |
| 2) 리옌은 하나 식당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 [O] [X] |
| 3) 하나 식당과 하나 커피숍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 [O] [X] |

<그림3>에 제시된 읽기 자료는 쓰기 과제와 유사하게 학습자의 숙달도 수준을 고려하여 직접 작성한 자료이다. 학습자들은 쓰기 과제와 유사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메일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어 구상 개요를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구상 개요 작성 전 이메일의 구조와 형식에 대해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생일 파티에 초대하는 이메일에는 ‘처음’에 이메일을 쓰는 이유와 초대의 이유를 서술하고, ‘중간’에 생일 파티의 날짜와 시간, 장소, 생일 파티에서 할 일 등을 설명한 후 ‘끝’에 다시 한 번 만날 약속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어 간단한 짹 활동을 통해 구상 개요에 대한 동료 피드백을 수행하도록 하고 초고를 쓰도록 하였다.

한국의 대학 기관에서 2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을 때는 모든 학습자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초고를 완성하였지만,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2학년 학생 대부분이 2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쓰기 과제가 익숙하지 않아 해당 차시에 초고를 완성하지 못하고 추후 과제로 제출하였다.

과제를 모두 수거한 후에 2장 <표4>에서 제시한 분석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통합 피드백의 틀을 토대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학습자에게는 <표4>에서 쓰기 범주와 김정숙(2010) 평가범주는 제외하고 다음 <표7>과 같이 피드백의 틀 부분만 제시하였다.

<표7> 통합 피드백의 틀

피드백 질문	평가 척도		
	상	중	하
1. 주제가 잘 나타납니까?	상	중	하
2. 필요한 내용이 모두 있고 풍부합니까?	상	중	하
3. 처음-중간-끝이 있습니까?	상	중	하
4.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습니까?	상	중	하
5. 알맞은 단어를 틀리지 않고 잘 사용하였습니까?	상	중	하
6. 2급 수준에 맞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까?	상	중	하
7. 알맞은 문법을 틀리지 않고 잘 사용하였습니까?	상	중	하
8. 2급 수준에 맞는 문법을 많이 사용하였습니까?	상	중	하
9. 글자를 틀리지 않고 잘 썼습니까?	상	중	하
10. 알맞은 표현을 틀리지 않고 잘 썼습니까?	상	중	하

먼저 통합 피드백의 틀에 ‘상, 중, 하’를 표시한 후 내용 영역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해당 피드백 질문의 번호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코멘트 또한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하여 작성하였다. 형태 오류는 직접 피드백의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수정하였다.

2차시 쓰기 수업은 <그림2> 통합 피드백을 활용한 수업의 모형과 같이 교사 피드백을 확인하고 내용 중심의 동료 피드백을 수행한 후 초고를 수정하고, 형태 중심의 자기 피드백 후 글을 완성하는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수업 시간이 부족하고, 학습자마다 한국어 수준 차이가 커서 동료 피드백 및 자기 피드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학습자의 쓰기에 서면으로 피드백을 제공한 종이와 함께 피드백의 틀을 나눠 주고 피드백의 틀에 대해 설명한 후 글을 완성하는 것은 과제로 제시하였다. 분석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통합 피드백의 틀은 학습자가 자신의 쓰기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피드백을 주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한국의 대학 기관에서 2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과제의 쓰기 실험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는 다음 <표8>과 같은 분석적 평가 기준표에 따라 분석적 평가를 수행한 후 피드백 전의 초고와 피드백 후의 재고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통합 피드백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고에서 제시하는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쓰기 수업의 실제는 실험을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며, 실제적인 초고와 재고 작성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양적 통계 분석이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추후 참조를 위해 평가 기준표를 제시하고, 피드백의 효과는 학습자의 실제 예시 작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8>의 분석적 평가 기준표는 한국어 능력시험의 쓰기영역 작문 문항 평가 범주의 평가 내용을 참고하고 학습자의 숙달도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된 것이다. 작성 시간을 통제한 모듈2 시험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lt;표8&gt; ‘생일 파티에 초대하는 이메일 쓰기’ 평가 기준표

평가 범주	질문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조금 부족	매우 부족
내용 및 과제 수행	주제가 잘 나타납니까? (15점) * 제목에도 주제가 잘 나타나는가?	15	13	12	8	6
	필요한 내용이 모두 있습니까? (15점) * 초대하는 이유, 날짜와 시간, 모임 장소의 위치와 가는 방법, 할 일 등을 모두 풍부하게 썼는가?	15	13	12	8	6
글의 전개 구조	처음-중간- 끝이 있습니까? (10점) * 이메일의 형식(제목 등)에 관련된 부분도 평가 * 처음: 인사, 이메일을 쓰는 이유, (초대의 이유) 중간: 모임 장소, 가는 방법, 날짜와	10	9	8	6	4

	시간, 할 일 등 끌: 만날 약속, 끌인사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습니까? (10점)	10	9	8	6
어휘의 사용	의미가 맞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까? (7점)	어휘 오류 1개당 1점 감점 * 중복 오류는 한 번만 감점			
	배운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까? (8점)	8	7	6	4
문법의 사용	문법을 틀리지 않고 잘 사용하였습니까? (7점)	문법 오류 1개당 1점 감점 * 중복 오류는 한 번만 감점 * 반말 활용 오류는 표현에서 감점 * 수정 불가능한 비문 -2점			
	배운 문법을 많이 사용하였습니까? (8점)	8	7	6	4
맞춤법의 적용	글자를 틀리지 않고 잘 썼습니까? (10점)	맞춤법 오류 2개당 1점 감점 * 중복 오류는 한번만 감점 * 오류의 음절수대로 감점			
사회언어 학적 격식	글에 알맞은 표현을 썼습니까? (10점) * ‘반말’ 사용 확인	반말 오류 1개당 1점 감점 * 중복 오류는 한 번만 감점 * 반말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0점			

다음 <그림4>와 <그림5>는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한국어 전공 2학년 학습자의 실제 예시 작문이다. <그림4>의 학습자는 모듈2 시험에서 90점 대 후반을 받은 고득점자이고 <그림5>의 학습자는 60점대 초반을 받은 저득점자이다. <그림4>와 <그림5>의 예시 작문은 쓰기 수업을 진행한 당시 수집한 작문으로, 충분한 연습을 한 후에 제한 시간 내에 작성한 실제 시험 작문과는 다르다.

#### <그림4> 고득점자 예시 작문

제목: AA, 내가 생일 파티를 할 거야. AA, 안녕? 나 BB야. 오늘 친구 집에 왜 안 왔어? 문제가 없을지? 어제 수업 시간에 내가 장소와 시간을 정했어. 네가 오늘 친구 집에 안 와서 지금 메일로 알려 줄게. 바이스트리트 식당에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생일 파티를 할 거야. 바이스트리트 식당 알지? 지난 주말에 우리 CC의 생일으로 같이 갔어. 이 식당에 3층이야. 내 생일을 2층에서	제목: AA, 내가 생일 파티를 할 거야. AA, 안녕? 나 BB야.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 아무 문제도 없지? 어제 수업 시간에 내가 생일 파티 장소와 시간을 정했어. 네가 어제 학교에 안 와서 지금 생일에 대해서 메일로 알려 줄게. 바이스트리트 식당에서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내 생일 파티를 할 거야. 바이스트리트 식당 알지? 지난 주말에 우리 CC의 생일 때 같이 갔어. 이
---	---

<p>할 거야. 돈 걱정 하지마, 그냥 와. 내가 아무도 안 필요해. 나는 친구들과 너무 만나고 이야기도 싶어.</p> <p>올 수 있지? 네가 왔어 좋겠어. 그럼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바이스트리트 식당에서 만나자.</p> <p>BB</p>	<p>식당은 3층이야. 내 생일 파티는 2층에서 할 거야. 돈 걱정 하지마, 그냥 와. 내가 아무 것도 안 필요해. 나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싶어.</p> <p>올 수 있지? 네가 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바이스트리트 식당에서 만나자. 안녕.</p> <p>BB</p>
--	---

위 작문은 피드백 전에도 큰 오류 없이 잘 쓴 글이다. 그러나 ‘처음’ 부분에 어제와 오늘, 친구 집과 학교가 뒤섞이어 나타나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에 피드백의 틀에서 4번 문장의 연결 문항을 ‘중’으로 표기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어떤 장소와 시간을 정했는지, 무엇에 대해서 메일로 알려 주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작문지의 해당 부분에 2번 내용 및 과제 수행 문항과 4번 문항의 번호를 적고 필요한 내용을 쓸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조사, 어미 등의 적절한 사용과 같은 문법적인 오류는 작문지의 해당 부분에 7번 문항의 번호를 표기하고 직접 피드백의 방법으로 수정하였다. 그 중 ‘아무+도’ 문법의 경우 ‘아무도’와 ‘아무 것도’의 차이만을 지적하였으나 피드백 후 ‘문재가 없을지?’ 문장을 ‘아무 문재도 없지?’로 수정한 것으로 보아 교사의 피드백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문장에도 적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그림5> 저득점자 예시 작문

<p>DD, 안녕? 나 EE야. 내일 생일 파티야. 올까? 너는 알고 있을까? 나는 너는 오면 기쁘다. 나는 조금 함으로 너를 고대하고 있어. 너 남자 친고와 함께 갈 수 있어? 때문에 나의 남자친고를 만나고 싶어. 안녕! 사랑해요! 위치: 바이 태래크 날짜: 27일 3시</p>	<p>DD, 안녕? 나 EE야. 내일 내 생일 파티야. 알고 있어? 올 거야? <u>생일 파티 위치는 바이태래크이고</u> <u>27일 3시에 할 거야.</u> 네가 오면 기쁠 것야. 나는 꼭로 너를 보고 싶어. 네 남자친구와 함께 올 수 있어? 네 남자친고도 만나고 싶어. 안녕! 사랑해!</p>
--	--

저득점자의 예시 작문을 살펴 보면 배운 수준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문법과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 사전에서 찾아 이를 그대로 베껴 쓴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문법과 어휘 수준이 낮은 경우 작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형태에 대한 피드백에 초점을 두게 되고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분석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통합 피드백의 틀을 활용하면 놓치기 쉬운 내

용에 대한 피드백도 빠짐없이 제공할 수 있다. 위 작문의 경우에도 ‘중간’ 부분에 생일 파티의 장소와 날짜에 대한 정보가 생략되어 있어 2번 내용 및 과제 수행 문항과 3번 글의 전개 구조 문항을 ‘하’로 표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 외 문법과 어휘, 맞춤법과 종결 표현 사용 등 형태 오류에 대해서는 직접 피드백의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수정하였다.

두 예시 작문을 통해 통합 피드백의 효과를 살펴 보았다. 피드백 전과 후의 변화 양상은 두 작문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두 작문 모두 피드백 전 초고보다 피드백 후 재고가 내용과 형태 모든 측면에서 보다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분석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통합 피드백이 학습자 쓰기의 내용 영역과 형태 영역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피드백의 제공자로서 낮은 수준의 작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선형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두드러지는 형태 오류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통합 피드백의 틀을 토대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 피드백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과 형태 범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형태 오류로 인해 놓치기 쉬운 내용에 대한 피드백 또한 빠짐없이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분석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통합 피드백이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드백의 주요 제공자인 교사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또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교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교원들의 노력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다. 늘어난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와 현실적인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공고히 해야 할 때이다.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교육을 주도하는 기관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습자 요구 분석과 상황 분석(Situation Analysis)을 통해 학습자의 요구와 노동 시장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현직 교원 및 예비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고, 한국어 전공 졸업생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한국어 교원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다양한 배경과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며, 카자흐스탄 전역의 한국어 교원 및 학습자의 한국어 교재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의 주요 문제인 교육과정, 교원, 교재의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동시에 현 체제 내에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한국어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현 교원들은 미시적이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지금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 교사용 지침서 및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의 일환으로 해외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통합 피드백의 틀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한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쓰기 수업의 실체를 제시하였다.

분석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통합 피드백을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 한국어 쓰기 교육에 활용해 본 결과 확연히 드러나는 성과는 없었지만 학습자의 쓰기의 내용 영역과 형태 영역 모두에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드백의 주요 제공자인 교사가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 제시한 한국어 쓰기 수업의 모형, 쓰기 활동 자료의 예, 통합 피드백의 틀, 분석적 평가 기준표 등이 해외 한국어 쓰기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기를 기대한다.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강의 시수는 목표 한국어 학습 진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정규 강의 시간에 쓰기 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요구나 교수자의 필요에 따라 특별 수업의 형식으로 쓰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매년 두 번의 한국어능력시험과 한 번의 한국학올림피아드가 열린다. 이를 위한 보충 수업으로 보다 장기적인 쓰기 교육을 실시하여 추후 앞서 제시한 통합 피드백의 장기적 효과와 후속 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더불어 한국에서 파견된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으로서 최근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현지 한국어 교육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자 한다. 문어 표현 능력인 쓰기에 국한되지 않고, 말하기, 읽기, 듣기 등의 기술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침서와 문법 및 어휘 항목 등을 교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의 개발과 공유에도 힘쓰겠다.

### 참고문헌

1. 강승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1,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4, 1-35.
2. 국립국어원,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 단계>, 2011.
3. 김민정, “교사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이 한국어 다시 쓰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4. 김성숙,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능력에 대한 분석적 평가의 일반화 가능성 검증”,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1, 29-48.

5. 김성숙·이연희, “학문 목적 기초 한국어 쓰기 능력 평가를 위한 척도 개발과 타당성 검증”,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2011(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1, 175-185.
6. 김정숙, “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195-213.
7. 김정숙, “한국어 쓰기 능력 평가 방안 -종합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 결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3, 이중언어학회, 2010, 81-99.
8. 나원주, “자기 점검식 피드백이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9. 동동,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교사 피드백 효과 연구 - 중국인 학습자 쓰기의 내용 및 형태 정확성 향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0. 동동·김영주, “면담 피드백이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내용 향상에 미치는 영향”, <새국어 교육> 100, 한국국어교육학회, 2014, 175-208.
11. 동동·김영주, “면담 피드백이 중국인 학습자의 쓰기 형태 정확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새국어 교육> 103, 한국국어교육학회, 2015, 223-254.
12. 박소연, “교사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의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3. 박영지, “교사의 피드백 유형이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 및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면담 피드백과 서면 피드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4. 백재파,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피드백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우리 말연구> 44, 우리말학회, 2016, 253-283.
1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한국어 교육학 사전>, 서울: 하우, 2014.
16. 손태호, “한국 고등학생 영어 쓰기 수업에서 동료 피드백과 교사 피드백의 효과 비교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7. 이미혜, “과정 중심의 한국어 쓰기 교육 -작문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0, 133-150.
18. 조나야, “카자흐스탄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전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9. 주민재·김진웅, “대학 글쓰기 교수자들의 쓰기 평가 경향 및 평가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어교육> 147, 한국어교육학회, 2014, 347-376.
20. 한넬리,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5, 278-284.
21. 한영균·김수경·김류보비, “중앙아시아 3 국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2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303-335.
22. Brown, H. D. & Abeywickrama, P., *Language Assessment: Principles and Classroom Practices, 2<sup>nd</sup> Edition*, New York: Pearson Education, 2010.
23. Nelly Park,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문제점-”, <국제한국어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2015, 141-160.

##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ак Н.С., Марксова С.Г.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Казахстан – полигетническое, поликультур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В нем живут более 130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и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этн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в них в современном динамично изменяющемся внешнем мире, очень актуальны.

Тенденции глобализации, охватывающие различные стороны жизни народов мира, оказывают двояк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этн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они способствуют расширен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и взаимопроникновению культур, а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унифик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различных этносов, выработке общих ценностных ориентаций.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они актуализируют ряд проблем, среди которых важное место занимает проблема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 традиций, обычаяев и всего того, что определяет культур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любого народа.

По общепринятыму определению, этническая группа – это группа людей, имеющих некоторые особые этнические, т.е. культурные, языковые, религиозные или расовые черты, которых объединяет полное или частичн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и которые сами осознают свою причастность к общей группе. Освоенные и воспринятые этнические различия – это язык, культура и религия, в то время как расовые черты передаются наследственно. Кроме понятия «этнический», есть понятие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ичем перв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о шире [см. Эркки АСП. Введение в социологию. СПб.1998, с.218]. Мы будем пользоваться обоими терминами.

Этническая группа может быть идентифицирована только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ее отличительные черты (язык, культура, раса) начинают приобретать социальный смысл: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окружающие должны идентифицировать эту группу как этнически особую;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и сама группа должна осознавать свою специфиность и особенность [там же, с.219].

В контексте изложенного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есьма интересным, как идентифицируют себя проживающие в Казахстане этносы.

Как развиваются этн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суверенном Казахстане? В науке известны три модели таких отношений:

1. Первая модель: полная ассимиляция, когда иммигранты отказываются от своих традиций и обычая.

2. Вторая модель: разные этносы, проживая вместе, не теряют своих культурных и поведен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ей,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эти особенности смешиваются, переплавляются и создают новый тип культуры. Эта модель характерна для этн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США.

3. Третья модель – плюралист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общество развивается на основе многокультурного принципа, когда каждый этнос, с согласия других, сохраняет свою собственную культуру. В таком обществе существуют разные, но равноправные субкультуры. Казахстан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третьей модели, когда существующие культуры обогащают общую культуру и осуществляют идею «дать всем цветам цвести».

В Казахстане созданы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языковых и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Для этого ес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предпосылки: действуют национальные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ассоциации, 6 национальных театров (немецкий, уйгурский, русский, корейский и др.), 3 национальные телепрограммы, выпускаются газеты, в вузах работают уйгурское, турецкое, немецкое, корейское отделения.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Абылай хана



Корейский танцев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В данном сообщении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языковая и культурная идентификац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азахстана, где и с социальной, и с культурной точек зрения доминируют мажоритарные этносы: казахский и русский.

Это одна из крупных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в Казахстане, насчитывающая более 100 тыс. человек.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переселены, как известно, из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России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ью в 1937-38 годах во время обострения пограничных отношений СССР с Японией,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ходила тогда Корея. Корейцы, бежавшие в Россию от японского террора, объявлялись ее шпионами,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ее сторонниками. Все они, как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переселенцы Казахстана, были впоследствии реабилитированы.

Усиление процесса идентификации корейцев началось в условиях движения к возрожде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Казахстана, после известных событий 16-17 декабря 1988 года в Алма-Ате, ставшими катализатором процесса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в стране. Именно с этого периода разрозненные этнические группы Казахстана консолидируются и становятся организованными диаспорами со своими культурными центрами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самобытности,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 выражение в языке, культуре, менталитете. В этот период была создана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это – соци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гулирующая как взаим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обственных членов, так и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этой группой и лицами, не входящими в нее. Названный руководящий орган –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функционирует с 1990 г.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ее задач - передать молодому поколению ценностные традици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Для этой цели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Особо отметим, что все национальные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и ассоциации имеют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в Ассамблее народов Казахстана (в Ассамблее 364 представителя диаспор). Через этот совещательный,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орган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К все народы Казахстана через свои национальные 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представлять свои интересы, 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бсуждении и принятии решений ряда важ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вопросов. Данная модель участия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в управл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ом признана уникальной и по своей структуре и по содержанию и находит все больше положительных оценок в мировом сообществе.

Казахстан, находясь на перекрестке Европы и Азии, концентрирует в своей культуре и образе жизни начала западное и восточное, тюркское и славянское.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здесь мирно сосуществуют и западная демократия и восточные традиции, христианство и мусульманство, буддизм и иудаизм. Казахстан можно считать уникальной лабораторией поиска и обретения не только способов сожительства, но и развития через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Эт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е омрачено проявления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ли религиозного насилия и является отличительной чертой богатой этносами и ее традициями суверен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Полиэтничность неизбежно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заимствованиями в быту и культуре. Проживая в иноэтнической среде, корейцы утратили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нац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своей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но взамен приобрели новые. Так, казахское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казахское традиционное застолье стали под влиянием казахской культуры частью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д влиянием культур других этносов активно проходят процессы адаптации, заимствования, синтеза обычаев, особенно в город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присуща открытость к усвоению иных культур и трансформации своей, что во многом обусловили сохранению своей культур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Помимо обычаев, характеризующих культур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корейцев, сегодня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и элементы других культур. Такое смешение стало следствием так называемой транскультурации – процесса взаимного влияния. Процесс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корейской с русской и казахской культурами не на этниче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в развитии языка, в традициях. Это значит, что язык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меет существенные отличия от языка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н имеет отличия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языковой структуры – в фонетике, лексике, грамматике. В условиях тесных контактов появился значительный слой русской и казахской лексики, обогативших лексический соста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полне закономерно то, что, находясь в полиглоссической среде, этносы испытывают влияние контактирующих культур, что ведет к трансформации этнического сознания и самосознания.

Процесс адаптац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оисходил без значительных потерь традиционно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ных элементов вследствие общности многих компонентов культуры с казахским и другими народами алтайской семьи. Так, велика роль в традиции казахского народа обычай «Жеті ата» – «Семь колен родства». Согласно этому обычаю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знать своих предков до седьмого колена. При этом от каждого члена общества требуется не просто перечисление своих предков, но и знание их дел, черт характера, физического облика и других подробностей. Следовать примеру предков – один из инструментов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Для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и были характерны большие семьи, где вместе жили несколько поколений, и их члены по восьмое колено считаются одной семьей. Корейцы придаю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сыновней почтительности к родителям и духу предков,

супружеской верности и преданности друзьям, что относится к числу непререкаемых ценностей и казахского народа.

Общность этногенетического эпицентра объясняет не только внешнее сходство корейцев и казахов, но и в общности их верований, например, шаманстве, общности мифов, культов и обычаев. Удивительно много совпадений в обычаях, традициях, культуре корейцев и казахов. Например, трудно отрицать сходство хорубанов – корейских каменных старииков, балбанов – каменных баб их казахских степей или сходство казах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орнаментов и узоров [см. Кан, Рассказы о родной истории с. 7-8].

Показательны этнонимия и антропонимия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азахстане. Эволюция их прослежена Р.Ш. Джарылгасиновой. Существование одновременно нескольких самоназваний от самого древнего до самого современного связано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этн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йцев. Дело в том, что на смену этнонима чосон сарам (люди страны Чосон), являющегося основным этнонимом для населения Кореи,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в странах СНГ использует в качестве самоназвания этноним коре сарам (люди страны Корё). Этническая функция этого этнонима заключалась в том, чтобы,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идентифицировать себя как особую группу в составе других этносов, во-вторых, зафиксировать отличие их от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самой Корее 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Рассмотрим элементы этническ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индивидов, живущих в инонациональной среде. Это: язык, общность происхожд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ая пища,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родителей, внешний вид. Эта методика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в Институте этнографии АН СССР и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 опробована на примере малочисленных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ах Молдавии и Татарии с учетом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и местности проживания – городской или сельской. Информация об этническ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применением названной методики была извлечена нами из работы Югая Ильи Григорьевича. Из названных пяти элементов ведущее место отводится корейцами языку, несмотря на сужение функци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Как элементов этническ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язык занимает первое место среди остальных элементов в четыр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из сем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ажное место в сознании корейцев отводится национальной пище как фактору этнической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Данные социологического опроса при изучении этническ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веденного Югаэм Ильей Григорьевичем в Узбекистане, показал, что интенсивность проявления тех или иных элементов этническ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корейцев оказали влияние возраст, пол, социальн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городская или сельская среда, а также тип этнической среды. Наиболее слабо она проявляется у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Сегодн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тала органической частью единого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народа.

В 2004 году в жизни диаспоры произошло важное событие – был построен Корейский дом – место общения и консолидации корейцев. Под его крышей находится руководящий орган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редакция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студия ТВ,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библиотека, танцевальная студия, Федерация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 Кан Г.В. Рассказы о родной истории. Алматы, 2006. –С.116.]



Газета «Коре ильбо»

У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земле Казахстана определились свои святые места, с которыми связаны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ые

события в ее истории. Одним из таких мест стал склон горы Бастобе в Уштобе. Уштобе в переводе с казахского означает «три холма», давших название урочищу, в котором была построена одноименна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станция, ставшая затем городом и районным центром Карагальского района Алм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штобе – это одно из мест наиболее компак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его в шутку называют столицей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 время депортации 1937 года именно на склонах Бастобе одними из первых на казахстанской земле были выгружены переселенцы-корейцы. Корейцев привезли сюда поздней осенью в октябре-ноябре месяце, когда уже начались заморозки, а впереди была суровая зима. Вырытые на голых склонах продуваемой со всех сторон ветрами горе землянки остались до сих пор. Уже в наши дни в суворенном Казахстане здесь был сооружен памятник жертвам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развивается полнокровно среди других этносов, укрепляя свой идентитет и сохраняя свои культурные черты, а также впитывая ценности других культур.

За время существования на казахской земле на сцене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были поставлены пьесы казахских драматургов: «Козы Корпеш и Баян Слу» Г. Мусрепова в репертуаре 1958-70 годов, «Волчок под шапкой» К. Мухамеджанова, «Каракоз» и Кобланды» М.Аузэзова, «Каракумская трагедия» О. Бодыкова, «Семья Аллана», «Я женюсь на бабушке» Г. Мухтарова, Погодина «Кремлевские куранты», Гоголя «Ревизор» и др.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участвует в претворении жизненно важных задач стр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язык – объект пристального внимания руководства АКК. АКК уже приступил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по изучению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Причем курсы, будут созданы во всех региональных филиалах АКК. Языком должны владеть все граждане Казахстана – разработана специ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с учетом всех факторов – возраста, профессии и пр. На встрече актива АКК с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различные методики обучения. Педагоги презентовали интенсивные способы обучения языку,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рограммы.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анкетирование для выяснения уровня владения казахским языком, мотиваций его изучения, удобного времени занятий. Создано несколько учебных групп.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о перспективах исследования этническ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В Казахстане не проводилось сколько-нибудь значите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этой области на примере живущих здесь этносов. Мн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что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актуально и перспективно. Провести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опрос именно сейчас, чтобы выяснить, как идентифицируют себя этносы – миноритарные народы – в суверенном Казахстане.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Эркки АСП. Введение в социологию. СПб.1998, с.218.
2. Югай И.Г. Об этническ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конкретно-социологическ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 Известия о корееведении в Казахстане и Средней Азии. №4. Алматы, 1993. С.25-31.
3. Кан Г.В. Рассказы о родной истории. Алматы, 2006. С.116.
4. Кан Г.В.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1995. С.169-170.

##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РИСКИ И ВОЗМОЖНОСТИ

Мен Д.В.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работе уделяется анализу новых тенденций обстановк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Исследуется политика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анализируются основные факторы препятствующие объединение между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ями. Значит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анализу новых тенденций в развитии обстановк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сле очередных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КНДР и саммитов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ореи.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проблемы объединения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со своими методами и формами. Отдельно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отнош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по мирному регулирован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ктуальность темы обусловле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поиска выходов из текущего кризиса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КНДР,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анкция.

**Abstract:** The outloo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he work is devoted to the analysis of new trend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cently. The policy of inter-Korean relations is being explored, and the main factors impeding the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analyzed. Considerable attention is paid to the analysis of new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next nuclear test of the DPRK. The problems of combining the two Korean states with their different methods and forms are considered. The attitude of Kazakhstan on peaceful regul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considered separately. The relevance of the topic is due to the need to find solutions to the current crisis in inter-Korean political relations.

**Keywords:** South North, DPRK, combining the two Korean states, Kazakhstan, sanction.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часто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инструмент выстраиван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КНДР, при помощи которого можно определить и сконструировать еди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любое его изменение и, тем более, масштабная реформа способны привести к принципиальн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Это несёт значитель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риски, в то время как поддерживать статус-кво безопаснее. Обе Кореи 27 апреля 2018 года решились на проведение саммита, предполагающей укрепление субъектов разных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систем, а именно долгождан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Для создания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решающую роль играла позиция США. КНДР и США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вести исторический саммит между президентом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и лидер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12 июня 2018 г. Были моменты, когда эта важная встреча находилась под вопросом. Причиной являлась, что каждая сторона твердо не была уверена о выполнении своих дан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Корейцы восприняли это известие с сожалением, потому что мы все рассчитывали на то, что будет сделан существенный шаг к разрядке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им Чен Ын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сделал всё, чт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обещал.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диалог всё-таки будет возобновлён и встреча состоится.

Без такой встречи вряд ли можно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существенный прогресс в решении чрезвычайно важного вопроса не тольк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а именн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ы большие усилия, чтобы сблизить позиции США и КНДР.

Пхеньян по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уничтожил тестовый полигон Пунгери, где проводил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Шахты на глазах журналистов взорвали, чтобы подтвердить готовность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ледовать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о ликвидац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ответ на это Дональд Трамп объявил об отказе встречаться с лидером КНДР Ким Чен Ыном. Саммит должен был состояться 12 июня, но Вашингтон передумал. Политики якобы возмутились заявлением замглавы МИД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Чхве Сон Хи, в котором она назвала глупым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США Майка Пенса за его слова о "ливийском сценарии" в отношениях стран. Впрочем, это решение мало кого удивило. Это далеко не первый случай, когда США отказываются от данных ранее обещаний.

Решение Белого дома и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оведения саммита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КНДР поставило тогда крест на мирном переговорном проце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ообще о сложностях с подготовкой саммита было известно давно.

Лидер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ритиковали продолжающиеся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армии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осужд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американ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советник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Джона Болтон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ходили слухи и о том, что Ким Чен Ын попросту боится отправляться на саммит, ожидая, что в период его отсутствия в стране может произойти военный переворот.

Тем не менее, после публичн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ядерного объекта на севере страны это шаг Вашингтону о примирении сторон. Возможно, Трамп и его команда считали, что КНДР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проведении саммита, чем они. Вероятно, они ожидают, что руководство Китая, надеющееся на разрешение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будет давить на Ким Чен Ына и заставит его просить США возобновить переговоры о саммите. В таком случае Трамп, выступающий с позиции силы, сможет добиться более выгодных для себя условий в ходе самого самми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ДР тогда назвали отказ Трампа "полным неуважением" к Ким Чен Ыну

Это далеко не первый случай в истори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ША, когда руководство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казывалось от обещаний. Причем нарушились обещания, данные, как самому американскому народу, так и лидерам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Можно привести десятки примеров, как президенты США не выполняли свои обязательства.

Например, именно в период президентства Буша-младшего состоялось событие, которое во многом закрепило за Америкой статус не самого надежного игрок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В декабре 2003 г.,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после оккупации Ирака, лидер Ливии Муаммар Каддафи согласился на условия США по разоружению и ликвидации своего запаса оружия массового поражения. Каддафи в присутств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экспертов нейтрализовал имеющееся у него химическое оружие, а также материалы для созда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обмен на этот шаг Госдепартамент снял санкции с Ливии, страна вернула себе место в ООН и смогла вновь наладить отношения со многими западными странам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Буша-младшего гарантировала Каддафи, что политика экспорта демократии не коснется его страны.

В 2011 г., в разгар "арабской весны", Каддафи несколько раз обращался к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же Барака Обамы, напоминая

ему о ранее данном обещании Буша-младшего. Каддафи надеялся на то, что Госдепартамент Обамы сохранит свою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ранее взятому курсу и не будет открыто поддерживать повстанцев. Впрочем, команда Обамы дала понять, что любые обещания касались лишь работы предыдущ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 к нынешней они не имеют никакого отношения. Поэтому без всякого зазрения совести Обама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вмешательстве в ливийский конфликт на стороне повстанцев, что в итоге привело к свержению Каддаф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Ливии до сих пор находятся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занимающиеся разведкой.

Конечно, этот шаг Обамы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незначительным в сравнении с другими похожими событиями – вроде невыполненного обещания, данного Михailу Горбачеву, об отказе от расширения НАТО на Восток. Однако в сегодняшних переговорах США с недружелюбными к ним странами КНДР, Ираном история вокруг Ливии как никогда актуальна. Ведь кто даст гарантии лидера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Ирана, что в случае разоружения их страны не постигнет та же участь, что и Ливии? Даже если команда Трампа и решит соблюсти обещания обуважении суверенитета этих стран, как можно предсказать действия следующ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торая придет ему на смену Майка Пенса, Камалы Харрис, Кори Букера или кого-то другого? В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Америки уже давно нет консенсуса по вопросу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что ставит судьбу люб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ешений 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в прямую зависимость от результатов следующих президентских или промежуточных выборов в СШ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утверждала, что к переговорам готова с США в любое время. Для этого Пхеньян сделал всё возможное для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в том числе даёт Вашингтону время, на то, чтобы пересмотреть реше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встречи Трампа с Ким Чен Ын.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езидент отменил саммит сраз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хеньян разрушил свой ядерный полигон.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ООН Антониу Гуттерреш отреагировал на отмену встречи между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в, что «Я глубоко обеспокоен отменой планировавшейся в Сингапуре встречи между лидерами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По его словам, переговоры необходимы для полного сокращения арсенала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то же время причиной отказа встречи стала для американцев реакц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комментарии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США Майка Пенса, который предлагал строить отношения с Пхеньяном по «ливийской модели». В ответ на заявления Пенса КНДР назвал его заявление глупым и предложил обоим странам проводить саммит или нет.

Как известно, политика наука не предсказуемая, в ней нет постоянства, сегодня может дать обещание, а завтра забрать обратно. Так и случилось в данном повороте с историей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езидент США вновь дал согласие на саммит с лидер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литологи комментируют зая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диалога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всего лишь подтверждение того, что Трамп нацелен на проведение саммита. Другое дело, что он повышает ставки и усиливает свои переговорные позиции перед проведением этой встречи, чтоб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была сковорочивее и понимала, кто диктует условия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вестки и результатов этих переговоров. Своими, казалось бы, сбивчивыми и не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ми решениями Трамп ещё раз фиксирует позицию ведущего переговорщика в связке президент США и Ким Чен Ын. Они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оба государства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переговорах.

Эксперты добавили, что у КНДР есть ряд условий, которые США, скорее всего, уже приняли, а личная встреча всего лишь формализует сделку. Дональд Трамп это импровизатор и весьма инициативный президент, но так рисковать не станет: не поедет на встречу с Ким Чен Ыном, если уж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не достигнуты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относительно того, каким будет результат. Поэтому такие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уже есть, но как только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какой-то риск, что президент США просто так съездит на встречу и вернётся оттуда ни с че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только приветствует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ереговоров между США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о этому случаю,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В. Путин заявил, что «США не должны занимать жесткую позицию по отношению КНДР. Очень удачно, что возможность диалога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США по-прежнему жива и не была прервана.

Чтобы говорить о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я считаю, мы должны дать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гарантию их

суворенитета и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и. Я глубоко убежден, что если вы не будете что-то навязывать, не будете вести себя агрессивно и не загоните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угол, то результат, который нам необходим, будет достигнуто быстрее, чем многие думают, и с меньшими затратами. Президент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т за прогрессом»

Ранее 26 мая Дональд Трамп подтвердил, что США ведут продуктивные переговоры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саммита и что если это произойдет, 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его место и сроки останутся прежними 12 июня в Сингапуре.

Далее Дональд Трамп сказал, что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ждет прекрасное будущее: это страна с «блестящим потенциалом». Его слова прозвучали в день прибытия в КНДР америка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с миссией продолжить оказавшийся под угрозой диалог с Пхеньяном.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зидент США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Пхеньяна с остальным миром превратит КНДР в «великую нацию». «Я искренне верю, что 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лестящий потенциал и в один день она станет нацией с великой экономикой и финансами». «Ким Чен Ын согласен со мной в этом. Это случится!», — добавил он.

Дональд Трамп отказался от высказывавшихся им ранее угроз и несколько раз заявлял о выгодах, которые ждут КНДР от улуч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остальным миром. Так, 22 мая Дональд Трамп пообещал личные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Ким Чен Ыну в случае отказа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Кроме того, по его словам, в случа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экономик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ждет помочь от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Я верю, что они будут готовы инвестировать большие, очень большие деньги в то, чтобы сдела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еликой. Его [Ким Чен Ына] страна будет богатой», — пообещал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езидент.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и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26 мая провели второй саммит, который продлился всего два часа. Лидеры откровенно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чтобы реализовать декларацию, которая была принята во время первого саммита 27 апреля и обсудить, как успешно провести встречу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 США.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и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проведении новых переговоров первого июня. Стороны так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более частых двухсторонних встречах.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Мун Чжэ Ин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Ким Чен Ыном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встреча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все-таки состоится. «Ожидания саммита КНДР-США высоки как никогда. Я думаю, что сегодняшняя наша встреча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важной, так как она демонстрирует, что мы вместе работаем над очень важной встречей», — сказа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 его словам, Ким Чен Ын "вновь заявил о своей приверженности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подчеркнул свое намерение завершить историю войны и конфронтации путем успеш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саммита КНДР-СШ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целях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По словам Мун Чжэ Ина, "Трамп твердо надеется положить конец враждебным отношениям его страны и КНДР, а также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ес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римет решение о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и выполнит его". Вместе с тем, по слова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НДР до сих пор сомневается в обещании США гарант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 окончании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Для устранения существующих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США разногласий Мун Чжэ Ин считает необходимым прямой диалог. В этой связи лидеры Южной Кореи и КНДР солидарны во мнении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ведения встреч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как было намечено 12 июня. Также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проведение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саммита с лидерами КНДР и США. Кроме того, Мун Чжэ Ин заявил, что считает необходимым установить горячую линию связи между Вашингтоном и Пхеньяном.

Казахстан о саммите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Создание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меж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згляд из Казахстана. Республика Казахстан приветствует состоявшийся 27 апреля 2018 года в приграничном пункте Пханмунджом саммит между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е Ином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им Чен Ыном и высоко оценивает итоги переговор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возобновл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и укрепление глоб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азахстан поддерживает процесс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утем диалога и переговоров и убежден, что политico-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решение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 верным средством рассмотрения слож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опросов. Казахстан, как страна, имеющая опыт ядерного разоружения, также приветствует "Пханмунджомскую декларацию о мире, процветании и объедин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полностью поддерживает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двух стран по достижению безядерного статуса полуострова.

Активный диалог между странами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уже привел к ощутимым результатам, таким как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и отказ Пхеньяна от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и запусков ракет.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показательным является тот факт, что реш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о закрытии крупнейшего ядерного полигона, отказе от ядерного арсенала, ликвидации сопутствующей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Участие в реализации и продвижении ДНЯО и Договора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запрещении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стали залогом успешного и стаби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Фундаментом активног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и одним из важнейших факторов рег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нынешнего курса Казахстана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характерны практическое исчезновение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фактора и столь же заметное нарастание pragmatизма при выработке подходов к оценкам и решению возникающих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пробле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Астана стремится разв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обеими коре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действовать миру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стана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бытиях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добиваясь ее решени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мирным путем.

27 апреля 2018 г. стал знаменательным днем для все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том числе и для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шедший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вселил радость и оптимизм в сердца соплеменников по всему миру и открыл новую эру в процессе воссоединения двух брат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Члены правления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КК) обсудили важное событие и выразили искреннюю надежду на мирное реш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Президент АКК Сергей Огай поздравил соплеменников с успешным итогом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и отметил, что казахстанские корейцы также вносят свой вклад в процесс мир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стречались с дипломатами КНДР, которые специально прибыли в Казахстан, чтобы обсудить вместе проведение предстоящих 18-19 мая мероприятия в Алматы. В эти дни прошли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вопросам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форум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я и традиционны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них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азахстан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а также корейцы ближнего зарубежья. Пхеньян и Сеул очень тщательно подготовились к предстоящим мероприятиям. Оттуда приехали артисты исполнители традиционных и современных песен, а также ученые и дипломаты.

В заключени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достиж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особенно значимой дл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зарубежья. Эпоха раскола страны не мож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вечно, несмотря на имеющиеся различия в политике и идеологи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нтересы и вопросы во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требуют от сегодняшне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серьёзного пересмотра своего отношения друг к другу. В эпоху глобализаци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технологии, продолжение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в Корее является непростительной ошибкой. Окончание конфронтации и войны, переход к миру не только обогатит и обезопасит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но позволит 7-ми миллионам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селяющих 175 стран мира,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частью единой нации с 5000-летней истори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сего мира смогут гораздо быстрее найти применение своим талантам и навыкам в мирно сосуществующи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Корейцы зарубежья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и себя отлич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во все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ах. Среди них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членов парламен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еятеле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 выдающихся ученых с мировым именем мн. др. Стоит только Пхеньяну и Сеулу прекратить войну и объединится, как 7-ми миллионн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зарубежья вольётся в общее дел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единой нации.

Долгождан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 это не только мир и благополучие, но и консолидация все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Это является шагом вперед из трагического прошлого в новый век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цветания. Каждый может найти себе применение полученных знаний и опыта независимо от страны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я должна быть единой, этого хотят все корейцы мира, если нация желает мечта всегд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в эпоху перемен.- М.: ИДВ РАН, 2016.- 416
2. Ким Ен Ун. Правый поворот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в эпоху перемен.- М.: ИДВ РАН, 2016.- С. 34-44
3. Воронцов А.В.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Современные подходы КНДР и РК //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в эпоху перемен.- М.: ИДВ РАН, 2016.- С. 45-54.-
4. Корея: уроки истории и вызовы современности.- М.: ИДВ РАН,- 2013
5. Россия и Корея в меняющемся мире.- М.: ИДВ РАН, 2014.- 292 с.
6. Корея 70 лет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ллективная монография.- М.: ИДВ РАН, 2015.- 456 с.
7. Корея: Уроки истории и вызовы современности.- М.: ИДВ РАН, 2013.- 456 с.
8. Захарова Л.В. Межкорейск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от истоков до современности.- М.- ИДВ И РАН, 2014.- 250 с.
9. Кореевел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Вып. 7.- Алматы: КазУМОиМЯ.- 2018
10. Мирное будуще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роль диаспоры в объединении Кореи //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научного форума по проблем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Алматы: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18-19 мая 2018 г.- 104 с.
11. Корё ильбо.- 25 мая 2018 г.

## ЦЕЛИ И ЗАДАЧ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рмонова А.Т.  
БГУ им. Карасаева,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основные цели и задач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факторы, влияющие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е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решение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беспечение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Также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задач – провед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воздействуют как внешние факторы, такие как ситуац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так и внутренние, такие как отсутствие в Корее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цели и задачи

**Title:** Goals and Objectives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uthor:** Ormonova A.T.,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named after K. Karasaev, Kyrgyz Republic

**Abstract:** The article discusses the main goals and objectives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its foreign policy. The main goal in Korea's foreign policy is to ensur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olve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and ensure energy security. One of the main tasks is economic diplomacy. To the formation of Korea's foreign policy is influenced by both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l ones, such as the lack of energy resources in Korea.

**Keywords:** Republic of Korea, foreign policy, goals and objectives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стала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в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и ее роль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также начала возрастать. В связи с этим актуальным становится изучени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ее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целей и задач.

Цел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связан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 внешними условиями, а именно, региональным фактором и внутренней ситуацией. Региональный фактор имеет прямую связь с проблем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с ядерным вопрос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Еще одна задача, вытекающая из этой

проблемы, – проведени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на региональной и мировой арене, в качестве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субъек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К внутреннему фактору относится отсутствие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Основные цел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ореи: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быть ответственной страной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обеспечение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целей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ореи и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такими как США, Китай, Япония, Россия,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Востока и Запада, а также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является мирное разрешения ядерного вопроса КНДР [1]. Среди этих стран «традиционна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Кореи направлена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ША, и эти отношения также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разрешение проблем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2].

Корея стремится к миру и проводит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как «средняя держава». Об этом курсе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ореи начали говорить с 2000-х гг. 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ента Кореи по инициатив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Ба Кичан (Baek Kichan) говор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веден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как «мирной средней державой» (*«peaceful middle power»*). Отмечалось, что для этого Корее нужно быть страной с развитой наукой и экономикой, центром мир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 также страной, идущей по пути демократи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быть нейтральной как Швейцария, и при этом иметь развитую экономику [3].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исследовател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Р. Кеохейна, «средняя держава» (*«middle power»*) – это «государство, лидеры которого считают, что оно не может действовать в одиночку эффективно, но может иметь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е воздействие в небольшой группе или через международный институт» [4]. Также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государство своего рода «мост между развитыми и развивающимися государствами» [5]. Проводя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как «средняя держава» Корея стремится быть ответственным актором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При этом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она использует «мягкую силу» (*«soft power»*), куда входит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через «Корейскую волну» [6].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Кореи как «срединной державы» была начата 10 лет назад, которую страна начала вести с 2008 г. Это связано с приходом к власти Ли Менг Бака, началом его программы «Глобальная Корея» («Global Korea») и инициативой Кореи решать глоб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Это также связано с проведением в Корее Саммита Большой Двадцатки (20 крупных развитых и развивающихся экономик) и проведением в 2012 г. Саммита Яде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др. [7].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чиная с 2008 г. Корея в разрешении мировых проблем стремится быть ответственной страно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ореи имеются следующие 6 задач [8]:

1. «Мирное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установление прочного мира». В рамках этой задач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будет предпринимать меры для разрешения ядерного вопроса КНДР и «установления постоянного мирного режима».
2. «Содействие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тересам посредством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 дипломатии,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на интересы людей». Здесь предусмотрено, что Корея будет стремиться, чтобы миров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правильно «понимала»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Кореи и «поддержала» ее усилия. Также Корея будет стремиться проводить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интересов общества.
3.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о странами региона. Сюда входят такие страны, как Китай, Япония, Америка, Россия. В то же время будет уделен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альянсу Америка – Корея.
4. Четвертая задача связана с обеспечением гарант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Для этого Корея намерена провести следующие шаги:
  - а) формирование «платформы мир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 б) улучшен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проведение переговоров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 в) дальнейшее проведение «Новой южной политики», «Новой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столпы процветания» вне региона.
5. «Укрепление торговой дипломати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для повыш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 Сюда входят исследование и изучение «новых промышленно развитых экономик», «создание открытой и либеральной внешн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реды», принятие необходимых мер в связи с вопросом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6. Шестая задач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защиту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роживающих за границей, и поддержку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орея ставит перед собой большие цели. Это, во-первых, связано с ядерным вопрос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сновные задач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ореи: укреп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улучш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защита прав граждан Кореи и поддержка корейцев за рубежом.

Кроме вышеуказанных целей, в проведени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имеются и другие причины. Одна из целей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ореи –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Имеются следующие причины [9]:

1. Отсутствие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84 %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в Корею ввозится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2. Корея более нуждается в нефти, чем другие страны. Импорт нефти в Корее составляет 50 %.
3. Корея находи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реднего Востока, поскольку Корея ввозит из этого региона 3/4 от общего импорта нефти и 55 % газа.

Так как 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на Среднем Востоке остается нестабильной, а Южная Корея,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зависит от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то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страны ресурсами, она решила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В «Новой Азиатской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 Ли Менг Бак определил новые регионы, к

которым, помимо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входят Россия 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Кореи можно обозначить несколько главных целей: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быть ответственной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в регионе. Кроме того, в связи с отсутствием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в Корее, одним из направлений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является обеспечение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 главным целям можно отнести также провед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Внешние и внутренние условия влияют на проведени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South Korea Profile. Foreign Policy  
[http://www.nationsonline.org/oneworld/korea\\_south\\_profile.htm](http://www.nationsonline.org/oneworld/korea_south_profile.htm)
2. Sohn Yul. Searching for a New Identity: Public Diplomacy Challenges of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International Symposium. 2012. P.77
3. Bae Kichan. Korea at the Crossroads: The History and Future of East Asia. Happy Reading Books, Seoul, 2007; pp. 442-443
4. Цит. по: Robert O. Keohane, «Lilliputians' Dilemmas: Small Stat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23, no. 2, Spring 1969, p. 296
5. Цит. по: Shim, David & Flamm, Patrick. Rising South Korea: A Minor Player or a Regional Power? Hamburg, GIGA German Institute of Global and Area Studies, Working Paper No. 200. 2012. P. 10
6. Hwang B. A New Horizon in South Korea-Central Asia Relations: the ROK joins the «Great Game». Washington, Korea Economic Institute, Academic Paper Series, December 2012. P.2
7. Lee Sook Jong. South Korea as New Middle Power Seeking Complex Diplomacy. EAI Asia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25. 2012. Seoul, Korea. P.14
8. Korea's Key Diplomatic Tasks  
[http://www.mofa.go.kr/eng/wpge/m\\_5727/contents.do](http://www.mofa.go.kr/eng/wpge/m_5727/contents.do)
9. Calder K.E., Kim V.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entral Asia: Far-Flung Partners in a Globalizing World. Washington, Korea Economic Institute, Academic Paper Series, December 2008, Vol.3 No.9. P.1

## DEMOGRAPHY OF KOREA

Saken N. Zhetpisov

KazUIR&WL,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e article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demograph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PRK in the last 50 years. The most topical issues of demographic development, migration and interethnic relations in European countries and Russia were studied. Recommendations are given for the development of a correct demographic policy in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Keywords:** demographic crisis, birth rate, depopulation, demographic policy, interethnic relations.

**Автор:** Жетписов С.Н.,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Статья рассматривает проблемы демограф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за последние 50 лет. Изучены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миграции 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ах и России. Даны рекомендации для выработки правильной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в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кризис, рождаемость, депопуляция, 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On the problems of demography there is a huge amount of literature (for example, in Russia 42 thousand works are written) and in general, it can be said that all issues have long been developed, and each country has its own program of demographic development. The problem is that none of the European countries, as well as the countries of South-East Asia, including South Korea, can rectify the demographic situation. The countries of Europe have long regretted that they adopted a program for the reception of migrants and a symbiosis of different cultures, which created a lot of social problems for them. The population of Russia can not escape the shock caused by the huge influx of migrants (according to various sources, from 10 to 14 million), which radically changes the life of each of them, since migrants thanks to their number and residence in the enclaves are almost not assimilated in a new place a habitat.

Any complex problem is much easier to understand if simplified to the scheme. Then the whole complex of demographic problems looks like this.

In developed countries, low fertility, the total fertility rate is 1.4, and in Korea 1.1-1.2 children per woman, because of which each generation is one-third smaller than the generation of its parents. This leads to an aging population, a decrease in the number of able-bodied citizens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nsioners to 20-30% of the total population of the country. All this creates an unthinkable burden on the budget, and the government is forced to raise taxes. The tax increase forces business to leave the country, and the tax base is narrowing, so the government again raises taxes. It turns out a vicious circle. So long can not continue, and the country opens the way for migrants who agree to a meager salary. Then the products produced in the country become competitive, since the cost of the goods always includes the wages of workers. A large number of migrants create tensions between them and the indigenous population and leads to a sharp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life. However, the worst thing is different. There is a replacement of the population due to a constant supply of migrants from abroad and a higher birth rate among visitors who have already obtained citizenship. In a few generations another people will live here. As in Kosovo.

Thus, before these countries there is a dilemma: either increase the birth rate, or reconcile with the disappearance. They should realize the following. Fertility is a social weapon, which quite naturally, through the mechanism of family values, conquers the whole world without a single shot. This weapon is stronger than nuclear or information. The elimination of one people and its replacement by another occurs under the sloga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Believers say that this is a weapon of justice, because people who do not want to have children are eliminated, which means they do not fulfill the covenants of God. Perhaps this is the last chance given to European and South-Eastern civilizations: to create this weapon or die from it.

####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As of early 2018,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is 50,916,123 people. The demographic processes in this country are not too different from what was happening in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of the world. The difference is only in the pace of change: those processes that

in Europe dragged on for a half-two or two centuries passed in Korea in a few decades. Back in the early 1960s, South Korea was a peasant country. When the country entered the era of accelerated modernization and record economic growth, 72% of the population of Korea lived in villages, and the total birth rate was 6.1 births per woman. There was a traditional family - women either did not work for hire at all, or they stopped working immediately after the marriage. All this was combined with the Confucian idea that sons are a guarantee of a secure old age and the possibility of fulfilling a debt to their ancestors: it was the sons who were to sacrifice the spirits of their ancestors, supporting their existence in the other world. The large number of children was also promoted by the fact that in Korea until the 2000s the social sphere was extremely undeveloped. There were no pensions, the family took care of the old people, and this state of affairs seemed to take for granted. In 1998, 90% of the respondents said, for example, that the family should take care of the elderly, and this is not the business of the state.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on the same topic, now only 30% of South Koreans think so. In the 1960s, a powerful birth control campaign was launched in Korea, which was called a "family planning campaign." The main reason why the Korean state then came up against the birth rate is external influence. At that time the idea of the horrors of the future overpopulation of the planet began to be popular all over the world, and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were convinced that they would be a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only if they reduced fertility. The campaign was successful: the birth rate sharply went down. The birth rate in the 70th year was 4.5, and in 1980 it dropped to 2.8. In the mid-eighties, Korea reached a level of simple reproduction, sufficient to ensure that the population remained stable. However, it quickly became clear that the country is facing very different problems. The birth rate did not stabilize at the level of simple reproduction, but continued to fall even when the government decided not to intervene in family affairs anymore and not to reduce the birth rate artificially. It turned out that in a country that had grown rich by that time, and without any campaigns, women were giving birth less and less. This is due to a number of reasons, in the first place - with changes in the situation of women. Now about 70% of the country's population gets a diploma; while girls enter universities as often as boys. Women with diplomas are eager to work, and one or two children are enough for them. As a result,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t became clear that the problem was no longer in overpopulation, but in too low fertility. In the late

1980's, there were technologies for determining the sex of a child at the stage of pregnancy, which initially led to a strong sexual imbalance. Boys began to be born significantly more than girls, and in 1999, there were 116 boys per 100 newborn girls in Korea. To take control of the situation, a strict prohibition was introduced to determine the sex of the unborn child. As a result, by 2010, the imbalance was completely eliminated, the proportion of boys and girls among the newborns returned to normal.

However, this success does not solve the problem of the future of the nation. In modern South Korea, women are striving for self-realization and want to work, rather than giving birth to numerous children. Even more complicating the situation is the need to invest a lot of money in the education of children. There is a disappearance of the tradition that it is necessary to live with parents and keep them in old age. The young generation, born in the 1980s, starts to assume that people should prepare for old age on their own, putting aside money for this, joining pension funds, etc. Children should help their parents a little, but no more. All these tendencies reduce the birth rate: the birth rate varies between 1.1 and 1.2 births per woman, that is, half the level of simple reproduction of the population. The situation is complicated by one more factor - a rapid increase in the average life expectancy. From 1910 to 1945 it doubled and by 1945 it was 44 years, by 1980 it was 66 years, by 1990 it was 71 years, and now it has reached 82 years. Every year,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ncreases by about four months. In terms of the aging of the population, Korea is one of the undisputed world leaders. If now there are 6 persons of working age for one person over the age of 65, by 2050 there will be one and a half employees. Such changes inevitably lead to economic stagnation. The government began to widely use the labor of immigrants. Throughout the life of one generation, the country - the source of emigrants - has become an important center for labor immigration.

With the maturing demographic crisis, one more circumstance is also connected: South Korea suddenly became prone to interethnic marriages. Approximately since 2005, Korea in terms of the number of such marriage unions has reached one of the first places in the world. Their share is about 10% of marriages, concluded in the country annually. Most of them are the marriages of Korean men with foreigners. In general, we are talking about the poor peasants of the south-western provinces, who write their wives from Vietnam and other countries of East Asia. As a result, Korea is aging and at the same time

losing its mono-national character. Since the early 90's, South Korea has been hosting tens of thousands of migrants annually. As of March 2015, there are 1.8 million foreign-born people in the country, including students, petty leaders, low-skilled workers, undocumented workers, "marital migrants". They make up 3% of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According to forecasts, by 2020 their number will be about 5%, by 2030 - 10%. According to forecasts, in 2030, South Korea will need 4.3 million workers, in 2050 - 11.8 million and 15.3 million in 2060.

The main demographic indicators of South Korea for 2017. The population is 50916123 people at the end of the year. Born - 464,145 people; the deceased - 280 210 people; the natural increase in the population is 183,935 people. Migration growth in the population is 61 312 people.

As of early 2018, South Korea had the following distribution by age: 7,969,392 people under the age of 15 (men: 4,156,792 / women: 3,812,599); 37 128 037 people 15 - 64 years (men: 18 955 563 / women: 18 172 473); 5 818 695 people over 64 (men: 2 359 962 / women: 3 458 732).

In 2018,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will increase by 246 434 people and at the end of the year will be 51 162 557 people. The natural increase in the population will be positive and will amount to 184,826 people. For the whole year, approximately 466,392 children will be born and 281,566 people will die. If the level of external migration remains at the level of the previous year, the population due to migration will increase by 61,609 people.

The total demographic load factor is 37.1%. This is a relatively low value. It shows that the number of the able-bodied population is more than twice the number of people of incapable working age. This attitude creates a relatively low social burden for society.

The coefficient of potential substitution (coefficient of child load) i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population below the working age to the number of able-bodied population. The coefficient of potential substitution for South Korea is 21.5%.

The coefficient of pension load i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population above the working age to the number of able-bodied population. It is 15.7%.

Low birth rates are not the only problem in South Korea: mortality is another problem. Sou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suicide rate in the world. This problem often affects the

elderly. Half of the people aged 65 and over live in relative poverty, and a quarter live alone. They can not find a job, and in an aging society isolation and depression have increased. Among youth, the most frequent cause of suicide is stress at work and in the education system. 40% of suicides are committed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South Korea is the world's largest consumer of spirits.

The demographic situation adversely affects the economic growth of South Korea. Expenditures on health care in the country have already increased from 3.8% to 7.2% of GDP. According to Western economists, the best way out for Korea may be to abandon a gender perspective and attract more women to the labor force. Of course, economists know that such a policy has led to a decline in the birth rate in Europe. And, nevertheless, financial analysts are looking for ways to increase labor resources. Forecasts on the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by sex show that in the coming years there will be an equalization of the sex structure of the population to its full proportionality and the further predominance of women. According to all variants of the forecasts, by the year 2050 the proportion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will decrease to 50% of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share of the remaining age groups will change dramatically: children - from 10 to 17.6%, the elderly - from 30 to 40% which will significantly increase the burden on the social security and health care system. At the same time, the average age of the population sharply increases from 31.8 years in 2000 to 45.7 years in 2050.

The elderly population of Korea will be more than one-third of the total population. Such a situation requires serious training of medical and nursing services, as well as pension funds, to the growing proportion of older people in South Korean society.

These forecasts provide a wide range of future characteristics of the demographic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can form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programs for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e country has already faced the question of carrying out a demographic policy aimed at stimulating the birth rate. The adoption of such measures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the able-bodied population. The government emphasizes the elderly and the need to create good living conditions for them. It makes sense to create jobs for this age categor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seeks to attract more robots to households. A good solution to the South Korean demographic crisis would be to reunite with North Korea, where the population situation is more stable. Hope for this is given by the

historic meeting of the presidents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in April this year. Nevertheless, while it is believed that the future of South Korea is uncertain. There is little time left to avoid the worst. And some analysts predict that a downward trend can not be changed.

###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As of the beginning of 2016, 25 million 230 thousand people were registered in North Korea. Of these, 12 million 442 thousand men and 12 million 913 thousand women. In this case, unlike South Korea, there is no aging of the nation; 69% of the country's inhabitants are able-bodied people. Closeness of society and a strict political regime led to the fact that there are very few people who want to move to the republic from other countries. This has turned North Korea into a monoethnic country: 99% of the population of the peninsula are Korean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bout 20% of the country's population died, and this had a great impact on demography. For more than 20 years, the DPRK was inferior to its neighbor in terms of population growth. However, over the past twenty years, the birth rate has risen sharply in the DPRK, and the government predicts that by the middle of the century the country will overtake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90s, demographic processes have stabilized: about 1000 people are born on the day, and more than 600 die.

Ethnic composition. Besides Koreans, small communities of other nations live on the peninsula, which live enclaves. They consist mainly of people deported to the military and post-war years. These groups include the Chinese, the Japanese, the Vietnamese, the Mongols, the Russians. To them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is biased. There are several explanations for this. First, this perception was formed during the war, when other Asian peoples infringed the rights of Koreans. Secondly, this policy is supported by the state: a militarized worldview is easier to impose when the people have common external enemies. Thirdly, the ethnic composition of the country is so homogeneous that strangers are perceived as a threat on a psychological level. In North Korea, a specific national system for dividing people into classes, called Songbun, is used. In accordance with it, the inhabitants of the country are divided into three large categories: the main one is the working class; hostile - people excluded from the party, repatriates from Japan and China, unreliable members of society; hesitant - groups of people of the main class who show a tendency to

behave contrary to the party line. This system has a structure that can be compared to any caste society. People who have fallen into the hostile stratum are doomed to the same fate of their children and relatives on the paternal line. You can only go to the class, inferior in status. Cases when the family restored a good name, are single. The system of Songbun is not just a formality. The Koreans, counted as hostile castes, are deprived of a number of rights and privileges. They can not get a job at a prestigious enterprise, go to college, claim housing in the capital. In addition, there are restrictions on food - for hostile cards you can get only a reduced set of food. This class includes: religious ministers; people who were on the "wrong" side during the Japanese rule and World War II; natives of the families of landlords and entrepreneurs; political criminals. The government tried to improve the system by dividing the classes into smaller structures. The three main categories are divided into 51 small. However, such a division did not bear obvious fruit.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determine the number of people, even in large groups, and small ones only complicated the problem.

The situation began to change from the early 1990s.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world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foundations of the DPRK. The system of the Songbun has survived and exists today, but its importance has diminished. Now people with a hostile origin have a chance to get a prestigious job or go to university. However, to achieve these goals, they have to overcome many more obstacles than trustworthy citizens.

Describing the demographic situation in the DPRK and the RK, first of all, it should be said that it is radically different in them.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mography is quite successful; in the Republic of Korea - is close to disaster. An interesting fact: the demography of the DPRK in many ways resembles the demography of the USSR in the 1970s and 1980s, and the demography of the RK is a modern demographic situation in European states. Therefore, the northerners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experience of the USSR, and southerners - the experience of Europe.

The experience of the USSR says that it is very easy to lose demographic prosperity, and disregard for demographic issues can lead to the disintegration of the country if the state-forming people lose their demographic dominance. In the USSR, the loss of this dominance looks like this. In 1959, the number of the five peoples of Central Asia was 13 million, the Russians - 114 million. For 20 years - from 1959 to

1979 - Russians were born 40 million, Central Asia gave 15.5 million. In another 20 years - from 1979 to 1999. - both of them gave 26 million each. But at the same time,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per woman in Central Asia was 3, while the Russians had 1.5. This meant that for 2-3 generations the Russians would become a minority in the USSR due to low birth rate. This, and nothing else, was the cause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As for South Korea, considering the growing immigration to this country, it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experience of European countries, where a large number of migrants created many social problems. In the life of human society there are no more complex problems than questions of religious and ethnic coexistence. That's why they are so politicized, and therefore there is so much violence in this area. The most acute of them is the preservation of language and national identity. Language processes are part of a global confrontation. And this confrontation is expressed as a confrontation between cultures. Culture is an essential characteristic of a person, connected with his ability to transform the surrounding world, during which an artificial world of things, symbols, connections and relations between people is created. Many depict a culture in the form of an iceberg, based on cultural values and norms, and the top is the individual's behavior. Each specific act of communication is determined by the cultural differences of the interlocutors. Multiculturalism and xenophobia are complete nonsense. These concepts in principle reject the society as a system - and man as its organic component. This is a stubborn intention to disunite the society, where the connections between people are reduced to mutual love and mutual assistance. But society is a human system, where everyone knows what to expect from another; where the rules of the hostel are unified, traditions and habits are one. A hostel is a single idea of holidays and everyday life, duties and taboos, cuisine and leisure, clothes and humor: this is a common habitat where unpleasant and incomprehensible surprises await a person. Man is one with the environment - material and information, biological and social. Society is a cultural unity. No other way. Othercultural groups, positioned as equals, inevitably seek to change the country according to their views - or to spit on it and simply enjoy the benefits. Fused by religious brotherhood and mutual guarantee, ethnic communities often terrorize the civilized majority that sheltered them. The stranger is a stressful factor, your ideas about politeness and cowardice, kindness and weakness, acceptable and unacceptable - are often different. Your

people, with whom you are one, have mastered and protected this land and live here by your own rules. And when a migrant, not related to your history, not sharing the views and rules of your people, confirms his life in your country according to someone else's rules - while declaring himself as a full-fledged master like you - it destroys the social essence of the people, contradicts the social instinct of every person. That is why all developed states are struggling for their existence and preserving their culture when they can not do without migrants, but at the same time the presence of large groups of people of another culture destroys the structure of the host society.

From this sea of literature on demography, what we have today, and which offers various ways to increase the birth rate, there are 4 ways to identify: 1. Create a new civilization and a new worldview, 2. Issue child allowances, 3. Make the receipt of a pension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children, 4. Provide the state-forming nation in special conditions.

#### 1. Creation of a new civilization and a new worldview.

It's easier said than done. Nevertheless, one of the most serious demographers of Russia V. Bashlachev created such a program, designed for 60-70 years, and called it the demographic doctrine of Russia. It includes a number of measures that improve the situation of families with children: facilitating their receipt of an apartment, introducing a family salary, various benefits to large families. Much attention is paid to the education of youth. The author is convinced that the spiritual life of the people is more important than the size of its territory and even its material wealth. He believes that Russia lost the information war organized by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USSR and led to the collapse of the Union and is now aimed at the collapse of Russia. The essence of this war is as follows. In November 1974, the US State Department adopted NSSM-200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based on the doctrine of Alain Dulles and aimed at destroying the USSR from within. To do this, it is expected to devalue and ridicule the spiritual values of the Russian people and replace them with false values, destroy the family, which will lead to a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Russia and cause ethnic conflicts and the collapse of the USSR. Life has shown that the US has achieved its goal. The process of destruction of the spirituality of the people was well represented by A. Solzhenitsyn, who was shocked by the degree of the fall of morals:

"The Iron Curtain defended the country against all that is good in the West: from civil freedom, respect for the individual, the diversity of personal activities, the general welfare. But that curtain did not reach the bottom, and the manure of the dissolved pop culture, the vulgar modes and costs of publicity flowed, and these dregs were eagerly absorbed by our disadvantaged youth. And television carries these impure streams all over the country. The source of the strength of society is the spiritual level of life, and only then the level of industry. One market economy and even general abundance can not be the crown of human activity. If spiritual forces are exhausted in the nation, no state system and no industrial development will save it from death. It is depressing that the modern intellectual elite ridicules the absoluteness of the concepts of Good and Evil, covering up the indifference to them by the pluralism of ideas and actions." ("How should we equip Russia?").

The demographic doctrine says that the strategic task is to change the position of the family among other social institutions. It will require the re-creation of a class of homemade mothers with their pensions, the introduction of a family wage and the provision of credit for households. Another important task is to neutralize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family crisis. It is necessary to put an end to the immoral culture of large cities. This purifying work must be carried out in all spheres: in the theater, art, literature, cinema, television, exhibitions, the Internet. The guiding idea in this work should be the concern for the moral health of the people. Here it is necessary to fence off unnecessary contacts with other peoples, since modern civilization is rather a direct enemy of genuine culture. One of the most striking examples of the gradual disintegration of the state is a gradual decline in the cultural level of the nation. Therefore, it should not be allowed even for a moment that in a struggle that will take many years, it will be possible to do without special wartime laws. The experience of many centuries says that in very serious times the state is forced to make harsh demands on its citizens. Only one way leads to the goal: the deepest sense of responsibility for improving society and punishing those who do not fulfill these requirements.

We consider this program to be the only acceptable and real one. Such a program is needed in a country where 60% of families are divorced, only 32% of children live in complete families, the level of murders (the most accurate indicator of the aggressiveness of society) is 28 cases per 100 thousand people per year (compare with Germany -

0.9), and The number of suicides - a measure of the depression of society - is 41 thousand cases per year. More only in China, - 250 thousand, - but there the population is 10 times more. It remains only to be surprised that Russia has not yet begun to implement this program. The leadership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arefully study the experience of Russian demographers.

## 2. Granting of allowances for children.

This measure is adopted in most countries. The only problem is that from developed countries only Israel and New Zealand managed to raise the total fertility rate above 2.15 - the minimum necessary for simple reproduction of the population. Even in Iceland, where the first child is paid 25 thousand euros, for the second - 50 thousand, and for the third 75 thousand, the birth rate could be raised only to the coefficient of 1.9. The large childlessness indicates that one child is enough to satisfy the parental instinct, and the preservation of the habitual way of life and the cult of comfort for people is more important than any allowances. Lack of a great need for children is a very important and almost insurmountable obstacle, because it lies in the sphere of public consciousness at the level of basic values. We have to admit that this measure does not work and can only be used as part of a set of measures.

## 3. Receiving a pension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of children.

This measure is proposed by the famous Russian demographers I. Beloborodov, A. Antonov and others. They believe that it was the pension system that destroyed people's awareness of the need to have breadwinners in their old age. Examples are given of how the lack of pensions in old Russia stimulated the peasants to give birth to a large number of children, as the land was the only wet nurse, and land allotments were allocated by the state according to the number of eaters. In addition, every child is an additional working hand. Examples are given for China. As is known, not all categories of the population are provided with old-age pensions, but only mostly civil servants. Therefore, the policy of "one family - one child", carried out since 1979, took place with great difficulty in those provinces where there are many people who do not have the prospect of receiving a pension. There, the birth rate exceeded 2 children per woman. People viol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authorities, despite strict economic sanctions.

This group of demographers believes that without adopting such non-standard measures as linking pension and having children, it will not be possible to stop the demographic catastrophe. This severe measure they explain a cruel necessity. If we consider the country as a big family, then in it the children keep their parents. If someone did not give birth to children, then it must be kept by other people's children. Then pensioners will be more than working, and this will not sustain any economy. Consequently, those who have not given birth do not have the right to receive a pension, because they destroy the state.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a policy of the state boil down to useless charity. It should focus on eliminating the fundamental shortcomings of society, which lead individuals to degeneration - the reluctance to have children. This disadvantage is a dependent pension system, and it must be eliminated. Of course, respect for the individual must be respected. However,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should not be elevated so high as to obscure the rights of society. Pope John Paul II in a speech in the Philippines in 1981 suggested that in the event of a national security conflict and human rights, priority should be given to national security, i.e. the integrity of the overall structure, without which the lives of individuals will also fall apart. The society of unlimited rights can not stand in trials. A stable society is built on the fact that we are obliged to yield to moral justice and reasonable laws. Although people's lives largely depend on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the main prerequisite of which is the existence of the state, it is not an association of economic partners. The state is the totality of human beings, which aim at the continuation of the family.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e existence of the state is only in this, and in nothing else.

In the struggle of peoples for their self-preservation, the first to suffer defeat and die are those nations that are distinguished by the least virtues, as well as those peoples who failed to unravel the cunning of parasitic layers of the population in time. In recent cases, it is not so much a lack of mind as a lack of courage and determination to fight them, and a lack of courage is usually hidden under the mask of humanity. Inertial preservation of the ways of life that are habitual for the population and the leadership of the country leads to the extinction of the people and the disintegration of the state. Citizens should be responsible to their homeland. If you do not want to have children, then you will help the state by not getting a pension and thereby easing the pension burden on the budget.

This concept causes conflicting feelings. On the one hand, there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On the other hand, if everything is left as it is, the state will collapse or be populated by other peoples. If we take into account that the general line of behavior of a modern person is material well-being, we must admit that this measure is capable of changing the psychology of people, correcting the demographic situation and, most likely, preventing a demographic catastrophe.

In order for the state to exist, four conditions are necessary. Men must procure bread and protect their tribe; women should give birth; all should respect the elders as bearers of life experience and culture; and all must obey the wise leader. In the absence of any of these conditions, the society will collapse. If men do not perform their functions, the tribe will die of hunger or be conquered. If the women do not give birth, the tribe will die out. If they do not respect the elders, society will lose culture and become a crowd that can be grafted into any ideology. If there is no power of a wise leader, there will be bloody chaos.

The state must protect the people in any situation. In any - it means, in any. And the most unexpected thing is that you must first protect yourself from your citizens. And if it is not difficult to get men to work and serve in the army, everyone to respect their culture and obey the authorities, it was impossible to force women to give birth. This is "any situation". But if we agree that the tribe will die out, then the state must make women give birth. Are human rights violated? Of course. But here you have to choose: human rights or the existence of your people.

An example for all can be China. Confucianism has become the dominant ideology in China since the 2nd century BC. The inherent combination of traditionalism with the demand for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 state of affairs in the state in the historical perspective has revealed its exceptional productivity, preserving the Chinese people, becoming the basis of the Chinese way of life, largely shaping the unique image of Chinese civilization. Life has shown that state ideology and strict observance of traditions is a reliable defense mechanism of its civilization and its way of life from destruction and from alien influence.

#### 4. Special position of the state-forming nation.

Examples of the fact that the state-forming nation is legislatively placed in special conditions are not so many. This is

Kuwait, the UAE, Saudi Arabia and the Baltic states - the former republics of the USSR. This situation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indigenous population in these countries, with the exception of Saudi Arabia, does not constitute a significant majority, and these measures are a way to protect against assimilation. In the Arab countries, the special position is that there are many different privileges for the indigenous population - child allowances paid for each child under 18 years of age, free education, both school and university, tuition at an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abroad, free medical service and so on. etc. In addition to material incentives, which made the indigenous population simply rich, there are a number of career advantages. All state positions, all leading positions in large firms and organizations are occupied by representatives of the indigenous population. The average salary they have from 3 to 5 thousand dollars. At the same time, all other employees receive \$ 100 per month. This means that for \$ 100 you can live and send money back to your homeland, as well as give an idea of the living standards of citizens. The leadership of these countries believes that if God has awarded the country with natural riches, then the whole people have the right to use them.

As for the Baltic states, then all non-indigenous residents received the status of non-citizens. This prevents them from accessing public positions and makes it difficult to get a good job in any field of activity. Such a policy is aimed at squeezing out the foreign population from the country and preserving its people. This policy is undemocratic, but it is effective - the proportion of the indigenous population is constantly growing (in Estonia - 77%, in 2002 it was 65%). In addition, non-citizens, thanks to Schengen visas, emigrate mainly to Europe, so breaking democracy can hardly be called blatant. The position of these countries is this: when choosing democracy, we must clearly understand that you choose it not as a goal, but as a means to achieve any goal. Our goal is to preserve the nation. What questions can there be here? In an unlimited democracy there is a danger of tyranny of the majority. Kosovo leads, for example. In 1950, I. Tito allowed to settle in Kosovo 200 thousand Albanians. For 50 years, thanks to a higher birth rate, they have become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Gradually, domestic conflicts turned into a war that led to the division of the country and the displacement of the indigenous population. The same thing is happening in other European countries, where the ever-increasing Muslim population begins to transform them into Islamic societies.

Summarizing all of the above, we can conclude that the material on the demographics of European countries makes it possible for the Republic of Korea, on their example, to build its own demographic policy. The first thing that catches your eye is the inability of European nations to protect themselves. They can not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invasion of foreigners and can not raise the birth rate to a level at which they could live without migrants. Strange as it may seem, democracy prevents this. Democracy in Europe from the form of state structure has turned into a universal principle of human existence, into a cult that leads civilization to degeneration due to population decline. In fact, it was the same as the apple for Eve. Satan convinced Eve that she is equal to God, and has the right not to obey anyone and herself to make all decisions. This led her to death. Under democracy, a person is also free, but among all possible freedoms, freedom to take everything from life is the first priority, and now all the energy of people is aimed at achieving this goal. Most people want very little: achieve financial independence, satisfy sexual needs, enjoy life. For Europeans, material prosperity and life success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moral values, families and the need for children. Because of it, France can not introduce child allowances for French people only, and when they introduced them for all citizens, most of the Arabs and Africans living there began to receive these benefits. The same thing happens in Germany, with the only difference being that the benefits stimulate the birth rate mainly among the Turks. The situation is tragic. S. Kara-Murza did not in vain call the European civilization tragic, because she, creating something, does not have time to use its fruits, loses strength, and the results of her writings, extracted later and in blood, are used by others. In fact, the entire political structure of the world is between two extremes. Extreme one - absolutely totalitarianism. The other opposite is absolute anarchy. Between absolute totalitarianism and absolute anarchy, and there are any forms of statehood, including democracy, so you can not say: you need to be a liberal or you need to be a conservative, just as you can not always drive to the left in the car or always steer to the right. It is necessary to look, what road, where you go. Need a measure. A measure of conservatism and a measure of liberalism. Measure "left" and measure "to the right." And even good and evil must be combined to a certain extent. This is for what is better: conservatives or liberals. And it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Take a large pleasure craft. If you want - go to dinner, do not want to - do not go. If you want - sunbath, do not

want to - do not sunbathe. If you want - walk along the deck, you want - sleep in the cabin or get drunk in the bar. Absolute freedom. When the ship begins to sink, God forbid, when the ship begins to panic, the captain appears as an absolute dictator, and his opinion is unquestionably fulfilled. And weapons on board were relied on all maritime laws on the most peaceful passenger ships, at least to him alone: the captain always had a pistol in the safe. Because if panic begins and the brutalized men start throwing women and children overboard and knifing with their knives to the boats - and there have been many such cases in the history of shipwrecks - then the captain will answer; the captain is responsible for everything. And then the captain will shoot two or three panic-strikers, the leaders of the crowd, crushing everything and stop the panic - the captain will be absolutely right to shoot them. This is what is required of him. So decide what is humanism, and what is totalitarianism. Each time - its own. There are no pure liberals, pure conservatives, or pure democrats, because always any political state, any political views consist of sweeping away one, the other and the third. It's all about measure, it's all about proportion.

The main point of today's morality of the European Union is human rights. In a nutshell and in a simple way - everything is simple in life. There is a natural right. Natural law is a person's needs necessary for the existence, extension of life and kind. That is,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personal inviolability, the right to drink and food, the right to clothing, housing, and more broadly to private property; the right to a family, that is, the right to extend the family. That's all the basic rights.

The more developed the society, the more developed the state, the wider the range of rights: the right to work, the right to paid leave, the right to universal fre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right to equal access to any work and any form of education, on the basis of equal conditions. And social law, which is considered a person as a duty. That is, a person can declare: "I will not go to the army. I have the right to freedom. " If no one goes into the army, there will be no army, your society will be conquered by others, and it is not known how you will live. That is, you will have to limit your right to freedom - you will not limit yourself, you will be restrained - so that you have the remaining rights. This contradiction is quite apparent - this is the very dialectical unity when your right and the limitations of your right - which are often called duties - are inextricably linked. This contradiction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somewhere from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increasingly slid towards the expansion of individual rights and towards the narrowing of the rights of social. And then, since 1948, when the United Nations was already established, they made a declaration of rights, and there were beautiful things in it. But in 1948 - it was a different time, namely: the death penalty has never been abolished anywhere, no one has ever said that the right of the sadist, the murderer for life is sacred. When they said that there should be no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race, religion, no one could have imagined that in half a century Europe would suffer depopulation, European nations would begin to decline rapidly in number, and Islam would rise rapidly, and in European cities radical Islamists will blow up Europeans, rape their women; where 8-9 organized criminal groups will take over the entire criminal world of Berlin - it never occurred to anyone. The European world was different, Islam was different, the world was different. Thus, the first mistake of the European countries is that, because of the fetishization of democracy, they can not separate the state-forming nation from non-citizens in order to put it in a privileged position. Therefore, the state does not fulfill its main and only function - the preservation of the people as a community based on belonging to the same genus and species. This is the first conclusion.

The second conclusion is the inability of Europeans to pinpoint the cause of the demographic crisis. Its roots are seen in the economy and in cultural factors. Meanwhile, demography depends on a system of moral and moral values. I. Kant said: "Morality is a necessary condition of being." It is useless to expect the normal reproduction of the population in societies where a family sanctified by religion is legislatively equated with incomplete or childless families, as well as freaks - same-sex marriages where abortion is considered not a murder, but a personal affair of every woman. Failing to understand the causes of the phenomena, they can not take tough measures to destroy social diseases, which, of course, must also include small children, since it leads to the disappearance of the people. If the cause of the crisis are citizens who do not have children, then the state must refuse to support them so that the economy does not collapse. This is not done, and this is the second mistake of the European countries.

The third mistake was demonstrated by Russia. Being between Europe and Asia, being in many ways an Asian country, it has for centuries completely copied Europe, turning away from Asia, even in the 15th century the grandfather of Ivan the Terrible, John III said that

from Europe it is necessary to take the equipment, and the upbringing of the people needed instruct their clergymen. This practice was initiated by Peter I, who forced everyone to change clothes and lifestyle, cutting beards, and with them the foundations of the viability of the Russian people, folk customs, patriarchal family, veneration of the tsar, that is all that makes the state strong, and what was called Asian . This work continued aristocracy, in the Soviet era - the CPSU and the intelligentsia, and in the last two decades - the media, which forced the country to capitulate to American cultural imperialism and its byproduct - Western intellectual garbage. From Asia, Russia did not want to take anything, not even traditions - love of children, respect for elders, family strength, courtesy, tolerant attitude toward other cultures, religiosity, i.e. what we call morality or vital wisdom and that, along with civilization, is part of culture and, as life has shown, a more important part than civilization. Russia did not understand this. Having preferred the material culture of Europe to the spirituality of Asia, she missed a historic chance to enrich herself with the cultures of both civilizations and actually acted as the Papuans who exchanged gold bars for glass beads. She accumulated great material wealth, but these riches were paid for by a shocking disregard for the elementary demands of morality, when abortion, divorce, disrespect for parents, rudeness toward each other, indifference to the fate of people became commonplace. And now Russia is a classic example of the slow execution of an entire nation, in which, however, the people themselves are to blame. Thus, the inability to protect one's spirituality is the third mistake of Europe.

The fourth mistake was also shown by Russia. This concerns interethnic relations. The USSR pursued a consistent Russification policy, trying to populate the republic with a large number of Russians, seeing it as a pledge of the fortress of the state. As a result, the central regions of Russia were exsanguinated, and now the mortality rate is two to three times higher than the birth rate. In the 1990s, many returned from the CIS countries, but more than 11 million people still remain outside of Russia, and this is the number of migrants who are forced to accept the Russian Federation. In addition, all returnees returned to the wrong place, whence they left, and to three regions where there is work or a good climate: these are the Moscow region, the Khanty-Mansiysk and the Southern federal districts. Time has shown the erroneousness of organizing large migrations and the unnecessary haste in matters of the consolidation of nations. This is the fourth mistake of Europe.

Analyzing the demographic situation in the DPRK and the RK, several points should be highlighted.

1. In both states, the ethnic composition is so homogeneous that strangers are perceived as a threat only at a psychological level. Demographic policy in the RK is conducted in the same way with respect to all citizens. In the DPRK for non-indigenous nationalities there are some restrictions. The birth rate in mixed fami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is higher than that of Koreans, but this does not cause concern over the demographic imbalance. Nevertheless, the Republic of Korea is developing dynamically, so a large number of migrants will be attracted. When constructing a demographic policy, these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2. Fertility in the DPRK is much higher than in the RK, it provides for sustainable expanded reproduction of the population. Problems typical for Europe, they will arise at the end of the century, if not take any measures. The RK should drastically change its demographic policy. They do not need to create a new civilization and a new worldview, they have them. We must preserve the spiritual heritage that has been completely preserved. This - the veneration of parents, respect for their work, which allowed them to be brought up by good people. This is a sense of responsibility from his youth for his actions. This is the joy of a large number of compatriots, when you feel yourself not just a resident of a city, but a part of a large and strong people, famous for education, wisdom and heroism. This feeling of pride also gives rise to patriotism. We attribute this respect to respect for the elders, knowledge of generations of ancestors, giving a real sense of the eternity of time and making us live our lives with dignity, seriously and without fuss. They brought up a careful attitude to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people, respect for its character traits: humanity, tolerance, educated on the basis of respect for other people and especially valuable in the conditions of a big city, vital wisdom, courage and optimism. All this creates a mentality that makes the people truly viable.

3. Protection of people's spiritual culture. In Korea, in this field of activity, the state has opened all doors and even windows for everyone who wants to work in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we can not say that there is no order here. It seems that the government is doing the right thing, consistently implementing the main goals of its policy and making concessions in the secondary, given the country's broad international cultural ties. This policy should be considered reasonable

and well thought out. The DPRK has an isolation policy, which also has its merits, given the global scale of the spread of European cultural imperialism, whose basic values are individualism and material well-being.

4. Migration.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DPRK, there is practically no immigration or emigration. For Korea, immigration is becoming a significant phenomenon, reaching 60-70 thousand people a year.

The demographic experience of European countries provides exhaustive material for the analysis of this sphere of state activity and allows any country to build its own demographic policy. Each country must proceed from the fact that the only function of the state is the preservation of its people. Demographic policy is aimed at preserving the people for thousands of years, so it can only be effective if 4 conditions are met:

1. The policy should be conducted only in the interests of the state-forming people. Otherwise, sooner or later it will be in the minority, as it happens in Europe.

2. The survival of the people needs a good birth rate. Little-childlessness is a social disease, and the state must eradicate it, otherwise it will disappear. Therefore, citizens who do not have children should not count on state support in their old age. He does not have the money to do this, because unjustified pension costs will destroy the country's economy.

3. The state must protect the spirituality of the people, its culture and traditions, because they contain the source of its power. Mass media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is sphere, because they continued to educate people at an older age. The deepest interests of the people demand that the masses do not fall into the hands of dishonest educators. Therefore, the state has the right to use any means to protect the spiritual life of the people from intellectual garbage, vulgarity, immorality and aggressiveness.

4. Migrations should not be allowed. In each region people live for centuries, and there their customs, traditions, worldview are formed. It is these things that give a person's life a taste, a feeling of fullness of life and happiness. With a large scale of migration, the structure of society is disrupted.

Every nation must have its own demographic doctrine, which guarantees its life for many centuries. Without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demographic problems, no people can survive. The root

cause of the formation of all types of human communities is the instinct of the preservation of the family, the sense of belonging to the same genus and species. That is why any external interference in the life of the people encounters its stiff resistance and the willingness of people to fight for the preservation of their community. Today, such a community is the state, and it is it that is responsible for the future of the people. On the planet there are 224 states and about 3000 peoples. Those who are fortunate enough to have their own state should remember how difficult it is for those peoples whose lives are controlled by strangers who are indifferent to their problems and even to the very fact of their existence. They are considered only with strong, and hence, numerous peoples. Only such a people can protect their children from a brutal impact on their culture, traditions, customs, language and human dignity, on all the most precious things that every person has. The borders between states are established by people. And if a state has a territory much larger than the territory of other states, it means only that at some time it was stronger than all others, and no one could resist it. With the passage of time, everything changes, and the borders between states can be revised.

Construction of the demographic doctrine of Korea.

Demographic policy can be effective only if 4 conditions are met:

1. It should be conducted only in the interests of the Koreans,
2. Only the citizens with children receive pension support of the state,
3. The state protects the spirituality and morals of the people,
4. Large volumes of migration are not allowed.

Violation of any of these conditions will lead to the disappearance of the people. Life shows the validity of the statement of F. Engels: "The whole history of mankind is just a history of the reproduction of life. It has two sides: the first is the production of the means necessary for life-food, clothing and housing, and the second is the reproduction of life itself. In the final analysis, the demographic factor is of decisive importance "(F.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We see the inability of European states to protect their peoples because they can not put them in a privileged position, as in Kuwait and the UAE.

They can not force their citizens to give birth to the right number of children, because they do not dare to deprive them of pensions in old age, as happens in any pauper and uncivilized state.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spirituality of the people shows a bitter example of Russia, when in two decades of information war, Russians from the ruling nation of the strongest power turned into a nation that is dying, allowing the destruction of moral and family values, then the state, and now face to face with the prospect of the collapse of Russia.

The inadmissibility of large migrations can be seen in the example of the Mongolian empire, when on its territory 31 million square kilometers the Mongols themselves, even completely consisting of khans, princes and privileged strata of the population, were lost. Migration served as a bad service for Russia, devastating its central regions and turning them into depressed regions, where now pensioners are 3.5 times more than schoolchildren.

Thus, the demographic situ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existence of any state. It depends entirely on people's behavior. The life of an individual is largely governed by economic levers, so the demographic doctrine and pensions as a way of influencing people should be linked and should look like this.

1. Demographic doctrine and pension provision concern only the Koreans. Representatives of all other nations and mixed families exercise their rights on the basis of previous laws.

2. The provisions of the doctrine concerning pension payments, come into force in 40 years, in 2058, when the retirement age will include people who are now 28 years old. The pension is assigned depending on the number of children. Children who do not have children do not receive a pension. Those who have 1 child receive 0.5 pensions. Those who have 2 children receive a full pension.

3. Women who have given birth to a third child receive a family salary from the moment of the birth of the child and until they reach the age of 18. For the fourth and subsequent child wages are not assigned, only the usual allowance is given.

4. Women who can not have children for health reasons receive a disability pension, except in cases where the loss of health was due to abortion. Abortion is prohibited by law. The life of a child is protected by law not from the moment of birth, but from the moment of birth.

5. Young families have the right to preferential loans for the purchase of an apartment or a house for up to 30 years, so that their

grown children can pay them off. For families who gave birth to a third child, the state repays the loan.

6. The state does not allow large migr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is stimulated in those regions where there are sufficient human resources. The sidewalk should be laid not where the designers have drawn, but where the people trample down the path in winter.

7. Demographic policy and pensions as an instrument of influence on people are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the state and belong to the sphere of national security. The crimes committed in this sphere are punished with particular severity, for they are directed against the very existence of the people.

8. The mass media are ideological weapons, therefore they are under strict state control.

9. The duty to have childre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as the most important duty of a citizen, since it is the only condi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people.

A little lyrics. If any state adopts such a law, then its people will exist for thousands of years and become famous, as a people, who showed humanity the way to salvation from degeneration. Societies exist according to the laws of nature, where the strong eat a weak one: it is enough to watch the broadcasts about the wild nature. Something tells me that with the developed nations nothing bad will happen. Not because others will adopt such laws, but because I believe in the wisdom of these peoples.

## REFERENCES

1. Антонов. 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катастрофа в России: причины и пути преодоления. М., 2010.
2. Башлачев В.А. Демография: Русский прорыв. М., 2005.
3. Белобородов, И.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мире.М., 2010.
4. Белобородов, И.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М., 2008.
5. Зиновьев А.А. Русская трагедия. М., 1998.
6. Медков В.М. Социология семьи. М., 2009.
7. Рыбаковский Л.И. Депопуляция - угроза выживанию.М., 2001.
8. Солженицин А.И. Как нам обустроить Россию ? М., 1996.

## СОЦИАЛЬНО-СТАТУСНЫ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В КОРЕЙСКОМ ДИСКУРСЕ

Хан Н.Ч.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партнером для Казахстана.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Кын Хе «Евразийская инициатива», через призму казахстанских СМИ.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Евразийская инициатива, политика Пак Кын Хе, мониторинг, медиамониторинг, казахстанские СМИ

**제목:** 카자흐스탄 매체에서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필자:** 보란타예바 파리자,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카자흐스탄 알마티

**개요:**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안 이니셔티브에 대해 다룬 카자흐스탄 미디어의 모니터링을 통해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주제어:** 유라시안 이니셔티브, 박근혜 대통령, 카자흐스탄, 뉴스, 신문기사, 모니터링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представлен вариант дискурсивного анализа кинодиалог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бор материала кинодиалога обусловлен богатством материала, приближенностью к реальным диалогам, а также наличием диалогов, в которых наиболее ярко отражается культура общения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Изучение диа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на материале телесериалов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новому увидеть не только процесс коммуникации и речевое поведение человека, но и оценить роль социального фактора пр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людей. В кинодискурсе, помимо речи,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и экстра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факторы, такие как: ситуация общения, атмосфера разговора, неверб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коммуникации, закадровая музыка и т.д., что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более исчерпывающе описать прагма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составляющие дискурса. Под дискурсом понимается речев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двух и более коммуникантов в устной или письменной форме, проходящего в определенной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ситуации. Анализ

материала кинодиалогов проводится по специальной методике, в которой сочетаются мет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дискурса реальной уст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на экране и письменной формы, представленной в скриптах телесериалов. Кинодиалоги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в аспекте изменений социальны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 дружеских на статусные. Со сменой статусных ролей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меняются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что проявляется грамматически, лексически 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им, pragmalingвистически. Так, лекс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вежливости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нам следующим способом:

- 1) Официально-вежливая степень вежливости, выражающая самую высокую степень вежливости (**아주 높임**);
- 2) Неофициально-вежливая степень, выражающая обычную вежливость (**높임**);
- 3) Фамильярная степень, выражающая отсутствие вежливости (**안 높임**).

Дискурсивный анализ кинодиалог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 параметрам, предложенным А.Е. Карлинским [1], в которые внесены некоторые изменения:

А. Описание ситуации общения.

Б. Роли и особенности речевого поведения коммуникантов.

В. Определение интенций говорящего.

Г. Лекс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дискурса.

В описании ситуации общения дается кратк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необходимы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ситуации, в которых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диалог.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официальность или неофициальность ситуации, ситуативные условия, а также наличие третьих лиц и сферы общения (бытовая, рабочая, учебная и т.д.).

Роли и особенности речевого поведения коммуникантов описываются с учетом характеристик адресанта и адресата, включающих степень знакомства коммуникантов, их статусные и личностны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а также их социально-иерархическ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возраст, подчиненность и т.д.).

Определение интенций говорящего дает понимание цели и значение высказывания (фразы),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его воздействия.

Лекс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дискурса показывают особенности той или иной фразы с точки зрения выявления смысла употребления именно данного выражения через определенные языковые средства. Описание лексико-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составляющих дискурса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выявлен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намерения и семантики выражения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слушающему.

Рассмотрение кинодиалогов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 акцентом на анализ социальны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оммуникантами. Особенности социаль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заключаются в ее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ности и иерархичности. И цель данной работы – выявить и показать дан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Определяющими факторами корейской иерархии являются возраст, пол, родственные связи. Их можно назвать врожденными факторами, которые человек получает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воих усилий и которые не может изменить. В отличие от статусны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в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корейская иерархическая лестница более четкая,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ная и жесткая. В связи с этим корейский ученый Ли Иксоб писал, что «какие бы близкие или дружеские узы не связывали людей,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есть множество непреодолимых стен (разделяющих близких людей)» [3, с. 279].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автор считает, что с расхождением в статусной иерархии дружба уступает социальному неравенству. Ли Иксоб пишет об этом, что «сила влияния власти преодолевает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силу челове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2].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рассмотрим диалог из сериала «Безнадежная любовь» / 못된 사랑 (2 серия). Анализируемый диалог представлен десятью фразами. В разговоре участвуют два коммуниканта: Сунхван,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и Сокхён, его водитель. Третьих лиц при разговоре нет. Ситуация неофициальная.

**A. Ситуация.** Поздний вечер. Сунхван,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едет в машине и думает о своей девушке, переживает. По радио звучит классическая музыка. Водитель Сокхён смотрит на директора и выключает радио.

(1) СУХВАН (усмехнувшись): 내가 들켰나? Что, заметно?

(2) СОКХЕН (улыбается): 많이 취하셨습니다. Вы слишком много выпили.

(3) СУХВАН (улыбаясь): 둘이 있을 땐 편하게 하자.

Расслабься, пока мы вдвоем, можешь перейти на -ты.

(4) СОКХЕН (улыбаясь): 벼룩됩니다, 사장님. Уже в привычку вошло, господин директор.

(5) СУХВАН: 석현아! 윤석현! 너 내 친구 맞지? Сокхён-а! Юн Сокхён! Ты же мне друг, правда?

(6) СОКХЕН (горько улыбаясь): 우리가 친구이긴 해도 이젠 친구가 되긴 힘들지~! Мы друзья, но теперь сложно оставаться друзьями. 동등하지 않은 친구는 우정을 나누기 힘들잖아... Друзья, неравные по положению, не могут делить дружбу поровну.

(7) СУХВАН: 너까지 날 외롭게 만드는구나.... Вот и ты оставляешь меня....

(8) СОКХЕН: 어디로 모실까요, 사장님? Куда отвезти вас, господин директор?

(9) СУХВАН: 소주 한 잔 더 해야겠어. Надо еще выпить стаканчик.

По сюжету фильма Сухван и Сокхен в детстве были закадычными друзьями. Оба из семей среднего уровня были равными по социальному статусу. Однако Сухван удачно женился на богатой женщине, стал директором крупной компании и взял к себе на работу своего друга. Как только бывшие друзья стали начальником и подчиненным по работе,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уступили правилам иерархи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Б. Роли и особенности речевого поведения коммуникантов.** Коммуниканты Сунхван и Сокхён имеют два статуса по отношению друг к другу: 1) друзья детства и 2) начальник-подчиненны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им, в ролях и речевом поведении обоих коммуникантов в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м диалоге проявляются оба названных статуса. Так, среди пяти фраз, сказанных Сокхёном (2, 4, 6, 7, 9), три из них сказаны в вежливой форме на – Вы (2, 4 и 9), а две фразы в фамильярной форме на –ты (6, 7).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фразы 2, 4 и 9 были сказаны Сокхёном в качестве подчиненного, а фразы 6 и 7 – в качестве друга. При этом все фразы, произнесенные Сунхваном (1, 3, 5, 8), были сказаны в фамильярной форме на – ты, поскольку обе роли Сунхван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окхёну – друг и начальник, соответствуют общению на –ты.

**В. Определение интенций говорящего.**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большую роль играет умение понимать коммуниканта без слов. В частности, подчиненный должен быть внимателен к своему начальнику и предупреждать его желания. В данном диалоге Сокхён, как подчиненный, видит, что директор сильно озабочен, о чем-то тяжело размышляет, и понимает, что музыка может мешать думат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окхён выключил музыку,

Сунхван понимает, что Сокхён видит его состояние. По сюжету сериала, Сунхван малоразговорчивый человек, умеющий хорошо скрывать свои мысли, не показывать свои чувства. Однако сейчас он понимает, что его переживания стали заметны другу. Поэтому он улыбается Сокхёну и спрашивает «Что, заметно?» (1). Ответом «Вы слишком много выпили» (2) на вопрос директора, Сокхён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Да, заметно, ваши переживания сейчас видны». Данный момент опущен в ответе, он лишь имплицитно присутствует в нем. Кроме того, в фразе (2) имеется еще одно имплицитное пояснение: «Обычно у вас хорошо получается скрывать свои мысли и чувства, но сейчас вы выпили, и они видны». В этой фразе (2) присутствует и вежливос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обеседнику) и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ость (в желании успокоить: «Не то, чтобы у вас все на лице написано, просто виновато спиртное»), и субординаци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ачальнику (выбором уклончиво-успокаивающего ответа). Используется самая высокая степень вежливости, проявляемая окончанием *-니다*, на что Сунхван реагирует фразой (3) «Расслабься, пока мы вдвоем, можешь перейти на *-ты*». Однако Сокхён не хочет переходить рамки статусных границ и вежливо отвечает «Уже в привычку вошло, господин директор» (4). Использование должностного обращения *사장님* «господин директор» в конце фразы, подчеркивает более высокую статусную позицию собеседника и придает фразе более доверительный оттенок, лишает фразу сухости. Поскольку данной фразой (4) Сокхён вежливо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предложения быть на равных даже в моменты, когда они вдвоем, Сунхван фразой (5) пытается настоять на своем предложении. В фразе (5) Сунхван использует имя друга со звательным окончанием *석현-아* «Сокхён-а», которое употребляетс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детям или близким друзьям. Второе обращение к Сокхёну «фамилия + имя» (Юн Сокхён) также используется, как правило, по отношению к близким друзьям и имеет несколько повелительный оттенок, требующий ответа на следующий вопрос «Ты мне друг, правда?». Уступая начальнику-другу, Сокхён в этот раз фразой (6) отвечает как другу в фамильянной степени вежливости «Друзья-то мы друзья, но теперь нам сложно оставаться друзьями». Далее Сокхён поясняет свою мысль: «Друзья, неравные по положению, не могут делить дружбу поровну». Ответ исчерпывающий, и с этим не может не согласиться Сунхван, который свое согласие с позицией друга-

подчиненного выражает следующей фразой (7) «Вот и ты оставляешь меня». После небольшой паузы фразой (8) Сокхён возвращается к своей роли подчиненного «Куда отвезти вас, господин директор?». На что Сунхван отвечает не «Пойдем, выпьем» (в значении «вместе»), а «Надо еще выпить стаканчик» (9), то есть одному. Это еще раз подтверждает то, что отказ Сокхёна принят.

#### **Г. Лекс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дискурса.**

Постпозициональ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бращения (господин директор) является довольно частым употреблением более высокой должностной позиции, чем у говорящего. Однако семант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данного обращения выражает приниженнную позицию адресанта, что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факторов подтвержд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неравенства коммуникантов.

Употребление диаметрально противоположных по прагмалингвистическому значению обращений двух коммуникантов («господин директор» у Сокхёна и «Сокхён-а» у Сунхвана), усиливают восприятие зрителей в осознании статусного неравенства коммуникантов.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ба бывших друга хотели бы и дальше продолжать оставаться друзьями, социальные правила иерархии не дают им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и, и они оба это осознают. Используя личное имя собеседника (Сокхён-а, Юн Сокхён), Сунхван пытается вернуть друга в рамки дружеского общения. Однако Сокхён не может согласиться на столь любез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поскольку знает, что именно он, как нижестоящий, должен соблюдать субординцию. Ответом «Вот и ты оставляешь меня», Сунхван соглашается с решением друга, ч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Сокхён принял правильное решение.

Рас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показывающий, как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коммуникантов определяет и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из сериала «Я не виновен» / *착한 남자* 6 серия).

**А. Ситуация.** Президент корпорации, в которой его дочь Ынги работает директором, выгнал ее из дома, приказав уйти с пустыми руками без денег и вещей. Диалог между адвокатом компании Пак Чунха и Ынги проходит вечером на улице. Ситуация неофициальная. Третих лиц при разговоре нет.

Ынги выходит из дома и идет по улице. Пак Чунха,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й при последнем разговоре отца с дочерью, выбегает за ней и окликает.

(1) ЧУНХА: 이사님! Директор (*исаним*)!

(2) ЧУНХА: 은기야! Ынги-я!

(3) ЫНГИ: 좀 전에 회장님 얘기 못 들으셨어요? 태산의 녹을 먹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티끌만큼의 폐도 끼치지... Вы что, не слышали, что только что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Чтобы никто из сотрудников Тэсана не смел помогать мне.

(4) ЧУНХА: 태산의 법무팀 박준하로 주는 게 아니구, 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오빠, 박준하로 주는 거야. 받어! Я даю это тебе не как Пак Чунха – юрист корпорации Тэсан, а как твой старший брат (*онна*), друживший с тобой с детства. Возьми!

(5) ЫНГИ: 됐어. 어쨌든 오빤 태산의 사람이야. 반칙 안 할래... Не над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ты (*онна*) – человек корпорации Тэсан. Я не буду нарушать приказ.

(6) ЫНГИ: 아 참.이건 압수하구, 차 키는 내 방에 있구. 할 수 없다, 이건 횡령 좀 할께. (*Достает из сумки кошелек, отдает его ему, вытащив из кошелька немного денег*) Ах, да. Было сказано, чтобы ты конфисковал это у меня. Ключи в моей комнате. Ничего не поделать (*показывает деньги*), это я присвою.

(7) ЧУНХА: 순순히 그냥 나가실 겁니까? Так просто и уйдете?

(8) ЫНГИ: 별 수 있나? 회사에 그렇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악의 죽이이라는네... 회장님 잘 부탁해. Да разве я могу ослушаться? (*С иронией*) Причинив такой-то ущерб компании... Позаботься о президенте (*отце*), прошу тебя. (*Уходит, но вскоре 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9) 뭐 하나 물어 볼 게 있는데요, 박 변호사님. Могу я у вас кое-что спросить, адвокат Пак?

(10) ЧУНХА: 말씀 하십시오. Да, конечно.

(11) ЫНГИ: 버스 탈려면 어디루 가야 돼요? Где находится автобусная остановка?

**Б. Роли и особенности речевого поведения коммуникантов.** Адвокат Пак Чунха работает в корпорации в качестве личного помощника Ынги. Как сотрудники фирмы общаются в вежливой форме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должностных обращений – директор (*исаним*) и адвокат (Пак) (Пак пёнхосаним). При этом Пак Чунха обращается к Ынги в официально-вежливой

форме вежливости, а Ынги в неофициально-вежливой, что показывает и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подчиненного и начальника.

По сюжету фильма в детстве Чунха и Ынги были друзьями. Однако как только Чунха стал подчиненным Ынг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изменились.

**В. Определение интенций вежливости говорящего.** Пак Чунха, пытаясь помочь Ынги, хочет дать ей свою кредитную карточку и окликает ее привычным должностным обращением (1) Директор (исаним). Однако Ынги не хочет разговаривать и продолжает идти. Поэтому он еще раз зовет ее (2), употребляя шокирующее для нее обращение по имени со звательным окончанием –<sup>o</sup> –я, используемым к детям или очень близким людям. Поскольку обращение выходит за рамки дозволенного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Ынги 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Чунха догоняет ее, достает из кошелька свою кредитную карточку и протягивает ей. На это Ынги реагирует следующей фразой (3) «Вы что, не слышали, что только что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Чтобы никто из сотрудников Тэсана не смел помогать мне». Данной фразой Ынги отказывается принять помощь от подчиненного. Но Чунха фразой (4) поясняет свое желание помочь не как подчиненный, а как друг детства. Пак Чунха использует фамильярную степень вежливости (на –ты), чем показывает ей, что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он действует не как сотрудник корпорации, а как частное лицо, близкий для нее человек, как ее «оппа» (т.е. «старший брат»). Зная, что она не возьмет деньги от него, как от работника компании ее отца, он пытается с помощью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детских дружески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уговорить ее, чтобы она взяла деньги у него как у друга. Однако Ынги, зная жесткую систему рабочи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в Корее, когда слово начальника – закон для всех подчиненных, не хочет ставить под угрозу близкого ей человека – друга Пак Чунха. Поэтому она отказывается брать его деньги и фразой (5) она объясняет свой отказ. При этом она переходит на фамильярную степень вежливости (на –ты) и использует к Чунха обращение «оппа», ч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хоть она и не принимает его помочь, но принимает его отношение к ней как к близкому человеку. Следующей фразой (6) Ынги показывает твердость своего решения следовать приказу отца. В фразе (7) используется официально-вежливая степень вежливости, ч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Чунха принял ее решение, краткое возвращение к дружеским отношениям детства закончилось и

Ынги снова его директор. Поскольку в фразе (8) Ынги продолжает употребля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Чунха фамильярную степень вежливости, данная фраза адресуется Чунха-другу, а не Чунха-подчиненному Однако в следующей фразе (9) Ынги обращается к нему уже снова как к человеку корпорации с должностным обращением «Пак пёнхосаним» (адвокат Пак) и в вежливой форме. То есть, минутное возвращение к прошлым отношениям близких людей уходит, и реальность, в которой они занимают определенные социальные роли, согласно которым они обязаны общаться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тональности вежливости, возвращает отношения на свои места.

#### **Г. Лексико-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дискурса.**

Употребление различных степеней вежливости, а именно, официально-вежливой (фразы 1, 7, 10), неофициально-вежливой (фразы 3, 9, 11) и фамильярной (фразы 2, 4, 5, 6, 8) показывают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коммуникантов и их эмоциона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в момент говорения. Характерно то, что все фразы в неофициально-вежливой степени (на –요) сказаны Ынги, что может подтверждать то, что данная степень характерна для женской речи. Все фразы в официальной степени (на –니다) сказаны Чунха, то есть характерны для мужской речи. В моменты, когда говорящие использовали фамильярную степень вежливости (т.н. 반말), коммуниканты показывали друг другу близкие отношения старых друзей.

Обращение к Чунха-другу в фразе (8) Ынги завершает просьбой 회장님 잘 부탁해, что означает «Прошу тебя позаботиться о президенте», то есть об ее отце. При этом по отношению к отцу используется должностное косвенное обращение 회장님 «президент», а не привычное дл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тец».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ринято называть людей исход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из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лушающего и объекта речи. А для обоих коммуникантов отец Ынги – президент корпорации.

Приведенные примеры показывают, насколько важен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влияет на все общение в целом. Сунхван и Сокхён, а также Пак Чунха и Ынги в детстве дружили и общались, как полагается детям, в фамильярной степени вежливости. Однако с приобретением нового статуса и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меняются в связи с изменением статуса, которое влияет на их общение в целом.

Основное различие между социальным статусным устройством русских и корейцев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в Корее иерархия (ранг) определяет власть, а в русском обществе в основном власть определяет иерархию [3]. Поэтому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в Корее все очень дорожат и переживают за свое место на иерархической ступен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ерархическ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меняется не только языковое (начиная с правил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вежливости), а также внеязыковое, но и все поведение в общем. Среди факторов, определяющих положение в иерархии, наиболее важными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такие факторы, как возраст, служебная позиция, пол и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Среди указанных факторов наиболее важным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се-таки возраст. Безусловно, бывают разные случаи, но, как правило,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старше коммуниканта хотя бы на 2-3 года, по умолчанию становится вышестоящим над нижестоящим, который обязан соблюдать все правила субординации перед старшим. Изменения последних лет, когда по служебной лестнице вперед продвигаются и занимают высшие позиции младшие по возрасту над старшими, слегка нарушили устоявшиеся правила корейской иерархии, и все же не поддается сомнению факт, что старшие,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пользуются большим уважением и преимуществами, чем младшие по возрасту. Если начальником становится младший по возрасту, это, вне сомнения сильно расстраивает старшего по возрасту человека, которому приходится стать «нижестоящим» под младшим. В свою очередь, если начальнику приходится управлять человеком старшего по возрасту, ему приходится следить за своими словами, с осторожностью давать ему указания и соблюдать определенные правила субординаци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таршему [2].

Для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добная разница в возрасте не является столь существенной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лияния и авторитета. Для нее более значительным фактором, определяющим положение человека на социальной ступеньке, являются профессия, должностная позиция и уровень власти и влияния, которым он владеет.

Определяющими факторами корейской иерархии являются возраст, пол, родственные связи. Их можно назвать врожденными факторами, которые человек получает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воих усилий и которые не может изменить. В отличие от статусны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в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корейская иерархическая лестница более четкая,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ная и жесткая.

В русском обществе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более гибко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социальной системой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ри сближении начальник и подчиненный могут открыто проявлять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одчиненному не воспрещается давать советы или возражать начальнику-другу.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возможен социальный переход сверху вниз или снизу-вверх по отношению к «Я». Если представить социально-иерархические лестницы корей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обществ, то картина может выглядеть так, как представлено на рисунке 7 (по Ли Т.)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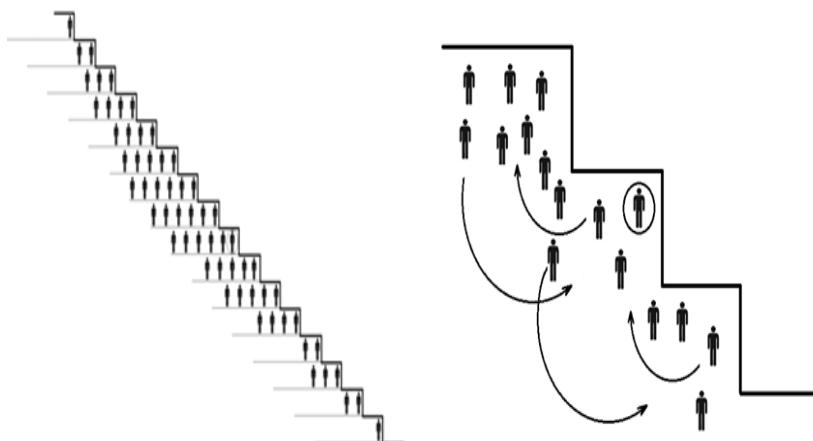


Рисунок 7 – Статусная иерархия в корейском (слева) и русском (справа) обществе

На рисунке видно, что корейская иерархиче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система более детальная и структурированная в сравнении с русской системой общества.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все старшие по возрасту, вышестоящие по рангу и должностям, раньше принятые на работу (в фирмах) или раньше поступившие в университет/ школу, по умолчанию социально выше, чем «Я». И какие бы близкие человеческие узы не связывали бы людей, но вышестоящие и нижестоящие по социально-иерархической лестнице не могут быть равны. Правила иерархии не позволяют

нижестоящему указывать, делать замечания, возражать, опровергать сказанное собеседником и общаться с вышестоящим или старшим на –ты.

В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безусловно, порядок иерархии четок и понятен, но в сравнении с корейским обществом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более широким и не столь жестким. Гибкость русской статусно-иерарх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проявляется в возможности смены рангового порядк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еремены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тепени уважения, власти и т.д.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бщение в Корее имеет тенденцию к упрощению. Это связано с общей глобализацией и взаимообменом культур. Традиционно эмоциональность отношений уступала иерархии и человеческ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строились на различиях в социальном статусе коммуникантов. Однак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дет активная ломка старого иерархического строя 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людьми, стоящими на различных ступенях иерархии, не столь далеких друг от друга, становятся ближе. Жесткая вертикаль соци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Кореи уступает человеческим отношениям. Еще 50 лет назад коммуниканты, с разницей в возрасте хоть в 2-3 года, строго соблюдали жестко контролируемую правилами иерархии дистанцию и использовали различные экспликанты вежливости к старшему. Однако сейчас небольшая разница в возрасте уступает эмоциональности личны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и коммуниканты в таких ситуациях довольно быстро переходят на фамильярный стиль коммуникации.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подобные изменения не одобряются старшим поколением, сетующим, что молодежь распустилась и переживающим за будущее Кореи в целом. Однако постоянные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в Корее подготовили почву к тому, чтобы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ивыкло к изменениям и не противилось им.

Посредством представленного дискурсивного анализа кинодиалогов можно выявить различия и нац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социальны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когда-то были равными, но со сменой статусных ролей потеряли равенство. Если в английской культуре человек, обладающий более высоким социальным статусом, опускается до собеседника [5], а в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наделенный властью поднимает до себя собеседника-друга, то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не происходит ни повышения, ни понижения. Человек, имеющий

более высокий статус, сохраняет его при люб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и общение с собеседником, имеющим более низкий статус, происходит сверху вниз. Нормы подобной иерархии регулируются социальным поведением, грамматико-лексическим стро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ключая обращение), статусным разделением общества и его укладом, а также менталитетом народа.

###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Карлинский А.Е. Методология и парадигмы современной лингвистики. Алматы: Изд-во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2009. 352 с.
2. 이익섭, 이상억, 채완.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1997. 365 р.
3. 3. Хан Н.Ч. Речевые стереотипы обращения в реализации категории вежливости в разноструктурных языках.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степени доктора философии (PhD). Алматы, 2016.
4. 이 타찌야나. “러시아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 비즈 니스 맥락의 간문화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 어교육과 한국어 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2. 223 р.
5. Ларина Т.В. Категория вежливости и стиль коммуникации. Сопоставление английских и русских лингво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М.: Рукописные памятники Древней Руси, 2009. 512 с.

## КОРЕЙСКИЙ РИСОВЫЙ ПАРОВОЙ ХЛЕБ (찰떡) В ИНТЕРПРЕТАЦИ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Тен И.Е.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Аннотация:**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традиционные блюда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являющиеся одними из основных частей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татье можно узнать о традиционных блюдах, которые наиболее устойчиво сохранились в праздничном меню на торжествах. Традиционными блюдам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являются «чартоги»(찰떡), «чемпени» (종편, 술떡), «сире тэги» (콩찰떡), «часи тэги» и «кадюри». Однако сред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более важное место в жизни занимает «чартоги» и «чемпени» и являются незаменимыми блюдами в традициях корейцев, начиная с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ому первому годику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и заканчивая 60-летием юбилея.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традиционный, этнический, блюдо, «чартоги», «чемпени».

Традиции, обычаи, культурные наследия и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хня являю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жизни любого народа. Уровень традиционного наследия показывает уровень идентичности, понимания и сохранения традиций данной общности. Данная тема посвящена анализу сохран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хн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Однако перед тем как перейти к данному анализу, нужно рассмотреть как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редней Азии, Казахстана и Кыргызстана появились и основались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По некоторым источникам корейцы начали переселяться на русские земли с 1857 года. По одним из сведений было сказано, что официальной датой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считается 30 ноября 1863 г. Корейцы размещались у реки Тезинхэ и занимались хлебопашеством.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се больше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ялись на русские земли. И к 1870 годам было переселено около 900 семей.

Всем известно, что корейцы с давних времен занимались земледелием и рыболовством. На русских полях корейцы сеяли просо, картофель, морковь, кукурузу и други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а на прибреж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ловили крабов и собирали моллюсков.

Как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так и русская власть рассматривали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в своих выгодах. Для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ение давало возможность спокойно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занимаясь тем делом, что они умеют. Русская же власть рассматривала их как рабочую силу для орошения и освоения новых земель и источником снабжения продуктов местному населению. Корейцы расселялись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м, Приморском и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В своих целях русские власти стремились к обрус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уте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среди них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православия. Открывались школы, где корейские дети могли обучиться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Вторым этапом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 русские земли было связано с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ой и колонизаторской политики Японии на корейских землях. По данным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к 1910 году число корейцев в Приморской, Амурской, Сахалинской и Камчатских областях составляло около 60 тыс. чел. Во времена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японцы захватил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начали заселять туд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японцев, и затем корейцев после аннексии. Корейцев в основном использовали для постройки военных сооружений. После поражения и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ии в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е, японцы вывозили свои семьи из русских земель.

Позж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Япония готовится к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к нападению на СССР. Руководство СССР, чтобы не обострять отношения с Японией,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больше не призывать корейцев на службу в Красную армию. Политика Сталина начала физическое расформирование корейских партийных и военных кадр, деятель наук и культур.

Насильствен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чалось в 1937 году по указу И.В. Сталина "Велик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народов". 21 августа 1937 г. было принято знаменитое печально известное постановление Совета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СССР и ЦК ВКП (б)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с преамбулой "В целях пресечения японского шпионажа".

В этом году исполняется ровно 81 лет, как корейцы были депортированы. Депортация корейцев, несомненно, повлияла на становление черт характера и образа жизни людей. Потомки предков из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Кореи начали осваивать новые земли. До 1937 года корейцы жили компактно и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ходить в школы, где обучались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свободно общались друг с другом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днако после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ам в силу тяжелых испытаний и условий пришлось жить разобщено. Не было достаточных средств жить компактно и создавать школы, где бы могли изучать родной язык.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поддерживались лишь по большим праздникам. В результате таких условий, часть среднего поколения и большая часть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плохо знало не только родной язык, но и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своего народа. За это время у корейцев были подвергнуты изменениям традиции, обычаи, язык и даже менталитет.

### **Традиционные блюда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Для корейцев СНГ, соблюдаемые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отличаются друг от друга из-за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и социальных условий. Нет точного источника, где бы говорилось, как правильноправляются традиционные праздники, такие как празднования годика ребенка (Тольчанчи 돌잔치), свадьба, юбилей в честь 60-летия (Хвонгап 환갑) или поминки (Чэса 제사). В каждой стране сказано по-разному.

Помимо этого изменилась и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хня у корейцев. Однако наиболее устойчиво в праздничном меню на торжествах сохранилось несколько традиционных блюд.

Традиционными блюдам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являются «чартоги»(찰떡기), «чемпени» (증편, 술떡), «сире тэги» (콩찰떡), «часи тэги» и «кадюри». Если вкус данных блюд не сильно изменился, то сам процесс приготовления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сильно отличается от изначального способа приготовления. Сред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ажное место в жизни занимает «чартоги» и «чемпени» и являются незаменимыми блюдами в традициях корейцев, начиная с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ому первому годику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и заканчивая 60летием юбилея.

Одним из важных традиционных блюд на праздниках «кадюри».



«Кадюри» - это корейский хворост, нежное и воздушное лакомство, которое как сладкая вата тает во рту. Является любимым лакомством среди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В Корее нет данного десерта, но по вкусу схожа с печеньем «чапссальквадж» (찹쌀과자). Данное блюдо готовится рисовой муки (찹쌀가루). Тонкое тесто (из муки, яиц и водки) раскатывается на небольшие пластиинки, которые обжариваются в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масла. Готовый хворост смазывают сладким медовым сиропом и посыпают жареным кунжутом.

Вторым важным традиционным блюдом является «чемпени» (술떡)



«Точной даты появления этого вкуснейшего десер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нет, но известно, что уже во времена династии Корё (10-14-е вв.) он упоминается в летописях. Также известно, что появился он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временного Китая во времена

династии Юань (12-13 вв.) и носил название чымпён (중편은). Так что наше название имеет более древние корни. Правда, готовили его там из пшеничной муки. С большой долей уверенности можно говорить, что самому чимпени около 800 лет.

Корейцы заменили пшеничную муку на рисовую и со временем название стало более адаптированным и сейчас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он известен, как сульток».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данное блюдо готовится из рисовой муки (찹쌀가루) в виде сладких маленьких лепешек. Сред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зывают это блюдо «чемпени» или «чимпени», в Корее называют «술떡». Существует два вида «чимпени»: с цветочком посередине и без. «Чемпени» с цветочками ставят на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в честь дня рождения, юбилея, открытия бизнеса и т.п. «Чемпени» без цветочка ставится на стол в честь похорон или поминок.

Третьим важным традиционным блюдом является «чартоги».



Что такое «чартоги»? «Чартоги» это традиционный рисовый паровой хлеб. В Корее такое блюдо называют «Чальтог» (찰떡), в странах СНГ называют «чартоги» или «чартэги». В результат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отдаления от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процесс приготовления и вкус «чартоги» изменился.

Изначально «чартоги» называли ударным хлебом, поскольку готовился ударным путем. Что же это означает? Хорошо промытый клейкий корейский рис (찹쌀) два дня выдерживают в воде. Затем за 5-7 часов д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сливают воду и парят рис в водяной бане до готовности. Парят рис в большом казане на определенном огне. Затем из членов семь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друзей отбирали шестеро крепких мужчин. Люди стоят перед корытом и держат молотки. То есть заранее заготавливали большой деревянный лоток или корыто и два больших деревянных молотка. В корыто кладут распаренный рис и бьют молотком по рису до однообразной липкой массы, не допуская комковатостей. Отваренный горох пропускают через мясорубку. Затем молотый горох подсушивают в казане на умеренном огне и остужают. В остуженный горох добавляют сахар и поджаренный кунжут. Такую гороховую массу называют «кумур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чартоги» едят, смокая его с полученной гороховой массой «кумури».

Раньше «чартоги» имел важное место в сплоченности семьи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оскольку процесс приготовления «чартоги» является трудоемким, поэтому все члены семьи старались участвовать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За день до назначенной даты проведения круп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или праздника, члены семьи и родственники собирались в одном доме и все вместе делали «чартог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же «чартоги» можно купить в 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магазинах или заказать. Готовят такое «чартоги» из готовой рисовой муки и в мантоварке или на казане. Этническим корейцам легче купить «чартоги» в магазинах», чем делать дома.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что самую главную роль «чартоги» играет в праздновании первого года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Этот день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ажным событием в жизни каждой семьи, поскольку в этот день именинник взял со стола определенный предмет или коснувшись его, выбирает не просто предмет, а свое будущее. Это событие называют «Толь» (돌잔치), а стол, на котором выложены предметы, означающее будущее ребенка называют «Толь Чаби Сан» (돌잡이상). Такой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имениннику делают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дня до 12 часов. Есть у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верье, что до 12 дня силы духов сильнее, чем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и они могут осуществить желания и пожелания именинника.

На данный стол ставят книгу, ручку, нитку, фасоль, лук, деньги.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на этом столе лежат три чашки «чартоги». Почему же ставят обязательно «чартоги»? И почему их три? Связано это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обычаями. С древних времен рис означал хлеб, деньги и богатство. А поскольку «чартоги»

готится из риса, поэтому тоже обозначает богатство, деньги, обилие и зажиточность в семьеименинника. Согласно традициям корейцев на «Толь Чаби Сан» именинника ставят три чашки «чартоги». Первую чашку отдают бабушке и дедушке со стороны отца, вторую чашку отдают бабушке и дедушке со стороны матери, третью чашку преподносят имениннику. По одним данным –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кому преподнесли чаши с «чартогами», те проживут долгую и счастливую жизнь. По другим данным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чем больше со стола именинника кушают, тем больше он проживет. «Считается, что дети, выбравшие "чар тоги" будут жить очень хорошо, очень богато. В доме всегда будет достаток. Удача не будет покидать их с рождения и до самой последней минуты. В жизни, возможно, они сделают карьеру и будут большими начальникам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Про таких людей в народе обычно говорят: "счастливчик" или "в рубашке родился". Из таких детей сегодня вырастают будущие банкиры, министры. Корейцы, когда хотят сказать, что сосед живет хорошо говорят: "Он каждый день ест чальб сари" - "кы чибесо нальмада чальбсарирыль моннында" (그 집에서 날마다 찹쌀이를 먹는다)»<sup>1</sup>. Исходя из вышесказанного,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чартоги» является тем деликатесом, которое предвещает счастливую, удачную, размеренную и перспективную жизнь именинника.

### Заключение

Все народы отличаются друг от друга несколькими признаками: во-первых фамилией, во-вторых традициями, и в-третьих кухней. Чтобы чувствовать и считать себя корейцами, нужно иметь не только фамилию, но и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хни. Как говорит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любой праздник не может быть начат, если на праздничном столе не будет «чартоги» или «чемпени». Так и нам молодому поколению нужно соблюдать эту традицию и не нарушать. Если мы забудем о сво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блюдах, то и наше последующее поколение уже не вспомнит какие блюда входят в традиционную кухню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кольку благодаря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хни, также можно узнать и предположить о корейских корнях. Поэтому мы –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не должны забывать традиционных

---

<sup>1</sup> Ли Григорий.Обычаи и обряды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и СНГ.

[http://world.lib.ru/k/kim\\_o\\_i/a11.shtml](http://world.lib.ru/k/kim_o_i/a11.shtml)

блюдах, особенно таких как «чартоги» и «чемпени», без которых не проводиться ни одно мероприятие.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Ким Герман. «История имми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Алматы. 1999
2. Ли Г.Н. «Корейцы в Кыргызстане». Бишкек.1998
3. Ли Г. «Обычаи и обряды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и СНГ». Москва. 2003
4. Хан В.С. «Корёсарам: кто мы?». Бишкек. 2009

## **ГРАФИЧЕСКИЕ ОРГАНАЙЗЕРЫ В ОБ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О ТЕМЕ «동물원에 갔습니다»**

Мен С.Р.  
ТГПУ им. Низами, Узбекистан, Ташкент

**Аннотация:** В современной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практике разработаны и применяются многообразные на разных уровнях знания студентов стратегии, методы и приемы, в том числе 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роцесс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оказал, что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ми методами при изучении темы «동물원에 갔습니다» стали: Концептуальная таблица, Диаграмма Венна.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графические органайзеры, Концептуальная таблица, Диаграмма Венна

**Title:** Graphic Organizers in Teaching Korean Language on the Topic “동물원에 갔습니다”

**Author:** Men S.R., Tashkent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Nizami, Uzbekistan

**Abstract:** In modern pedagogical practice, strategies, methods and techniques, including interactive ones, are diverse at different levels of students' knowledge. The process of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showed that the most effective methods for studying the topic “동물원에 갔습니다” were: the conceptual table, the Venn diagram.

**Key words:** graphic organizers, Venn diagram, Conceptual table

---

В современной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практике разработаны и применяются многообразные на разных уровнях знания студентов стратегии, методы и приемы, в том числе 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реподавателю на занятии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еобходимо применять разнообразные интерактивные методы и средства, работать со студентами в режиме творческого соавторства и тогда у преподавателя будет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найти неформальный контакт с аудиторией, что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не только успешному обучению студентов, но и росту самого преподавателя.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ый интерактивный метод предполагает взаимосвязь и сочетание фронтальной (со всеми обучающимися), а также

групповой (выполняемой в творческих группах), парной (выполняемой в парах)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работы. Процесс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оказал, что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ми графическим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при изучении темы «동물원에 갔습니다» стали: «Концептуальная таблица», «Диаграмма Венна».

**Графи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торы** – это все, что каким-то образом помогает организовать информацию на листе бумаги (или экране компьютера), чтобы улучшить ее запоминание, усвоение, анализ или применени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занят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а тему «동물원에 갔습니다» была изучена и обобщена лингвистическая, методическая, лингводидакт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рассмотрены как графи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торы («Диаграмма Венна» и «Концептуальная таблица») способствуют активизации познав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удентов, повышению эффективности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занят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 закрепили лексику на тему “동물원”;
- улучшили навыки произношения при помощи упражнения;
- изучили грамматику - частицу дательного падежа (여겨조사) – **에**;
- закрепил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при помощи граф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торов («Диаграмма Венна» и «Концептуальная таблица»).

### **ПЛАН ЗАНЯТИЯ НА ТЕМУ «동물원에 갔습니다».**

**Тема занятия:** 동물원에 갔습니다  
**Цель занятия:** закрепить лексику на тему “동물원”; улучшить навыки произношения, объяснить грамматику, использованную в тексте “동물원에 갔습니다”.

Занятие №1. 동물원에 갔습니다	
Тип курса: практический	Время: 2 часа
Семестр: <input checked="" type="checkbox"/> S1 <input type="checkbox"/> S2	Число студентов: 18
Ход занятия	
1. Деятельность №1: Работа со словами на тему “동물원”. 2. Деятельность №2: Работа с текстом “동물원에 갔습니다” 3. Деятельность №3: Частица дательного падежа - <b>에</b>	

4. Деятельность №4: Сравнение частиц дательного и местного падежей. 5. Деятельность №5: Просмотр видеоролика “서울동물원” (“Сеульский зоопарк в Корее”). 6. Обратная связь: Получение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и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а		
Цели:	Конечные результаты обучени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закрепить лексику на тему “동물원”;</li> <li>• объяснить текст “동물원에 갔습니다”;</li> <li>• познакомить с Сеульским зоопарком в Корее;</li> <li>• повысить творческую активность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студентов.</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закрепят лексику на тему “동물원”;</li> <li>• определят ключевые понятия в тексте “동물원에 갔습니다”;</li> <li>• познакомятся с Сеульским зоопарком в Корее;</li> <li>• повышают творческую активность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студентов.</li> </ul>	
Использованные материалы:		
1. Нам В.В., Чурбанов И.А. Учебник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한국어 (초급) – 국제교육 진흥원, 2006. 2. 연세대 한국어 1.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3. <a href="http://study.koreain.net">http://study.koreain.net</a> 4.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c1bniRiABZ0">https://www.youtube.com/watch?v=c1bniRiABZ0</a>	<input type="checkbox"/> флэшкарты <input checked="" type="checkbox"/> праздничный материал (ы) <input type="checkbox"/> постер <input type="checkbox"/> картинки <input type="checkbox"/> музыка <input checked="" type="checkbox"/> видеоматериал <input checked="" type="checkbox"/> слайды ppt <input type="checkbox"/> visuals <input type="checkbox"/> белая доска <input checked="" type="checkbox"/> маркер <input checked="" type="checkbox"/> доска <input type="checkbox"/> флипчарт <input type="checkbox"/> скотч <input type="checkbox"/> ножницы <input type="checkbox"/> другие: _____	<input type="checkbox"/> компьютер <input type="checkbox"/> LCD проектор <input type="checkbox"/> кодоскоп <input checked="" type="checkbox"/> TV/DVDплейер <input type="checkbox"/> магнитофон <input type="checkbox"/> другие: _____
Тип оценки		
<input checked="" type="checkbox"/> постоянное оценивание <input checked="" type="checkbox"/> участие <input type="checkbox"/> задание /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input type="checkbox"/> презентация <input type="checkbox"/> редактирование	<input type="checkbox"/> проект <input checked="" type="checkbox"/> постоянное оценивание <input type="checkbox"/> промежуточное оценивание <input type="checkbox"/> окончательное оценивание <input type="checkbox"/> оценивани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работы	
Вид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input checked="" type="checkbox"/>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опрос <input type="checkbox"/> фронтальный опрос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занятия: (часы/дни) В аудитории: 2 часа	

<input checked="" type="checkbox"/> малые группы <input type="checkbox"/> другие _____ <input checked="" type="checkbox"/> весь класс (учитель-студент)		Вне аудитории: _____
Модель обучения:		Студенты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input checked="" type="checkbox"/> концепция обучения <input checked="" type="checkbox"/> совместное обучение <input type="checkbox"/> обучение-открытие <input checked="" type="checkbox"/> прямые инструкции		<input checked="" type="checkbox"/>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input checked="" type="checkbox"/> совместное обучение <input type="checkbox"/> приобретение навыков
<input checked="" type="checkbox"/> презентаци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input type="checkbox"/> приобретение навыков		<input checked="" type="checkbox"/> планирование ролевые игры <input checked="" type="checkbox"/> парная работа <input type="checkbox"/> целая группа <input type="checkbox"/> проект <input type="checkbox"/> лекция <input type="checkbox"/> другие _____ <input type="checkbox"/> визуальное
Этапы и время	Процедура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еподавателя	Деятельность студентов
1. <b>Введение</b> 3 мин	Приветствие. Сообщает тему, цель и планируемые учебные результаты. Знакомит со структурой и особенностями учебного занятия <b>(Слайд № 1).</b>	Приветствуют преподавателя. Слушают, уточняют, задают вопросы.
5 мин	<b>Работа со словами</b> <b>Задание №1. (Раздаточный №1).</b> Повторяет со студентами изученные на прошлом занятии слова - <b>Слайд № 3,4</b> (даётся картинка с животным и к нем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назва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вторяют изученные на прошлом занятии слова.
3 мин	<b>Задание №2.</b> Даёт задание студентам на закрепление слов: на картинке даны животные (зебра, жираф, бегемот, лев, пингвин). Устно нужно подобрать к каждому из животны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слов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b>(Слайд № 5)</b> .	Устно подбирают к каждой картинке животног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слов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2 мин	<b>Задание №3.</b> Даёт задание: устно ответить на 2 вопроса <b>(Слайд № 6)</b> .	Отвечают на 2 вопроса.
7 мин	<b>Задание №4. (Раздаточный №2)</b> Делит студентов по парам и даёт карточки с заданием: найдите	Правильно вставляют слова в

	<p>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слова животным, которые даны в образце и правильно вставьте их в предложения (ну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слова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даются в переносном значении). После выполнения в парах, проверяется вместе с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b>Слайд №7</b>).</p>	предложение.
<b>2. Основная часть</b> 5 мин	<p><b>Работа с текстом</b> <b>Задание №5. Прослушивание слов (Раздаточный №3)</b> Даёт студентам прослушать аудиозапись со словами, которые встретятся в тексте, и при этом студентам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их произношение. Звучит та же аудиозапись во второй раз и студенты должны повторять слова вслед за диктором (<b>Слайд №8</b>).</p>	<p>Внимательно прослушивают слова и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на их произношение.</p> <p>Повторяют слова вслед за диктором.</p>
10 мин	<p><b>Задание №6. Понимание прочитанного (Раздаточный №4).</b> Раздаёт каждому студенту листок с текстом. Затем предлагает студентам прослушать текст «동물원에 갔습니다» и ответить устно на вопросы преподавателя по тексту (<b>Слайд №8</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오늘은 무슨요일입니다?</li> <li>2. 누가 동물원에 갔습니까?</li> <li>3. 날씨가 어떻습니까?</li> <li>4. 동물원은 어떻습니까?</li> <li>5. 동물원에 무엇이 있습니다?</li> <li>6. 동생은 무엇을 했습니까?</li> <li>7. 우리 가족은 어디에 갔습니까?</li> </ol>	<p>Слушают внимательно текст по аудиозаписи и отвечают устно на вопросы преподавателя.</p>
5 мин	<p><b>Задание №7. Частица дательного падежа (여격조사) –에 (Слайд №9,10)</b>  <b>1. Отвечает на вопрос - куда? (어디에?) - Слайд №9</b>          Сущ. + 에 가다/오다...</p>	<p>Записывают в тетрадь.</p>

	<p>학교+ 에 - 학교에 동물원+ 에 - 동물원에 <b>Например:</b> 1. 여동생이 학교에 옵니다. Сестрёнка приходит в школу. 2. 우리 가족은 동물원에 갑니다. Наша семья идет в зоопарк.</p>	
5 мин	<p><b>2. Отвечает на вопрос - где?</b> <b>(어디에서?) - Слайд №10</b>     Сущ. + 에 있다/없다/많다 등     대학교 + 에 - 학교에     동물원 + 에 - 동물원에 <b>Например:</b> 1. 대학교에 오빠가 없습니다. Брата нет в университете. 2. 동물원에 사자와 곰이 있습니다. В зоопарке есть лев и медведь.</p>	Записывают в тетрадь.
20 мин	<p><b>Задание №8. Составление Диаграммы Венна и Концептуальной таблицы (Раздаточный №5).</b> 1. Даёт задание студентам составить Диаграмму Венна по частице дательного падежа (<b>Слайд №11</b>). 2. Даёт задание студентам составить Концептуальную таблицу по частице дательного падежа и частице местного падежа (<b>Слайд №12</b>).  <u>1. Частица дательного падежа -에</u> Сущ. + 에 있다/ 없다/ 많다 1. 동물원에 사자와 곰이 있습니다.  <u>2. Частица местного падежа -이  서</u> Сущ.+에서 공부하다, 사다, 먹다 등 1. 동물원에서 호랑이, 사자, 곰, 늄대, 원숭이, 하마, 악어, 낙타, 타조를 봤습니다.</p>	Составляют «Диаграмму Венна» и «Концептуальную таблицу» по частицам дательного и местного падежей.
10 мин	<p><b>Просмотр видеоролика “Сеульский зоопарк в Корее” (Слайд №13)</b></p>	Просматривают видеоролик «Сеульский зоопарк в Корее».

<b>Обратная связь</b> 5 мин	<p>Делает заключение по теме, концентрирует внимание участников на главном.</p> <p>Анализирует и оценивает степень достижения цели учебного занятия.</p> <p>Дает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выучить слова; пересказать текст «동물원에 갔습니다».</p>	<p>Отвечают на вопросы преподавателя.</p> <p>Записывают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p>
--------------------------------	--	---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наглядные пособия, раздаточные материалы, мультимедийные ресурсы), использованные во время занятия:**

**Раздаточный материал № 1**

	동물원 зоопарк		악어 крокодил
	호랑이 тигр		낙타 верблюд
	사자 лев		타조 страус
	곰 медведь		귄 пингвин
	늑대 волк		얼룩말 зебра

	원숭이 обезьяна		기린– жираф
	하마 бегемот		

### Раздаточный материал № 2

Найдит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слова животным, которые даны в образце и правильно вставьте их в предложения.

곰, 고양이, 호랑이, 토끼, 돼지, 여우, 늑대

1. 제 여자친구는 -----처럼 예뻐요.
2. 내 남동생은 -----처럼 많이 먹어요.
3. 내 여동생은 -----처럼 애교가 많아요.
4. 우리 할아버지-----처럼 둔해요.
5. 내 아이가 -----처럼 귀여워요.
6. 우리 아버지께서는 -----처럼 무서워요.
7. 저는 -----처럼 배고파요.

### Раздаточный материал № 3

#### 발음연습

잤다 [갈따]	따뜻했다 [따뜨태따]	동물원 [동무원]	많아서 [마나서]	복잡했다 [복짜페따]
늑대 [늑때]	악어 [아거]	있었다 [일써따]	탔다 [탄따]	먹었다 [먹걸따]
시간이 [시가니]	없어서 [업써서]	없었다 [업썰따]	식물원 [싱무원]	쳤다 [☜따]

### Раздаточный материал № 4

동물원에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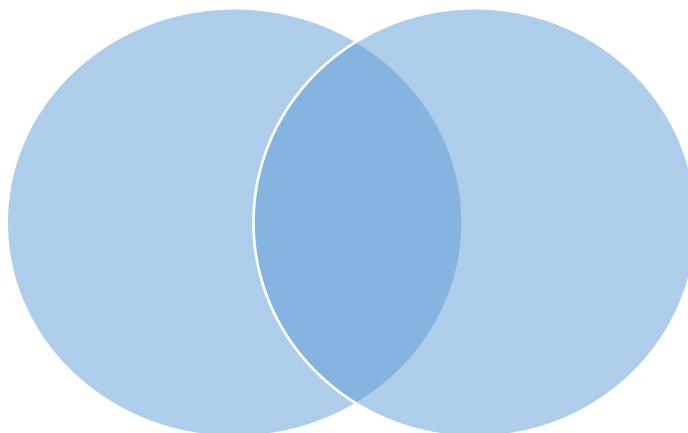
오늘은 주말이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 가족은 대공원에 갔다. 봄이 와서 날씨가 따뜻했다. 동물원은 사람이 많아서 매우 복잡했다. 동물원에서 호랑이, 사자, 곰, 늑대, 원숭이, 하마, 악어, 낙타, 타조를 볼 수 있었다. 동생은 놀이기구를 탔다. 아이스크림과 샤슬리크를 먹었다. 시간이 없어서 식물원은 갈 수 없었다. 저녁에 장 선생님께 편지를썼다.

### Раздаточный материал № 5

*Категориальная таблица*



### Диаграмма Венна



Итак мы рассмотрели, как интерактивные методы обучения способствуют активизации познав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удентов, а также рассмотрели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е

интерактивные методы обучения – графические органайзеры («Концептуальная таблица», «Диаграмма Венна»)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ема занятия «*동물원에 갔습니다*»). Используя данные графические органайзеры, студенты выражают и отстаивают свое мнение, вступают в спор, получают необходимую информацию и т.п.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нтерактивные методы обучения способствуют лучшему усвоению знаний, формируют коммуникативную, личностную, социальную,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ую компетенции.

###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Ким О.А. Сопоставительное изучение частиц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их эквивалентов в русском. – Т., 2015. – 120 с.
2.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обучения: Методическое пособие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интерактивных методов в обучении / Под ред. Г.В. Борисовой, Т.Ю. Автоловой и Л.Ю. Косовой. – Спб., 2002.
3. Ступина С.Б. Технологии интерактивного обучения в высшей школе: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ое пособие. - Саратов: Изд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Наука», 2009. - 52 с.
4. Ходиев Б.Ю., Голиш Л.В., Хашимова Д.П. Способы и средства организаци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уч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ое пособие для студентов. Издание 2-е, дополненное и исправленное. ТГЭУ, 2010. - 115 с.
5. Черкасова И.И., Яркова Т.А. Интерактивная педагогика: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ое пособие. – СПб.: НОУ «Экспресс», 2012. – 190 с.
6. Корнеева Л.И. Современные интерактивные методы обучения в системе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руководящих кадров в Германии: зарубежный опыт / Л.И. Корнеева //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актика и анализ. - 2004. – № 4(32). С. 78-83.
7. Мусина Р.Г. Интерактивные методы и приемы обучения.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 Т., 2005.
8. Панина Г.С., Вавилова Л.Н. Современные способы активизации обучения: Учеб.пособие для студ. высш. учеб. заведений / Т.С. Панина, Л.Н. Вавилова; Под ред. Т.С. Паниной. – М.: Изд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Академия», 2006. – 176 с.
9.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обучения: Методическое пособие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интерактивных методов в обучении / Под ред. Г.В. Борисовой, Т.Ю. Автоловой и Л.Ю. Косовой. – Спб., 2002.
10. Цой С.С. Игры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ое пособие. – Т., 2002.

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 서울, 2006.
12. <http://www.rusedu.info/Article726.html>
13. <http://works.tarefer.ru/64/100303/index.html>
14. <http://study.korean.net>
15. <https://vseokoree.com>
16. <https://koryo-saram.ru/>

## ОБУЧЕНИЕ ЯЗЫКУ С УЧЕТОМ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ВОСПРИЯТИЯ ИНФОРМАЦИИ ОБУЧАЕМЫМИ

Синдецкая Е.О.

БГУ им. К. Карасаева,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Как говорят корейцы, чтобы накормить человека, не нужно давать ему рыбу, нужно научить его пользоваться удочкой.

Первостепенная цель педагога – не просто передать знания обучаемому, но научить его на основе базовых знаний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добывать информацию, анализировать ее,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ть и применять на практике с минимальным уровнем дискурсивных ошибок. Здесь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важность постоянного контроля за процессом усваивания материала обучаемым. Если получе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ходит только этап запоминания,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обучающийся потеряет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 извлекать ее из памяти. Но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она перейдет в разряд знаний, принятых сознанием, как сам собой разумеющийся факт, то есть, стать семантически признанной единицей, концепт которой по своей функции не отличается от концепта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такой информации станет естественным процессом воспроизведения изуче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приносящим моральное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и, как результат, стимулирует дальнейшее стремление к овладению языко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следить, стал ли материал «родным» для обучаемого, мног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ошибочно пользуются привычной системой письм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знаний, делая выводы о способности учащегося оперировать знаками изучаемого языка исходя из написанного. И преподнося материал, не всегда учитывают, какие рычаги необходимо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эффектив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на сознание слушателя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В результате такого подхода возникает ситуация, при которой в одной группе обучаемых при однотипном способе подачи информации часть реципиентов без затруднений осваивают и воспроизводят ее, другая же часть по прошествии незначительного времени испытывает сложности не только при воспроизведении, но и в попытке дать семантическое определение

данному элементу, будь то лексика, морфологические или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элементы, правила и т.п.

Нередко подобные случаи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как неспособность к изучению языков, что можно опровергнуть, если у обучаемого нет проблем во владении родным языком, а также психических отклонений, вызывающих сложности во всех видах общения (письменном, устном)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Процесс восприятия информации можно регулировать более успешно, определив психотип обучаемого и при работе с ним учитывать особенности данного психотипа. Такой подход облегчает запоминание нового материала, ч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тимулирует стремление к продвижению по программе обучения и новым достижениям в овладении изучаемым языком.

При определении психотипа лучше пользоваться классификацией,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существует четыре (вместо трех) вида восприятия информации:

1. Визуальный – когда доминирующей является зрительная система обработки информации: формы, расположения, цвета.
2. Аудиальный – доминирующей является слуховая система обработки информации: звуки, мелодии, их тон, громкость, тембр, чистота.
3. Кинестетический – доминирующей является чув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икосновения, вкус, запах, ощущение текстур, температуры.
4. Дискретный (или дигитальный) – система восприятия связана с логическим построением внутреннего диалога.<sup>1</sup>

Как отмечено в определениях, доминирование того или иного типа не исключает налаженной работы других каналов восприятия, но является пусковым для мысли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что значительно облегчает подход к наиболее продуктивному освоению изучаемого материала каждым учащимся.

При об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как правило используется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заключающийся в планомерном развитии восприятия информации на слух (аудирование), зрительного

---

<sup>1</sup> Пермякова И. / Визуал, аудиал, кинестет, дигитал. Типы восприятия информации. / Когнитивная психология. 2016 г.

восприятия (чтение), 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устной речи (развитие речи), 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письмо).

Данная система замечательна следующим:

1. возможность задействовать ключевой канал и с максимальной пользой использовать его преимущества;
2.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вивать остальные каналы благодаря налаживанию внутренних связей между информацией, полученной и усвоенной привычным путем, и той же самой информацией, принимаемой посредством других каналов и, как правило, трудом распознаваемой реципиенто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есложно найти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обучению для каждого психотипа. Но все они сосредоточены на первой задаче, что никаким образом не помогает обучающемуся, когда он попадает в среду, где в процессе коммуникации оказывается вынужденным использовать недостаточно активные системы восприятия.

Необходимо оговориться, что такие системы не являются недоразвитыми. Процесс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их работы не должен быть направлен на такие жесткие меры, как полное исключ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ивычной системы, так как это вызывает стрессовую ситуацию, быструю утомляемость, потерю ориентирования в материале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 притуплени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Самым результативным методом является постепенное привыкание к владению «неактивной» системой, основанное на восприятии информации посредством ее каналов, но с опорой на работу каналов активной системы. В целях исключения риска полного переключения на вторую предлагается повторная проработка материала уже без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й опоры спустя некоторый промежуток времени (желательно в рамках одного занятия с повтором процедуры спустя более длительный промежуток времен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и заучивании лекс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недостаточно заучивать материал со словаря, отождествляя слово с его значением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Подключение рычагов восприятия поможет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данный процесс, превратив его в максимально продуктивный.

Рассмотрим пример. Человеку с аудиальным типом восприятия информации при запоминании слова необходимо сознательно производить следующий алгоритм действий:

1. услышать слово на изучаемом языке, не видя его графического начертания;
2. отождествить звучание с предметом или понятием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3. при свободном воспроизведении иностранного слова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его графическим изображением, наделяя последнее заимствованной из родного языка семантической наполненностью его звукового варианта.

Переход от одного действия к другому должен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трого осознанно и лишь при полном выполнении предыдущего. Тот же алгоритм может быть применим к процессу освоения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структур, конструкций и частиц.

Учитывая тот факт, что человек, пользующийся одним каналом для восприятия окружающе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является редкостью и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преобладают смешанные типы с доминирующей чертой, в процессе обучения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каналы восприятия на каждом из описанных выше этапов. Так, например, тому же лицу с активной аудиальной системой со склонностью к кинестетическому восприятию в данной ситуации можно порекомендовать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взять предмет в руки или воссоздать в памяти ощущ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данным предметом или явлением, проговаривая его выражение на изучаемом языке. То же самое необходимо повторить при выполнении третьего шага, то есть при чтении и прописывании данного слова.

Данный процесс, который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довольно трудоемким, оправдывает себя, так как действия, предложенные выше влияю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сознание учащегося, а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 качество усво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апробировавшими данную методику обучающимис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Учащиеся отметили также,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регулярных тренировок такого характера повышается способность к запоминанию и восприятию информации и через неактивные каналы.

Освещенная выше проблема относится к ряду методических и применение результатов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данной области способно значительно облегчить процесс обучения, поднять уровень вырабатываемых компетенций у учащихся, сделать работу педагога более продуктивной, позволить наиболее рациональ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ремени обеих сторон акта обучения.

## ЛЕКСИЧЕСКАЯ ИНТЕРФЕРЕНЦИЯ В КОРЕЙСКОЙ РЕЧ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 КАЗАХОЯЗЫЧНЫХ УЧАЩИХСЯ

Ким А.С., Сакенова А.М.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Аннотация:** Целью данной работы является изучение лексическ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в корейской реч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 казахоязычных учащихся. Материалом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служили 80 письменных работ обучающихся 1-2 курсов КазУМОиМЯ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бранные в целях выявления интерферентных явлений. Методом сплошной выборки были выявлены 105 случаев отклонения от нор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з которых 35 случаев, демонстрирующие интерферентные явления, как результат влия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 корейский, и 29 случаев, как результат влияния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на корейский. Практическая значимость данной работы состоит в возмож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исследования для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методов, приемов и форм обучения, способных предотвратить появление интерферентных явлений у обучающихс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ходе наш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мы обнаружили, что наиболее трудными для учащихся являются те случаи, когда значение родного слова шире, чем известное им на определенном этапе обучения зна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 это составляет основную трудность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Для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и преодоления лексическ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недостаточно одного объяснения и первичного закрепления лексики. Организация мер по предупреждению и преодолению интерференции должна быть обеспечена в спец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упражнений на всех этапах работы над словом. С метод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основными путями устранения интерфирирующего влияния родного языка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отбор и систематизацию лексем, которые потенциально подвержены влиянию интерференции и наиболее употребительны в пределах лексического минимума, и составление речевых упражнений, включающих операции выбора адекватного зна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 а также заданий на сопоставление и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е (при изучении синонимов). Учитывая принцип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в обучении, наиболее продуктивным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слов с культур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в разных лексических системах [1].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лексическая интерференция, русско-корейская полисемия, казахско-корейская полисемия, потенциальная интерференция

**제목:** 러시아어와 카자흐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간섭 현상  
**작성자:** 김 아나스타샤, 사케노바 아이누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알마티, 카자흐스탄.

**개요:** 본 연구는 초급 과정의 러시아어권 학습자와 카자흐어권 학습자가 모국어에서 한국어로 통번역을 하는 데에 발생하는 어휘 오류 분석을 통해 모국어 간섭 현상을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모국어에 따른 어휘 오류 양상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자료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1-2 학년 80 명의 학생들이 모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연속 샘플링 방법에 의해 한국어 규범에서 벗어난 105 건의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러시아어가 한국어에 미치는 영향으로 간섭 현상을 보인 35 건의 사례와 카자흐어가 한국어에 미치는 영향으로 29 건의 사례가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연구 결과를 사용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기술 및 형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주제어:** 러시아어, 카자흐어, 한국어, 모국어, 어휘 간섭

## Введени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е теряет своей актуальности и по сей день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языков в языковы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Казахстана. Овладение иноязычной лексикой в речи относится к главным задачам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в языковом вузе. Известно, что степень лексической правильности иноязычной речи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уровня влад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ом.

Однако практика препода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а также данные метод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овладение иноязычной лексикой осложняется интерферирующим влиянием родного языка, приводящим к ошибкам в речи.

Эти ошибки связаны с количественным и качественным несовпадением значений в родном и изучаемом языках. Подобные ошибки наблюдаются в тех случаях, когда слово имеет одно или несколько совпадающих значений, однако остальные значения не совпадают, и в этих значениях лексемы родного и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являются компонентами разных синонимических рядов; ошибочным является предположение о полном совпадении семантической структуры родного и иноязычного слова [2].

Проблеме интер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ы работы таких отечественных и зарубежных ученых, как А.Е. Карлинский, М.М. Копыленко, З.К. Ахметжанова, В.А. Виноградов, В.С. Иванов, А.Ю. Русаков и др. Однако, вопрос лексическ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в

корейско реч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 казахоязычных учащихся нам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мало изученным.

Наша цель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бы выявить типичные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ие ошибки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корейской речи русскоязычными и казахоязычными учащимися.

В работе применяется следующая методика исследования интерференции: 1) краткий сопостав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исследуемых явлений русского/казах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2) определение поля потенциальн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3) обследование информантов; 4) выявление фактическ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анкетирования; 5)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анализ фактическ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Под потенциальн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ей подразумевается влияние языка Я1 на нормы языка Я2, предсказуемое простым сопоставлением (наложением) систем двух языков. Фактическая, реально бытующая интерференция выявляется в результате анализа данных тестов и анкет. [3, с.3]

Материалом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служили 80 письменных работ обучающихся 1-2 курсов КазУМОиМЯ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бранные в целях выявления интерферентных явлений. Методом сплошной выборки были выявлены 105 случаев отклонения от нор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з которых 35 случаев, демонстрирующие интерферентные явления, как результат влия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 корейский, и 29 случаев, как результат влияния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на корейский. Практическая значимость данной работы состоит в возмож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исследования для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методов, приемов и форм обучения, способных предотвратить появление интерферентных явлений у обучающихс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Анкеты, которые предлагались информантам для выявления интерференции в области употребления лексики, содержали 111 лексем, по 62 и 49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ой и казахоязычной аудитори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Число информантов, принявших участие в исследовании, составляет 80 человек, из них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тудентов 36 человек, казахоязычных студентов 44 человека. Во время анкетирования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стилистические или орфографические ошибки во внимание не принимались: перевод и при их наличии считался правильным. Отсутствие же перевода (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еумение выполнить его) приравнивалось нами к неправильному переводу.

## Основная часть

### 1.1. Потенциальная интерференция в корейской реч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учащихся

В качестве материала исследования мы отобрали лексику из учебников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ля казахстанцев» (1-2 ча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уровню A1-A2. Приведем 62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х лексемы, которыми информанты должны был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и перевод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и фраз 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1. 형용사: 1) 멋있다 2) 예쁘다 3) 아름답다<sup>1</sup> 4) 아름답다<sup>2</sup> 5) 높다 6) 크다  
7) 가볍다<sup>1</sup> 8) 가볍다<sup>2</sup> 9) 쉽다 10) 적다<sup>1</sup> 11) 적다<sup>2</sup> 12) 작다<sup>1</sup> 13) 작다<sup>2</sup>  
14) 어렵다
2. 동사: 1) 하다<sup>1</sup> 2) 치다<sup>1</sup> 3) 하다<sup>2</sup> 4) 치다<sup>2</sup> 5) 놀다<sup>1</sup> 6) 가다 7) 나다 8)  
오다 9) 어울리다 10) 입다 11) 쓰다 12) 끼다 13) 신다 14) 하다<sup>3</sup>  
15) 놀다<sup>2</sup> 16) 산책하다 17) 놀다<sup>3</sup> 18) 계시다 19) 있다 20) 주무시다 21)  
자다 22) 먹다 23) 드시다
3. 명사: 1) 생일파티 2) 생일 3) 분 4) 명 5) 권 6) 자루 7) 살 8) 연세 9) 이름  
10) 성함 11) 댁 12) 집 13) 시 14) 시간
4. 대명사: 1) 어디 2) 이것 3) 여기 4) 이분
5. 관형사 1) 무슨 2) 어느 3) 어떤
6. 수사: 1) 넷 2) 셋 3) 사십 4) 열여덟

Поле потенциальной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складывается в связи с семантическими и структурными расхождениями в лексике рус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вызванная: а) несовпадением объема значений слов в обоих языках; б) несовпадением лексической сочетаемости и ассоциативных связей у соотнесенных слов контактирующих языков; в) отсутстви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эквивалентов в другом языке.

Приведем примеры, когда лексическая интерференция возникает по причине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семи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огласно толковому словарю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лово «играть»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около 10 значений.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е значения, это 1) забавляться, развлекаться; 2) проводить время в игры 3) исполнять музыкаль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4) исполнять роль на сцене.

Приведенные значени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ыражаютс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разными лексемами.

러시아어:      한국어:

Играть с друзьями (의미 1)

Играть в футбол (의미 2)

Играть на гитаре (의미 3)

Играть на сцене (의미 4)

Потенциально некорректный перевод:

친구들과 놀다 -

축구를 하다      축구를 놀다

기타를 치다      기타를 놀다

연극하다      무대에서 놀다

Кроме того, в случае с игрой на музыкальном инструменте, выбор лексемы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сложняется тем, что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способ игры на музыкальном инструменте, а в случае с игрой в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способ и характер игры.

치다 – 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나게 하는 방법

한국어:      러시아어:

피아노를 치다

북을 치다

Играть на пианино

Играть на барабане

볼다 – 관악기를 입에 대고 숨을 내쉬어 소리를 내는 방법

한국어:      러시아어:

색소폰을 볼다

트럼펫을 볼다

Играть на саксофоне

Играть на трубе

뜯다 – 현악기의 줄을 텁겨서 소리를 내거나 연주하다

한국어:      러시아어:

가야금을 뜯다

비파를 뜯다

Играть на каягыме

Играть на пипе

Также, одной из сложных русских лексем является лексема надеть.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данная лексема

имеет большую семантическую ёмкость и широкую сочетаемость, нежел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Так,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лово «надеть» можно сочетать как с элементами одежды (платье, брюки, шорты), так и обувью (туфли, кроссовки), различными аксессуарами (очки, кольцо, шляпа, шарф). Однак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бор лексемы, обозначающей процесс надевания, зависит

и от части тела,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о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оцесс, и от характера этого процесса.

러시아어:	한국어:
<u>Надеть</u> кольцо	반지를 <u>끼다</u>
<u>Надеть</u> брюки	바지를 <u>입다</u>
<u>Надеть</u> туфли	구두를 <u>신다</u>
<u>Надеть</u> шарф	목도리를 <u>하다/두르다</u>
<u>Надеть</u> очки	안경은 <u>쓰다/끼다/착용하다</u>
<u>Надеть</u> шляпу	모자를 <u>쓰다</u>

Еще одним ярким примером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семии, приводящей к лексическ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является слово «маленький».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данное слово используется и при выражении значения «маленький по величине, размеру», и для выражения значения «небольшой по количеству». Однак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аждому значению будет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свое слово. Так, для выражения маленького размера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лово «작다», а для выражения значения маленького количества необходимо использовать слово «적다». В связи с этим русскоговорящий учащийся будет совершать ошибки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корейской речи. Скорее всего студент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слово «작다» вместо «적다», как например в следующих примерах:

<u>Маленькая</u> зарплата	월급이 작다 (x)
<u>Маленький</u> интерес	관심이 작다 (x)
<u>Маленький</u> опыт	경험이 작다 (x)

Как уже отмечалось ранее, к ошибкам в речи может приводить отсутствие эквивалентов в одном из языко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о ком идет речь, такие слова, как «дом», «возраст», «имя», «спать», «есть» и др. будут звучать одинаково. Например:

Папа <u>спит</u> = ребенок <u>спит</u>
Бабушка <u>дома</u> = сестренка <u>дома</u>

В корейском же языке существует специальная лексика, используемая говорящим для выражения уважитель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объекту высказывания. То есть, приведенная выше

лексика имеет два варианта выражения: 자다 = 주무시다, 먹다 = 잡수시다, 집 = 댁, 이름 = 성함.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корейской речи студент скорее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не специальную лексику, а нейтральную, что приводит к ошибке.

Такж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уществует два вида числительных, исконно корейских и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из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е к тому же имеют разные сфер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 примеру,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который час?», часы говорятся с помощью исконно корейских числительных, а минуты – синокорейскими числительными. В русском же языке существует только один вид числительных, используемый во всех сферах. Следовательно, русскоязычный студент будет испытывать трудности при выборе подходящих числительных.

Таблица 1.1. Поле потенциальн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ая лексема	Русская фраза	Правильный перевод	Потенциально неправильный перевод
멋있다	Мужчина красивый	남자가 멋있다	남자가 예쁘다
예쁘다	Женщина красивая	여자가 예쁘다	- 예상 번역 없음
아름답다	Город красивый	도시가 아름답다	도시가 예쁘다
아름답다	Музыка красивая	음악이 아름답다	음악이 예쁘다
크다	Рост высокий	키가 크다	키가 높다
높다	Высокая цена	가격이 높다	가격이 크다
가볍다 <sub>1</sub>	Сумка легкая	가방이 가볍다	가방이 쉽다
가볍다 <sub>2</sub>	Легкий завтрак	가벼운 아침 식사	쉬운 아침 식사
쉽다	Легкий экзамен	시험이 쉽다	시험이 가볍다
적다 <sub>1</sub>	Маленькая заработка плата	월급이 적다	월급이 작다
적다 <sub>2</sub>	Маленький опыт	경험이 적다	경험이 작다
작다 <sub>1</sub>	Маленький город	도시가 작다	도시가 적다
작다 <sub>2</sub>	Маленький размер	사이즈가 작다	사이즈가 적다
하다 <sub>1</sub>	Играть в футбол	축구를 하다	축구를 놀다
치다 <sub>1</sub>	Играть на гитаре	기타를 치다	기타를 놀다
하다 <sub>2</sub>	Играть в компьютерные игры	컴퓨터 게임을 하다	컴퓨터 게임을 놀다
치다 <sub>2</sub>	Играть в теннис	테니스를 치다	테니스를 놀다
놀다 <sub>1</sub>	Играть с другом	친구하고 놀다	- 예상 번역 없음
가다 <sub>1</sub>	Человек идет	사람이 가다	- 예상 번역 없음

나다	Кровь идет	피가 나다	피가 가다
오다	Снег идет	눈이 오다	눈이 가다
어울리다	Платье идет	원피스가 어울리다	원피스가 가다
입다	Надеть платье	원피스를 입다	- 예상 번역 없음
쓰다	Надеть кепку	모자를 쓰다	모자를 입다
끼다	Надеть перчатки	장갑을 끼다	장갑을 입다
신다	Надеть спортивную обувь	운동화를 신다	운동화를 입다
하다 <sub>3</sub>	Надеть шарф	목도리를 하다	목도리를 입다
놀다 <sub>2</sub>	Приезжай гулять в Сеул	서울에 놀러 와요	서울에 산책하러 와요
산책하다	Гулять в парке	공원에서 산책하다	- 예상 번역 없음
놀다 <sub>3</sub>	Гулять в торговом центре	쇼핑 센터에서 놀다	쇼핑 센터에서 산책하다
계시다	Мама находится дома	어머니가 집에 계십니다	어머니가 집에 있습니다
있다	Я нахожусь в школе	나는 학교에 있습니다	- 예상 번역 없음
주무시다	Папа спит	아버지가 주무십니다	아버지가 잡니다
자다	Братишко тоже спит	동생도 잡니다	- 예상 번역 없음
드시다	Учитель ест в столовой	선생님이 식당에서 드십니다	선생님이 식당에서 먹습니다
먹다	Друг ест в столовой	친구가 식당에서 먹습니다	- 예상 번역 없음
생일파티	Я пошел на день рождения	나는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나는 생일에 갔습니다
생일	Мой день рождения 1 января	내 생일이 1 월 1 일입니다	- 예상 번역 없음
분	В аудитории 2 учителя	교실에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교실에 선생님이 두 명 계세요
명	В столовой 10 студентов	식당에 학생이 열 명 있어요	- 예상 번역 없음
권/자루	На столе 3 книги и 4 ручки	책상 위에 책 3 권과 볼펜 4 자루가 있어요	책상 위에 책 3 개와 볼펜 4 개가 있어요
나이/살	Сколько тебе лет?	몇 살이에요?	- 예상 번역 없음

연세	Сколько вам лет?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름	Как тебя зовут?	이름이 뭐예요?	- 예상하지 않다
성함	Как вас зовут?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댁	Я иду домой к бабушке	할머니의 댁에 갑니다	할머니의 집에 갑니다
집	Я иду домой	집에 갑니다	- 예상 번역 없음
시	Я пришел в два часа	나는 2 시에 왔습니다	- 예상 번역 없음
시간	От дома до школы занимает два часа	집에서 학교까지 2 시간 걸립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2 시 걸립니다
무슨	Какие фрукты вы любите?	무슨 과일을 좋아하세요?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어느	В какую сторону идти?	어느 쪽으로 가야 해요?	어떤 쪽으로 가야 해요?
어떤	Твой друг какой человек?	친구가 어떤 사람이예요?	친구가 무슨 사람이예요?
어디	Что у вас болит?	어디가 아프세요?	무엇이 아프세요?
어떻다	Что вы думаете об это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생각하세요?
이것	Это стол	이것은 책상이예요	- 예상 번역 없음
여기	Это школа	여기가 학교예요	이것은 학교예요
이분	Это мой отец	이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예요
넷	В комнате 4 стола	방에 책상 네 개가 있어요	방에 책상 사 개가 있어요
셋	Сейчас 15:40	지금 세시 사십분입니다	지금 열다섯시 사십분입니다
사십	Сейчас 15:40	지금 세시 사십분입니다	지금 세시 마흔분입니다
열여덟	Мне 18 лет	저는 열여덟 살입니다	저는 십팔 살입니다

Из приведенной таблицы видно, что интерферентные явления ожидаются нами в 47 случаях из 62. Перевод 15 фраз и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не должен вызвать затруднений и должен быть

осуществлен правильно, так как значения слов и сочетаемость лексем совпадают в обоих языках.

### **1.2. Фактическая интерференция в корейской реч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учащихся**

Представим неправильные переводы русских предложений (фразеосочетаний) по убывающей их процентного выражения.

Таблица 1.2. Диминуэнда процента неправильных переводов русских предложений (фразеосочетаний)

№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ая лексема	Вариант правильного перевода	%неправильных переводов	Неправильно использованные лексемы и их процентное соотношение
1	하다 <sub>1</sub>	목도리를 하다	77.7	대답 없다 (39.6), 매다 (25), 끼다 (14.2), 쓰다 (14.2), 걸다 (3.5), 입다 (3.5)
2	놀다 <sub>1</sub>	쇼핑 센터에서 놀다	77.7	대답 없다 (35.6), 산책하다 (25), 쇼핑하다 (21.2), 가다 (11.1), 구경하다 (7.1)
3	자루	책상 위에 책 3 권하고 볼펜 4 자루가 있어요	72.2	개 (69.2), 대답 없다 (30.8)
4	연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2	살 (34.6), 대답 없다 (34.6), 나이 (30.8)
5	어느	어느 쪽으로 가야 해요?	66.6	어떤 (54.1), 무슨 (16.6), 대답 없다(16.6), 어디 (12.7)
6	적다 <sub>1</sub>	월급이 적다	61.1	작다 (54.5), 대답 없다(36.5), 낮다 (4.5), 짧다 (4.5)
7	놀다 <sub>2</sub>	서울에 놀러 와요	61.1	산책하다 (59), 대답 없다(23), 가다 (9), 다녀오다 (9)
8	적다 <sub>2</sub>	경험이 적다	58.3	작다 (52.5), 대답 없다(42.8), 짧다 (4.7) 어떤 (85.7), 어느 (9.5), 무엇 (4.8)
9	무슨	무슨 과일을	58.3	어떤 (85.7), 어느 (9.5),

		좋아하세요?		무엇 (4.8)
10	분	교실에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58.3	명 (90.4), 대답 없다(9.6)
11	가볍다 <sub>2</sub>	가벼운 아침 식사	58.3	대답 없다(70), 쉽다 (25), 적다 (5)
12	나다	피가 나다	55.5	오다 (72.3), 대답 없다(16.7), 나오다 (5.5), 내다 (5.5)
13	주무시 다	아버지가 주무십니다	50	자다 (72.3), 자시다 (16.7), 대답 없다 (11)
14	성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50	이름 (55.6), 대답 없다 (33.4), 성명 (11)
15	여기	여기가 학교예요	50	이것 (72.4), 그것 (11), 대답 없다 (11), 저것 (5.5)
16	어울리 다	원피스가 어울리다	50	대답 없다 (76.4), 마음에 들다 (23.6)
17	어떻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7.2	무엇 (50), 대답 없다 (37.5), 무슨 (12.5)
18	치다	테니스를 치다	44.4	하다 (60), 대답 없다 (40)
19	아름답 다	음악이 아름답다	41.6	좋다 (42.9), 대답 없다 (35.7), 예쁘다 (21.4)
20	권	책상 위에 책 3 권과 볼펜 4 자루가 있어요	38.8	개 (64.3), 대답 없다 (28.6), 잔 (7.1)
21	치다 <sub>2</sub>	기타를 치다	38.8	하다 (58.3), 대답 없다 (33.3), 놀다 (8.4)
22	계시다	어머니가 집에 계십니다	33.3	있다 (83.4), 있으시다(8.3), 대답 없다 (8.3)
23	넷	방에 책상이 네 개 있어요	33.3	사 (83.4), 대답 없다 (16.6)
24	가볍다 <sub>3</sub>	가방이 가볍다	33.3	대답 없다 (82), 무겁다 (9), 간단하다(9)
25	작다 <sub>1</sub>	도시가 작다	30.5	대답 없다 (54.5), 적다 (45.5)
26	끼다	장갑을 끼다	30.5	대답 없다 (63.6), 쓰다 (36.4)
27	높다 <sub>2</sub>	가격이 높다	30.5	대답 없다 (80), 크다 (20)
28	작다 <sub>2</sub>	사이즈가 작다	27.7	대답 없다 (55.5), 적다

				(44.5)
29	쓰다	모자를 쓰다	25	대답 없다 (77.8), 매다 (22.2)
30	신다	운동화를 신다	25	대답 없다 (66.7), 쓰다 (22.2), 입다 (11.1)
31	셋	지금 세시 사십분입니다	25	열다섯 (55.6), 사 (22.2), 열오 (11.1), 십오 (11.1)
32	생일파 티	나는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25	생일 (100)
33	댁	할머니의 댁에 갑니다	25	집 (75), 대답 없다 (25)
34	명	식당에 학생이 열 명 있어요	22.2	분 (57.1), 대답 없다 (42.9)
35	하다 <sub>2</sub>	축구를 하다	22.2	대답 없다 (83.3), 타다 (16.7)
36	어디	어디가 아프세요?	19.4	무엇 (66.7), 무슨 (16.7), 대답 없다 (16.7)
37	드시다	선생님이 식당에서 드십니다	16.6	대답 없다 (50), 먹다 (50)
38	쉽다	시험이 쉽다	16.6	대답 없다 (80), 가볍다 (20)
39	놀다 <sub>3</sub>	친구하고 놀다	16.6	대답 없다 (80), 하다 (20)
40	하다 <sub>3</sub>	컴퓨터 게임을 하다	13.8	대답 없다 (75), 놀다 (25)
41	가다	사람이 가다	13.8	걷다 (75), 대답 없다 (25)
42	산책하 다	공원에서 산책하다	11.1	대답 없다 (75), 가다 (25)
43	시간	집에서 학교까지 2시간 걸립니다	11.1	대답 없다 (50), 시 (50)
44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에요?	11.1	무슨 (50), 누구 (25), 대답 없다 (25)
45	이분	이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11.1	대답 없다 (75), 이 (25)
46	있다	나는 학교에 있습니다	11.1	대답 없다 (66.7), 계시다 (33.3)
47	시	나는 2시에 왔습니다	11.1	대답 없다 (100)
48	이것	이것은 책상이에요	8.3	이 (33.3), 이곳 (33.3), 대답 없다 (33.3)
49	아름답	도시가 아름답다	8.3	예쁘다 (100)

	다			
50	멋있다	남자가 멋있다	8.3	예쁘다 (100)
51	오다	눈이 오다	8.3	대답 없다 (50), 나다 (50)
52	입다	원피스를 입다	5.5	대답 없다 (100)
53	먹다	친구가 식당에서 먹습니다	5.5	대답 없다 (100)
54	살	몇 살이에요?	5.5	대답 없다 (100)
55	예쁘다	여자가 예쁘다	5.5	멋있다 (100)
56	크다	키가 크다	5.5	작다 (100)
57	이름	이름이 뭐예요?	2.7	대답 없다 (100)
58	집	집에 갑니다	2.7	대답 없다 (100)
59	열여덟	저는 열여덟 살입니다	2.7	대답 없다 (100)
60	자다	동생도 잡니다	2.7	대답 없다 (100)
61	생일	내 생일이 1 월 1 일입니다	0	
62	사십	지금 세시 사십분입니다	0	

Из таблицы 1.2 следует, что из 62 предложенных фразеосочетаний и предложений, перевод только 3 выражений не составил труда и был осуществлен правильно. По неизвестным причинам некоторые студенты не осуществили перевод тех фразеосочетаний и предложений, которые по нашим ожиданиям, не должны были вызвать затруднений.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исследования мы обнаружили, что не во всех случаях причиной неправильного перевода является интерферентное влияние родного языка. Только в 35 случаях мы обнаружили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ую интерференцию, а в остальных 24 случаях ошибки перевода связаны с незнанием особенностей сочетаемости лексики или недостаточным овладением учебным материалом.

Так, например, переводя фразу «надеть шарф», студенты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использует слово 입다 по аналогии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однако пытаются сочетать слово шарф с другими глаголами, которые тоже используются в значении надеть: 목도리를 매다, 목도리를 끼다, 목도리를 걸다, 목도리를 쓰다.

Анализ ошибок, сделанных в результате негативного влияния родного языка, позволяет выделить три основные причины неправильного перевода.

**Причина 1.** Слова одного языка не имею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эквивалентов в другом языке.

По нашему мнению, сюда можно отнести специальную лексику, используемая для выражения уважения к субъекту или объекту высказывани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е имеющая эквиваленто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ередко служит причиной ошибок при переводе. Студент скорее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нейтральную лексику, нежели специальную. То есть, вместо 연세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나이, вместо 성함 – 이름, вместо 분 – 명, вместо 택 – 집, 계시다 – 있다 и т.д.

**Причина 2.** Русско-корейская полисемия. Объем значений слов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больше, чем объем значений эквивалентного ему слова другог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т.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лово многозначно, каждое его значение передается в другом языке отдельными словами.

**Причина 3.** Круг значений слова в языке А не может быть полностью включен в круг значений слова в языке Б, то есть значения совпадают лишь частично.

Например, слово ГУЛЯТЬ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овпадает с русским словом ГУЛЯТЬ в следующих значениях:

- 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내다.
- 직업이나 일정히 하는 일이 없이 지내다.

Однако русское ГУЛЯТЬ имеет и такое значение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걷다, а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это значение выражается лексемой 산책하다.

Ответы студентов указывают на то, что они путают 놀다 и 산책하다 и склонны приписывать значения слова 놀다 слову 산책하다.

쇼핑 센터에서 산책하다 (학생들이 해준 틀린 번역)  
서울에 산책하러 와 (학생들이 해준 틀린 번역)

## 2.1. Потенциальная интерференция в корейской речи казахскоязычных учащихся

В качестве материала исследования мы отобрали лексику из учебников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ля казахстанцев» (1-2 ча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уровню A1-A2. Приведем 50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х лексем, которыми информанты должны был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и перевод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и фраз с казахского языка:

1. 형용사: 1) 길다 2) 크다 3) 가볍다 4) 쉽다 5) 적다<sub>1</sub> 6) 적다<sub>2</sub> 7) 작다<sub>1</sub> 8) 작다<sub>2</sub>
2. 동사: 1) 하다<sub>1</sub> 2) 치다<sub>1</sub> 3) 하다<sub>2</sub> 4) 치다<sub>2</sub> 5) 놀다 6) 입다 7) 쓰다 8) 끼다 9) 신다 10) 메다 11) 찾다 12) 벋다 13) 꾸다 14) 보다 15) 계시다 16) 있다 17) 주무시다 18) 자다 19) 먹다 20) 드시다 21) 하다 22) 일하다 23) 감다 24) 빨래하다 25) 씻다 26) 세수하다 27) 닦다
3. 명사: 1) 문 2) 명 3) 권 4) 자루 5) 살 6) 연세 7) 이름 8) 성함 9) 택 10) 집 11) 시 12) 시간
4. 대명사: 1) 무엇<sub>1</sub> 2) 무엇<sub>2</sub> 3) 누가

Поле потенциальной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складывается в связи с семантическими расхождениями в лексике казах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так как двуязычный индивид использует многозначные слова.

Данные ошибки вызваны: а) несовпадением лексической сочетаемости и ассоциативных связей у соотнесенных слов контактирующих языков; б) отсутстви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эквивалентов в другом языке.

Приведем примеры, когда лексическая интерференция возникает по причине казахск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семии.

В казахском языке, слово «көрү»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значения. Такие как: 1) любить, нравиться; 2) ненавидеть 3) смотреть что то, то есть наслаждаться просмотром 4) жить, проживать, выживать 5) видеть сон. Приведенные значения в казахском языке выражаютс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разными лексемами.

Жақсы көрү (1 значение) – 사랑하다

Жек көрү (2 значение) – 싫어하다

Телевизор көрү (3 значение) – TV 를 보다

Күн көрү (4 значение) – 먹고 살다

Тұс көрү (5 значение) – 꿈을 꾸다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в 1, 2, 3 случаях лексическая интерференция исключается. Однако в 4 и 5

значениях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явная лексическая интерференция. Скорее всего при переводе 4-го предложения (фразеосочетания) обучающийся столкнется с затруднениями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еревод будет некорректен. В 5 предложении (фразеосочетании), поскольку одно и то же содержани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ражается дифференцированно (несколькими словами), а в казахском языке - унифицированно (одним словом), и обучающийся, отождествив одно из нескольких корейских слов со словом родного языка, употребляет его во всех случаях. Так вместо слова «구다»,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обучающийся напишет «보다».

Также, одной из сложных казахских лексем является лексема «жуу». В казахском языке данная лексема имеет большую семантическую ёмкость и широкую сочетаемость, нежел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Так, в казахском языке слово «жуу» можно сочетать как со всеми частями тела (голова, руки, лицо, ноги), так и со всеми неодушевленными предметами (посуда, машина, дом и т.д.). Однак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бор лексемы, обозначающей процесс мытья, зависит и от части тела,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о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оцесс, и от характера этого процесса.

Басты жуу – 머리를 감다  
Киімді жуу – 뺨-래를 하다  
Қолды жуу – 손을 씻다  
Бетті жуу – 세수하다  
Тісті жуу – 이]를 닦다

Еще одним ярким примером казахск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семии, приводящей к лексическ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является слово «шешу». В казахском языке данное слово используется и при выражении значения 1) выяснить, решить 2) снять (пальто) 3) развязать. Приведенные значения в казахском языке выражаютс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разными лексемами.

Киімді шешу – 옷을 벗다  
Мәселені шешу – 문제를 해결하다  
Жіпті шешу – 끈을 풀다

Таблица 2.1. Поле потенциальн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ая лексема	Казахская фраза	Правильный перевод	Потенциально неправильный перевод
길다	Ұзын шаш	머리가 길다	머리가 크다
크다	Ұзын бойлы адам	키가 크다 (사람)	키가 길다
가볍다	Женіл сөмке	가방이 가볍다	가방이 쉽다
쉽다 <sub>1</sub>	Женіл тапсырма	문제가 쉽다	문제가 가볍다
쉽다 <sub>2</sub>	Женіл емтихан	시험이 쉽다	시험이 가볍다
적다 <sub>1</sub>	Кішкентай жалақы	월급이 적다	월급이 작다
적다 <sub>2</sub>	Кішкентай қызығушылық	관심이 적다	관심이 작다
작다 <sub>1</sub>	Кішкентай қала	도시가 작다	도시가 적다
작다 <sub>2</sub>	Кішкентай өлшем	사이즈가 작다	사이즈가 적다
하다 <sub>1</sub>	Футбол ойнау	축구를 하다	축구를 놀다
치다 <sub>1</sub>	Гитарада ойнау	기타를 치다	기타를 하다
하다 <sub>2</sub>	Компьютер ойындарын ойнау	컴퓨터 게임을 하다	컴퓨터 게임을 놀다
치다 <sub>2</sub>	Теннис ойнау	테니스를 치다	테니스를 놀다
놀다	Играть с другом	친구하고 놀다	- 예상 번역 없음
입다	Көйлекті кио	원피스를 입다	- 예상 번역 없음
쓰다	Бас киімді кио	모자를 쓰다	모자를 입다
끼다	Қолғапты кио	장갑을 끼다	장갑을 입다
신다	Аяқ киімді кио	운동화를 신다	- 예상 번역 없음
메다	Рюгзакты арқасына кио	배낭을 메다	답하기 곤란스럽다
찾다	Ақшаны шешу	돈을 찾다	돈을 가지다
벗다	Киімді шешу	옷을 벗다	답하기 곤란스럽다
꾸다	Tұс көру	꿈을 꾸다	꿈을 보다
보다	Телевизорды көру	텔레비전을 보다	- 예상 번역 없음
계시다	Мама үйде	어머니가 집에 계시다	어머니가 집에 있다
있다	Мен мектептемін	나는 학교에	- 예상 번역 없음

		있다	
주무시다	Папа үйқтап жатыр	아버지가 주무시다	아버지가 자다
자다	Інім де үйқтап жатыр	동생도 자다	- 예상 번역 없음
먹다	Досым асханада тамақ жеп жатыр	친구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	- 예상 번역 없음
드시다	Ұстаз асханада тамақ жеп жатыр	선생님이 식당에서 밥을 드시다	선생님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
하다	Компьютерде жұмыс жасау	컴퓨터를 하다	컴퓨터에 일하다
일하다	Фирмада жұмыс жасау	회사에서 일하다	회사에서 일하다
감다	Басты жуу	머리를 감다	머리를 썻다
빨래하다	Киімді жуу	빨래하다	옷을 썼다
씻다	Қолды жуу	손을 씻다	- 예상 번역 없음
세수하다	Бетті жуу	세수하다	얼굴을 씻다
닦다	Tісті жуу	이를 닦다	- 예상 번역 없음
분	Аудиторияда екі мұғалім бар	교실에 선생님 2 분이 계시다	교실에 선생님 2 명이 계시다
명	Асханада он окушы бар	식당에 학생 10 명이 있다	- 예상 번역 없음
권/자루	Стөлде үш кітап және төрт қалам жатыр	책상 위에 책 3 권하고 볼펜 4 자루가 있다	책상 위에 책 3 개하고 볼펜 4 개가 있다
살	Жасың нешеде?	몇 살이에요?	- 예상 번역 없음
연세	Жасының нешеде?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름	Есімің кім?	이름이 뭐예요?	- 예상 번역 없음
성함	Есіміңіз кі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댁	Мен апаның үйіне бара жатырмын	할머니의 댁에 간다	할머니의 집에 간다
집	Мен үйге баражатырмын	나는 집에 간다	- 예상 번역 없음
시	Мен сағат екіде келдім	나는 2 시에 왔다	- 예상 번역 없음

시간	Үйден мектепкे дейін екі сағат кетеді	집에서 학교까지 2 시간 걸리다	집에서 학교까지 2 시 걸리다
무엇	Кім болғың келеді?	뭐가 되고 싶어요?	누가 되고 싶어요?
무엇	Кім болып істейсіз?	직업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세요?
누가	Кім келді?	누가 왔어요?	- 예상 번역 없음

## 2.2. Фактическая интерференция в корейской речи казахскоязычных учащихся

Представим неправильные переводы казахских предложений (фразеосочетаний) по убывающей их процентного выражения на основе опроса студентов 1-го курса.

Таблица 2.2. Диминуэнда процента неправильных переводов казахских предложений (фразеосочетаний)

№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ая лексема	Вариант правильного перевода	%неправильных переводов	Неправильно использованные лексемы и их процентное соотношение
1	세수하다	세수하다	95	대답 없다 (78.95), 셋다 (21.5)
2	하다	컴퓨터를 하다	85	일하다 (35.29), 대답 없다 (64.71)
3	감다	머리를 감다	85	대답 없다 (82.35), 셋다 (17.65)
4	무엇 1	뭐가 되고 싶어요?	85	누가 (70.59), 대답 없다 (29.41)
5	찾다	돈을 찾다	80	대답 없다 (87.5), 내다 (12.5)
6	연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	살 (12.5), 대답 없다 (75), 나이 (12.5)
7	메다	배낭을 메다	75	들다 (20), 대답 없다 (80)
8	분	교실에 선생님 2분이 계시다	75	대답 없다 (66.67), 명 (33.33)
9	권/자루	책상 위에 책 3 권하고 볼펜 4 자루가 있다	75	대답 없다 (66.67), 개 (33.33)
10	성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75	대답 없다 (66.67), 이름 (33.33)

11	적다 1	월급이 적다	70	대답 없다 (50), 작다 (50)
12	끼다	장갑을 끼다	70	대답 없다 (71,43), 쓰다 (21,43), 입다 (7,1)
13	닦다	이를 닦다	70	대답 없다 (85,71), 씻다 (14,29)
14	적다 2	관심이 적다	65	대답 없다 (53,85), 작다 (46,15)
15	벗다	옷을 벗다	65	대답 없다 (100)
16	꾸다	꿈을 꾸다	65	대답 없다 (66,23), 보다 (23,08), 자다 (7,69)
17	빨래하다	빨래하다	65	대답 없다 (92,31), 씻다 (7,69)
18	작다 1	도시가 작다	55	대답 없다 (72,73), 적다 (27,27)
19	작다 2	사이즈가 작다	55	대답 없다 (90,91), 적다 (9,09)
20	치다 1	기타를 치다	55	대답 없다 (36,36), 하다 (36,36), 놀다 (27,27)
21	주무시다	아버지가 주무시다	55	대답 없다 (27,27), 자다 (72,73)
22	씻다	손을 씻다	55	대답 없다 (100)
23	치다 2	테니스를 치다	50	대답 없다 (60), 타다 (10), 하다 (20), 놀다 (10)
24	신다	운동화를 신다	50	대답 없다 (10), 쓰다 (90)
25	쓰다	모자를 쓰다	45	대답 없다 (100)
26	드시다	선생님이 식당에서 밥을 드시다	45	대답 없다 (55,56), 먹다 (44,44)
27	명	식당에 학생 10 명이 있다	45	대답 없다 (88,89), 사람 (11,11)
28	계시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다	40	대답 없다 (37,5), 있다 (62,5)
29	살	몇 살이에요?	40	대답 없다 (100)
30	댁	할머니의 댁에 간다	40	대답 없다 (25), 집 (75)
31	시간	집에서 학교까지 2 시간 걸리다	40	대답 없다 (50), 시 (50)
32	쉽다 1	문제가 쉽다	35	대답 없다 (100)
33	쉽다 2	시험이 쉽다	35	대답 없다 (100)
34	무엇 2	직업이 뭐예요?	35	대답 없다 (57), 무슨 (43)
35	하다 2	컴퓨터 게임을 하다	35	대답 없다 (57,14), 놀다 (42,86)
36	이름	이름이 뭐예요?	35	대답 없다 (100)
37	길다	머리가 길다	30	대답 없다 (100)
38	가볍다	가방이 가볍다	30	대답 없다 (100)
39	놀다	친구하고 놀다	30	대답 없다 (100)
40	일하다	회사에서 일하다	30	대답 없다 (100)

41	하다 1	축구를 하다	25	대답 없다 (100)
42	입다	원피스를 입다	25	놀다 (100)
43	크다	키가 크다 (사람)	20	대답 없다 (100)
44	있다	나는 학교에 있다	10	대답 없다 (100)
45	먹다	친구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	10	대답 없다 (100)
46	집	나는 집에 간다	10	대답 없다 (100)
47	시	나는 2 시에 왔다	10	대답 없다 (100)
48	보다	텔레비전을 보다	5	대답 없다 (100)
49	자다	동생도 자다	5	대답 없다 (100)
50	누가	누가 왔어요?	0	대답 없다 (0)

Представим неправильные переводы казахских предложений (фразеосочетаний) по убывающей их процентного выражения на основе опроса студентов 2-го курса.

Таблица 2.3. Диминуэнда процента неправильных переводов казахских предложений (фразеосочетаний)

№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ая лексема	Вариант правильного перевода	%неправильных переводов	Неправильно использованные лексемы и их процентное соотношение
1	메다	배낭을 메다	87,5	대답 없다 (61,9), 입다 (14,27), 들다 (23,81)
2	분	교실에 선생님 2분이 계시다	87,5	명 (57,14), 대답 없다 (38,1), 일 (4,8)
3	연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7,5	대답 없다 (61,9), 나이 (23,81), 살 (14,3)
4	끼다	장갑을 끼다	83,3	입다 (15), 대답 없다 (40), 쓰다 (40), 하다 (5)
5	무엇 1	뭐가 되고 싶어요?	83,3	어떤 (12), 대답 없다 (30), 누구 (60)
6	찾다	돈을 찾다	75,0	대답 없다 (88,89), 벗다 (11,11)
7	적다 1	월급이 적다	70,8	작다 (94,12), 낮다 (5,88)
8	감다	머리를 감다	70,8	대답 없다 (76,47), 씻다 (23,53)
9	세수하다	세수하다	70,8	대답 없다 (82,35), 씻다 (17,65)
10	성함	성함이 어떻게	70,8	대답 없다 (70,59), 이름 (29,41)

		되세요?		
11	적다 2	관심이 적다	62,5	대답 없다 (93,33), 없다 (6,67)
12	하다	컴퓨터를 하다	62,5	대답 없다 (26,67), 일하다 (73,33)
13	빨래하다	빨래하다	62,5	대답 없다 (80), 씻다 (20)
14	권/자루	책상 위에 책 3 권하고 볼펜 4 자루가 있다	62,5	대답 없다 (66,67), 개 (33,33)
15	닦다	이를 닦다	58,3	대답 없다 (85,71), 씻다 (14,29)
16	벗다	옷을 벗다	50,0	대답 없다 (100)
17	치다 2	테니스를 치다	41,7	대답 없다 (60), 놀다 (10), 하다 (20), 타다 (10)
18	신다	운동화를 신다	41,7	대답 없다 (40), 벗다 (10), 입다 (10), 쓰다 (30)
19	드시다	선생님이 식당에서 밥을 드시다	41,7	대답 없다 (30), 먹다 (70)
20	쓰다	모자를 쓰다	37,5	대답 없다 (66,67), 입다 (22,22), 신다 (11,11)
21	꾸다	꿈을 꾸다	37,5	대답 없다 (22,22), 보다 (77,78)
22	무엇 2	직업이 뭐예요?	35	대답 없다 (57), 무슨 (43)
23	치다 1	기타를 치다	33,3	대답 없다 (62,5), 하다 (37,5)
24	계시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다	33,3	있다 (100)
25	주무시다	아버지가 주무시다	33,3	대답 없다 (37,5), 자다 (62,5)
26	시간	집에서 학교까지 2 시간 걸리다	33,3	대답 없다 (37,5), 시 (62,5)
27	하다 2	컴퓨터 게임을 하다	29,2	대답 없다 (85,72), 놀다 (14,29)
28	명	식당에 학생 10 명이 있다	29,2	대답 없다 (100)
29	댁	할머니의 댁에 간다	29,2	대답 없다 (28,57), 집 (71,43)
30	가볍다	가방이 가볍다	25,0	대답 없다 (100)
31	하다 1	축구를 하다	25,0	대답 없다 (33,33), 치다 (33,33), 놀다 (16,67), 타다 (16,67)
32	씻다	손을 씻다	25,0	대답 없다 (100)
33	쉽다 1	문제가 쉽다	16,7	대답 없다 (50), 가볍다 (50)
34	놀다	친구하고 놀다	16,7	대답 없다 (100)
35	살	몇 살이에요?	16,7	대답 없다 (100)

36	누가	누가 왔어요?	16,7	대답 없다 (100)
37	길다	머리가 길다	12,5	기르다 (66,67), 크다 (33,33)
38	크다	키가 크다 (사람)	12,5	높다 (100)
39	쉽다 2	시험이 쉽다	12,5	대답 없다 (100)
40	작다 1	도시가 작다	12,5	적다 (100)
41	작다 2	사이즈가 작다	12,5	적다 (66,67), 낮다 (33,33)
42	먹다	친구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	8,3	대답 없다 (0)
43	일하다	회사에서 일하다	8,3	대답 없다 (100)
44	이름	이름이 뭐예요?	8,3	대답 없다 (100)
45	입다	원피스를 입다	4,2	대답 없다 (100)
46	보다	텔레비전을 보다	4,2	대답 없다 (100)
47	있다	나는 학교에 있다	4,2	대답 없다 (100)
48	자다	동생도 자다	4,2	대답 없다 (0)
49	시	나는 2시에 왔다	4,2	대답 없다 (100)
50	집	나는 집에 간다	0,0	대답 없다 (0)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з таблицы 2.2. следует, что из 50 предложенных фразеосочетаний и предложений, перевод только 1 выражения не составил труда и был осуществлен правильно. По неизвестным причинам некоторые студенты не осуществили перевод тех фразеосочетаний и предложений, которые по нашим ожиданиям, не должны были вызвать затруднений.

Из следующей таблицы 2.3. мы видим, что из 50 предложенных фразеосочетаний и предложений, перевод только 3 выражений не составил труда и был осуществлен правильно. Также по неизвестным причинам некоторые студенты не осуществили перевод тех фразеосочетаний и предложений, которые по нашим ожиданиям, не должны были вызвать затруднений.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исследования мы обнаружили, что не во всех случаях причиной неправильного перевода является интерферентное влияние родного языка. Только в 28 случаях из 2.2. таблицы и в 29 случаях из 2.3. таблицы мы обнаружили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ую интерференцию, а в остальных случаях ошибки перевода связаны с незнанием особенностей сочетаемости лексики или недостаточным владением учебным материалом.

Анализ ошибок, сделанных в результате негативного влияния родного языка, позволяет выделить основные причины неправильного перевода.

Во-первых слова одного языка не имею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эквивалентов в другом языке.

По нашему мнению, сюда можно отнести специальную лексику, используемая для выражения уважения к субъекту или объекту высказывани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е имеющая эквивалентов в казахском языке, нередко служит причиной ошибок при переводе. Студент скорее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нейтральную лексику, нежели специальную. То есть, вместо **연세**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나이**, вместо **성함** – **이름**, вместо **분** – **명**, вместо **댁** – **집**, **계시다** – **있다** и т.д.

Во-вторых по причине недостаточного овладения учебным материалом обучающиеся допускали элементарные ошибки.

### **Выводы**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нтерференция является результат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ескольких (обычно двух) языков и может вызывать как положительные, так и отрицатель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В последнем случае, из-за несовпадения различных элементов языковых систем (в том числе и сочетаемост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слов) в речи людей возникают ошибки, которые могут существенно затруднять процесс коммуникации.

Когда человек строит свою речь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Я2), он, используя слова этого языка, сочетает их по правилам родного (Я1). Когда правила сочетания слов совпадают в обоих языках, ошибок в речи говорящего не возникает. Однако чаще эти правила не совпадают, что приводит к ошибкам на сочетаемость. Так как при сочетании слова с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происходит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трех его механизмов – лексического, 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и грамматического, то в результате языков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ее типа) ошибки эти могут проявиться на любом уровне сочетаемости.

В ходе наш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мы обнаружили, что наиболее трудными для учащихся являются те случаи, когда значение родного слова шире, чем известное им на определенном этапе обучения зна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 это составляет основную трудность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Для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и преодоления лексическ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недостаточно одного объяснения и первичного закрепления лексики. Организация мер по предупреждению и преодолению интерференции должна быть обеспечена в спец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упражнений на всех этапах работы над словом. С метод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основными путями устранения интерферирующего влияния родного языка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отбор и систематизацию лексем, которые потенциально подвержены влиянию интерференции и наиболее употребительны в пределах лексического минимума, и составление речевых упражнений, включающих операции выбора адекватного зна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 а также заданий на сопоставление и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е (при изучении синонимов). Учитывая принцип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в обучении, наиболее продуктивным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сравнитель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лексических значений и сопостав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слов с культур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в разных лексических системах.

Нежелательная межъязыковая лексическая интерференция должна быть преодолена на раннем этапе обучения в вузе, уже к концу 1-го года обучения, с тем, чтобы она не создавала помех на последующих семестрах при изучении нового лекс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до уделять таким видам работ над оригинальными и неоригиналь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текстам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аутентичных учебных материалов, аудионосителей, газет, журналов, в которых имелись бы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ие явления и единицы, вызывающие как желательную, так и нежелательную межъязыковую лексическую интерференцию. При введении, объяснении и закреплении такой лексики следует прибегать к помощи родного языка обучаемых, и только в этом случае будет достигнута адекватность восприятия наименования и понятия об иноязычной этнокультурно обусловленной реал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исследование межъязыков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имеет определенную теоретическую и прикладную ценность как для решения собственно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задач, так и потребностей различного рода практиче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1].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 Вященко В.С.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и преодоление лексической интерференции в английской речи студентов II курса.: Дис. ...к-та пед. наук. Л., 1979. – 175 с.
2. Орлова Н.М. Лекс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Интерференция и обучение языку. Саратов, 2017. С. 2-5
3. Лексическая и морфологическая интерференция в русской речи казахов. Алма-Ата: Наука, 1987. С.3-5

### 비슈케크 인문대

#### 1. 한국학기관현황

Institution	Русский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Бишкекский гуманитар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К. Карасаева
	한국어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
	English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Address		27, Mira ave., Bishkek, Kyrgyz Republic 720044
Homepage		<a href="http://bhu.kg">http://bhu.kg</a>
Contact	phone	+996-312-218-645
	e-mail	<a href="mailto:backt@hanmail.net">backt@hanmail.net</a>
Person in Charge	position	Head of Department
	Name	Back Tae Hyeon, Ph.D.
Founding year		1992

\* founding year는 한국학과 또는 한국학센터의 설립연도.

\*\* 이하 한국학 현황은 2016년 6월 기준.

## 2. 한국학 교수진 현황

	이름	직위	전공분야 / 학위	본교임용
1	백태현	한국학과장 / 교수(AKS 과견교수)	역사학 / 박사	1998.09
2	미나라 셰리큘로바	시간강사	언어학(한국어) / 박사	2005.03
3	문상웅	조교수	역사학 / 석사	2007.09
4	김성수	조교수	컴퓨터공학 / 박사	2012.09
5	홍성진	조교수 / KOICA 과견	역사학 / 석사	2015.02
6	제냐	전임강사	언어학(한국어) / 박사 재학	2008.09
7	누리자트	전임강사	국제관계학(한국어) / 석사 재학	2013.09
8	자레마	전임강사	국제관계학(한국어) / 학사(5년제)	2014.02
9	옐레나	전임강사	언어학 / 학사(5년제)	2015.02
10	질드스	전임강사	언어학 / 학사(5년제)	2015.02

## 3. 한국학 수강생 현황

### (1) 한국학과 수여학위 현황

1) 수여학위: 준석사(5년제), 학사(4년제) 학위제도 병행

\* 2012-2013년도부터는 키르기스정부 방침에 따라 4년제 학사제로 단일화(학점제시스템 도입: 현 1, 2, 3학년 시행 중)

2) 세부전공

- 아시아학 및 아프리카학 그룹
- 언어 그룹
- 국제관계 그룹
- 경제/국제경제 그룹

### (2) 한국학과 전공별 학생현황(2015-2016학년도)

학년	세부전공				학년별 소계
	아시아,	언어	국제관계	경제/	

	아프리카학			국제경제	
1	-	10	11	9	30
2	7	7	6	5	25
3	9	7	7	-	23
4	2	9	3	4	18
5	-	2	-	7	9
합계	18	35	27	25	105

(3) 대학원(석사과정, 박사과정) 재학생 현황

1) 석사과정(한국어, 한국역사 전공): 2명

- 1학년: 0명
- 2학년: 2명

2) 박사과정: 3명

- 국제관계전공: 1명
- 언어전공: 1명
- 역사전공: 1명

(4) 최근 3년간 한국학과 졸업생수

1) 2014-2015년도: 7명(5년제), 11명(4년제)

2) 2013-2014년도: 8명(5년제), 12명(4년제)

3) 2012-2013년도: 23명

(5) 한국소재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현황(2006-2016년)

1) 2014년도 전반기: 1명

\* 알리나(서울대)

2) 2013년도 하반기: 2명

\* 베기마이: 비슈케크 인문대 전임강사

\* 알티나이: 비슈케크 인문대 전임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연구과정)

3) 2013년도상반기: 2명

\* 상명대: 누르기자(비슈케크인문대 전임강사)

\* 누르자말(비슈케크한국교육원 근무)

4) 2011-2012년도: 4명

\* 국립국제교육원선발: 바야스탄(비슈케크 인문대 5년, 부산대)

\* 아나라(한국대사관근무, 한국외대)

\* 재외동포재단선발: 배엘레나(비슈케크 인문대 5년, 경희대)

\* 한국학중앙연구원: 아이페리(비슈케크 인문대 졸업생, 한국학대학원), 알리나(연구과정: 비슈케크 인문대 졸업생)

5) 2010-2011년도: 석사과정 2명

- \* 국립국제교육원선발: 엘리자(비슈케크 인문대 5년, 경희대)
- \* 재외동포재단선발: 박 율랴(비슈케크 인문대 5년, 한국외대)

6) 2009~2010년도: 석사과정 8명

-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울잔나(한국대사관근무), 엠미라(비슈케크 인문대 졸업생), 아이굴(한국교육원 근무), 조 올가(비슈케크 인문대 졸업생)
- \* 한국외대(재외동포재단선발): 정 안나(비슈케크 인문대 전임강사), 텐 이라(비슈케크 인문대 전임강사), 텐 안나(KICB 은행근무)
- \* 국립국제교육원선발: 자즈굴(한국대사관근무, 연세대)

#### 4. 학생교류현황

1) 대외교류협력의 체결

- \* 기준: 충북대, 연세대(원주), 경희대, 중앙대
- \* 2009년: 성균관대(7월), 경북대(9월), 선린대(12월)
- \* 2010년: 서울여대(6월)
- \* 2011년: 한양대, 숙명여대, 대전대, 국민대, 전북대, 전주대, 신라대, (사)한국지방발전교육연구원
- \* 2012년: 부산대, 상명대
- \* 2013년: 한서대(2월), 호연대(7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7월)
- \* 2015년: 한국학과와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자매협정 체결(5월), 건국대(7월), 제주대(12월)

2) 학생교류현황

	대학 명	2003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1	중앙대	6/0	2/0	2/0	1/0	-	-	-	11/0
2	경희대	6/1	1/0	-	-	-	-	-	7/1
3	국민대	-	-	2/2	1/2	-	-	-	3/4
4	한양대	4/0	-	1/0	-	-	-	-	5/0
5	숙명여대	-	-	1/0	-	-	-	-	1/0
6	상명대	-	-	-	-	1/0	-	-	1/0
7	서울여대	-	-	1/0	-	-	-	-	1/0
8	충북대	2/2	-	-	-	-	-	-	2/2

9	선린대	1/0	-	-	-	-	-	-	1/0
10	순천향대	1/0	-	-	-	-	-	-	1/0
11	신라대	-	-	-	2/0	-	-	-	2/0
12	전북대	1/0	-	-	-	-	-	-	1/0
13	명지대	-	-	-	-	-	1/0	-	1/0
계(키→한 /한→키)		21/3	3/0	7/2	4/2	1/0	1/0	-	37/7

## 5. 한국학 약사(略史)

- 1991년 established as Oriental Studies Department at Woman Pedagogical Institute
- 1992년 Oriental Department moved to Frunze National Pedagogical Institute of the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 1993년 changed name to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Oriental Stud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 Faculty,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 1998년 9월 백태현 교수 부임
- 2001년 9월 강순원 교수 파견(한국학술진흥재단 파견, 1년)
- 2001년 10월 <키르기스스탄 한국어 교수협의회 창립>(초대 회장: 백태현 비슈케크 인문대 교수)
- 2002년 9월 양민종 교수 파견(한국학술진흥재단파견, 1년)
- 2004년 9월 한국학과 실질적 독립: 기준학부의 복합적 과체제로 운영이 되던 한국학과, 일본학과 및 중국학과가 각기 독자적인 학과 및 학부로 승격
- 2004년 9월 백태현 교수 한국학과장 임명(한국학술진흥재단 파견교수)
- 2004년 10월 15일 키르기스스탄 “한국의 날” 행사 및 공연 주관: 기념 행사 및 한국음식, 사진, 한복전시, 학술행사(“한국의 경제발전 과정”), 기념연극공연(경기도립극단)
- 2004년 10월 18일 비슈케크 인문대 동양학 및 국제관계학부 한국학과 개소식
- 2005년 9월 대학원 한국학전공(한국어, 한국사) 개설
- 2006년 4월 경희대 한국어학과(국제캠퍼스)와 복수학위제 협약 체결 (2008년 종료)
- 2006년 9월 백태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파견교수 파견
- 2007년 11월 세종학당 개설(학당장 백태현): 국립국어원과 협약,

2008년 12월 잠정적 폐쇄

- 2007년 2월 태권도강좌 개설: 한국학과 학생 및 전교직원과 학생 대상(강사: 김영구 사범, 공인 7단)
- 2011년 1월 전남대 세계한상연구단초청특강(키르기스공화국 고려인의 현황과 과제): 백태현 교수
- 2011년 9월 사이버한국학강좌 개설: (사)한국지방발전교육연구원과 연계
- 2011년-2012년 중앙아시아지역 맞춤형한국학교재 개발: 경희대 연구팀, 카자흐 국립대(카자흐스탄), 니자미 국립사범대(우즈베키스탄), 비슈케크 인문대(키르기스스탄)와 공동연구
- 2011-2012년 외국인을 위한<한국의 역사와 문화>, <오늘의 한국>, <살아있는 한국문화>를 키르기스 소재 ‘알살람출판사’에서 출판
- 2012년 6월 <EBS 세계테마기행: 키르기스스탄편(백태현 교수 출연)
- 2012년 6월 국제학술회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모델: 키르기스공화국을 위한 교훈> 개최
-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김성수 (컴퓨터전문가) 파견(2년 계약)
- 2013년 9월 국립국제교육원(NIIED) 김혜린 교수 파견(한국어학전공, 2년 계약)
- 2013년 11월 코이카(KOICA) 담당자 비슈케크 인문대 및 한국학과 방문: 한국학 교수요원 지원요청
- 2013년 6월 한국학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중앙아시아 경제, 문화교류 협력방안>(한국 외교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한국(2명), 카자흐스탄(2명), 우즈베키스탄(2명), 타지키스탄(2명), 러시아(1명),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전문가 초청세미나
- 2013년 8월 경상북도 실크로드탐험대 특강(실크로드의 재발견): 백태현 교수
- 2014년 2월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카자흐스탄 알마티) 참가: 한국학과 학생 2명 참가(백태현 교수 인솔)
- 2014년 5월 <키르기스스탄 초중고등학교 인문사회계통교과서 분석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사업): 연구담당자 백태현
- 2014년 5월 <제11회 키르기스스탄 대학생퀴즈대회> 주관(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교수협의회 공동주관)
- 2014년 11월 <중앙아시아 성균백일장>(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학과 학생 1명 참가(백태현 교수 인솔)
- 2014년 12월 10일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 ‘실크로드의 재발견 –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만남’>, 백태현 교수 논문발표
- 2014년 12월 15일 <2014년도 해외한국학 파견교수 초청 세미나: ‘키르기스공화국 의 한국학 교육 현황과 그 과제’> 백태현 교수 논문발표

표

- 2015년 2월 KOICA 파견 홍성진 교수 부임
- 2015년 2월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참가: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 학생 2명 참가(문상용 교수 인솔)
- 2015년 4월 25일 <동양학 및 국제관계학부 언어축제>, 한국학과 참가
- 2015년 5월 <제12회 키르기스스탄 대학생퀴즈대회> 주관  
초급부문 2 학년 김 갈리나(최우수상), 고급부문 3 학년 아이잔(최우수상), 아각(우수상) 수상
- 2015년 5월 2일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 심포지움: ‘중앙아시아 한국학 발전을 위한 제언’> 백태현 교수 논문발표
- 2015년 5월 한국학과와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와 자매협정 체결
- 2015년 5월 26일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조직위원회’ 황성돈 위원장 일행, 비슈케크 인문대 및 한국학과 방문
- 2015년 5월 30일 <한국 관광호텔학회 국제학술대회: ‘키르기스스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백태현 교수 논문 발표
- 2015년 7월 PAS 대학생 봉사단 비슈케크인문대 한국학과 학생과 교육문화 프로그램 진행(2주간)
- 2015년 7월 건국대 자매협정 체결(정희영 총장 일행 방문)
- 2015년 11월 <중앙아시아 성균백일장>(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 1명, 키르기스 국립대 1명 참가(백태현 교수 인솔)
- 2015년 12월 제주대 자매협정 체결
- 2016년 2월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카자흐스탄 알마티) 참가: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 학생 2명, 키르기스 국립대 2명, 아라바예프대 2명, 키르기스-한국대 2명, 언어문화대 1명, 법률대 1명 참가(백태현 교수 인솔)
- 2016년 3월 키르기스스탄 전통명절 ‘나우루즈’ 행사 때 한식 전시(비슈케크 인문대 교정)
- 2016년 4월 백태현 교수 선문대 특강(중앙아시아의 재발견)
- 2016년 4월 비슈케크 인문대 언어축제 참가(한국문화, K-POP 소개)
- 2016년 5월 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 정병후 대사 특강
- 2016년 5월 제 13회 2016 키르기스스탄 대학생 한국학퀴즈대회 주관(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와 공동 주관)

### 카자흐 국립대

#### 1. 한국학기관현황

Institution	Русский	Казах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аль-Фараби
	한국어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
	English	Department of Far East(Korean Studies),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Address		St.Karasay Batyr 95a, Almaty, Kazakhstan
Homepage		<a href="http://kaznu.kz">http://kaznu.kz</a>
Contact	phone	+7-701-213-9100
	e-mail	<a href="mailto:koreakaznu@gmail.com">koreakaznu@gmail.com</a>
Person in Charge	position	Head of Department of Far East
	name	Natalya Yem, Ph.D.
Founding year		1994

\* founding year 는 한국학과 또는 한국학센터의 설립연도.

\*\* 이하 한국학 현황은 2016년 6월 기준.

## 2. 한국학 교수진 현황

	이름	직위	전공분야 /학위	본교 임용
1	염 나탈리야	교수 (극동학과장)	역사	
2	이병조	교수 (한국학과장)	역사	
3	김 게르만	교수	역사	
4	명 드미트리	교수	정치학	
5	사프로노바 류드밀라	교수	문학	
6	쿠다이베르게노바 레나타	교수	언어	
7	텐 율리야	전임강사	언어	
8	최미옥	전임강사	언어	
9	말가지다로바 아이누르	전임강사	언어(통번역)	
10	타시켄바예바 바티굴	전임강사	역사	
11	아미르베코바 우미타이	전임강사	문학	
12	크이드이르바예프 벡티야르	강사	언어	
13	아리노바 마르잔	강사	언어	
14	아임베토프 바흐트잔	강사	역사	
15	샤테코바 쿨누르	전임강사	언어	
16	사르타예프 예스볼	강사	언어	
17	바트르하노바 가우하르	강사	언어	
18	전병순	전임강사	정치	
19	명순옥	전임강사	인류학	
20	최지영	강사	언어	
21	김영미	강사	언어	

### 3. 한국학수강생현황

	동양학전공	어문학전공	통번역전공	계
1학년	14	6	6	26
2학년	14	9	10	33
3학년	9	6	8	23
4학년	12	10	1	23
석사	2	2	1	5
박사	2			2
합	53	33	26	112

###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 1. 한국학 기관 현황

Institution	Русский	Кафедра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Центр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ах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 Абылай хана
	한국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 한국학 센터
	English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Address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a href="http://kaznks.kz">http://kaznks.kz</a>
Contact	phone	+7-727-272-6006
	e-mail	<a href="mailto:cks@ablaikhan.kz">cks@ablaikhan.kz</a>
Person in Charge	position	Head of Department / Director of Center
	name	Nelly Khan / Nelly Pak, Dr.
Founding year		1998 (Department) 2012 (Center)

\* founding year 는 한국학과 또는 한국학센터의 설립연도.

\*\* 이하 한국학 현황은 2016년 6월 기준.

## 2. 한국학 교수진 현황

### 2.1. 교수진 현황

	이름	직위	전공분야 / 학위	본교임용
1	박 넬리	한국학센터 소장 / 교수	유럽어학 / 박사	1998.09
2	한 넬리	한국학과장	한국어 / 박사 수료	2000.09
3	김 아나스타샤	조교수	한국어 / 박사	2005.03
4	김 울리아나	강사	한국어 / 석사	2006.09
5	부르미스트로바 옐레나	전임강사	한국어 / 석사	2006.09
6	전 옐레나	강사	한국어/석사	2010.09
7	김 이리나	강사	언론학 / 학사(5년제)	2012.09
8	스비리도바 발렌티나	강사	동양학(한국학) / 석사	2013.09
9	보란타예바 파리자	강사	문화학 / 석사	2014.09
10	두미셰바 알루아	강사	동양학(한국학) / 석사	2014.09
11	젯피소프 사켄	전임강사	한국어문학 / 박사	2015.09
12	김 스베틀라나	강사	동양학(한국학) / 석사	2015.09
13	안드레예바 율리야	강사	국제무역 / 석사	2015.09
14	세리크바예바 자리파	강사	한국어학 / 석사	2015.09
15	쿠톨루코프 시르자트	강사	동양학(중국학) / 석사	2013.09
16	방정식	강사	문화학/석사	2010.09
17	김영경	강사	상담학/석사	2010.09
18	이성숙	강사	러시아어문학/석사	2015.09
19	김선영	강사	상담학/석사	2015.09
20	장호종	KF 파견교수	한국어학/박사	2009.09

## 2.2.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й состав

	Фамилия Имя	Должность	Специальность / степень	Год поступления на работу
1	Пак Н.С.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Германистика / д.ф.н., профессор	1998.09
2	Хан Н.Ч	Заведующая кафедрой	Иностр. Филология (кор. яз.) / докторант	2000.09
3	Ким А.С.	Стар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ностр. Филология (кор. яз.) / к.ф.н.	2005.03
4	Ким У.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ностр. Филология (кор. яз.) / магистр	2006.09
5	Бурмистрова Е.В.	Стар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ностр. Филология (кор. яз.) / магистр	2006.09
6	Тен Е.В.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ностр. Филология (кор. яз.) / магистр	2010.09
7	Ким И.В.	Преподаватель	Журналистика / специалист (5лет)	2012.09
8	Свиридова В.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 магистр	2013.09
9	Борантаева Ф.Ж.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ультурология / магистр	2014.09
10	Думышева А.М.	Преподаватель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 магистр	2014.09
11	Жетписов С.Н.	Стар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а / к.ф.н.	2015.09
12	Ким С.К.	Преподаватель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 магистр	2015.09
13	Андреева Ю.П.	Преподаватель	Международная торговля / магистр	2015.09
14	Серикбаева З.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Лингвистика (кор.язык)/ магистр	2015.09
15	Кутулуков Ш.П.	Преподаватель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 магистр	2013.09
16	Пан Чонсик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ультурология / магистр	2010.09
17	Ким Ёнгён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е / магистр	2010.09
18	Ли Сонсук	Преподаватель	Русский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а / магистр	2015.09
19	Ким Сонён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е / магистр	2015.09
20	Чан Ходжон	Пригл.профессор KF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Ph.D	2009.09

### 3. 한국학 수강생 현황

#### 3.1. 수강생 현황

	한국학과			제 2 외국어	계
	어문학	동양학	통번역		
1 학년	18	11	20	-	49
2 학년	20	9	16	16	61
3 학년	16	19	28	18	81
4 학년	17	9	20	0	46
석사	3	3	6	-	12
박사	1	0	0	-	1
합	<b>75</b>	<b>51</b>	<b>90</b>	<b>34</b>	<b>250</b>

#### 3.2. Студенты

	Кафедра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В			2-й ИЯ	Всего
	Иностранный филология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Переводческое дело		
1 курс	18	11	20	-	49
2 курс	20	9	16	16	61
3 курс	16	19	28	18	81
4 курс	17	9	20	0	46
Магистратура	3	3	6	-	12
Докторанттура	1	0	0	-	1
Всего	<b>75</b>	<b>51</b>	<b>90</b>	<b>34</b>	<b>250</b>

#### 4. 학생 교류 현황

	대학명	2003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1	중앙대	22/12	4/3	3/2	2/1	4/2	5/6	7/6	47/32
2	경희대	12/7	4/3	6/4	2/2	4/0	4/4	5/4	37/24
3	한국외대			3/7	3/0	4/3	2/2	7/6	19/18
4	아주대		5/1	2/0	2/0	1/0		1/0	11/1
5	대구대	7/6	5/2		3/0	2/1	7/2	5/8	29/19
6	배재대	8/10	5/0	4/0	4/0	5/3	5/3	5/0	36/16
7	계명대	14/1	2/0	4/0	2/0	4/1	2/0	4/3	32/5
8	대전대			2/0	3/2	4/3	2/0	6/2	17/7
9	충북대	27/9	1/3	4/4	2/1	10/3	8/5	4/5	56/30
10	부산외대	2/2	2/0	2/2		2/1		0/2	8/7
11	부경대			2/0					2/0
12	원광대			2/0	2/0	2/2	4/0	4/0	14/2
13	중부대			1/0	3/0	0/1			4/1
14	국민대				1/0	15/1	6/0	7/1	29/2
15	(기전대)	1/0							1/0
16	(AKS)		1/0	1/0	1/0	1/0	1/0	1/0	6/0
계(카→한 /한→카)		<b>93/47</b>	<b>29/12</b>	<b>36/19</b>	<b>30/6</b>	<b>58/21</b>	<b>46/22</b>	<b>56/37</b>	<b>348/164</b>

## 5. 한국학 약사(略史)

### 5.1. 약사

- 1993년 제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좌 실시
- 1998년 09월 한국학과 설립(학과장 박 넬리, 1998.09-2012.08)
- 1999년 09월 한국학과 신입생 모집(4명)
- 2004년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중앙대, 계명대, 충북대)
- 2004년 07월 한국학과 1회 졸업생(3명)
- 2005년 07월 한국학과 2회 졸업생(15명)
- 2006년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대구대, 배재대)
- 2008년 학사/석사 복수학위제 실시(경희대)
- 2009년 09월 KF 객원교수 교체(허숙미→장호종)
- 2010년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아주대)
- 2011년 06월 KOICA 봉사단원 철수
- 2012년 06월 AKS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선정(2012.07-2015.06)
- 2012년 09월 통번역학과 신설(한국어전공 포함)
- 2012년 09월 한국학과 2대 학과장 김 아나스타샤(2012.09-2015.12)
- 2012년 10월 한국학센터 설립(소장 박 넬리)
- 2013년 02월 학술지 <카자흐스탄 한국학> 창간호 발간
- 2013년 03월 제3회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개최(6개 도시 10개 대학 41명 참가)
- 2013년 04월 소식지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3년 05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http://kaznks.kz>)
- 2013년 10월 567돌 한글날기념 카자흐스탄 한국학포럼 개최
- 2014년 02월 제4회 한국학올림피아드 개최(7개 도시 15개 대학 50명 참가)
- 2014년 03월 학술지 <카자흐스탄 한국학> 2호 발간
- 2014년 04월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4년 05월 KF Special Lectures on Korea 개최
- 2014년 06월 학술지 < CIS 대학생 한국학학술논문집> 창간호 발간
- 2014년 08월 국제한국어응용언어학회 제5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14년 10월 568돌 한글날 기념 한국학포럼 및 한-중앙아 오픈포럼 개최
- 2014년 12월 소식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발행
- 2015년 02월 제5회 한국학올림피아드 개최(8개 도시 16개 대학 50명 참가)
- 2015년 03월 학술지 <카자흐스탄 한국학> 3호 발간
- 2015년 04월 학술지 < CIS 대학생 한국학논문집> 2호 발간
- 2015년 05월 한-중앙아 오픈포럼 개최(2015년 상반기 4회)

- 2015년 06월 졸업생. 한국어문학전공 38명, 동양학한국전공 9명, 석사 2명
- 2015년 06월 한-카 실크로드 오픈포럼 개최(주알마티 총영사관)
- 2015년 06월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1호 발간
- 2015년 06월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발행
- 2015년 09월 AKS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선정(2015.09-2020.08). 중앙아시아 대학 최초
- 2015년 10월 569돌 한글날 및 한국학센터 개원 3주년 기념 한국학포럼 개최
- 2015년 12월 한-카 실크로드 오픈포럼 개최(주알마티 총영사관)
- 2016년 01월 한국학과 3대 학과장 한 넬리
- 2016년 02월 제6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개최(3개국 9개 도시 18개 대학 67명 참가)
- 2016년 04월 제1회 CIS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개최(5개국 8개 도시 학생 70명, 관계자 30명 참석)
- 2016년 05월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조용천) 초청강연 및 제1회 한국학작문경시대회 개최
- 2016년 05월 한-카 실크로드 오픈포럼 개최(알마티 한국교육원)
- 2016년 05월 학술지 <카자흐스탄 한국학> 4호 발간
- 2016년 05월 학술지 <CIS 대학생 한국학논문집> 3호 발간
- 2016년 06월 제1회 한국어, 러시아어, 카자흐어 통번역포럼 개최
- 2016년 06월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2호 발간
- 2016년 06월 제4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2016 중앙아 한교협 정기총회 개최

## 5.2. Истор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 1993 г.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ак 2-го иностранного
- 1998 г., сентябрь. Основание кафедры ориенталистики (зав. кафедрой Пак Н.С., 1998.09-2012.08)
- 1999 г., сентябрь. Первый набор на специальность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корейский язык» (4 чел.)
- 2004 г. Расширение программ по обмену студентами с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Чунан, Кемёнг, Чунбук
- 2004 г., июль. Первый выпуск (3 чел.)
- 2005 г., июль. Второй выпуск(15 чел.)
- 2006 г. Расширение программ по обмену студентами (университет Тэгу, Педже)
- 2008 г. Введение программы двойного диплома (университет Кёнгхи)

- 2009 г., сентябрь. Начало работы программы Korea Foundation (проф. Хо Сук Ми → Чжанг Хо Джонг)
- 2010 г. Расширение программ по обмену студентами (университет Аджу)
- 2011 г., июнь. Заверш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KOICA по волонтерской программе
- 2012 г., июнь. Грант Академии корееведения (AKS) по программе разви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за рубежом (2012.07-2015.06)
- 2012 г., сентябрь. Открыт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Переводческое дело: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2012 г., сентябрь. Назначение Ким А.С. на должность заведующей кафедрой (2012.09-2015.12)
- 2012 г., октябрь. Основание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директор Пак Н.С.)
- 2013 г., февраль. Издание научного сборника «Кореевед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выпуск 1
- 2013 г., март. Проведение Олимпиады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41 участник из 6 городов, 10 университетов Казахстана)
- 2013 г., март. Начал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сайта <http://kaznks.kz>
- 2013 г., октябрь. Проведение Форума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в Казахстане
- 2014 г., февраль. Проведение Олимпиады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50 участников из 7 городов, 15 университето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2014 г., апрель. Издание новостного бюллетеня «Central Asia network for Korean Studies»
- 2014 г., май. Издание «Сборника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студентов ВУЗов СНГ», выпуск 1
- 2014 г., август. Проведение 5-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о прикладной лингвис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ISKAL (International Society of Korean Applied Linguistics)
- 2014 г., октябрь. Проведение Форума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и Корейско-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го открытого форума
- 2014 г., декабрь. Издание новостного бюллетеня «КазУМо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 2015 г., февраль. Проведение 5-й Олимпиады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50 участников из 8 городов, 16 университетов)
- 2015 г., март. Издание научного сборника «Корееведени Казахстана», выпуск 3
- 2015 г., апрель. Издание «Сборника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студентов ВУЗов СНГ», выпуск 2
- 2015 г., май. Проведение Корейско-Центрально-азиастского открытого форума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2015 г,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4 раза)
- 2015 г., июнь. Выпуск. Специальность: Иностранный филология 38 человек,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9 человек, магистратура 2 человека.

- 2015 г., июнь. Проведение Корейско-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го форума «Шелковый путь» (ген.консульство в г. Алматы)
- 2015 г., июнь. Издание научного сборника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ук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выпуск 1
- 2015 г., июнь. Издание новостного бюллетеня «Central Asia network for Korean Studies»
- 2015 г., сентябрь. Грант Академии корееведения «Проект по развитию университетов с программами корееведения за рубежом» (2015.09-2020.08). Впервые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2015 г., октябрь. Проведение Открытого форума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в честь празднования 569-й годовщины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и 3-х летия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 2015 г., декабрь. Проведение Корейско-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го открытого форума (ген.консульство в г. Алматы)
- 2016 г., январь. Назначение Хан Н.Ч. на должность зав.кафедрой
- 2016 г., февраль. Проведение 6-й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й Олимпиады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67 участников из 18 университетов, 9 городо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2016 г., апрель. 1-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молодых ученых СНГ (70 участников из 8 городов, 5 стран)
- 2016 г., май. Лекция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азахстане (Чон Ёнг Чон). Проведение первого конкурса эссе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 2016 г., май. Проведение Корейско-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го открытого форума «Шелковый путь» (Алматинский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 2016 г., май. Издание научного сборника «Кореевед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выпуск 4
- 2016 г., май. Издание «Сборника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студентов ВУЗов СНГ», выпуск 3
- 2016 г., июнь. Проведение 1-го Форума переводчик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2016 г., июнь. Издание научного сборника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ук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выпуск 2
- 2016 г., июнь. Проведение 4-й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Очередное заседание Сообщества ученых-корееведо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2016

### 크질오르다 국립대

#### 1. 한국학 기관 현황

Institution	Русский	Кызылорд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Коркыт Ата
	한국어	크질오르다 국립대
	English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Korkyt Ata Kyzylorda State University
Address		Aiteke bi street, 29-4, Kyzylorda, Kazakhstan
Homepage		<a href="http://korkyt.kz">http://korkyt.kz</a>
Contact	phone	+7-724-226-1725 +7-708-549-0031
	e-mail	<a href="mailto:kenshinbayt@mail.ru">kenshinbayt@mail.ru</a> <a href="mailto:ahnsuhyun@hanmail.net">ahnsuhyun@hanmail.net</a>
Person in Charge	position	Head of International Relation
	name	Temirbolat Kenshinbay, Ph.D.
Founding year		2013

\* founding year는 한국학과 또는 한국학센터의 설립연도.

\*\* 이하 한국학 현황은 2016년 6월 기준.

## 2. 한국학 교수진 현황

	이름	직위	전공분야/ 학위	본교임용
1	안수현	KF 파견교수	한국학/ 박사	2016.01
2	지호영	한국어 파견교사	간호학/ 학사	2015.09

## 3. 한국학 수강생 현황

	한국학과
1 학년	7
2 학년	11
3 학년	8
4 학년	-
석사	-
박사	-
합	26

## 4. 학생 교류 현황

	대학명	2014	2015	합
1	강남대	2/0	2/0	4/0
계(카→한 /한→카)		2/0	2/0	4/0

## 5. 한국학 약사(略史)

- 2013 년 08 월 한국어-영어학과 설립
- 2013 년 08 월 한국어-영어학 교수 임용 (김필영)
- 2013 년 09 월 한국어-영어학과 신입생(1 학년-8 명)
- 2013 년 09 월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사 파견(김지은)
- 2014 년 09 월 크즐로르다 국립대학교-강남대 교환학생 프로그램 시작-  
강남대로 2 명 유학

- 2014년 09월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사 파견(김지은→정랑기)
- 2015년 02월 한국어학과 부교수 임용(안수현)
- 2015년 09월 한국어 영어학과 신입생(1학년 11명, 2학년 8명)
- 2015년 09월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사 파견(정랑기→지호영)
- 2016년 01월 KF 파견 교수 협약(안수현)
- 2016년 09월 한국어 영어학과 신입생(1학년 7명, 2학년 11명, 3학년 8명)

### 키르기스-러시아 슬라브대

#### 1. 한국학 기관 현황

Institution	Русский	Кафедра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Кыргызско-Российский Славя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한국어	키르기스-러시아 슬라브대 국제언어학과
	English	Department of World Languages, Kyrgyz Russian Slavic University
Address		Kyrgyzstan. Bishkek, 44 Kiev Street
Homepage		<a href="http://krsu.edu.kg">http://krsu.edu.kg</a>
Contact	phone	+996 -312-68-11-05
	e-mail	<a href="mailto:kor_center@krsu.edu.kg">kor_center@krsu.edu.kg</a>
Person in Charge	position	Head of Department
	name	Sulaymanova Lira
Founding year		1999

\* founding year는 한국학과 또는 한국학센터의 설립연도.

\*\* 이하 한국학 현황은 2016년 6월 기준.

## 2. 한국학 교수진 현황

### 2.1. 교수진 현황

	성명	직위	전공	본교임용
1	스마굴로바 알리야	한국학센터 소장	한국어	2012.09
2	술라이모노바 리라	국제언어학과장	키르기스어	1999.09
3	이윤정	강사	-	2015.09

### 2.2.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й состав

	Фамилия Имя	Должность	Специальность / степень	Год поступления на работу
1	Смагулова Алия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Стар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яз)	2012.09
2	Сулаймонова Лира	Заведующая кафедрой	Иностр. Филология (киргыз. яз).	1999.09
3	Ли Юнджон	преподаватель	-	2015.09

키르기스-한국대학

1. 한국학기관현황

Institution	Русский	Кыргызско-Корейский колледж
	한국어	키르기스-한국대학
	English	Kyrgyz-Korean College
Address		20A, Gogol str., Bishkek, Kyrgyz Republic 720000
Homepage		<a href="http://kkc.kg">http://kkc.kg</a>
Contact	phone	+996-312-381-744
	e-mail	<a href="mailto:snulab@yahoo.com">snulab@yahoo.com</a>
Person in Charge	position	Head of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President of College
	Name	Minara Sherikulova, Ph.D.
Founding year		2012

\* founding year는 한국학과 또는 한국학센터의 설립연도.

\*\* 이하 한국학 현황은 2016년 6월 기준.

## 2. 한국학 교수진 현황

	이름	직위	전공분야 / 학위	본교임용
1	세리콜로바 미나라	키르기스-한국대학 법인대표/ 한국어학과장	언어학 / 박사	2012.09
2	백태현	교수	역사학 / 박사	2012.09
3	김기원	전임강사 / KOICA 파견	국어국문 / 학사	2015.02
4	텐 이리나	전임강사	한국어학 / 석사	2015.02
5	김 예카테리나	전임강사	언어학(한국어) / 5년제	2015.02
6	지재천	전임강사	국문학 / 학사	2014.09
7	김선희	전임강사	유아교육 / 학사	2014.09
8	클라라	시간강사		2014.09
9	윤영수	전임강사	체육학(태권도) / 석사재학	2012.09

## 3. 학교 현황 및 한국어수강생 현황

### (1) 교육과정 및 입학규정

1) 2012-2013학년도 교육과정(2트랙으로 운영) 및 입학규정

교육과정	개설학과	수업년한	학년구분	입학조건
고등학교- 전문대학 통합과정	한국어과	4년	1/2/3/4 학년	9학년 졸업생
	재정과	3년	1/2/3 학년	
	법률과	3년	1/2/3 학년	
전문대학 과정	한국어과	3년	2/3/4 학년	11학년 졸업생 및 그 이상의 학력자
	재정과	2년	2/3 학년	
	법률과	2년	2/3 학년	

2) 2013-2014학년도: 키르기스 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제 변화

교육과정	개설학과	수업년한	학년구분	입학조건
고등학교-전문대학 통합과정	한국어과	3년	1/2/3 학년	9학년 졸업생
	재정과			
	법률과			
전문대학 과정	한국어과	2년	2/3 학년	11학년 졸업생 및 그 이상의 학력자
	재정과			
	법률과			

3) 2014-2015학년도 교육과정 및 개설학과(5개과 증파)

교육과정	개설학과	수업년한	학년구분	입학조건
고등학교-전문대학 통합과정	한국어과	3년	1/2/3 학년	9학년 졸업생
	재정과			
	법률과			
	관광과			
	한국어통번역과			
	마케팅과			
	경제과			
	회계과			
전문대학 과정	한국어과	2년	2/3 학년	11학년 졸업생 및 그 이상의 학력자
	회계과			
	법률과			
	관광과			
	한국어통역과			
	마케팅과			
	경제과			
	회계과			

(2) 한국학과 학생 및 한국어 부전공학생 현황(2014-2015학년도)

구분	고등-전문대 통합과정			전문대 과정			계
	한국어과	한국어 통역과	부전공	한국어과	한국어 통역과	부전공	
1학년	42	10	30	12	8	10	112
2학년	30	8	21	10	6	7	82
3학년	15	-	30	5	-	11	61
합계	87	18	81	27	14	28	255

\* 한국어전공: 146명, 부전공: 109명

4. 학생교류 현황

(1) 대외교류 협력의 체결

- \* 2012년 07월 상명대(강희성 총장 일행 방문)
- \* 2013년 02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SCAU)
- \* 2013년 03월 한양여대
- \* 2013년 07월 호언대(강희성 총장 본교방문)
- \* 2013년 07월 ‘한국대학봉사협의회(회장 강희성)’
- \* 2015년 06월 경민대
- \* 2015년 07월 PAS(태평양아시아협회, 정동구 회장 일행 방문)
- \* 2015년 07월 건국대(송희영 총장 일해 방문)
- \* 2015년 08월 한국영상대(유재원 총장 일행 방문)
- \* 2015년 12월 제주대

(2) 학생교류현황

	대학명	2013	2014	2015	2016	합
1	상명대		1/0	1/0		2/0
2	고신대	2/0	2/0-	2/0		6/0
3	한양여대			2/0		2/0
4	한국영상대				2/0	2/0
5	선문대				1/0	1/0
6	가천대				1/0	1/0
7	경희여고	2/0	2/0			4/0
8	재외동포재단	2/0	3/0			5/0
9	한국국제교육원			2		2/0
10	기타			3		3/0
	계(키→한/한→키)	6/0	6/0	6/0		28/0

## 5. 한국학관련 약사(略史)

- 2012년 6월, 키르기스교육부 대학설립허가 취득: 한국어과, 법률과, 재정과(3개 학과)
- 2012년 9월 3일, 키르기스-한국대학(Kyrgyz-Korean College) 개교
  - 법인대표: Dr. 미나라 세리쿨로바(Minara Sherikulrova, 서울대 언어학 석, 박사학위 취득)
  - 총장: Dr. 베이세날리예바 굴시야(Beishenaliева Gulsia)
  - 이사장: 이광형(전교과부 국장)
- 2012년 7월, 상명대학교 유학반 개설: 초급반, 중급반
- 2013년 7월, 키르기스스탄 상명대학교 유학박람회 개최
- 2013년 7월, 한국단기연수: 경희여고 주관(2명)
- 2012년 11월, 키르기스-한국대학 태권도팀 창단
  - 감독: 윤영수관장(공인 6단, 전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팀 감독)
  - 팀원: 10명
- 2013년 6월, 태권도팀 카자흐스탄 전지훈련 참가
- 2013년 7~8월, 태권도팀 주장 김슬라바, 한국 전지훈련 참가
- 2013년 10월, 누르벡, 아시아대학태권도오픈대회 참가
- 2013년 9~12월, <찾아가는 한국경제, 문화교실>주관: 비슈케크 인근 지역의 중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일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사업)”
  - ① 이바노프카 No.1 쉬콜라(9월 27일)
  - ② 소포카바 No.1 쉬콜라(10월 9일)
  - ③ 쏘콜록 No.3 쉬콜라(10월 18일)
  - ④ 비슈케크 No.65 쉬콜라(10월 25일)
  - ⑤ 비슈케크 No.4 쉬콜라(10월 31일)
  - ⑥ 비슈케크 No.11 쉬콜라(11월 15일)
  - ⑦ 비슈케크 No.12 쉬콜라(11월 29일)
  - ⑧ 알라메진 No.1 쉬콜라(12월 13일)
  - ⑨ 알라메진 No.38 쉬콜라(12월 20일)
- 2013년 11월, 미나라 세리쿨로바 교수, 키르기스공화국 아탐바예프 대통령 한국방문단 수행(통역)
- 2014년 3월, 키르기스스탄태권도대회 참가: 배 카탸(2등, 49kg급), 자나라(3등, 62kg급)
- 2014년 4월, 키르기스스탄 교육박람회 참가
- 2014년 5월,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과 대학생 체육대회주관(법대와 공동주관)
- 2014년 5월, <제2회 키르기스스탄 K-POP 경연대회>주관
  - ① 2014년 5월 17일(예심): 290여 개팀, 500여명 참가(본선 18개팀 선

정)

- ② 2014년 5월 22일(본선): 관중 2,000여명
- 2014년 5월, “한국바로알리기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사업)” 2014년도<찾아가는 한국경제,문화교실>주관기관으로 KKC 선정
- 2014년 5월, 5개학과(한국어통역과, 관광과, 경제과, 마케팅과, 회계과) 라이선스 취득(키르기스교육부)
- 2014년 6월, <제1회 Kyrgyz-Korean College 총장배태권도대회> 개최
- 2014년 7월,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과 자매교류협정 체결
- “한국바로알리기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사업)” 2014년도 “찾아가는 한국경제, 문화 교실” 진행, 총 7회(총 참가 인원: 2,000여명)<2014년 9~12월>
  - ① 비슈케크 No.66 쉬콜라(9월 10일)
  - ② 비슈케크 No.3 쉬콜라(9월 30일)
  - ③ 쏘콜록 No.49 쉬콜라(10월 29일)
  - ④ 끄질아스케르 No.28 쉬콜라(11월 11일)
  - ⑤ 비슈케크 No.13 쉬콜라(11월 13일)
  - ⑥ 비슈케크 No.8 쉬콜라(12월 4일)
  - ⑦ 비슈케크 No.48 쉬콜라(12월 11일)
- 국립국악원 강사(민속단 소속: 이대원) 초청 사물놀이 강습 (2014.10~11)
- 2014년 12월, 인덕대와 자매교류협정 체결
- 한국정부초청장학생(전문학사과정): 본교 2명 선발, 유학
  - 자나라(2년), 베르멧(2년)
  - 한국 주관대학교: 한양여대
  - 입학년도: 2105년 3월
- 2015년 4월, 키르기스스탄 교육박람회 참가
- 2015년 4월,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과 대학생체육대회주관(법대와 공동주관)
- 세계물축제(2015년 4월, 한국 경주, 대구), 키르기스스탄 대표로 본교 3명(세침, 디아나, 앗셀랴) 참석
-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2015년 7월 광주 개최), 본교 태권도팀 2명 키르기스스탄 국가대표 확정(슬라바, 수이문쿨로바)
- 2015년 5월, 제12회 키르기스스탄 대학생 한국어퀴즈대회, 초급부문 2학년 자나라(우수상), 세침(장려상), 아이굴(장려상) 수상
- 2015년 6월, 경민대와 자매교류협정 체결
- 2015년 7월 건국대와 자매교류협정 체결
- 2015년 8월 한국영상대와 자매교류협정 체결
- 2015년 8월 진주교육대와 학술대회 공동개최
- 2015년 한국정부초청장학생(전문학사과정): 본교 2명 선발

- 세침(3년), 사이트(3년)
- 한국주관대학교: 한국영상대
- 입학년도: 2106년 3월
- 2015년 12월 키르기즈-한국대학 체육대회 개최
- 2015년 12월 제주도 3개 대학(제주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유학 설명회 주관
- 2016년 2월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참가(본교 한국어과 2년 조급부 1등 수상)
- 2016년 4월 제1회 키르기스-한국대학 한국학퀴즈대회 개최
- 2016년 4월 키르기스스탄 교육박람회 참가(주최: 로자 오투바예바 재단)
- 2016년 5월 신구대학교 이승겸 총장 일행 방문

### 타지크 국립외대

#### 1. 한국학 기관 현황

Institution	Русский	Таджик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языков им. Сотима Улугзоде
	한국어	타지크 국립외대 한국어학과
	English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Tajik State Institute of Languages named after Sotim Ulughzoda
Address		Muhammadiev 17/6, Dushanbe, Tajikistan
Homepage		-
Contact	phone	+992-93-403-0852
	e-mail	<a href="mailto:gamalsnk@gmail.com">gamalsnk@gmail.com</a>
Person in Charge	position	Head of Department
	name	Nagkyun Shin
Founding year		2004

\* founding year 는 한국학과 또는 한국학센터의 설립연도.

\*\* 이하 한국학 현황은 2015년 6월 기준.

## 2. 한국학 교수진 현황

### <타지크 국립외대 한국어 학과>

	이름	직위	전공분야 / 학위	본교임용
1	신낙균	한국어학과장 / 전임강사	한국어 / 박사재학	2004.09
2	최미희	전임강사	외국어(한국어) / 박사재학	2005.01
3	미르조예프 도바르	전임강사	외국어(한국어) / 석사	2012.09

### <두샨베 1세종학당>(타지크 국립외대)

	이름	직위	전공분야 / 학위	임용
1	최미희	학과장	외국어(한국어) / 박사재학	2011.03
2	손수인	인턴	외국어(한국어) / 학사재학	2015.03
3	황현주	인턴	외국어(한국어) / 학사재학	2015.03
4	미르조예프 도바르	전임강사	한국어 / 석사	2013.09
5	이 예카테리나	전임강사	한국어 / 학사	2014.09
6	아흐메도바 비비파티	강사	한국어 / 학사재학	2015.03

### <두샨베 2세종학당>(타지크 국립중앙도서관)

	이름	직위	전공분야 / 학위	임용
1	신낙균	학과장	한국어 / 박사재학	2013.12
2	박지영	인턴	외국어(한국어) / 학사재학	2015.03
3	장슬기	인턴	외국어(한국어) / 학사재학	2015.03
4	알람쇼예프 타브레즈	강사	한국어 / 학사	2013.12
5	약시예바 사요라	강사	한국어 / 학사	2014.06

### 3. 한국학 수강생 현황

<타지크 국립외대 한국어학과>

	학생수
1학년	9
2학년	13
3학년	6
4학년	8
합	36

<두산베 1세종학당>

	학생수
입문반	30
2권반	12
3권반	30
5권반	10
토픽초급반	45
토픽중급반	13
토픽고급반	8
합	148

<두산베 2세종학당>

	학생수
입문반	88
1권반	61
K-Tradition	35
K-POP	35
K-Movie	25
합	244

#### 4. 학생 교류 현황

	대학명	2009 - 2015
1	계명대	12/1
2	배재대	7/0
3	덕성여대	1/0
4	전북대	1/0
	계(타→한 /한→타)	21/1

#### 5. 한국학 약사(略史)

- 2004년 09월 한국어학과 설립
- 2005년 09월 한국어능력시험 타지키스탄 유치 및 시행
- 2006년 11월 타지키스탄 한국어말하기 대회 개최(2015년 현재까지 시행)
- 2008년 09월 계명-타지 키즈문화센터(타지크 국립외대) 설립
- 2009년 06월 한국학과 1회졸업생(17명)
- 2009년 10월 타지키스탄 계명대 한국어 백일장대회 개최(2015년 현재 까지 시행)
- 2011년 03월 두샨베 1세종학당(타지크 국립외대) 개설
- 2012년 12월 한국사랑뽐내기 I LOVE KOREA 대회 주최
- 2013년 06월 퀴즈온코리아 타지키스탄 예선 주관
- 2013년 12월 두샨베 2세종학당/한국관(타지크 국립중앙도서관) 개설
- 2014년 07월 “한국의날” 행사 주관
- 2014년 12월 한국어학과 개설 10주년 기념 행사

### 투르크멘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

#### 1. 한국학 기관 현황

Institution	Русский	Туркмен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 Довлетмамеда Азади
	한국어	투르크멘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 한국어과
	English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Dovletmammet Azadi Turkmen National Institute of World Languages
Address		744000, Ashgabat, 47, 2060 st., Ashgabat, Turkmenistan
Homepage		
Contact	phone	+993-65-427019
	e-mail	<a href="mailto:stream@petml.com">stream@petml.com</a>
Person in Charge	position	Head of Department
	name	Wook Jeon
Founding year		2008

\* founding year 는 한국학과 또는 한국학센터의 설립연도.

\*\* 이하 한국학 현황은 2015년 6월 기준.

## 2. 한국학 교수진 현황

	이름	직위	전공분야 / 학위	본교임용
1	전옥	한국어과 / 전임강사	영문학 / 석사	2010.09
2	김현희	한국어과 / 전임강사	영문학 / 학사	2013.10
3	누르예바 블라임	강사	한국어 / 학사	2013.09
4	세잇무라도바 베콜	강사	한국어 / 학사	2014.03

## 3. 한국학 수강생 현황

	한국어과
1 학년	10
2 학년	10
3 학년	10
4 학년	10
5 학년	10
합	50

## 4. 학생 교류 현황

	대학명	인원	비고
1	경희대	1	
2	서울대 대학원	3	어학 2 명, 문학 1 명

## 5. 한국학 약사(略史)

- 2008년 07월 한국어학과 설립
- 2008년 09월 KF 객원교수 부임(김익환)
- 2009년 04월 제 1회 투르크메니스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실시
- 2009년 09월 교원 충원(김미정)
- 2010년 04월 제 2회 투르크메니스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실시
- 2010년 09월 I.O.C.K 파견전문인(전옥)
- 2011년 04월 제 22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
- 2011년 04월 제 3회 투르크메니스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실시
- 2012년 04월 제 26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 2013년 04월 제 30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 2013년 04월 제 4회 투르크메니스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실시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실시)
- 2013년 06월 한국어학과 1회 졸업생(10명) 배출
- 2013년 08월 교원 사임(김익환, 김미정)
- 2013년 10월 교원 충원(김현희)
- 2014년 04월 제 34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 2014년 04월 제 5회 투르크메니스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실시
- 2015년 02월 교원 충원(민주현)
- 2015년 03월 제 39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 2015년 04월 <투르크멘어-한국어 사전>(전옥 편저) 발간
- 2015년 05월 제 6회 투르크메니스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실시
- 2015년 06월 교원 사임(민주현)

##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 Данные на июнь 2015 г.

**Корееведение: состояние и глубокие перемены в его развитии с обретением Узбекистаном независимости.** Модернизация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на основе концептуа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окументов «Закона об образов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кадров,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нового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радикальным переменам на всех ступенях образования, в изучении каждой дисциплины, включа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Развитие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Узбекистане, укрепление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кафедр необходим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в контексте неоценимого вклада Президен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 Посольств, Министерств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ре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KOICA», Цен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Ташкенте, Академии Наук, вузов обоих государств. Благодаря их содействию были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полноценног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в Вузах Узбекистан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13 ВУЗах Узбекистана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з них: в 2 ВУЗах (ТашГИВ, ТГПУ им. Низами) открыты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кафедры, гд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языком обучения. В СамГИИЯ –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ходит корей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основного). В УзГУМЯ –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качестве второго языка. В 9 ВУЗах Республики, на отдельных факультета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зучают как второй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студентов ВУЗов Узбекистана, изучаю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1500 человек.

###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2014-2015 уч. года**

№	Название ВУЗа	Направление	Кол-во студ-в	Кол-во преп	Кол-во магистратов	Кол-во докторантов
1	ТашГИВ	Филология и обучение языкам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литература)	110	8+3(Кой ка)+1 (Корея)	6	5 (линг.+лит-ра)
		Экономика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Корея)	30	2	3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олит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Корея)	30	2	-	
		История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Корея)	30	2	2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е	30	2	2	
		Китаеведение, японская филологи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второ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язык со 2 курса)	95			
		<b>Всего:</b>	315	12	<b>13</b>	<b>5</b>
2	ТГПУ им Низами	Родной язык (корейский) и литература То что выделено желтым, данные 2012-2013 года (помоему они остались такими же)	85	8	4	-
3	СамГИИЯ	Филология и обучение языкам (корейский яз.)	213	9	???	-
4	УзГУМЯ	Филология	200	4	???	-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перевода				

Признанным центром узбекской ориенталистики по подготовке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по вс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корееведения (филология, экономика, история, философия, политология,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е) по праву считается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В 1991 году, после 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еспубликой Узбекистан, учитывая плодотворное, динамич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еспубликой Узбекистан, в Ташкент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нституте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был создана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Первоначально, она входила в состав кафедры японской филологии.

В 1993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руководства института, образовался факультет корееведения,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ил проф. Ким Мун Ук.

В 2004 году – образовался Факультет язык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Южной Азии,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ошла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С 2005 г. – зав. кафедрой – доктор философских наук – Ким В.Н.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является центром подготовки филологов - корееведов широкого профиля.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й состав кафедры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ТашГИВ состоит из выпускников наших Вузов, имеющих базовое филолог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8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олонтеров КОЙКА (3

преподавателя) и 1 приглашенн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ля чтения специальных лекци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и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ая работ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корееведения в данном институте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по двум разнопланов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а именно: 1) разработка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истории, философии, политики, экономики Кореи; 2) разработка и внедрение обучающи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 создание на их основе учебников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4].

Так в рамках перв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защищены 6 кандидатских диссертаций (всего в Республике защищено 10 кандидатских диссертаций) по следующим темам: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и функционально-семантическая природа глав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им Н.Д., 2006 г.); «Процессы формирован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контекст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Ли Джи Ын – Р. Корея, 2009 г.);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падежных частиц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им О.А., 2010 г.); «Повесть о Хон Гильдоне» – образец корейской средневековой повести (особенности жанра, типология и эпические мотивы)» (Сайдазимова У.Т., 2011 г.); «Концептуализация этического норматива в корейской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е мира» (Пан Л.А., 2011 г.); «Развитие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Узбекистаном» (Чон Дэ Ван – Р. Корея, 2012 г.).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молодые ученые активно проводят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проблемам перевода, сопоставительной типологии корейского и узбекского языков, лингвокультурологии.

В рамках втор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авторским коллективо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нститута была создана база для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в частности составлены и изданы ряд учебных пособий по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разработаны электронные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ие комплексы,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н процесс внедрения нов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технологий, новых форм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знаний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в V, VII и VIII –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выставке иннов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где представляла электронный учебник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для студентов с узбекским языком обучения.

Говоря о корееведении в Узбекистане, нельзя забывать, что развитие этой науки было бы невозможно без поддерж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ддержка разви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ах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цел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научных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фонд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аких как «Korea Research Foundation», «Korea Foundation», «Academy of Korean Studies».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Узбекистана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области разви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идет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о-первых, проведение совместных науч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й,

семинаров по акту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корееведения. Так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Academy of Korean Studies» в Узбекистане была проведена VI, VII, VIII, X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Друг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является выделение грантов на разработку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области корееведения, языковые стажировки. Фонд «Korea Foundation» оказал содействие в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издания; «Корейско-русского словаря» (составитель: Ким Мун Ук и др. Ташкент, 2004), «Узбек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ря» (составитель: Ким Чун Сик и др. Ташкент, 2005), «Узбекско – 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ловаря» (Составители: Чой Со Ёнг, Эрмаматов Ш., Ким В., Ким Е., Сайдазимова У., Шакирова Н. и др., Ташкент, 2010).

Институтом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деланы первые шаги в одном из актуаль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как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е. В августе 2011 года в Союзе писателей Узбекистана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сборника «Антологии узбекской поэзии XX века», переведенного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священного 20-летию Независим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В 2012 году вышла в свет «Антология узбекской прозы XX века». В 2015 году к 100-летию известной поэтессы Зульфии вышел сборник избран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в переводе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мае 2015 году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ойк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подавателя волонтера Ким Хён Нён вышел сборник избран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звестных коре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Кореи на узбекском языке. В переводах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ли студенты кафедры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Данный факт является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того, что узбекистан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расширяет свои границы в освоении культур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интенсификации диалога культур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Узбекистан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Актив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кафедры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проявляется в **духовно -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сфере:** в проведении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нкурса оратор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ВУЗов Узбекистана, конкурса – викторины «Quiz on Korea», внеаудиторной работе, организации литературно- театрализованных вечеров, тренингах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участии в межвузов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 дн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по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между Узбекистаном и Р.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стано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основных фор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Оно представлено как традиционными формами (обмен студентами, проведение конференций, публикаций, совмест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так и относительно новым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гранты, стипендии).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реализации подписанных соглашений и договоров между ВУЗами обоих государств, (каждый ВУЗ имеет не менее 15 договоров), то процент реально действующих договоров к сожалению невысок. Из множества пунктов, приведенных в договорах, в основном реализуется статья по обмену студентов. Такие важные сфер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как обмен профессорско-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м составом, осуществление совместно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и иннова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 задействованы. Мы считаем, что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еобходима активизация наших совместных усилий.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ак известно, есть понятие вузовской и отраслевой науки. Основная масса науч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а в Вузах, в каждом из которых созданы крупные научные коллективы.

В апреле 2013 года в Ташкент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нституте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збекистане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основной функцией которого станет эффективная координация и кооперация ученых –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вузовской и академической науки, в целях глубокого анализа корееведения и определения его потенциала как науки,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овместных научно –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проектов, способных расшири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науч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и решения вышеперечисленных проблем: в переведоведении,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ой работе, повыш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 корееведов ВУЗов Узбекистана (например, с приглашением ведущих 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Ташкент). Такое взаимо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Вузами, НИИ, Центрами корееведения Росси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других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 заслуживает всемерной поддержки. Безусловно, – корееведение Узбекистана, как отрас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науки играет важную роль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активного узбекистан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способствует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ю и сближению народов.

## ТГПУ ИМЕНИ НИЗАМИ

\* Данные на июнь 2015 г.

Корейское отделение при факультет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ТГПУ имени Низами было открыто в 1956 году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силами В.Ф. Кан, М.А. Хегай и к.ф.н. Ким Бен Су.

Цель открытия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 изучение и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а также возрождение духовных традици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До 1964 года было осуществлено 4 выпуска, что обеспечило молод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сельские школы, СМИ Узбекистана и Казахстана, которые ве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и культурную работу сред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Кан Владимир Филиппович – выпускник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52), работал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Москов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1952-1955),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педучилища (1955-1957). С 1957 году до самого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по 1987 год работал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сначала корейского, а затем русского языков. В. Ф. Кан – ученик профессора А.А. Холодовича, выдающегося корееведа, много лет возглавлявшего кафедру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в Ленинград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автора «Очерка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1954) и других монографий. Позже к работе на кафедре подключился преподаватель Хо Ун Бе, который вел лекции по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средних веков. В 1960 году на базе кафедры учителем Бектемирской средней школы Кимом Нам Секом и М.А. Хегаем был издан первый отечественный учебник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для 3-4 классов в количестве 20 тысяч экземпляров.

Помимо проведения учебных занятий на кафедру приглашали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обучали студентов корейской хореографии, фольклору и во время каникул студенты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ой разъезжали по корейским колхозам.

От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ыграло заметную роль в возрождении духовных традици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е только в Узбекистан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к тому времени было всего 4 выпуска (70 человек), отделение сумело в должной мере обеспечить молод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сельские школы, а также средства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Узбекистана и Казахстана. Например, Цой Евгений Николаевич и Хен Николай Степанович возглавили редакцию газеты «Ленин кичи». В 1964 году отделение было закрыто.

Однако в 1985 году, благодаря В.Ф. Кану, корейское отделение открылось вновь при факультете русской и татарской филологии ТГПИ имени Низами. В разные годы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на отделении работали

Мен Воль Бон, Ким Владимир Наумович, Ли Надежда Николаевна, Ли Чун Сик, Цой Светлана Сергеевна, Мун Галина Сергеевна и другие.

В 1985-1987 годы отделение возглавил Кан Владимир Филипович, а в 1987-1988 годы – Ли Надежда Николаевна, выпускница первого выпуска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ТГПИ имени Низами.

В 1990 году была создана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которую возглавил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доцент Югай Илья Григорьевич, позднее ставший деканом факультета рус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В этот период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кафедре оказали профессора из Пхенья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Хо Тхэ Хун, Чой Сын Хи, профессор Сеу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ак Гын Сик, молодые специалисты Ан Лилия Иннокентьевна, Ли Лия Клементьевна, Ким Андрей Тимофеевич.

В 1988-1989 учебном году была составлена «Программа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для 3-10 классов» (В.Ф. Кан, С.С. Цой, Н.Н. Ли), а в 1992 году вышел в свет учебник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ля 3-4 классов» (В.Ф. Кан, С.С. Цой). В 1993 году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фессора Хо Тхэ Хуна были изданы учебн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3-х частях для нача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И.Г. Югай, С.С. Цой, В.Ф. Кан и др.).

Илья Григорьевич Югай защитил кандидатскую диссертацию на тему: «Этноязыковые процессы в иноязычной среде на материалах этносоциологическ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городских корейцев Узбекистана» и стал автором десятков научных публикаций, учебн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Будучи деканом факультета рус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И.Г. Югай сыграл значительн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от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ашкен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Низами.

В 1999 году заведующим кафедрой стала Цой Светлана Сергеевна, которая дала новый импульс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ой работе кафедры. В 2000 году в соавторстве с профессором Ким Филом была составлена и выпущена «Практ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2001-2002 году на базе кафедры ею были составлены и опубликованы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ие пособия «Методика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Лингводидак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обучения произношению звук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Фоне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гры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 социолингвистическим и методическим разработкам членов кафедры относится и изучение проблем теории и практики двустороннего перевода, в процессе которого проводится сбор материалов для диалектологических и фолькло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2001-2003 гг. кафедру возглавил выпускник отделения Нам Виктор Вениаминович, который впоследствии был направлен учиться в аспирантуру Сеу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 2003 по 2012 год заведующим кафедрой являлся доктор эконом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Ли Бронислав Сергеевич, который

расширил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работу кафедры в области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этот период в разные годы на кафедре вели свою педагог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ак А.Я., преподаватели – выпускники отделения Нам В.В., Пак С.В., Чурбанов И.А., Цхай Е.В. Мен С.Р., Пак Н.Г., Пак В.А., Ли Е.А., Шим Ю.Е., Мун О.В., Чжен Н.В., Пак В.А., Ким А.О., Ким С.К., Хван Т.В. Наряду с этим, к работе на кафедре были привлечены специалисты из других кафедр и ВУЗов: к.ф.н. Пак В.И., д.ф.н. Ким В.Н., Шим Л.В., Львова И.С., Хо Сон Хенг.

В 2012-2013 годы кафедру снова возглавил теперь уже доктор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наук Нам Виктор Вениаминович, который успешно защитил докторскую диссертацию в Сеуль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 2013 года заведующим кафедрой является выпускница ТГПИ имени Низами, кандидат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Ким Ольга Анатольевна.

На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на кафедре работают д.э.н., профессор Ли Бронислав Сергеевич, к.ф.н. Пак 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стар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Мен Светлана Родионовна, преподаватели Чурбанов Игорь Александрович и Пак Светлана Викторовна, д.п.н., профессор Ли Ю Ми, преподаватели-волонтеры Ким Хён Док и Ким Ын Хи.

Учебную нагрузку кафедры составляют более тридцати основных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дисциплин, а также дисциплин по выбору, преподаваемых на бакалавриате и магистратуре.

С 1995 года на кафедре ведется активная педагоги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офессор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х силам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тес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корейским агентством по содействию K01CA, которое оказывает помощь кафедре в укреплении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путем оснащения аудио и видеотехникой, компьютерами и другой оргтехникой.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учебном процессе отделения используются различная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аудио и видео материалы. В 2000 году на базе кафедры при содействии K01CA была открыта библиотека (более 15 000 книг), оснащ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ой и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Наряду с этим кафедра ведет ак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осо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оторое оказывает активную помощь в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о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и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УЗа.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в пополнении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и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ого фонда кафедры оказывает и Цен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Центре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подаватели регулярно проходят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а студенты посещают различные учебные курсы и кружки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Еще одним немаловажным приобретением кафедры в деле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тала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с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вым центром «Седжонг» в Узбекистане.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со всеми вышеуказа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кафедра ведет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деле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я совместных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целью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расширение и углубление знаний студентов, а также развитие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молодежь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Узбекистана. Благодаря эт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студенты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афедры проходят стажировку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 лучшие выпускники отделения проходят обучение в магистратуре и аспирантуре престиж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афедра методики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поддерживае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уже с 29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лагодаря содействию, оказанному корейскими ВУЗами 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на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кафедра оснащена не только техническими, но и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обуч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дписанными договорам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лучшие студенты отделения ежегодно проходят языковые стажировки и обучение в бакалавриате, магистратуре и аспирантуре.

Благодаря корейским ВУЗам на базе кафедры было проведено три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конкурса сочинени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нутри вузовский 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ый фестиваль. Кроме этого на отделении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ятся конкурсы оратор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на узбек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призеры награждаются недельной поездкой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понсором этих мероприятий уже много лет (с 2005 года) является почетный профессор ТГПУ имени Низами Пак Канг Юнг.

На отделении также функционируют различные научные, учебные и спортивные кружк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которых являются не только профессорско-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й состав кафедры, но и приглашенные профессора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линии «Korea Foundation», преподаватели-волонтеры из KOICA. Ежегодно на базе кафедры проводится Олимпиада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За многолетнюю историю на кафедре в разное время работали профессора Пхенья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Хо ТхэХун, Чой Сын Хи, профессор Сеу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ак Гын Сик, профессора по линии «Korea Foundation» О Йн Кенг и Янг Гым Соп, профессора Ли Гю Дон, Ли Хан У, Чонг Хан Ук, Чон Енг Даык, а также более 15 преподавателей-волонтеров KOICA: Сон Ха Чун, И Йн Гу, Ким Мин Силь, Ли Он Сук, Ан Су Джонг, Че Йн А, Кан Хве Джин, Юн А Енг, Джанг Джун Хи, Ё Юн Гён, И Гван Ок, Хван Джин Сун, Ли Ми Джин, Хан Ок Джун, Шим Хён Джун, И Джи Ен и др.), которые ведут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ую и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работу со студентами отделения в кружках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различным конкурсам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стране и за рубежом, а также к сдач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замена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ТОРИК).

## НАШИ ЗАРУБЕЖНЫЕ ПАРТНЕРЫ

Кафедра имеет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обмене студентами 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со следующими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Коре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зарубеж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 Университет Чунг-Анг
- Университет Кангнам
- Университет Чунбук
- Националь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Чонджу
- Университет Дангук
- Университет Чоннам
- Университет Тонгвон
- Университет Кювон
- Университет Педже
- Университет Даеджин
- Университет Намсеул
-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онгджу
- Университет Силла
- Университет Кимчжон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студенты и магистранты принимаю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студенческих конференциях, результатом их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являются успешные защиты выпускных работ и магистерских диссертаций.

Кафедра методики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имеет инновационные договора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Академическим лицеем при Ташкент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нституте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Академическим лицеем при ТГПУ имени Низами. В прошлом кафедра имеет опыт проведения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практик в Ташкентск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колледж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школе №290, а также языковых практик студентов в Центре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Ташкентск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овом центре «Седжонг» в Узбекистане.

Сегодня, как и много лет назад на отделении силами самих студентов сохраняется многолетняя традиция – функционирует музыкальная группа, играющая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инструментах «Самульнори». Студенты отделения ведут активную волонтер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качестве переводчиков на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 культуре, образованию и науке,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в Ташкенте и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ачестве и уровне подготовки бакалавров и магистрантов кафедры можно судить по статистическим данным,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сами

за себ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ыпускники отделения работают в сферах экономики, дипломатии и образования и т.д. не только в нашей стране, но и за рубежом.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ая и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кафедры и по сей день отвечает высоким соврем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к образованию и науке Узбекистана. На базе кафедры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деятельность Центра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в Узбекистане, руководителе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профессор Б.С. Ли.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Центр ведет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по содействию публикации материалов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й, семинаров, учебных пособий и монографий.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количество выпуще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приблизилось к 16, наряду с этим, силами Центра были выпущены работы: Ли Б.С. в соавторстве с профессором Паком Чан Мин «Слово об учителе» (2004), «История корлита в лицах» (2006), «История корлита 1956-2006 гг.».

###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ая и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работа кафедры методики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 **I. Учебники**

1. Ким Нам Сек, М.А. Хегай. Учебник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для 3-4 классов. 1960.
2. Кан В.Ф., Цой С.С.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ля 3-4 классов. 1992.
3. ЮГай И.Г., Цой С.С., Кан В.Ф. и др.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3-х частях для нача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1993.
4. Чурбанов И.А., Нам В.В., Хо Сон Хенг, Чан Вон Чан. **한국어 (초급) – 국제교육진흥원.** 2006 .
5. Чурбанов И.А., Нам В.В., Хо Сон Хенг, Чан Вон Чан. **한국어 (중급) – 국제교육진흥원.** 2007.

#### **II. Учебные и методические пособия**

- A. Ли Б.С., Шим Л.В., Львова И.С., Адылова С.Р. Сравнительная типология корейского и узбекского языков.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для студентов магистратуры и бакалавриата. – Т.: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ы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2011.
2. Ли Б.С., О Йн Кенг, Мен С.Р., Цхай Е.В., Пак Н.Г. Страноведени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чебник для студентов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 Т.: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ы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2012.
3. Ли Б.С., Нам В.В., Мен С.Р., Цхай Е.В., Пак Н.Г. Введение в практику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для студентов магистратуры и бакалавриата. –Т.: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ы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2013.

4. Мен С.Р. Методика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видеоматериалов («Only you»). –Т.: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2014.

### **III. Сборники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й**

1. Uzbekistan and Korea: economic relations. Collection of articles. – Tashkent, 2002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2. Контрастивная лингвистика (сопоставление тюркских и славянских языков с корейским).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контрастивной лингвистике ТГПУ имени Низами.–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2005.
3. Материалы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в Узбекистане». К 50-летней годовщине основания от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при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У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2006.
4.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орея: историческ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2008.
5. Каримова Н.Э. Узбекистан и Корея: исторические связи.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2008.
6. Хван Л.Б., Ли Б.С. Культу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Кореи и Узбекистана.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2008.
7. Ли Б.С., Чепель С.В.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Узбекистана и Кореи.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2008.
8. Шим Л.В., Львова И.С., Шим Ю.Е. Сопоставительная типология корей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ов.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2008.
9. Шим Л.В., Львова И.С., Шим Ю.Е. Структурные и семант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паремий в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2008.
10. Проблемы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Материалы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корееведении и разработка учебных материалов для системы средних, средних специальных и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20-21 октября 2009.
11.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Халқ таълими вазирлигининг “Ўзбекистон мактаб ва олий ўқув юртларида корейс тилини ўқитиш методикаси” мавзусидаги Республика илмий-методик конференция материаллари.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26 апреля 2009.
12. Методика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литературы, культуры в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Узбекистана и

-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2010.
13. «Сеул-Ташкен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преподаванию литературы.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2010.
  14. Материалы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ого семинара дл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лияние возраста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в школу на выбор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Кореи», посвященного Году гармонично развитого поколения.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30 апреля 2010.
  15.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Методика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литературы, культуры в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Узбекистана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16 июля 2010.
  16.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по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ю «Диалог поколений».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17.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межкультурн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2012.
  18.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еминара по преподаванию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ТГПУ им. Низами. Узбекистан.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2012.
  19.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збекско-корейского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го семинара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обу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английский, корейский) в Корее и Узбекистане».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16 апреля 2014.
  20. Материалы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г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научного семинара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Узбекистана», 27 января 2015.

#### **IV. Организация и проведение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й и семинаров**

1.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одействие корееведению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между Востоком и Западом». ЦААК,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2003.
2.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2004.
3.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контрастивной лингвистике «Сопоставление тюркских и славянских языков с корейским»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орея Фаундэйшн.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2005.
4.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в Узбекистане». К 50-летней годовщине основания

- от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при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2006.
5. Республикаанская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Ўзбекистон мактаб ва олий ўкув юртларида корейс тилини ўқитиши методикаси”. Организаторы НИИ Педнаук и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2009.
  6.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корееведении и разработка учебных материалов для системы средних, средних специальных и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2010.
  7.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й семинар дл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лияние возраста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в школу на выбор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Кореи», посвященный Году гармонично развитого поколения.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2010.
  8. Международный научный семинар «Сравнение языков, литератур и культур Кореи и народо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2011.
  9.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еминар.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2012.
  10. Международный узбекско-корейски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й семинар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обу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английский, корейский) в Корее и Узбекистане».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2014.
  11.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я студен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2005.
  12. Студенческ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Узбекистане».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2005.
  13. Студенческ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в Узбекистане».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2006.
  14. Студенческ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Узбекистане».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2007.
  15.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ий студенческий научный семинар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ТГПУ им. Низами. – Т., 2015.

## САМАРКАНД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 Данные на июнь 2015 г.

### **1. Краткие сведения о кафедре корейского и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ов**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го и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ов функционирует с 2001 года по направлению 5220100-Филологи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 ноября месяца 2011 года кафедра переименована на «Кафедру корейского и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ов». С сентября 2012 года кафедрой заведует в.и.о. Тураева Дилфуз Салахитдиновна. Нагрузка кафедры год за годом увеличивается. 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оставляет **16022** часов.

### **II. Состав кафедры**

Преподаватели в основном привлечены с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ведут занятия по основному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вместе с местным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Профессорско-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й состав состоит из 22 человек, из них 1 доцентов, 1 кандидат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14 ассистентов-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в том числе 3 преподавателя с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KOICA»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также с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Китай 3 доцентов преподают по направлению - филология: Китайский язык.

№	Ф.И.О.	Должность	Штатная единица	Учебная нагрузка
1	Тураева Д.С.	Зав.каф.в.и.о. преподаватель	1,25	844
2	Ким Л.О.	преподаватель	1,25	1227
3	Бахранова Д.У.	преподаватель	1	964
4	И Ын Ми	преподаватель	0,5	608
5	Ким Кванг Илл	преподаватель	0,5	559
6	Ким Мин Жу	преподаватель	0,5	622
7	Эшимова Ш.К.	преподаватель	1	934
8	Азизова С.Б.	преподаватель	0,75	696
9	Норкулова Ш.Р.	преподаватель	1	1004
10	Байматова М.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1	960
11	Хайтов С.М.	к.ф.н. ст.преп.	0,5	481
12	Ванг Ли Фын	к.ф.н. ст.преп.	1,25	1322
13	Ли Шин Ди	к.ф.н. ст.преп.	1,25	1321
14	Ма Сю Линг	к.ф.н. ст.преп.	1,5	1397
15	Баёнханова И.Ф.	ассистент-преп.	0,25	297
16	Базарова Ш.	ассистент-преп.	0,25	274

<b>17</b>	Туракулова С.	ассистент-преп.	0,5	541
<b>18</b>	Назарова Ш.	преподователь	1	974
<b>19</b>	Тугалов Х.	ассистент-преп.	0,5	504
<b>20</b>	Тилавов О.	ассистент-преп.	0,5	493
<b>Всего:</b>		<b>16,25</b>	<b>16 022</b>	

### III. Научн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Развитие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на перекрёстке мировой цивилизации.

### IV. Текущие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темы)

1. Ким Л.О. – Грамматикография контрастивного словаря (на материале корей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словарей).
2. Тураева Д.С. – Ўзбек ва корейс тилларида шахс маъносини ифодаловчи отлар деривацияси ҳақида мулоҳазалар.
3. Байматова М.А. – Адаптирование английски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в корейской лингвокультуре.
4. Бахранова Д.У. – Ҳол ва унинг тавсифига доир. Самарқанд-2008, “Alma Mater” магистрлар ва ёш ўқитувчиларнинг илмий мақолалари тўплами.
5. Баёнхонова И.Ф. – Нутқий мулокот қоидаларининг мақоллар матнида воқеаланиши.

### V. Основные Публикации (названия книг)

1. Ким Л.О. – “К вопросу о классификации частей реч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амарқанд, СамДЧТИ май 2012 йил. Профессор-ўқитувчиларнинг анъанавий XX илмий материаллари.  
“О роли позитивной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и при работе в неформальных групп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Тошкент -2012, Иктидор-2, Ёшларнинг илмий, публицистик, бадиий тўплами.
2. Тураева Д.С. – “Ўзбек ва корейс тилларида шахс маъносини ифодаловчи отлар деривацияси ҳақида мулоҳазалар.” Самарқанд, СамДЧТИ май 2012 йил. Профессор-ўқитувчиларнинг анъанавий XX илмий материаллари.
3. Байматова М.А. – “Адаптирование английски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в корейской лингвокультуре.” Самарқанд, СамДЧТИ феврал 2012 йил, Тилшуносликнинг назарий ва амалий масалалари тўплами.

4. Бахранова Д.У. – “Хол ва унинг тавсифига доир.” Самарқанд-2008, “Alma Mater” магистрлар ва ёш ўқитувчиларнинг илмий мақолалари тўплами.

5. Азизова С.Б. – “Различие корейских диалектов в устной речи.” Самарқанд, СамДЧТИ май 2012 йил. Профессор-ўқитувчиларнинг анъанавий XX илмий материаллари.

6. Расулов Н.А. – “Таржимашунослиқда бадиј қаҳрамон образи талқини долзарб масала сифатида.” 25-26 марта 2011йил, Тил системаси ва ҳозирги замон лингводидактикаси. Доцент, ф.ф.н. Нематулла Элмуродов таваллудининг 70-йиллигига бағишиланган Республика илмий-амалий анжумани.

“Гендерный подход в отражении семейно-род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Самарқанд, СамДЧТИ февраль 2012 йил, Тилшуносликнинг назарий ва амалий масалалари тўплами.

“Қаҳрамонлар тимсолининг бадиј таржимада “Жаранглаши”ни таъминловчи унсурлар тўғрисида айрим мулоҳазалар.” 12-13 апрел 2011йил, Тил системаси ва ҳозирги замон лингводидактикаси. Доцент, ф.ф.н. Нематулла Элмуродов таваллудининг 70-йиллигига бағишиланган Республика илмий-амалий анжумани.

“Бадиј асарнинг лексик-семантик ва стилистик хусусиятларининг таржимада қайта тикланишига доир айрим мулоҳазалар.” Чет тилини ўқитиш методикасининг дидактик асослари. Республика илмий-амалий конференцияси, 2011йил.

## **VI. Учебные предметы кафедры**

### **По бакалавриату:**

1. Основной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Корей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языки);
2. Практическая фонетика (Корей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языки);
3. Практ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языки);
4. Введение в восточную филологию (Корейский, япон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языки);
5. Страноведение (Корей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языки);
6. Теорет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языки);
7. Методика обучения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Корей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языки);
8. Лексикология. Основной восточный язык (Корей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языки);
9.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го и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ов;

10. Теорет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Корей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языки);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магистратуры:**

1. Теорет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специальности;
2. Проблемы чтение текста в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и его анализ;
3. Особенности языка в изучаемой стране;
4. История языкоznания;
5. Предмет по выбору: Сопоставительное следование вспомогательных глаголов в корейском и узбекском языках;
6. Предмет по выбору: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семантика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7. Предмет по выбору: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и синтаксическое стро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8. Предмет по выбору: Диалектолог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VIII.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КРУЖКИ**

№	Наименование кружков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кружка	Ф.И.О. руководителя кружка	Ожидаемые результаты
1.	“Искусство перевода”	В течении 2012-2013 учебного года	Ма Сю Линг, И Сон Хи	Повышение грамотности при переводе с иностра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и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родной язык и с родного языка на иностранный.
2.	Ораторское искусство.	В течении 2012-2013 учебного года	Ким Кван Ил Ким Мин Жу	Обогащение аспектов разговорной речи студентов посредством разбора примеров корейского уст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3.	Корейские народные песни (хор)	В течении 2012-2013 учебного года	проф. Ли Сон Хи	Близкое ознакомление студентов с культуро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осредством обучения народным песням.
4.	«Китайская иероглифик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В течении 2012-2013 учебного года	Тилавов О.	Достижение положитель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при обучении китайским иероглифам.
5.	«Самульнори» - националь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В течении 2012-2013 учебного года	Байматова М.А.	Обучение игре на коре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Самульнори».

## **IX.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работа научные связи.**

Науч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кафедры называется «Развитие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на перекрёстке мировой цивилизации». На кафедре составлен ряд договоров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ыполняются объекты по обмену, студентам, аспирантами, докторантами и научных сотрудниками. С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онгчуч», «Чунбук», «Чангвон», «Пусан», сеуль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орё»,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Ён-Се», также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КОИКА». Кафедра поддерживает постоянную связь и совместную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 кафедрами ТашГИВа, ТГПИ, УзГУМЯ. Науч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уются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учреждениям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афедры участвуют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переводимых за рубежном и в странах СНГ. По проектам: обмен студентов, международные, научные, методические связи с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ИКА, восстановлены связи.

**С 2012 года** кафедра переименована в кафедру языков стран Азии (Осиё мамлакатлари тиллари)

В 2013 году на кафедре преподавали 10 местны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волонтеры КОИКА Ким Мин Джю, Ким Кванг Иль, Ли Ын Ми и Чонг Со Ёнг.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2015 год) кафедра называется кафедрой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Шарк тиллари кафедраси).

Количество студентов вместе с магистратурой 149 человек. На кафедре преподаются 15 предметов на бакалавриате и 10 предметов в магистратуре.

Ведется научная работа, выпускаются сборники. В процессе выпуск учебных пособий по предметам для студентов бакалавриата и магистратуры.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у кружки «Самульнори» и «Пучечум». Кафедра заключила множество контрактов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колледжами, лицеями, где проводятся занят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а также контракты с предприятиями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в переводах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С 2014-2015 учебного года введен новый предмет по указу ректора –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мятники Узбекистана.

## <참고> 한국어-러시아어 인명 지명의 상호표기

### 1. 한국 인명 지명의 러시아어 표기

자음	홀로도비치 -콘체비치(1966)	모음	홀로도비치 -콘체비치(1966)
ㄱ	K-, -г-, -к	아	А
ㅋ	KX, -к	어	О [օ, ə]
ㄲ	KK	오	О
ㄷ	T-, -д-, -т	우	У
ㅌ	TX	으	Ы
ㄸ	TT	이	И
ㅂ	П-, -б-, -п	애	Э
ㅍ	ПХ	에	Е
ㅃ	ПП	외	ВЕ
ㅅ	C, -т	위	ВИ
ㅆ	CC, -т	야	Я
ㅈ	Ч-, -дж-, -т	여	Ё/ЙО [յօ, յə]
ㅊ	ЧХ, -т	요	Ё/ЙО
ㅉ	ЧЧ	유	Ю
ㅎ	X	애	ЙЯ
ㄴ	H	예	ЙЕ/-Е
ㄹ	-р-, -ль	와	ВА
ㅁ	M	워	ВО
ㅇ	-н [-нь]	왜	ВЭ
		웨	ВЕ
		의	ЫЙ

- 1) 한국 인명과 지명의 러시아어 표기는 홀로도비치-콘체비치(1966)의 간략전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을 병기한다.
- 3)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각각의 독립된 단위로 표기한다.  
예) 장정진 Чан Джонджин (콘체비치 체계) → Чан Чонджин

## 2. CIS (구 소련) 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

키릴 문자	한글			키릴 문자	한글				
	모음앞	자음앞	어말		모음앞	자음앞	어말		
<b>A</b>	아			<b>P</b>	ㄹ	르			
<b>Б</b>	ㅂ	ㅂ, 브	프	<b>C</b>	ㅅ	스			
<b>В</b>	ㅂ	ㅂ, 브	프	<b>T</b>	ㅌ	ㅅ, 트	트		
<b>Г</b>	ㄱ	ㄱ, 그	크	<b>Ү</b>	우				
<b>Д</b>	ㄷ	ㅅ, 드	트	<b>Ф</b>	ㅍ	ㅂ, ㅍ	프		
<b>Е</b>	에, 예			<b>X</b>	ㅎ	흐			
<b>Ё</b>	요			<b>Ц</b>	ㅊ	츠			
<b>Ж</b>	ㅈ	즈, 시	시	<b>Ч</b>	ㅊ	치			
<b>З</b>	ㅈ	즈, 스	스	<b>Ш</b>	시	시			
<b>И</b>	이			<b>Щ</b>	시	시			
<b>Й</b>	이			<b>Ь</b>	-				
<b>К</b>	ㅋ	ㄱ, 크	크	<b>Ы</b>	이				
<b>Л</b>	ㄹ, ㄹㄹ	ㄹ		<b>Ь</b>	(이)				
<b>М</b>	ㅁ	ㅁ, 므	ㅁ	<b>Э</b>	예, 예				
<b>Н</b>	ㄴ	ㄴ		<b>Ю</b>	유				
<b>О</b>	오			<b>Я</b>	야				
<b>П</b>	ㅍ	ㅂ, ㅍ	프						

- 1) 러시아의 인명, 지명은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 2)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인명과 지명은 자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우선으로 하여 한글로 옮긴다.
- 3)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인명과 지명은 러시아어 표기를 우선으로 하되, 자국어에서 유래한 인명과 지명은 일반적인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따르기도 한다.

### 3.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의 한글 표기 예

#### 3.1. 중앙아시아 인명

이하의 용례는 <외래어 표기 용례집(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korean.go.kr>)에서 공개한 외래어 표기 용례 자료 파일에서 인용하였다.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미비한 내용을 보충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기로 한다.

각 용례는 “러시아어 표기 #1: 로마자 표기 #2: 한글 표기 #3: 뜻풀이 #4: 결정 회의 등”의 순서로 기술되었다.

Акаев Аскар #1Akayev, Askar A. #2아카예프, 아스카르 #3키르기스스탄의 정치가·대통령(1990. 10.~2005. 8.). (1944~). #4회의 17차

Акилов Акил #1Akilov, Akil #2아킬로프, 아킬 #3타지키스탄의 정치가 (1944~). 총리(1999. 12.~). #4회의 42차

Атамбаев Алмазбек Шаршенович #1Atambayev, Almazbek (Sharshenovich) 키르기스 어명: Алмазбек Шаршенович Atambaev #2아탐바예프, 알마즈베크 (샤르셰노비치) #3키르기스 정치가(1956~). 남성. 총리 대행 (2007.3.~2007.11.). 총리(2010.12.~). 사회민주당 당수(1999.7.~). Atambayev 대신 Atambayev라는 로마자 표기형이 자주 사용됨. #4회의 75차

Бакиев Курманбек #1Bakiyev, Kurmanbek #2바키예프, 쿠르만베크 #3(1949~) 키르기스스탄 정치가·대통령(2005.8.~). #4회의 42, 63차

Балгимбаев Нурлан #1Balgimbayev, Nurlan U. #2발김바예프, 누를란 #3카자흐스탄의 정치가. #4회의 19차

Бату (Батый) #1Batu #2바투 #3킵차크 한국(汗國)의 시조(1207~1255). #4 편수인명, 용인, 표준

Бердымухамедов Гурбангулы (Мяликгулыевич) #1Berdymukhammedov, Gurbanguly (Myalikgulyyevich) #2베르디무함메도프, 구르반굴리 (말리크굴리예비치) #3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1957~). 부총리 겸 보건. 의료 산업 장관(2001. 12.~2006. 12.). 니야조프 대통령의 사망으로 대통령 대행(2006. 12.~2007. 2.). 2007년 2월 14일 제2대 대통령에 취임. 전 치과의. #4회의 74차

Ермак Тимофеевич #1Ermak, Timofeevich #2예르마크, 티모페예비치 #3 제정 러시아 카자흐의 수령(?~1585). #4표준

Жукеев Тулеген Т. #1Zhukayev, Tulegen T. #2주케예프, 툴레겐 #3카자흐스탄의 외교관. #4회의 15차

Исабеков Азим #1Azim Isabekov #2이사베포프, 아짐 #3키르기스스탄 총리(1960~). 전 농업 수자원. 가공 산업 장관 대행. 키르기스스탄 의회에

- 서 2007년 1월 29일 총리 취임을 승인. 펠릭스 쿨로프(Feliks Kulov) 전 총리(2005. 8.~2006. 12)의 후임. #4회의 74차
- Камилов Абдулазиз К. #1Kamilov, Abdulaziz K. #2카밀로프, 압둘라지즈 #3우즈베키스탄의 정치가(1946~ ). #4회의 31차
- кануни Юнис #1Qanuni, Yunis #2카누니, 유니스 #3타지크 출신의 아프가니스탄 정치가. #4회의 46차
- Каримов Ислам А. #1Karimov, Islam A. #2카리모프, 이슬람 #3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1938~ ). #4회의 30차
- Назарбаев Нурсултан А. #1Nazarbayev, Nursultan A. #2나자르바예프, 누르술탄 #3카자흐스탄의 대통령(1940~ ). #4회의 42차
- Ниязов Сапармурат А. #1Niyazov, Saparmurat A. #2니야조프, 사파르무라트 #3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1940~2006). #4회의 32차
- Отунбаева Роза (Исаковна) #1Otunbayeva, Roza (Isakovna) 키르기스 어명: Роза Исаковна Отунбаева #2오툰바예바, 로자 (이사코브나) #3키르기스스탄 정치가. 외교관(1950~ ). 임시 정부 대표(2010. 4.~ ). 외무장관(1993~1997). #4회의 89차
- Разм Мохаммад Алем #1Razm, Mohammad Alim #2라즈, 모하마드 알림 #3우즈베크 출신의 아프가니스탄 정치가. #4회의 46차
- Рахманов Амангельды #1Rakhmanov, Amangeldy #2라흐마노프, 아만겔디 #3투르크메니스탄의 외교관. #4회의 12, 16차
- Рахмон Эмомали #1Rahmon, Emomali #2라흐몬, 에모말리 #3이전 이름 에모말리 라흐모노프(Emomali Rakhmonov). 타지키스탄 대통령(1952~ ). 1994년 11월 대통령 취임. 1999년 11월 재선. 2006년 11월 18일 세 번째 취임. 러시아풍의 성(姓)에서 어미를 삭제, 개명 발표(2007. 4. 13.). #4회의 75차
- Рахмонов Эмомали III. #1Rakhmonov, Emomali S. #2라흐모노프, 에모말리 #3타지키스탄의 대통령(1952~ ). #4회의 31차
- Султанов Уткир Т. #1Sultanov, Utkir T. #2술타노프, 옷카르#3우즈베키스탄의 총리(1939~ ). #4회의 42차
- Тасмагамбетов Имангали #1Tasmagambetov, Imangali #2타스마감베토프, 이망갈리 #3카자흐스탄의 정치가(1956~ ). #4회의 44차
- Текебаев Омурбек #1Tekebayev, Omurbek 러시아 어명: Омурбек Текебаев #2테케바예프, 오무르베크 #3키르기스 정치가. #4실무소위(100719)
- Темучин #1Temuchin #2테무친 #3칭기즈 칸(Chingiz Khan)의 본명. #4편 수인명, 용인, 표준
- Токаев Касымжомарт К. #1Tokayev, Kasymzhomart K. #2토카예프, 카심조마르트 #3카자흐스탄의 정치가. #4회의 30차
- Фен Виталий #1Fen, Vitaly #2樊, 비탈리 #3우즈베키스탄의 외교관. #4회의 18차

Чагатай #1Chaghatai #2차가타이 #3察合台. 13-14세기 중앙 아시아의 차가타이 한국(汗國)의 시조(?~1242). 칭기즈 칸의 둘째 아들. #4편수인명, 용인, 표준

Чингисхан #1Chingiz Khan #2칭기즈 칸 #3몽고국을 창건한 원나라의 태조(1162~1227). #4편수인명, 용인, 표준

Чудинов Игорь Витальевич #1Igor' Vitalyevich Chudinov Игорь Витальевич Чудинов #2추디노프, 이고리 비탈리예비치 #3키르기스 총리(1961~ ). 전 산업·에너지 장관. 2007년 12월 24일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S. Bakiyev) 대통령이 임명. #4회의 80차

### 3.2. 중앙아시아 지명

이하의 용례는 <외래어 표기 용례집(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korean.go.kr>)에서 공개한 외래어 표기 용례 자료 파일에서 인용하였다.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미비한 내용을 보충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기로 한다.

각 용례는 “러시아어 표기 #1: 로마자 표기 #2: 한글 표기 #3: 뜻풀이 #4: 결정 회의 등”의 순서로 기술되었다.

Ақмола #1Akmola #2아크몰라 #3‘아스타나(Astana)’의 전 이름.

Ақмолинск #1Akmolinsk #2아크몰린스크 #3‘아스타나(Astana)’의 전 이름.

Ақтогай #1Aktogai #2악토가이 #3소련 #4보유2

Ақтюбинск #1Aktyubinsk #2악튜빈스크 #3카자흐스탄 서북부에 있는 공업 도시. #4표준, 보유2

Алма-ата #1Alma Ata #2알마아타 #3‘알마티(Almaty)’의 구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이름.

Алматы #1Almaty #2알마티 #3카자흐스탄 텐샨 산맥 북쪽 기슭의 오아시스 도시. #4회의 16차

Алтай #1Altai 산맥 #2알타이 산맥 #3서시베리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걸쳐 있는 산맥. #4편수지명, 용지, 표준

Аму #1Amu 강 #2아무 강 #3=아무다리야(Amu Darya) 강. #4표준

Аму-Дарья #1Amu Darya 강 #2아무다리야 강 #3중앙아시아에 있는 강. 아프가니스탄의 힌두쿠시 산맥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랄 해로 흘러든다. #4표준, 보유1

Андижан #1Andizhan #2안디잔 #3우즈베키스탄의 도시. #4편수지명, 용지, 표준

Арал #1Aral 해 #2아랄 해 #3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걸쳐 있는 염호(鹽湖). #4편수지명, 용지, 표준

Астана #1Astana #2아스타나 #3①카자흐스탄의 주. ②카자흐스탄의 수

- 도 및 아스타나 주의 주도. #4표준  
Ашхабад #1Ashkhabad #2아슈하바트 #3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4표준  
Ашгабат #1Ashgabat Ашгабат #2아시가바트 #3투르크메니스탄 수도. 구  
칭 아슈하바트 Ashkhabad (1927~1992), 폴토라츠크 Poltoratsk  
(1919~1927). #4회의 84차  
Байконур #1Baikonur #2바이코누르 #3카자흐스탄 카라간다(Karaganda)  
주 서부의 우주 기지. #4표준, 보유2  
Бактра #1Bactra #2박트라 #3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고대 도시.  
Балхаш #1Balkhash 호 #2발하슈 호 #3카자흐스탄의 동남부에 있는 큰 호  
수. #4편수지명, 용지, 표준  
Белуха #1Belukha 산 #2벨루하 산 #3러시아 고르노알타이(Gorno-Altai)와  
카자흐스탄(Kazakhstan) 사이에 있는 산 #4표준  
Бишкек #1Bishkek #2비슈케크 #3키르기스스탄의 수도. #4표준  
Бухара #1Bukhara #2부하라 #3우즈베키스탄의 제라프샨(Zeravshan)강 하  
류에 있는 도시. #4표준, 보유1  
Бухара #1Bukhara 한국 #2부하라 한국 #3서투르키스탄의 중남부를 지배한  
우즈베크 족이 16세기 초부터 부하라를 수도로 하여 세운 나라.  
Гиндукуш #1Hindu Kush 산맥 #2힌두쿠시 산맥 #3중앙아시아 파미르 고  
원의 남쪽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지나 이란으로 뻗은 산맥. #4표준, 보유  
1  
Джамбул #1Dzhambul #2잠불 #3①카자흐스탄의 주. ②잠불 주의 주도.  
#4편수지명, 용지  
Джаннат #1Jannah #2잔나 #3[종교] 이슬람교에서 알라가 신자를 위하여  
사후(死後)에 심판을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한 영원한 낙원. #4표  
준  
Душамбе #1Dyushambe #2듀샴베 #3‘두샨베(Dushanbe)’의 옛 이름. #4용  
지(Dushanbe와 비교)  
Душанбе #1Dushanbe #2두샨베 #3타지키스탄의 수도. #4편수지명  
(Dushanbe와 비교), 표준  
Зайсан #1Zaisan 호 #2자이산 호 #3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동부, 중국 국  
경 가까이 있는 호수. #4표준  
Иртыш #1Irtysh 강 #2이르티시 강#러시아 서부 옴스크(Omsk) 주 카자흐  
스탄(Kazakhstan) 동북부에 있는 강. #4표준  
Ишим #1Ishim 강 #2이심 강 #3러시아 서부 투멘(Tyumen') 주와 옴스크  
(Omsk) 주 및 카자흐스탄 (Kazakhstan) 중북부를 흐르는 강 #4편수지명,  
용지  
Казаки #1Cossack #2코사크 #3‘카자흐스탄(Kazakhstan)’의 영어 이름. #4  
표준  
Казах #1Kazakh #2카자흐 #3=카자흐스탄(Kazakhstan). #4편수지명, 용지,

표준

- Казахстан #1Kazakhstan #2카자흐스탄 #3카스피 해 동북쪽,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대에 있는 공화국. #4표준, 용례집
- Кара-Богаз-гол #1Kara-Bogaz-Gol 만 #2카라보가스골 만 #3투르크메니스  
탄의 서쪽, 카스피 해 동쪽에 있는 만. #4표준, 보유2
- Караганда #1Karaganda #2카라간다 #3카자흐스탄의 도시. #4편수지명, 용  
지, 표준
- Каракалпак #1Karakalpak #2카라칼파크 #우즈베키스탄에 속하는 자치 공  
화국의 하나. 수도는 누쿠스(Nukus). #4표준
- Каракорум #1Karakoram 고개 #2카라코람 고개 #3중앙아시아 남쪽의 카  
라코람 산맥을 가로지르는 고개. #4표준
- Каракорум #1Karakoram 산맥 #2카라코람 산맥 #3중앙아시아에 있는 산  
맥. #4편수지명, 용지, 표준, 보유2
- Каракум #1Kara Kum 운하 #2카라쿰 운하 #3투르크메니스탄의 카라쿰 사  
막 남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운하. #4표준
- Каракумы #1Kara Kum 사막 #2카라쿰 사막 #3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사  
막. #4표준
- Караханиды #1Karakhan #2카라한 (왕조) #3중앙아시아의 옛 왕조 #4보유  
1
- Каспийское море #1Caspian 해 #2→카스피 해 #3중앙아시아 서부에 있는  
세계 최대의 호수. #4편수지명, 용지, 표준
- Кзыл-Орда #1Kzyl-Orda #2크질오르다 #3카자흐스탄에 있는 도시. #4편  
수지명, 용지
- Кипчаки #1Kipchak #2킵차크(한국) #3중국 원나라 태조의 아들 주치와  
손자 바투가 세운 나라. #4편수지명(Kipchakkhan 비교)
- Кипчакхан #1Kipchakkhan #2킵차크한 #3몽골 제국의 사한국의 하나. #4  
용지(Kipchak 비교)
- Киргиз #1Kirgiz #2키르기스 #3=키르기스스탄(Kirgizstan). #4편수지명, 용  
지, 표준
- Киргизия #1Kirgiziya #2키르기지아 #3=키르기스스탄(Kirgizstan). #4표준
- Коканд #1Kokand #2코칸트 #3우즈베키스탄의 동부에 있는 도시. #4편수  
지명, 용지, 표준
- Красноводск #1Krasnovodsk #2크拉斯노봇스크 #3투르크메니스탄의 도  
시. #4편수지명, 용지, 표준
- Кушка #1Kushka #2쿠슈카 #3투르크메니스탄 동남부의 군사 도시. #4편  
수지명, 용지
- Кызылкум #1Kyzyl Kum 사막 #2키질쿰 사막 #3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과 우즈베키스탄에 걸쳐 있는 사막. #4표준, 보유2
- Кыргызстан #1Kirgizstan #2키르기스스탄 #3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있는

- 공화국. 수도는 비슈케크(Bishkek). #4표준  
Мараканда #1Maracanda #2마라칸다 #3사마르칸트(Samarkand)의 옛 이름.  
#4편수지명, 보유2  
Мараканда #1Marakanda #2마라칸다 #3우즈베키스탄의 옛 도시. #4용지  
Мерв (Мары) #1Merv #2메르프 #3투르크메니스탄의 오아시스 도시. #4편  
수지명, 용지  
Наманган #1Namangan #2나망간 #3우즈베키스탄 동부에 있는 공업 도시.  
#4표준, 보유2  
Новоказалинск #1Novokazalinsk# 2노보카잘린스크 #3카자흐스탄 남부 아  
랄 해 동북쪽에 있는 도시. #4편수지명, 용지  
Нукус #1Nukus #2누쿠스 #3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의 수도. #4표준, 보  
유2  
Павлодар #1Pavlodar #2파블로다르 #3①카자흐스탄의 주. ②파블로다르  
주의 주도. #4편수지명, 용지  
Памир #1Pamir #2파미르 #3중앙아시아 동남쪽에 있는 대산계와 고원으  
로 이루어진 지방. #4편수지명, 용지  
Памир #1Pamir 고원 #2파미르 고원 #3중앙아시아 동남쪽에 있는 고원. #4  
표준  
Первоск #1Perovsk #2페로프스크 #3크질오르다(Kzyl-Orda)의 옛 이름. #4  
편수지명, 용지  
Самарканد #1Samarkand #2사마르칸트 #3우즈베키스탄 동부의 도시 #4편  
수지명, 용지, 표준  
Семёнов-баши #1Semenov 산 #2세메노프 산 #3키르기스탄 북부 키르기  
스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 #4용례집  
Семипалатинск #1Semipalatinsk #2세미팔라틴스크 #3카자흐스탄 동북부  
에 있는 항구 도시.  
СНГ #1CIS #2독립국가연합 #3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번  
역#4회의 3차  
Согдиана #1Sogdiana #2소그디아나 #3중앙아시아의 고대 국가. #4표준,  
보유1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1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2소련 #3국명. #4편수지명, 용지  
ССР #1SSR #2에스에스아르 #3소련을 구성하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  
국. [Soviet Socialist Republic] #4표준  
СССР #1USSR #2유에스에스아르 #3=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4표준  
Сырдарья #1Syr Dar'ya 강 #2시르다리야 강 #3중앙아시아의 텐산 산맥(天  
山山脈) 서쪽에서 시작하여 아랄 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 #4표준, 보유1  
Таджик #1Tadzhik #2타지크 #3아시아 중부 서남부에 있는 공화국. #4편

- 수지명, 용지, 표준, 2005노어  
Таджикистан #1Tadzhikistan #2타지키스탄 #3⇒Tadzhik(타지크). #4표준,  
2005노어  
Такла-Макан #1Taklamakan 사막 #2타클라마칸 사막 #3중국 신장웨이우  
얼(新疆維吾爾) 자치구 남부의 타림 분지 가운데에 있는 사막. #4표준,  
보유1  
Талды-Курган #1Taldy-Kurgan #2탈디쿠르간 #3소련 #4보유2  
Ташкент #1Tashkent #2타슈켄트 #3우즈베키스탄의 수도. #4편수지명, 용  
지, 표준  
Термез #1Termez #2테르메스 #3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리야  
(Surkhandarya) 주의 주도. #4편수지명, 용지  
Тобол #1Tobol 강 #2토볼 강 #3카자흐스탄(Kazakhstan)과 러시아 서부에  
위치한 강. #4용례집  
Туркестан #1Turkistan #2투르키스탄 #3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  
앙아시아 지역. #4표준, 보유1  
Туркмен #1Turkmen #2투르크멘 #3카스피 해(Caspian Sea)에 면한 중앙아  
시아에 있는 나라. #4편수지명, 용지, 표준  
Туркменистан #1Turkmenistan #2투르크메니스탄 #3중앙아시아 서남부,  
카스피 해에 면하여 있는 공화국. 수도는 아슈하바트(Ashkhabad). #4회  
의 3차  
Узбек #1Uzbek #2우즈베크 #3=우즈베키스탄(Uzbekistan). #4표준, 보유1  
Узбекистан #1Uzbekistan #2우즈베키스탄 #3중앙아시아의 공화국. 수도  
는 타슈켄트(Tashkent) #4표준  
Урал #1Ural'나 #2우랄스크 #3①카자흐스탄 서부의 주. ②우랄스크 주의  
주도. #4편수지명, 용지, 표준  
Ургенч #1Urgench #2우르겐치 #3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도시. #4편수지명,  
용지, 표준  
Федченко #1Fedchenko 빙하 #2페드첸코 빙하 #3타지키스탄의 파미르 고  
원 동북부에 있는 빙하. #4표준  
Фергана #1Fergana #2페르가나 #3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 서북부, 시르  
다리야 강 중 상류에 있는 지방. #4표준, 보유1  
Фергана #1Fergana 분지 #2페르가나 분지 #3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 서  
북부, 시르다리야 강 중류에 있는 분지. #4표준  
Фрунзе #1Frunze #2프룬제 #3‘비슈케크(Bishkek)’의 전 이름. #4표준, 보  
유1  
Хан-Тенгри #1Khan-Tengri #2한텐그리 (산) #3중국~소련. 중국어명은 한  
텅거리(汗騰格里) 산 #4보유2  
Хива #1Khiva #2히바 #3우즈베키스탄 서북부의 도시. #4편수지명, 용지  
Ходжент (Худжанд) #1Zhzhent #2호젠티 #3타지키스탄에 있는 도시. #4

표준

Хорезм #1Khorazm #2호라즘 #3중앙아시아, 아무다리야 강 하류 지역. #4 표준

Хорезм #1Khorazm #2호라즘 (왕국) #3중앙아시아 옛 왕국. #4보유1

Хорог #1Khorog #2호로크 #3타지키스탄에 있는 도시. #4편수지명, 용지

Целиноград #1Tselinograd #2첼리노그라드 #3①카자흐(Kazakh) 공화국

북부의 주. ②첼리노그라드 주의 주도. #4편수지명, 용지, 표준

Чагатай #1Chaghatai 한국 #2차가타이한국 #3몽골 제국의 사대(四大) 한국

가운데 1227년에 차가타이가 알말리크(Almalik)를 수도로 하여 세운 나라.

Чимкент (Шымкент) #1Chimkent #2침켄트 #3카자흐스탄 남부의 도시. #4

편수지명, 용지, 표준

Чу #1Chu 강 #2추 강 #3카자흐스탄 중앙을 흐르는 강. #4편수지명, 용지,

표준

Шелковый путь #1Silk Road #2실크로드 #3 #4보유1

Ширамурен #1Shira Müren #2시라무렌 (강) #3중앙아시아 #4보유1

## СВЕДЕНИЯ ОБ АВТОРАХ

\* Корейские имена записаны по принципу русской транскрипции Холодовича-Концевича (1954-1966).

1. **Пэк Тхэхён**, к.и.н., профессор БГУ им. Карасаева,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e-mail: [backt@hanmail.net](mailto:backt@hanmail.net)
2. **Чан Ходжон**, Ph.D.,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hoshi782@daum.net](mailto:hoshi782@daum.net)
3. **Ли Кынджун**, Ph.D., профессор КИМЭП,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kjlee@kimep.kz](mailto:kjlee@kimep.kz)
4. **Ким Иён**, Master,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ГУ им. Коркыт ата, Кызылорда, Казахстан; e-mail: [withyiyeon88@gmail.com](mailto:withyiyeon88@gmail.com)
5. **Пак Нелли Сергеевна**,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knspak@mail.ru](mailto:knspak@mail.ru)  
**Марксова Сымбат Ганмирлановн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marksova.s@mail.ru](mailto:marksova.s@mail.ru)
6. **Мен Дмитрий Вольбонович**, д.и.н.,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mendima@gmail.com](mailto:mendima@gmail.com)
7. **Ормонова Айжаркын Токтосуновна**, аспирант, БГУ им. Карасаева,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e-mail: [moonlight888@bk.ru](mailto:moonlight888@bk.ru)
8. **Жетписов Сакен Николаевич**, к.ф.н., ст.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arnika\\_ltd@mail.ru](mailto:arnika_ltd@mail.ru)
9. **Хан Нелли Чанировна**, Ph.D., ст.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nelly\\_khan@mail.ru](mailto:nelly_khan@mail.ru)
10. **Тен Ирина Ефроновн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БГУ им. Карасаева,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e-mail: [kodjiskype@naver.com](mailto:kodjiskype@naver.com)

11. **Мен Светлана Родионовна**, ст.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корейского и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методики их преподавания, ТПГУ им. Низами,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e-mail: [svetlanamyonr@mail.ru](mailto:svetlanamyonr@mail.ru)
12. **Синдецкая Евгения Олеговн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БГУ им. Карасаева,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e-mail: [evgeniya.1.ms@gmail.com](mailto:evgeniya.1.ms@gmail.com)
13. **Ким Анастасия Сергеевна**, к.ф.н., доцент кафедры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kimas84@list.ru](mailto:kimas84@list.ru)  
**Сакенова Айнур Муратовна**, Master,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языков и перевода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e-mail: [a.m.sakenova@mail.ru](mailto:a.m.sakenova@mail.ru)

집필진

- 필자, 학위, 소속 및 직위, 국적, 전자우편. 이름은 “성 – 명 – (부칭)” 순.
- 외국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кандидат наук 은 Ph.D.로, доктор наук 은 Doctor로 표기.
-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тар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은 ‘강사’로, доцент, профессор 는 ‘교수’로 표기.

1. 백태현, Ph.D.,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 학과장, 대한민국, e-mail: [backt@hanmail.net](mailto:backt@hanmail.net)
2. 장호종, Ph.D.,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교수, 대한민국, e-mail: [hoshi782@daum.net](mailto:hoshi782@daum.net)
3. 이근중, Ph.D., KIMEP 대 경영학과 교수, 대한민국, e-mail: [kjele\\_e@kimep.kz](mailto:kjele_e@kimep.kz)
4. 김이연, 석사, 크질오르다 국립대 파견교원, 대한민국, e-mail: [withyiyeon88@gmail.com](mailto:withyiyeon88@gmail.com)
5. 박 넬리, Dr.,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교수, 카자흐스탄, e-mail: [knspak@mail.ru](mailto:knspak@mail.ru)  
마륵소바 심바트,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강사, 카자흐스탄, e-mail: [marksova.s@mail.ru](mailto:marksova.s@mail.ru)
6. 명 드미트리, Dr.,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 교수, 카자흐스탄, e-mail: [mendima@gmail.com](mailto:mendima@gmail.com)
7. 오르모노바 아이자르킨,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 석사과정, 키르기스스탄, e-mail: [moonlight888@bk.ru](mailto:moonlight888@bk.ru)
8. 젯피소프 사켄, Ph.D.,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강사, e-mail: [arnika\\_ltd@mail.ru](mailto:arnika_ltd@mail.ru)
9. 한 넬리, Ph.D.,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소장, 카자흐스탄, e-mail: [nelly\\_khan@mail.ru](mailto:nelly_khan@mail.ru)
10. 정 아리나, 중앙아시아-한국대 강사, 키르기스스탄, e-mail: [kod\\_jiskype@naver.com](mailto:kod_jiskype@naver.com)

12. 명 스베틀라나, 타슈켄트 국립니자미사범대 한국어문화교육과, 우즈베키스탄, e-mail: [svetlanamyonr@mail.ru](mailto:svetlanamyonr@mail.ru)
13. 신데츠카야 예브게니야,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 강사, 키르기스스탄, e-mail: [evgeniya.1.ms@gmail.com](mailto:evgeniya.1.ms@gmail.com)
14. 김 아나스타샤, Ph.D.,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교수, 카자흐스탄, e-mail: [kimas84@list.ru](mailto:kimas84@list.ru)  
사케노바 아이누르, Master,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강사, 카자흐스탄, e-mail: [a.m.sakenova@mail.ru](mailto:a.m.sakenova@mail.ru)

## СОДЕРЖАНИЕ

\* Статьи и информация об университетах в справочнике дана в алфавитном порядке

<b>1. ПЭК ТХЭХЁН.</b> 키르기스스탄 한국학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	1
<b>2. ЧАН ХОДЖОН.</b>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현황과 전망 .....	26
<b>3. ЛИ КЫНДЖУН.</b> 카자흐스탄 경제시스템과 국가/기업 문화 차이 분석의 국제 경영 .....	42
<b>4. КИМ ИЁН.</b> 해외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통합 피드백의 활용에 대한 논의 .....	52
<b>5. ПАК Н.С., МАРКСОВА С.Г.</b>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72
<b>6. МЕН Д.В.</b>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риски и возможности .....	82
<b>7. ОРМОНОВА А.Т.</b> Цели и задачи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92
<b>8. ЖЕТПИСОВ С.Н.</b> Demography of Korea.....	97
<b>9. ХАН Н.Ч.</b> Социально-статусны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в корейском дискурсе .....	121
<b>10. ТЕН И.Е.</b> Корейский рисовый паровой хлеб (찰떡) в Интерпретаци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	134
<b>11. МЕН С.Р.</b> Графические организеры в об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о теме «동물원에 갔습니다».....	142
<b>12. СИНДЕЦКАЯ Е.О.</b> Обучение языку с учетом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восприятия информации обучаемыми .....	153
<b>13. КИМ А.С., САКЕНОВА А.М.</b> Лексическая интерференция в корейской реч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 казахоязычных учащихся .....	158

## СПРАВОЧНИК

БГУ им. Карасаева,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184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	191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	194
КГУ им. Коркыт ата, Кызылорда, Казахстан .....	203
КРСУ им. Б.Н. Ельцина,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	206
Кыргызско-Корейский колледж, Бишкек, Кыргызстан.....	208
ТГИЯ им. С. Улугзода, Душанбе, Таджикистан .....	215
ТНИМЯ им. Д. Азади, Ашхабад, Туркмения .....	219
ТашГИВ,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22
ТГПУ им. Низами,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227
СамГИИЯ, Самарканд, Узбекистан.....	236
 <b>&lt;참고&gt; 한국어-러시아어 인명 지명의 상호표기 .....</b>	241
<b>СВЕДЕНИЯ ОБ АВТОРАХ .....</b>	251
<b>집필진 .....</b>	253
<b>СОДЕРЖАНИЕ .....</b>	255

**УДК 001 (519.5)  
ББК 72 (5Кор)  
К 66**

**Редакционная коллегия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ук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выпуск 3)»**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Пек Тхехён, к.и.н., профессор Бишкекско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ыргызстан

**Ответственный редактор:** Чан Ходжон, Ph.D., профессор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Члены редакционной коллегии:**

Пак Н.С., д.ф.н., профессор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Хан Н.Ч., к.ф.н., доцент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Сон Ёнхун, Ph.D.,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оставители:**

Ким У.А.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Борантаева Ф.Ж (КазУМОиМЯ, Казахстан)

**К66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ук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Вып. 3. Алматы: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Казахстан.  
2018. 262 с.**

В настоящем сборни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учные работы, посвящённой теме разви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данный сборник также вошли краткие сведения об основ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Казахстана, Кыргызстана, Таджикистана, Туркмени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где ведется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по развитию корееведения.

Издание предназначено для широкого круга читателей, которые интересуются проблемами разви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УДК 001 (519.5)  
ББК 72 (5Кор)**

**ISSN 2522-1434**

**©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2018**

**КАЗАХ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ЕНИ АБЫЛАЙ ХАНА**

**ЦЕНТР КОРЕНЕВЕДЕНИЯ**

**КОРЕНЕВЕДЕНИЕ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УК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ВЫПУСК 3**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КОРЕНЕВЕДОВ**

**Алматы, 2018**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Overseas Leading University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15-OLU-2250007).”